역사자료총서
1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세기 장동壯洞 김문金門의 삶과 문화

Life and Culture of the Jangdong Kim Clan in the Seventeenth Century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역사자료총서 18

『17세기 장동壯洞 김문金門의 삶과 문화』

National Museum of Korea
Historical Resources Series 18

Life and Culture of the Jangdong Kim Clan in the Seventeenth Century

기획 함순섭
편집 이기현, 장은정, 윤지연
논고 이경구, 이기현
원고 이기현
부록 이재영
한문 탈초 최병준, 서정화
한문 번역 서정화, 이기현
영문 번역 박명숙, 필립 마허(Phillip Maher)
교열·교정 (가나다 순) 유새롬, 윤온식, 윤지연, 이기현, 이재영, 조원교
자문 이경구, 김영진
사진 정재우, 김영민, 임영주
사진 협조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문화재청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Tel. 02.2077.9000 Fax. 02.2077.9925
https://www.museum.go.kr

발행일 2018년 12월 24일
북디자인 디자인공방 입소라
인쇄 및 제본 (주)태웅씨앤피
ISBN 978-89-8164-190-0
978-89-8164-054-5 (세트)

비매품

ⓒ2018 국립중앙박물관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 National Museum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일러두기

1. 역사자료총서 18호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세기 장동壯洞 김문金門의 자료를 번역하고 소개하였다. 장동 김문은 신안동 김씨의 서울 문중을 말한다.
2. 수록 작품의 형태를 탑본, 첩, 책, 간찰, 족자로 표기하였는데, 간찰은 낱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이다. 크기는 세로×가로cm이다.
3.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 아닌 자료도 일부 수록하였다.
4. 총서 내 일부 자료는 한국고전종합DB(한국고전번역원)를 참고하여 교감하고 윤문하였다.

목 차

Table of Contents

들어가며 Abstract 4

도입 Introduction

장동 김문 사람들 Members of the Jangdong Kim Clan 8
15-18세기 장동 김문의 성장과 발전 Chronology of the Jangdong Kim Clan 14
장동 김문의 생활 무대 Map of Activities of the Jangdong Kim Clan 18

논고 Articles

17세기 장동 김문의 삶과 학예學藝의 성과 • 이경구 26
Life, Scholarship, and Art of the Jangdong Kim Clan in the Seventeenth Century • Lee Kyungku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세기 장동 김문의 편지 고찰 • 이기현 32
Significance of the Letters of the Jangdong Kim Clan in the Seventeenth Century • Lee Kihyun

도판 Catalogue

I 충절의 상징, 사림 명문가가 되다 44
Representative Family of Loyalty

II 한 장의 종이에 마음을 담아 전하다 74
Letters Written from the Heart
1. 세대를 이은 우정 Friendship over Generations 75
2. 편지에 담은 세상 The World Contained in Letters 129

III 사대부 문화를 선도하다 168
Leaders of Literati Culture

부록 Appendix

도판 목록 List of Catalogue 224
연구 성과 목록 List of Academic Research Related to the Jangdong Kim Clan 230

들어가며

국립중앙박물관의 18번째 역사자료총서는 『17세기 장동壯洞 김문金門의 삶과 문화』이다. 역사자료총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역사 자료를 널리 소개하기 위해 2004년부터 발간해 온 자료집이다. 이번 18호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17세기 장동 김문 관련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한 성과물을 담았다.

장동 김문은 사대부의 주요 덕목인 절의節義, 도학道學, 문장文章을 갖춘 명문가名門家였다. 조선 전기에는 지방 사족士族이 서울로 활발하게 진출하였는데, 장동 김문도 그 중 하나였다. 17세기 장동 김문은 시조始祖의 유적遺蹟과 선영先塋을 정비하고 족보族譜를 편찬하면서 독자적인 가문家門 의식을 형성했다. 이와 동시에 과거 등을 통해 끊임없이 관직에 진출하여 관료 가문의 발판을 만들었다. 이들은 17세기부터 정치계에서 부상하기 시작하여 이후 사대부 문화를 이끌었지만, 19세기에는 세도 가문으로 변질되었다. 이번 자료집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17세기 장동 김문이 조선의 대표 명문가로 자리매김하는 과정, 정치적 부침 속에서도 자신의 사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내면의 고뇌, 이를 문학과 예술로 발전시키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1장에서는 〈김상용순의비 탑본〉을 중심으로 장동 김문이 사림士林 명문가가 되는 과정을 조명하였다. 이와 함께 유명한 학자들과 교유하고 『소학小學』과 학문에 힘쓸 것을 강조하며 가문의 철학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병자호란 시기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분신焚身으로 순절殉節하고 김상헌이 척화론斥和論을 주도하면서 장동 김문은 충절忠節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김상용의 죽음이 처음부터 순절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김상용의 죽음이 실화失火로 인한 것인지 순절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인조仁祖도 순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증언과 김상헌과 자손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결국 순절로 공인받았고, 후손들은 강화도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비석을 세웠다. 이후 사대부들은 강화도에 가게 되면 반드시 〈김상용순의비〉를 방문하였으며, 비석의 탑본을 만들어 감상하기도 했다.

2장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장동 김문의 편지를 소개하며 문집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이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17세기 조선은 정당政黨 간의 사상 대립과 국왕의 환국換局 정치로 정국政局이 급변하였다. 김수증, 김수흥, 김수항[삼수三壽]은 서인西人의 핵심으로서 정국을 이끌었지만, 환국換局으로 권력을 잃었을 때에는 유배지에서 사사賜死되는 등 정치적 부침이 심하였다. 그래서인지 문장으로 이름났던 김수항, 김창협, 김창흡의 문집에는 문학 작품과 정치, 사상과 관련한 글이 대부분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편지는 많지 않다. 이번에 소개하는 편지에는 정치적 시련을 맞아 울분을 토로하는 말, 오랜만에 편지를 받아 즐거워하는 장면, 아픈 자식을 걱정하며 도움을 청하는 모습 등 인간적 면모가 드러난 장면이 풍부하여 그들의 일상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장동 김문이 꽃피운 사대부 문화를 소개하였다. "청요직淸要職에 나가지 말고 학문에 힘쓰라"는 아버지 김수항의 유언에 따라 여섯 아들[육창六昌] 중 맏이인 김창집을 제외한 김창협, 김창흡, 김창업, 김창즙, 김창립은 학문과 문학에 힘썼고 17세기 말-18세기 초 사대부 문화를 이끌었다. 그 바탕에는 절의, 도학, 문장을 대표하는 가문이라는 정신적 자부심이 있었으며, 이는 구성원을 묶어주는 내면의 힘이 되었다. 이러한 성취에는 백증조부伯曾祖父 김상용과 증조부 김상헌 대에서부터 면면하게 이어져 내려온 예술 전통이 큰 자산이 되었다. 3장에서는 충절에 가려져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김상용의 문학과 예술 작품을 시작으로 삼수를 거쳐 육창에 이르는 장동 김문의 문화를 만날 수 있다.

조선 후기 장동 김문은 국제 정세에 대한 빠른 정보와 문물 교류를 통해 기존 세계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문물을 수용했다. 연행은 그들이 새로운 학풍을 전개하고 사회 변화에 적절히 부응하는 원천이 되었다. 하지만 19세기 초 여러 차례의 국혼國婚을 거듭하며 최대의 외척外戚 가문으로 변신하였고, 이전의 탄력적인 태도를 잃고 고식적인 세도가의 길을 걸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장 역사 자료를 대중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역사자료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번역과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NMK) proudly presents *Life and Culture of the Jangdong Kim Clan in the Seventeenth Century*, which is the eighteenth edi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istorical Resources Series. Since being introduced in 2004, with the goal of sharing the museum's historical documents and works with academia and the public, this series has proven to be an essential resource for the ongoing study and exhibition of Korean history. This particular edition features many outstanding achievements in the research and translation of materials from the NMK collection that are related to the activities of the Jangdong Kim Clan during the seventeenth century.

As a sect of the famous Kim clan of Andong, North Gyeongsang Province, the Kim clan of Jangdong has resided in Seoul since the sixteenth century. Despite having little standing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e Jangdong Kim clan rose to great power in the late Joseon period, dominating the governance of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In the late sixteenth century, members of the Andong Kim clan moved to Seoul and established their own village, thus forming the Jangdong Kim clan. At the time, it was not uncommon for powerful literati families from the regional provinces to move to the capital in order to try to advance in the central government. One of the groups who successfully executed this strategy was the Jangdong Kim clan. During the Joseon period, a new ruling class emerged to take political power, led by the "sarim" (士林), a collective of literati scholars who strongly emphasized their strict interpretation of Neo-Confucianist doctrines. The Jangdong Kim clan firmly established its own identity and affiliation with Neo-Confucianism by repairing and re-organizing the graves of their progenitor and ancestors, as well as by publishing their official family genealogy. At the same time, successive generations continuously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thereby earning government posts. In this way, the path was paved for the Kims to become a family with considerable influence within the government.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the Jangdong Kim clan solidified its status as one of the renowned families of Neo-Confucian literati (sarim) due to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1636-1637). During the war, Kim Sangyong died fighting for his country, while Kim Sangheon became the leading proponent of the "anti-appeasement" policy against the newly founded Qing Dynasty of China, arguing in favor of Joseon's allegiance to the Ming Dynasty. Joining forces with the famous scholar Song Siyeol, the descendants of Kim Sangheon became leading figures in Joseon politics, vehemently asserting that Joseon must reject the upstart Qing Dynasty and maintain its loyalty to the Ming Dynasty.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r. 1674-1720), however, the Seoin faction (including the Kim clan) was ousted from politics, and Kim Suhang and Kim Changjip (father and son) were sent into exile, before eventually being put to death. Even so, the Jangdong Kim clan earned a reputation as a hardline family of Neo-Confucian literati (sarim) who fought to uphold the spirit of loyalty and honor by promoting allegiance to the Ming Dynasty.

The Jangdong Kim clan took great pride in representing their integrity, scholarship, and Neo-Confucianist ethics. This pride and spirit became the core of the family legacy, providing a psychological link that united multiple generations of family members. Until the mid-seventeenth century, the Kim clan prioritized government appointments, but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they began to focus more intently on the study of Neo-Confucianism.

From this period forward, the clan began to produce major scholars and writers with an artistic flair, such as Kim Changhyeop and Kim Changheup. By excelling in both art and scholarship, they synthesized the academic tradtion of the Noron faction with the capital culture of Seoul. One of the primary ways in which they advanced their learning and expertise was to travel to China as Joseon envoys. Gaining access to the latest information about international politics and cultural exchanges, they embraced all forms of new culture and technology that did not blatantly violate their prevailing worldview. Through their literary and artistic activities, the Kim clan came to epitomize the ethical and family values of Joseon.

However, by the late eighteenth century, the Jangdong Kim clan had become more conservative, showing disdain for new trends and supporting the status quo. Gradually establishing a strong maternal lineage to the Joseon throne, they edged closer to royal power. Their efforts culminated in the nineteenth century, when they became the primary political mover of the late Joseon period, a time in which a single family could forge a monopoly of power and seize control of national gover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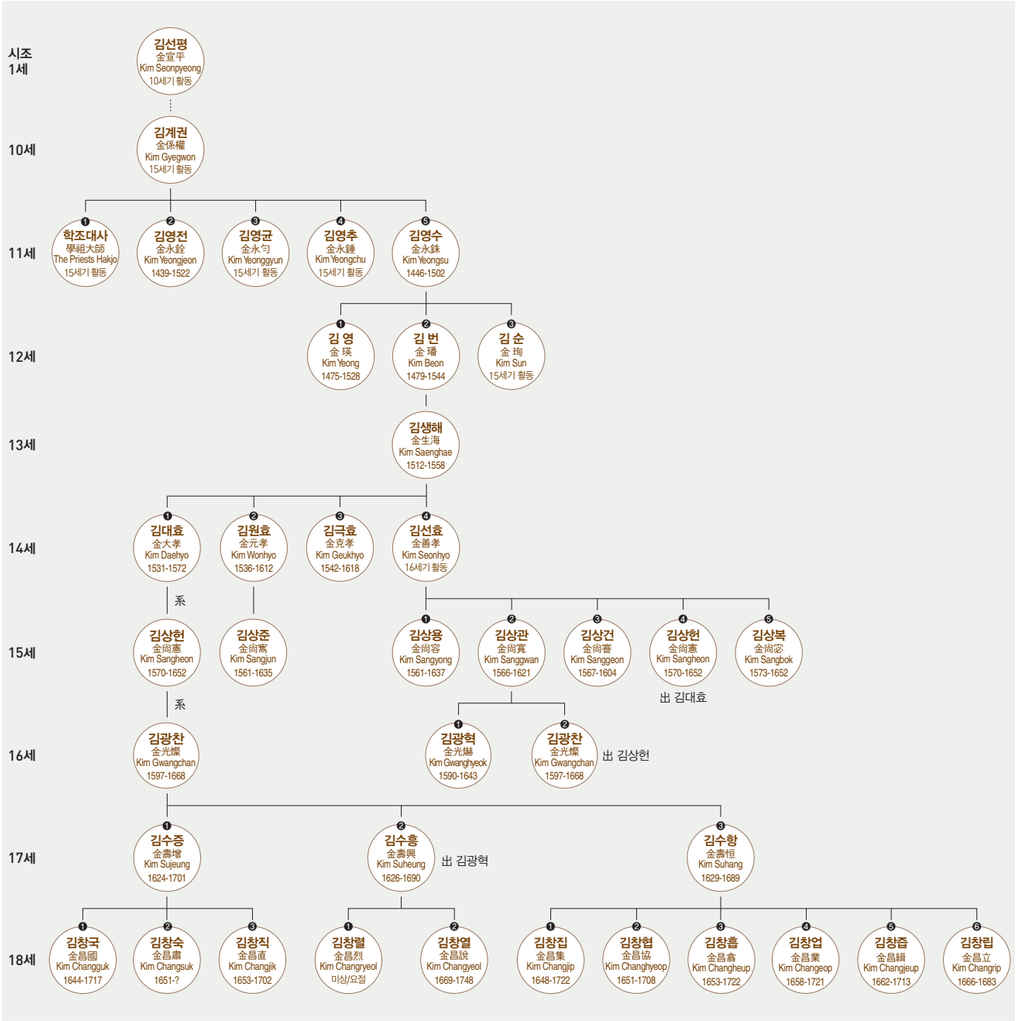
The Historical Resources Series is one of the projects aimed at making historical materials from the museum's collection more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As this volume demonstrates, NMK remains fully committed to studying, translating, and publishing relevant materials from its collection for both scholarly research and public enjoyment.

도 입 Introduction

장동 김문 사람들
Members of the Jangdong Kim Clan

장동壯洞 김문金門의 구성원 중 가문의 기틀을 마련한 김상용과 김상헌, 17-18세기 서울의 문화를 이끈 삼수三壽(김수증, 김수흥, 김수항)와 육창六昌(김창집, 김창협, 김창흡, 김창업, 김창집, 김창립)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가계도



* 이 가계도는 김상용과 김상헌(일부 자손 포함) 형제에 이르는 계통이다. 특히 이 책에 수록한 문헌의 저자 중심으로 작성하였기에 생략됨이 있음을 밝힌다.

김상용 1561-1637
金尙容
Kim Sangyong

김상용의 자는 경택景擇, 호는 선원仙源, 풍계楓溪, 계옹溪翁이다. 선원은 임진왜란 때 피난해 머물던 강화도 선원촌에서 유래한 것이며, 풍계와 계옹은 장동 김문의 서울 세거지인 청풍계에서 취하였다. 1590년(선조 23) 문과에 급제했다. 김상용은 외교와 관련된 실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광해군 때에 모친상으로 관직에 나가지 않아 폐모廢母 논의에 관여하지 않았다. 인조반정 후에도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그는 병자호란 때 강화성이 함락되자 순절殉節했다. 어려서 외할아버지인 정유길鄭惟吉(1515-1588)에게 고문古文과 시詩를 배웠다. 명문가였던 외가의 영향으로 당대 유명한 학자인 이정귀李廷龜, 오윤겸吳允謙, 신흠申欽 등과 교유했다. 김상용은 시와 글씨에 뛰어났으며, 당시 세워진 중요한 비석들에 전서篆書를 썼다. 한글로 「오륜가五倫歌」, 「훈계자손가訓戒子孫歌」 등의 시조를 지어 자손 교육에도 힘썼다.

Kim Sangyong has three pennames: “Seonwon” (仙源), which originates from Seonwon village on Ganghwa Island, where he took refuge during the Imjin War, and “Punggye” (楓溪) and “Gyeong” (溪翁), both of which are related to Cheongpunggye, the Seoul neighborhood where the Jangdong Kim clan lived together. In his youth, Kim Sangyong studied historical writings and poetry under his maternal grandfather Jeong Yugil (鄭惟吉, 1515-1588). Due to the prestige of his mother’s family, he regularly corresponded with some of the most renowned scholars of the time. After passing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1590, Kim Sangyong became an accomplished Joseon diplomat. During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he killed himself after the fall of the fortress of Ganghwa Island, and thus came to be revered as an icon of loyalty.

김상헌 1570-1652
金尙憲
Kim Sangheon

김상헌의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淸陰, 석실산인石室山人, 서간노인西磵老人이다. 석실산인은 경기도 양주의 석실石室에 은거하면서 사용했고, 만년에 안동에 은거할 때 서간노인을 호로 사용했다. 생부生父는 김극효金克孝(1542-1618)이나 3세 때 백부 김대효金大孝(1531-1572)에게 출계出系했다. 1596년(선조 29) 문과에 급제해서 여러 관직을 역임했지만, 1613년(광해군 5) 계축옥사癸丑獄事로 파직당하고 안동으로 이사했다. 인조반정 후 비공신非功臣 세력을 대표하는 청서淸西의 거두로 활약하였다. 그는 병자호란 때 끝까지 청나라와의 화의和議를 거부하다가, 남한산성이 함락되자 인조를 따르지 않고 안동으로 돌아가서 비난받았다. 그러나 청나라 심양瀋陽에 억류되었을 때(1639. 12.-1645. 3.) 끝까지 청의 압력에 불복하여, 국내에서 척화斥和의 상징이 되었다.
김상헌은 문장이 뛰어났으며 서화書畫 감식안이 남달랐다. 김상헌의 취미는 인장과 골동 수집 및 감상으로, 인장을 모아둔 석실을 군옥지소羣玉之所라 이름 붙였다.

Kim Sangheon’s pennames are “Cheongeum” (淸陰) and “Seoksil Sanin” (石室山人), both of which refer to his period of seclusion in Seoksil (in Yangju, Gyeonggi Province), and “Seogan Noin” (西磵老人), which was used when he lived in Andong. He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1596, during the Imjin War. Later, during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Kim Sangheon became a fierce advocate of the anti-appeasement policy against the Qing Dynasty, a stance he firmly maintained even while being detained by the Qing for five years. Returning to Korea, he moved to Seoksil, where he resumed exercising his political influence. In addition to his excellent writing and appreciation of paintings, Kim Sangheon was an avid collector of seals.

김수증 1624-1701
金壽增
Kim Sujeung

김수증의 자는 연지延之, 호는 곡운谷雲이다. 곡운은 강원도 화천 화악산 계곡에 은거하며 붙인 호이다. 김수증은 정치가로 이름을 날린 동생들과 달리 안동安東 김문을 현창顯彰하는 사업과 문화예술 방면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장동 김문에서 은거를 본격적으로 실현한 사람이기도 하다. 1670년(현종 11) 강원도 화악산에 은거할 땅[곡운]을 마련하고, 1675년(숙종 1) 동생 김수항이 송시열과 함께 유배되자 이곳에서 은거했다. 1689년(숙종 15) 동생 김수항이 사사賜死되자, 관직을 그만두고 화악산 깊은 계곡인 화음동華蔭洞에 은거하였다. 그는 서예의 대가로 많은 금석문을 남겼다.

Kim Sujeung's penname is "Gogun" (谷雲), in reference to his period of seclusion in Gogun, Hwacheon-gun, Gangwon Province. Unlike his brothers, who became influential politicians, Kim Sujeung was more interested in art and culture, as well as honoring his ancestors. Among the members of the Jangdong Kim clan, he is the only one who fully committed to a life of seclusion, refusing to participate in political or social affairs. He was an outstanding calligrapher, whose writings were often carved as inscriptions on steles and other objects.

김수흥 1626-1690
金壽興
Kim Suheung

김수흥의 자는 기지起之, 호는 퇴우당退憂堂, 동곽산인東郭散人,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1655년(효종 6) 과거에 급제하였고, 여러 관직을 거쳐 1674년(현종 15) 영의정이 되었다. 1674년 예송논쟁禮訟論諍에서 패하여 춘천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나와 경기도 양주에 은거하였다. 1680년(숙종 6) 서인이 재집권하자 다시 영의정에 올랐으나, 1689년(숙종 15) 남인南人이 재집권하자 경상도 장기長鬐에 유배되어 이듬 해 그곳에서 죽었다.

Kim Suheung's pennames are "Toeudang" (退憂堂) and "Donggwaksanin" (東郭散人). In preparation for the funeral of Queen Inseon (1619-1674), there was a prolonged discussion about the proper length of time that Queen Jangryeol should wear her mourning clothing. During the course of this intense debate, Kim Suheung asserted that the Joseon Dynasty had been founded on the principles of Neo-Confucianism (as embodied by the scholars), rather than on the throne itself. Because of this controversial statement, he was exiled to Chuncheon in 1674, before returning the following year to live in seclusion in Yangju. When the Seoin faction regained power in 1680, Kim Suheung was appointed as Yeonguijeong (Chief State Councilor). In 1689, however, the Namin faction prevailed in the political conflict and ousted the Seoin faction. Kim Suheung was again exiled, this time to Janggi, Gyeongsang Province, where he died the following year.

김수항 1629-1689
金壽恒
Kim Suhang

김수항의 자는 구지久之, 호는 문곡文谷,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651년(효종 2) 문과에 급제를 했다. 효종孝宗(재위 1649-1659), 현종顯宗(재위 1659-1674) 때 여러 관직을 지내고, 1674년(현종 15) 예송논쟁에서 패하여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숙종肅宗(재위 1674-1720) 때 영의정이 되었으나,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재집권하자 전라도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다. 그는 절의節義의 가풍을 계승했고, 노론의 대표인 송시열宋時烈(1607-1689)이 가장 아끼던 후배였다. 뛰어난 문장가이자 서예가이기도 했다. 아들 여섯 형제(창집, 창협, 창흡, 창업, 창즙, 창립)의 교육에서는 주자학을 중심에 두고, 각자의 개성을 적절히 발현시켜 문장과 예술 등에서도 뛰어난 성취를 이루게 했다.

Kim Suhang's penname is "Mungok" (文谷). In preparation for the funeral of Queen Inseon (1619-1674), there was a prolonged discussion about the proper length of time that Queen Jangryeol should wear her mourning clothing. After supporting the losing side in this argument, Kim Suhang chose to retire from his government post in 1674. In 1689, he was exiled after the Namin faction ousted the Seoin faction from the political sphere. While living in exile in Jindo, Jeolla Province, Kim Sunhang was sentenced to death and executed with poison. Carrying on the family tradition, Kim Suhang excelled in writing and calligraphy. All six of his sons were gifted writers and artists who became leading cultural figures of their time.

김창집 1648-1722
金昌集
Kim Changjip

김창집의 자는 여성汝成, 호는 몽와夢窩이다. 그는 숙종 연간 여러 차례 환국을 겪으며 정치적 부침이 있었지만, 영의정까지 지냈다. 경종景宗(재위 1720-1724)에게 연잉군延礽君[후의 영조英祖]을 왕세제王世弟로 세울 것을 건의하여 성사시켰다. 이후 대리청정 문제로 인해 불거진 신임사화辛壬士禍(1721, 경종 1) 때 거제도에 위리안치되었다가 경상도 성주로 이배移配되어 사사되었다. 영조英祖(재위 1724-1776)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을 위해 죽음을 맞이한 노론 4대신(김창집·이이명李頤命·조태채趙泰采·이건명李健命)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시호諡號를 내렸다.

Kim Changjip, whose penname is "Mongwa" (夢窩), experienced many ups and downs in the course of his turbulent political career. Although he rose to the post of Yeonguijeong (Chief State Councilor), he was also part of several factions that were banished from political service. In 1720, King Gyeongjong (景宗, r. 1720-1724) ascended to the throne, but suffered from ill health and failed to produce any sons. Thus, in 1721, at the behest of the Noron faction, Kim Changjip proposed that Prince Geum (the future King Yeongjo) should be specially anointed as the successor to the throne. In 1722, however, the Soron faction ousted the Noron faction, and Kim Changjip was exiled first to Geoje Island, and then to Seongju, Gyeongsang Province, where he eventually perished after being sentenced to death by poison. Upon ascending to the throne, King Yeongjo (英祖, r. 1724-1776) restored the government positions and honorary title.

김창협 1651-1708
金昌協
Kim Changhyeop

김창협의 자는 중화仲和, 호는 농암農巖, 삼주三洲이다. 1682년(숙종 8) 문과에 급제했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아버지 김수항이 사사되자 경기도 영평에 은거하였다. 이때 지명 '응암鷹巖'을 '농암農巖'으로 바꾸고 자신의 호로 삼았는데, "농부가 되어 평생 숨어살면서 다시는 세사世事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삼주는 만년에 농암과 오가며 지냈던 석실서원石室書院 인근의 지명이다. 그는 뛰어난 학자이자 문장가로, 이황李滉과 이이李珥의 성리설을 절충했으며, 조선의 현실에 맞는 고문론古文論을 주장하였다.

Kim Changhyeop's pennames are "Nongam" (農巖), which was the name of the study he built in Yeongpyeong (Gyeonggi Province), where he lived after his father (Kim Suhang) had been sentenced to death, and "Samju" (三洲), which is the name of the area in Yangju (Gyeonggi Province) where he lived in seclusion in his later years. He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1682, before going into seclusion in Yeongpyeong in 1689, after his

father's death. In 1694, when his father's rank and title were restored, Kim Changhyeop was offered various government posts, but he declined them all and dedicated his life to scholarship. He cultivated a school of thought based on an eclectic combination of the theories of Yi Hwang and Yi I. He was also an adept writer, whose works were compiled and published in Collected Works of Kim Changhyeop.

김창흡 1653–1722
金昌翕
Kim Changheup

김창흡의 자는 자익子益, 호는 삼연三淵이다. 아버지, 형과 함께 경기도 영평의 삼부연三釜淵을 유람하고 삼연을 호로 삼았다. 아버지의 명으로 과거에 응시하여 1673년(현종 14) 진사시에 합격한 뒤 대과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도가道家와 불가佛家의 서적을 탐독했으나, 40대 이후에는 주자朱子의 글에서 깨달음을 얻고 유학에 전념하였다.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았다. 1689년(숙종 15) 아버지 김수항이 사사되자 경기도 영평과 강원도에 은거했다. 그는 금강산을 일곱 번이나 다녀올 정도로 산수를 좋아했다.

Kim Changheup's penname is "Samyeon" (三淵), which refers to the name of the area in Yeongpyeong (Gyeonggi Province) where he lived in seclusion in his later years. Although he had little interest in a political career, he took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t his father's insistence. He passed the literary licentiate examination in 1673, but never took any of the higher exams. After initially focusing his reading and beliefs on Taoism and Buddhism, he was inspired by the writings and philosophy of Zhu Xi, and thus devoted himself to Neo-Confucianism in his later life. While both his father (Kim Suhang) and elder brother (Kim Changjip) were major political figures of the time, Kim Changheup had no such ambitions, and thus tried to keep his distance from their political activities. In 1689, after his father was executed by poison, Kim Changheup went into seclusion in Yeongpyeong.

김창업 1658–1721
金昌業
Kim Changeop

김창업의 자는 대유大有, 호는 가재稼齋, 노가재老稼齋이다. 가재는 자신이 은거했던 동교東郊(동대문 밖 전농동 일대, 일명 '송계松溪')의 전장田莊 중 한 건물이다. 1681년(숙종 7)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동교에 은거했다. 1689년(숙종 15) 아버지 김수항이 전라도 진도에서 사사되자 경기도 영평에 은거했다가, 1694년(숙종 20) 다시 한양의 동교로 나왔다. 1712년(숙종 38) 연행정사燕行正使인 형 김창집을 따라 북경에 다녀왔다. 이때 쓴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은 중국의 산천과 풍속, 문물, 대화 등이 상세하게 기록된 가장 뛰어난 연행록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림에 재능이 있었지만 학업에 방해가 될까 걱정하는 아버지의 충고로 그림에 전념하지 않았다.

Kim Changeop's pennames are "Gajae" (稼齋) and "Nogajae" (老稼齋), both of which refer to wells that the Jangdong Kim clan frequented, which were drawn from Ongnyucheon Stream on Mt. Inwang in Seoul. Rather than accepting a government post, however, he instead lived in seclusion in the area of Donggyosonggye (present-day Seongbuk-gu), Seoul. After his father Kim Suhang was exiled and then executed by poison in 1689, Kim Changeop lived in seclusion in Yeongpyeong, Gyeonggi Province, before moving back to Donggyosonggye in 1694. In 1712, he traveled to Beijing with a group of Joseon envoys

led by his brother Kim Changjip. He wrote about this experience in a detailed travelogue, which includes thorough descriptions of the Chinese landscape, culture, and customs, as well as transcripts of conversations that he had there. The book came to be regarded as one of the best records of travel to China ever published in Korea. From a young age, he showed a talent for painting, which he continued to pursue as an adolescent and young man. However, concerned that painting would distract his son from studying, his father advised him to stop painting.

김창즙 1662–1713
金昌緝
Kim Changjeup

김창즙의 자는 경명敬明, 호는 포음圃陰이다. 1864년(숙종 10) 생원시에 합격했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1689년(숙종 15) 아버지 김수항이 전라도 진도에서 사사되자 학문에 전념하고, 1700년(숙종 26) 아버지의 문집을 간행하였다. 그는 뛰어난 문장가였으며 훈고학訓詁學과 성리학性理學에 조예가 깊었다. 중국 역대 기행紀行 시문 중 뛰어난 것만을 모아서 『징회록澄懷錄』을 편찬했다.

Kim Changjeup, whose penname is "Poeum" (圃陰), passed the classics licentiate examination in 1864, enabling him to enter Seonggyungwan (Royal Academy), but chose not to pursue a government post. After his father Kim Suhang was executed by poison in 1689, Kim Changjeup dedicated himself to studying, compiling, and publishing his father's writings in 1700. Having a profound knowledge of Neo-Confucianism and the practice of exegesis (訓詁學, critical interpretation of ancient texts), he became a distinguished author in his own right, with publications such as Jinghoerok (a compilation of Chinese travelogues) and Collected Works of Kim Changjeup.

김창립 1666–1683
金昌立
Kim Changrip

김창립의 자는 탁이卓而, 호는 택재澤齋이다. 택재는 그가 공부하던 서실인 중택재重澤齋에서 가져온 것이다. 김창흡에게 시를 배웠는데, 뛰어난 자질을 보여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으며 낙송루시사洛誦樓詩社를 이끌었다. 1683년 18세가 되던 해 한양에 천연두가 창궐했는데 명성왕후明聖王后(1642-1683)의 장례에 참석했다가 감염되어 사망했고, 이 뜻밖의 죽음은 가족과 주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후 1년 뒤 그의 유고 『택재유타澤齋遺唾』가 간행되었는데, 당대 대표 명사들이 서문을 썼다.

Kim Changrip's penname is "Taekjae" (澤齋), which is taken from the name of his study, "Jungtaekjae" (重澤齋). He showed a great talent in poetry, which he studied under his elder brother, Kim Changheup. Unfortunately, his promising life was cut short in 1683 (when he was just seventeen years old), after he was fatally infected with smallpox while participating in the funeral of Queen Myeongseong (明聖王后, 1642-1683) during a smallpox epidemic. After his sudden death, his family and friends were stricken with grief. One year later, Kim Changrip's writings were compiled and published, with a preface written by some of the most renowned literati scholars of the time.

15-18세기 장동 김문의 성장과 발전

Chronology of the Jangdong Kim Clan

지방 사족士族이었던 장동 김문이 서울에 정착하여 사대부 문화를 이끌어 가는 명문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정치와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한다.

15세기

1 김계권金係權(15세기 활동)
Kim Gyegwon
2 학조대사學祖大師(15세기 활동)
The Priests Hakjo
3 김영수金永銖(1446–1502)
Kim Yeongsu

• 1453년(단종 1) 계유정난癸酉靖難

서울에 진출하다

장동 김문 시조始祖는 고려高麗 태조太祖 왕건王建을 도왔던 개국공신 김선평金宣平(10세기 활동)이다. 그의 후손들은 주로 경상도 안동에 거주하다가, 10세조 **김계권**이 처음으로 지방의 향리직을 넘어 서울의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김계권은 계유정난으로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3등에 녹훈錄勳되고 한성판관漢城判官을 지냈다. 그의 첫째 아들 **학조대사**는 세조世祖(재위 1455-1468) 대에 국사國師로 활약하였다. 셋째 아들 **김영수**는 활쏘기, 바둑, 음악, 서화 등의 예술적 재능을 바탕으로 서울의 사대부들과 두터운 관계를 쌓았다. 김계권이 서울에서 거주한 곳이 한성부 북부 순화방順化坊 장의동藏義洞이었기 때문에, 장동 김문으로 불리게 되었다.

Living in Jangui-dong, Seoul

The progenitor of the Jangdong Kim clan is Kim Seonpyeong, a local aristocrat in Andong during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 During the Goryeo period, the Kim clan mostly remained in Andong, but starting in the fifteenth century with Kim Gyegwon and his descendants, they began living in Seoul.

16세기

1 김영金瑛(1475–1528)
Kim Yeong
2 김번金璠(1479–1544)
Kim Beon
3 김극효金克孝(1542–1618)
Kim Geukhyo

• 1506년(중종 즉위년) 중종 반정
中宗反正

• 1592년(선조 25)–1598년(선조 31)
임진왜란壬辰倭亂

서울에 정착하다

김영수의 아들 **김영**과 **김번**은 과거에 합격하여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였다. 김영은 당대 사림의 지도자인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이현보李賢輔, 김안국金安國, 권벌權橃, 소세양蘇世讓 등과 교유하며, 김종직金宗直의 신원伸冤을 청하는 등 사림의 권위 회복을 주장하였다. 반면 김번은 학조대사의 양자가 되어 막대한 재산을 상속 받고 연회를 열며 서울의 사대부들과 교유했는데 그의 행동은 사림의 비판을 받곤 했다. 그는 경기도사京畿都事, 평양서윤平壤庶尹 등 외직外職을 주로 지냈으며, 장동 김문의 서울 세거世居에 필요한 안정적인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다. 김영은 청풍계淸風溪에, 김번은 장의동(청풍계 동쪽)에 거주했다. 장동 김문 후손들은 김번의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김영의 사림적 성격을 계승하였다. 김번의 손자 **김극효**는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당시 명문가였던 동래東萊 정씨鄭氏인 정유길鄭惟吉(1515-1588)의 사위가 되었다. 김극효는 28세에 백인걸白仁傑, 이황李滉, 조식曹植, 윤두수尹斗壽, 이이李珥, 유성룡柳成龍 등 당대의 명사名士들이 모인 연회에 참석하였다.

Settling in Jangui-dong, Seoul

In Seoul, Kim Gyegwon settled in Jangui-dong, while his grandson Kim Yeong (金瑛, 1475-1528) lived in Cheongpunggye, and Kim Beon (金璠, 1479-1544) also lived in Jangui-dong. Kim Beon's grandson, Kim Geukhyo (金克孝, 1542-1618), became the son-in-law of Jeong Yugil (鄭惟吉, 1515-1588), a famous scholar from a prestigious family. Through this match, members of the Jangdong Kim Clan were introduced to and began to communicate with the renowned scholars of the time.

17세기 전반

1 김상용金尙容(1561–1637)
Kim Sangyong
2 김상헌金尙憲(1570–1652)
Kim Sangheon

청풍계에 터를 잡다

김극효의 장남 **김상용**은 증조할아버지의 큰 형인 김영이 살았던 인왕산 동쪽 기슭의 북쪽인 청풍계를 김영의 손자인 김기보金箕報로부터 1607년 무렵 인수하여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청풍계에 와유암臥遊菴을 짓고 명화名畫와 고적古蹟을 좌우에 나열하고 고아한 정취를 즐겼다. 그는 왕희지체王羲之體와 전서篆書 등 각종 서체書體에도 뛰어났으며, 국가 행사에서 전문서사관篆文書寫官으로 활동했다. **김상헌**도 유명한 문장가였으며 그림 감상에 뛰어났다. 그의 서실에는 항상 명화가 걸려 있었고, 그의 취미는 인장과 골동품 수집이었다.

김상용은 삼강오륜三綱五倫 등 유교의 기본 덕목을 가사로 만들어 교육했다. 부녀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한글로 「오륜가」를 짓는 등 성리학적 질서가 가문 내에서 확립되도록 노력했다. 김상헌은 시조묘始祖廟[삼태사三太師] 중건에서 보듯 시조의 위상 강화와 같은 선조 현창 사업과 지속적인 안동 방문 등으로 안동 김문의 동종同宗 의식의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Settling in Cheongpunggye

In Cheongpunggye (淸風溪), northeast of Mt. Inwang, Kim Sangyong built a home called Wayuam (臥遊菴), where he cultivated a more dignified and decorous lifestyle, displaying his collection of paintings, books, seals, and antiques. In addition to being a renowned writer, he excelled at various styles of calligraphy, including seal script and the style of Wang Xizhi. Moreover, he was an adept connoisseur of paintings, who always had masterpieces displayed in his study.

충절의 가문이 되다

김상용과 김상헌부터 장동 김문은 중앙 정계에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김상용은 인조반정 후 외교에서 활약했다. 그는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하였고, 훗날 절개를 지킨 대표적 인물로 칭송받았다. 김상헌은 병자호란 당시 끝까지 청나라와의 화의를 거부하였고, 뒷날 청나라에 6년간 억류되었을 때에도 청의 압력에 끝까지 복종하지 않았다. 송시열은 김상헌에 대해 "천하의 어지러움이 극도에 달한 시기에 예의로 세상의 도리를 세웠다."라고 극찬하였다.

Representative Family of Loyalty

Beginning with Kim Sangyong and Kim Sangheon, the Jangdong Kim clan rose to prominence within the central government of Joseon. In addition to being an important diplomat, Kim Sangyong took part in the "Restoration of King Injo," a coup in which King Injo (仁祖, r. 1623-1649) overthrew King Gwanghaegun (光海君, r. 1608-1623). During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1636-1637), Kim Sangyong died fighting for his country on Ganghwa Island, and was thus honored as a martyr who exemplified loyalty. Also during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Kim Sangheon firmly advocated the anti-appeasement policy towards the Qing Dynasty, arguing that Joseon must remain loyal to the Ming Dynasty. As a result, he was taken to Qing and detained for five years, yet he still refused to change his stance. The revered scholar Song Siyeol praised Kim Sangheon, saying, "He did the right thing and upheld propriety, even when the chaos of the world was at its peak."

• 1613년(광해군 5) 계축옥사癸丑獄事
• 1623년(인조 즉위년) 인조반정
仁祖反正
• 1627년(인조 5) 정묘호란丁卯胡亂
•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丙子胡亂
• 1659년(현종 즉위년) 1차 예송논쟁
禮訟論諍 [서인 승리]

17세기 후반

1 김수증金壽增(1624–1701) Kim Sujeung
2 김수흥金壽興(1626–1690) Kim Suheung
3 김수항金壽恒(1629–1689) Kim Suhang

명문가로 자리매김하다

김수증, **김수흥**, **김수항**부터 장동 김문은 서인西人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김수흥과 김수항은 송시열, 송준길宋浚吉(1606–1672)과 사우師友 관계를 맺고, 예송논쟁과 여러 차례의 환국을 거치며 서인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이들은 1674년(현종 15) 예송논쟁에서 패하여 유배되었다가, 경신환국 이후에는 10년간 형제가 번갈아 가며 영의정을 지냈지만, 결국 기사환국 때 유배되어 사사되었다. 오직 김수증만이 강원도 화악산에 은거하며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 김수증은 서울 지역 선조 현창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경기도 양주의 석실에 김상용, 김상헌의 묘소라는 상징성을 더하여 석실은 선영先塋을 넘어 장동 김문의 정신을 상징하게 되었다. 여러 차례 정치적 부침을 겪은 김수항은 자손들에게 관료로 출사하기 보다는 학문에 힘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Key Figures in the Seoin Faction

Under King Sukjong (r. 1674-1720), the Joseon political sphere was split between two competing factions: Namin and Seoin. Notably, three brothers from the Jangdong Kim clan—Kim Suhang, Kim Sujeung, and Kim Suheung—rose to become core members of the Seoin faction. In particular, Kim Suheung and Kim Suhang aligned with Song Siyeol and Song Jungil, with the four sharing a close relationship as scholars and key figures in the Seoin faction. Due to the turbulent political environment under King Sukjong, the two Kim brothers experienced many ups and downs, seeing their power rapidly rise and fall as the political factions vied for supremacy. As a result, Kim Suheung and Kim Suhang were first exiled and then executed by poison. Kim Sujeung avoided such punishment since he was living in seclusion on Mt. Hwaak, Gangwon Province.

예단藝壇의 흐름을 주도하다

김수증은 서예의 대가이며 많은 금석문을 남겼다. 그는 우리나라 금석문을 수집하여 『금석총金石叢』을 만들어 탐구하였다. 김수증의 아들 김창숙金昌肅(1651–1673)은 아버지의 예술적 자질을 계승하여, 스스로를 삼고三古[고문古文, 고서古書, 고화古畫를 좋아하는 사람]라 불렀으며, 신라와 고려 이후의 금석을 망라하여 연구했다. 김수증 주변에는 최고의 예인藝人 집단이 있었고 이들은 17세기 조선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김수항은 청풍계 남쪽 마을인 옥류동玉流洞 일대를 사랑하여, 청휘각晴暉閣을 짓고 예술을 즐길 터전을 마련했다. 김수항의 아들 모두 시문과 예술에 뛰어났다.

Major Contributions in Art

Kim Sujeung was a master calligrapher whose writings were often used to make inscriptions for steles and other objects. When making such inscriptions, he was exceptionally meticulous about every detail, thus conveying his craft and artistry. Furthermore, he enjoyed close friendships with many of the finest artists of his era. Kim Suhang loved the area around Ongnyucheon Stream, which is where he built his home Cheonghwigak in 1686, creating his own base for art appreciation. All six of Kim Suhang's sons (Kim Changjip, Kim Changhyeop, Kim Changheup, Kim Changeop, Kim Changjeup, and Kim Changrip) became famous for their literary and artistics talents. Kim Changeop inherited Cheonghwigak.

• 1674년(현종 15) 2차 예송논쟁 [남인 승리]
• 1680년(숙종 6) 경신환국庚申換局 [서인 집권]
•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己巳換局 [남인집권]
•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甲戌換局 [서인집권]

18세기

1 김창집金昌集(1648–1722) Kim Changjip
2 김창협金昌協(1651–1708) Kim Changhyeop
3 김창흡金昌翕(1653–1722) Kim Changheup
4 김창업金昌業(1658–1721) Kim Changeop
5 김창즙金昌緝(1662–1713) Kim Changjeup
6 김창립金昌立(1666–1683) Kim Changrip

새 학파를 일으키고 탕평에 참여하다

김수항의 아들 육창(**창집**·**창협**·**창흡**·**창업**·**창즙**·**창립**) 가운데 김창협, 김창흡, 김창즙은 학문에서 큰 성취를 이루었다. 이들은 이황李滉과 이이李珥의 성리설을 절충했으며, 당대 서울의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노론老論의 서울 학파인 이른바 '낙론洛論'이 형성되었다. 낙론의 일부는 북학사상을 주장하였다. 한편 경종 대에 일어난 신임옥사로 김창집, 김제겸金濟謙(1680–1722), 김성행金省行(1696–1722)을 비롯한 장동 김문의 핵심 인물들이 사망했다. 영조 즉위 이후 장동 김문은 신임옥사 당시 자신들의 행동이 의리義理에 기반했음을 밝힐 것을 영조에게 요구하였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며 다시 관직에 출사하기 시작하였다.

Upholding Neo-Confucianist Principles

Starting in 1704, the Jangdong Kim clan returned to the forefront of the Joseon government. At the time, Kim Changhyeop, Kim Changheup, and Kim Changeop were renowned scholars representing the school in Seoul. They were also accomplished in philosophy, promoting an innovative combination of Neo-Confucianist theories and ideas based on the works of Yi Hwang and Yi I. In 1720, King Gyeongjong (景宗, r. 1720-1724) ascended to the throne, but suffered from ill health and failed to produce any sons. Thus, in 1721, at the behest of the Noron faction, Kim Changjip proposed that Prince Geum (the future King Yeongjo) should be specially anointed as the successor to the throne. However, this proposal ultimately led to the expulsion of the Noron faction (at the hands of the Soron faction), as well as the deaths of several prominent members of the Jangdong Kim clan. Upon ascending to the throne, King Yeongjo (r. 1724-1776) declared that the Noron officials had acted out of loyalty to the nation.

서울의 문화를 선도하다

특히 김창협과 김창흡은 조선 후기 문화를 선도하였다고 할 만큼 그 위상이 높았다. 김창협은 조선의 현실에 맞는 고문론古文論을 주장하며 당唐·송宋의 문장을 배우고자 했고, 김창흡은 진정성眞情性과 사실성事實性을 추구하며 솔직한 감정이 드러난 시를 지어 새로운 시풍詩風을 이끌었다. 김창업은 최고의 연행 문학인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를 남겼으며 그림에도 재능이 있었지만 회화에 뜻을 두지 말라는 아버지의 명 때문에 전하는 작품이 많지 않다. 김상헌 이래 장동 김문의 인사들은 중국 문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중국 문인들과 어울려 시문을 교류했다.

Leading the Late Joseon Culture

Kim Suhang's six sons became renowned for their achievements in the fields of politics, philosophy, literature, and art. In particular, Kim Changhyeop and Kim Changheup emerged as leading cultural figures of the late Joseon period. Emphasizing the need to learn from antiquity, Kim Changhyeop promoted literary theory and the study of literature from China's Tang and Song dynasties. Meanwhile, Kim Changheup led an important movement in poetry that involved the direct expression of one's honest feelings in the moment. As such, the Kim brothers were true catalysts who helped to define the style of eighteenth-century Korean poetry.

• 1708년(숙종 34) 대동법大同法 전국 시행
• 1712년(숙종 38) 김창집, 김창업 연행燕行
• 1721년(경종 1) 신임옥사辛壬獄事
• 1725년(영조 즉위년) 탕평책蕩平策 실시
• 1750년(영조 26) 균역법均役法 실시

장동 김문의 생활 무대

Map of Activities of the Jangdong Kim C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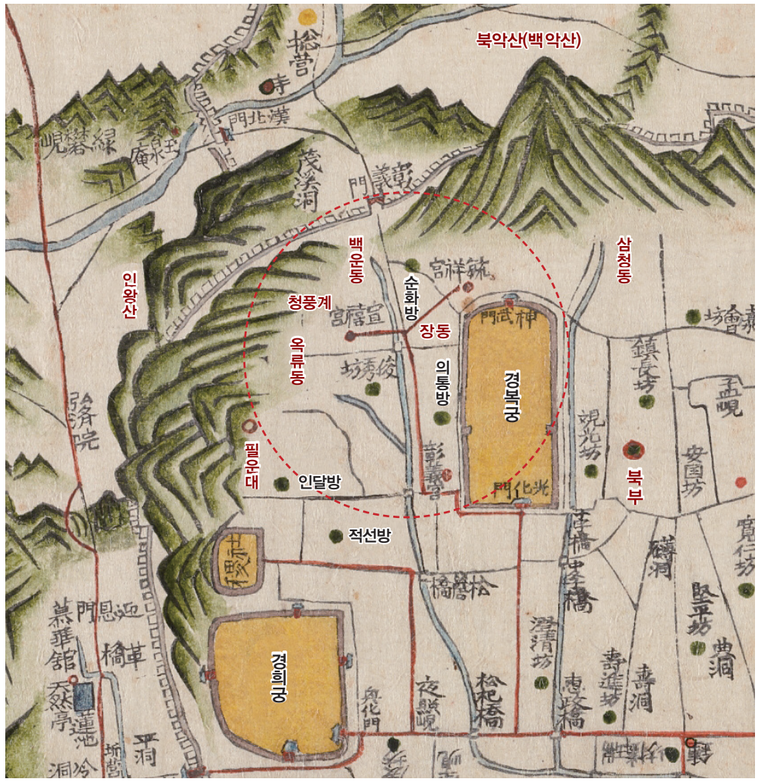
조선 후기 경화세족京華世族의 생활 무대는 서울의 세거지와 지방의 은거지로 나눌 수 있다. 장동 김문의 서울 세거지는 장동과 청풍계로 이곳에서 사대부들과 교유하며 문화를 꽃피웠다. 장동 김문의 대표적 은거지 경기도 양주의 석실서원에서는 김창협과 김창흡이 서울지역 노론 학자를 길러냈고, 창협의 손자 원행이 이어받아 뛰어난 학자들을 배출하였다. 석실서원에서 좀 떨어진 석실은 선영先塋이 있는 곳으로 이 가문의 정신적 구심이 되었다. 한편 정치적 부침을 피하거나 학문에 힘을 쏟기 위해 경기도 영평, 강원도 화천, 화악산, 설악산 등에 은거하기도 하였다. 특히 김창업은 서울 근교인 동교東郊에 은거하여 '도시의 은자'처럼 살았다.

서울 장동과 청풍계

Jangdong and Cheongpunggye Seoul

장의동[藏義洞·莊義洞]의 약칭인 장동은 북악산[일명 백악산] 아래 지금의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경복고등학교 남쪽 일대 마을이며,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북부의 순화방順化坊에 속했다. 청풍계는 장동의 서쪽인 인왕산 자락에 위치했다. 북악산에서 시작하여 인왕산과 필운대에 이르고, 삼청동과 인접하고 백운동, 청풍계, 옥류동 등의 명승이 있는 이 지역은 장동 김문의 중심 생활공간이었다. 19세기 후반에는 경복궁 서쪽과 인왕산 사이의 여러 마을을 크게 장동이라 불렀다.

〈도성도〉, 《대동여지도》



〈도성도〉 세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조선 1861년, 절첩본, 목판 인쇄 후 채색, 각 면 30.5×20.0cm, 신수19997

경기도 양주 석실서원

Seoksilseowon Yang Ju, Gyeonggi Province

김상용과 김상헌의 충절과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양주楊州의 석실서원石室書院[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일대]은 장동 김문의 정신적 구심점이었다. 김창협과 김창흡이 석실서원에서 강학講學을 시작하여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시작했으며, 손자 김원행金元行(1702-1772)이 이어받아 뛰어난 학자들을 배출하였다. 이들은 중앙 정계에서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했으며, 실용적 학풍에 국제적 감각을 더하여 조선의 학술과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갔다.

〈경기도 양주목〉, 《광여도》

〈경기도 양주목〉 세부, 《광여도廣輿圖》, 조선 18세기, 첩, 종이에 채색, 36.8×28.6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기도 영평 백운산과 농암

Mt. Baegun and Nongam
Yeongpyeong, Gyeonggi Province

영평永平[현재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일대에 있었던 고을 이름]은 조선시대 서울에서 출발하여 경기도 북부·강원도 금강산을 지나 함경도와 북방으로 가는 경흥대로慶興大路에 위치한 상업 요충지로 물산이 풍부했으며, 왕실의 사냥터와 군사 훈련장도 있었다. 서울과 가까워 왕실과 사대부들의 사패지賜牌地가 많았으며, 경관이 아름답고 풍수가 좋아서 왕실과 사대부들의 묘소가 많았다. 김수항이 영평의 백운산白雲山에 자리잡으며 장동 김문의 영평 생활이 시작되었고, 아들 육창 형제가 종종 내왕하였다. 김창협은 아버지 김수항이 사사되자 세상에 나오지 않고 영평의 농암農巖과 경기도 양주를 오가며 지냈다.

〈동국대지도〉 세부, 조선 18세기, 족자, 비단에 색, 272.7×147.5cm, 보물 제1538호, 덕수4396

강원도 화악산과 설악산

Mt. Hwaak and Mt. Seorak,
Gangwon Provi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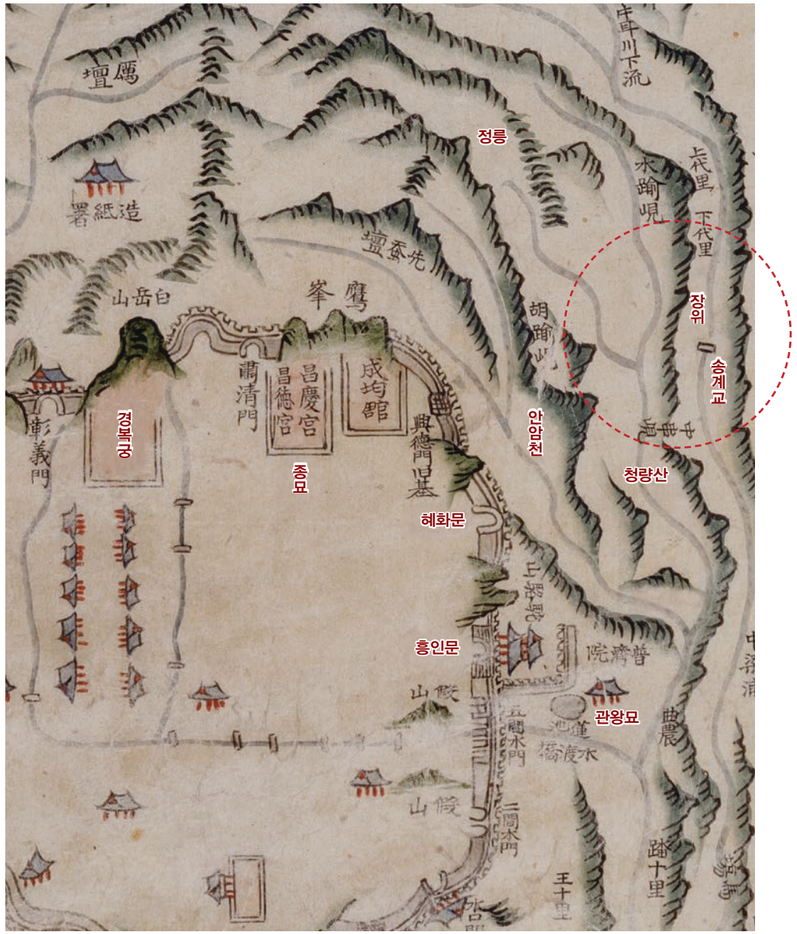
산수를 좋아하고 세속世俗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김수증이 강원도 화악산華嶽山 계곡에 농수정사籠水精舍를 지으며 장동 김문의 강원도 은거지가 형성되었다. 김수증은 주자朱子의 운곡雲谷을 본 따 그 지역을 곡운谷雲이라 불렀고, 곡운구곡谷雲九曲을 경영하면서 조카 김창흡과 함께 학문을 논하고 글을 지었다. 동생 김수항이 사사되고 김수흥이 유배되자, 화악산 깊은 계곡인 화음동華陰洞에 은둔했다. 만년에 김창흡은 강원도 곡운, 화음동, 설악산 등을 오가며 지냈다.

서울 근교 동교송계

Donggyosonggye
Seoul

김창업은 서울 근교의 동교東郊에 은거하였다. 동교는 서울 동쪽 지금의 성북구 장위동 일대를 말한다. 김창업은 이곳에서 주자를 따라 사창社倉을 세우고, 때로 촌로들과 어울리거나 거문고를 타고 시와 사냥을 즐겼다고 한다. 경종 대에 신임사화(1721-1722)로 집안이 몰락하자 김창업이 이곳에서 나라의 금경지禁畊地를 멋대로 점유하고 개간했다는 비난이 일어 한때 몰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영조 대에 다시 회복되었다.

〈도성도〉, 《광여도》



〈도성도〉 세부, 《광여도廣輿圖》, 조선 18세기, 첩, 종이에 채색, 36.8×28.6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백운동〉 세부, 《장동팔경첩》, 정선鄭敾, 조선 18세기, 첩, 종이에 엷은 색, 각 면 33.1×29.5cm

논고

Articles

1

17세기 장동 김문의
삶과 학예學藝의 성과

Life, Scholarship, and Art of the
Jangdong Kim Clan in the Seventeenth Century

이경구 Lee Kyungku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세기 장동 김문의 편지 고찰

Significance of the Letters of the Jangdong Kim Clan
in the Seventeenth Century

이기현 Lee Kihyun

17세기 장동 김문의 삶과 학예學藝의 성과

Life, Scholarship, and Art of the Jangdong Kim Clan in the Seventeenth Century

이경구 Lee Kyungku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 교수

장동 김문은 신안동 김씨[1]의 서울 문중을 말한다. 경복궁에서 인왕산 사이 이른바 장동壯洞, 청풍계淸風溪 등지에 세거하였기 때문에 '장동 김문'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들은 15세기에 서울에 정착하기 시작하여 17세기경에 이름난 가문으로 발돋움했다. 이후 몇 차례 부침을 겪었지만 저명한 정치가, 학자, 문인을 다수 배출하여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사대부 명문이 되었다. 그리고 1802년 순조와 순원왕후(김조순의 딸)의 국혼國婚을 계기로 세도정치의 주역이 되었다.

장동 김문은 17세기 전반기 김상용金尙容, 김상헌金尙憲 형제가 가문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이른바 '삼수三壽', '육창六昌'이 등장해 대단한 명성을 얻었다. 삼수는 김상헌의 손자 김수증金壽增, 김수홍金壽興, 김수항金壽恒 형제이고, 육창은 김수항의 아들 김창집金昌集, 김창협金昌協, 김창흡金昌翕, 김창업金昌業, 김창즙金昌緝, 김창립金昌立 형제이다. 이들은 17세기 중후반 서인-노론으로 이어지는 정파의 핵심이었다. 정치 뿐만 아니라 학문과 문예文藝 방면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훗날 최대의 세도가문이 된 데에는 이들의 후광이 직접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17세기 장동 김문이 배출한 인물들의 삶, 정치·학문·예술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간략히 소개한다.

1 김상용·김상헌 형제의 삶과 충절

선원仙源 김상용과 청음淸陰 김상헌 형제는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서인을 대표하는 학자였던 성혼成渾(1535-1598)과 문장가로 이름난 윤근수尹根壽(1537-1616)에게 배웠고, 1590년(선조 23)과 1596년(선조 29)에 각각 문과에 급제하였다. 관직은 비교적 순탄했으나, 광해군 중반 이후 대북大北의 독주가 두드러지자 정계에서 물러나서 은거하였다. 인조반정 때는 모친상 기간이었으므로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곧 정계에 복귀했고 서인의 중진으로 활약했다. 김상용은 반정을 주도한 공신계와 공감하며 외교 분야에서 활약했다. 김상헌은 공신계를 견제하는 이른바 청서淸西의 핵심으로 활동하였다.

1 안동 김씨는 구안동 김씨(신라 경순왕의 손자 김숙승의 후손)와 신안동 김씨(고려 건국공신 김선평의 후손) 두 본관이 있다. 두 본관은 시조가 다르다.

형제의 명성이 불후不朽해진 계기는 병자호란 때의 행적 때문이었다. 김상용은 청나라 군대가 침입하자 종실 등과 함께 강화도로 피난하였다. 1637년(인조 15) 1월에 청나라 군대가 강화도를 함락할 때 도성의 남문 누각에서 화약을 터뜨려 폭사爆死하였다. 그의 장렬한 죽음은 바로 순절로 공인되었고, 그는 삼학사三學士와 더불어 병자호란을 대표하는 순절자가 되었다.

김상헌이 병자호란 전후에 척화파를 이끌었던 사실은 유명하다. 척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자결을 시도하기도 했고, 남한산성이 함락된 후에는 안동에 은거하였다. 4년 후에는 반청反淸 언론의 주도자로 지목되어 청나라에 끌려가 심양에 유폐되었다. 유폐 기간에 강직하게 처신하여 청나라 관인들에게도 감탄을 샀다. 1645년에 귀국하자 조야에서 칭송이 쏟아졌고, 효종이 즉위한 후에는 대로大老로 추앙받았다. 이 시기에 김집金集-송시열宋時烈 등과 함께 산당山黨 결성을 주도하였다.

김상용, 김상헌 형제는 서예와 문장에서 빼어났다. 김상용은 각종 서체에 능해 일세에 이름을 날렸다. 그의 아들 김광현金光炫, 증손 김성우金盛遇 등도 전서篆書에 능해 서예의 명가를 이었다. 김상헌은 문장에 뛰어났다. 그의 스승이었던 윤근수는 조선에서 새로운 문장 운동 이른바 고문古文 운동을 주도했는데, 김상헌도 그 주역 가운데 하나였다. 김상헌은 자제들에게 우리나라 시부詩賦의 품격이 낮아진 것은 과거문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과거 공부와 더불어 고문에도 집중하게 하였다. 고문을 가문의 전통으로 정착시킨 것이다. 한편 김상용 형제는 그림 수집과 감상, 골동 감상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특히 김상헌은 인장 수집과 감상에 벽癖이 있다고 할 정도로 조예가 깊었다.

김상용, 김상헌 형제는 가문의 질서를 세우고 제반 토대를 갖추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상용은 청풍계, 현 종로구 청운동에 별업別業을 조성했다. 인왕산 자락에 자리잡은 청풍계는 절경으로 소문난 곳으로, 형제의 백증조부였던 김영金瑛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했다. 김상용은 1608년(선조 41) 와유암臥遊菴, 청풍각淸風閣, 태고정太古亭 등을 지어 명소로 조성하였다. 이후 그의 후손들이 거주하였고 종회宗會 장소로도 이용되는 등 가문의 중심지로 기능했다. 훗날 1708년(숙종 34)에는 김상용의 충절을 상징하는 건물 늠연사凜然祠가 건립되었고 정조正祖(재위 1776-1800)를 비롯한 많은 명사, 문인들이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다. 김상헌은 백악산 아래 장동에 살았다. 그의 거처는 무속헌無俗軒, 현 종로구 궁정동 육상궁 남쪽이었다. 김상헌은 시조 김선평의 사적을 정리하고, 서울 가문의 선영이 있던 석실石室, 현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사당을 증축하고, 제향 의절을 정비하고, 여러 지파를 결집하는 등 본관 전체와 장동 김씨의 가문 질서를 본격적으로 정립했다.

2 삼수三壽의 시대, 서인-노론의 중심에 서다

삼수는 김상헌의 손자 김수증, 김수홍, 김수항 형제를 이른다.[2] 이들 세대에 장동 김문은 서인-노론으로 이어지는 정파의 중심이 되었다. 퇴우당退憂堂 김수홍과 문곡文谷 김수항은 문과 급제 후 관직에 올라 영의정까지 지냈다. 장남인 곡운谷雲 김수증은 주로 지방관을 지냈고, 가문을 경영하거나 지방에 은거하였다. 출사와 은거는 붕당 정치가 치열해지고 정국이 일진일퇴一進一退하는 데 따른 삶의 두 유형이었다.

2 김상헌은 광찬을 양자로 삼았고 광찬의 아들이 수증, 수흥, 수항이다.

김수흥은 재정에 밝고 조정에 주력한 실무형 관료였다. 붕당에 대해서도 엄격한 분별론과 거리를 두었다. 김상헌의 손자였지만 이념적 지향이 뚜렷하지 않았으므로 젊은 서인 유생들에게 비난받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노선이었지만,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자 설 자리를 잃었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경상도 장기에 유배되었고 이듬해에 그곳에서 사망했다.

김수항은 더 적극적으로 붕당 정치의 전면에서 활약했다. 김수항은 특히 송시열과 깊은 유대를 맺고 활동했다. 현종 대에는 대체적으로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분위기였으므로 두 사람의 유대는 뚜렷이 부각되지 않았다. 그런데 숙종 즉위 후 갑인예송甲寅禮訟에 대해 송시열의 잘못을 지적하고 서인을 정계에서 축출하자, 이 때 김수항이 윤휴尹鑴를 비판했고 숙종의 노여움을 사 전라도 영암에 귀양갔다. 이 일에 대해 송시열은 '김수항은 세도를 받드는 기둥'이라고 칭찬하였다. 1680년(숙종 6) 경신환국庚申換局 이후 김수항은 정계에 복귀하여 영의정이 되었다. 이후 김수항과 송시열은 '김익훈金益勳 고변사건', '회니시비懷尼是非' 등에서 보조를 맞추었다. 대개 김수항은 처음에는 노·소론의 분열을 막고자 보합에 힘썼지만, 문제가 사문斯文의 시비나 의리 등의 문제로 번지면 송시열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결론적으로 두 사람은 정계와 학계에서 노론의 결집을 주도한 셈이 되었다. 김수항은 기사환국으로 전라도 진도에 유배되었고 곧 사사되었다. 죽을 때에는 "청요직에 들지 말라"는 유언을 남겨 그의 아들들은 일정한 기간 요직을 피하거나 아예 정계에 발을 끊었다.

김수증은 종손으로 가문을 주로 경영했고, 과거는 생원시 합격에 그쳤다. 40대 이후에는 주로 강원도에서 은거하였다. 일찍이 강원도 낭천현 화천의 사탄[훗날 '곡운'으로 개칭]을 탐방하였는데 갑인예송(1674)으로 아우들이 정계에서 물러나자 1675년(숙종 1)에 그곳에 들어가 이른바 '곡운구곡谷雲九曲'을 경영하였다. 1차 은거는 1681년까지 7년에 걸쳤다. 이후 선영이 있는 석실 및 서울과 안동을 오가며 생활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김수흥이 유배지에서 사망하고 김수항이 사사되자 2차 은거에 들어갔다. 이때는 곡운보다 더 깊숙한 화음동華陰洞으로 들어갔다. 갑술환국甲戌換局(1694, 숙종 20)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한 후에도 계속 은거하였고 1701년에 서울 장동에서 하직하였다.

김수증 형제는 학문, 문장, 예술 부문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남겼다. 비록 성리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저술을 남기지 않았지만 송시열의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 간행에 조력자로 참여하였다. 송시열은 주자의 저술을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 이 작업을 시작했고, 훗날 서인-노론계 학자들은 그의 취지를 계승하며 주자학 정리에 힘을 기울였다. 김수증 형제가 이 작업에 참여한 사실은 이이에서 송시열로 이어지는 서인 학문의 중심에 자리잡았음을 의미했다. 훗날 송시열은 『주자대전차의』의 완성을 수제자인 권상하 및 김수항의 아들 김창협에게도 부탁하여 자신의 적전嫡傳임을 공인하였다. 한편 김수증은 서예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특히 팔분체八分體에 뛰어나 〈석실서원묘정비石室書院廟庭碑〉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김수항도 김상헌을 이어 고문에 뛰어났다.

가문이 더욱 성세하여 장동 일대에 명소를 크게 늘렸는데, 김수흥이 백악산[현 북악산] 계곡에 세운 독락정獨樂亭이 유명했다. 김수항은 세심대 인근의 옥류동에 별업을 조성했다. 별업에는 육청헌六靑軒, 청휘각晴暉閣 등이 있었다. 동대문 밖 동교東郊, 현 전농동 일대에도 전장을 소유하였다. 선영이 있는 석실도 한층 정비되었다. 김수증은 석실의 중심 건물로 도산정사陶山精舍를 세우고, 김상용·김상헌 형제의 척화의리를 상징하는 비석 등을 세웠다.

가장 인상적인 공간은 김수증이 은거한 곡운과 화음동이다. 김수증이 자신이 은거한 곡운구곡에 곡운정사谷雲精舍, 농수정籠水亭 등을 지었다. 또 화가 조세걸曹世傑(1636-1705 이후)과 함께 구곡을 낱낱이 답사하고 실경에 기초한 《곡운구곡도첩谷雲九曲圖帖》을 제작하였다. 이 그림은 이른바 '진경산수'의 선구격인 작품으로 조선 회화의 한 전기가 되었다. 2차 은거지인 화음동에는 료엄류정聊淹留亭, 부지암不知菴, 삼일정三一亭, 무명와無名窩 등 성리학과 도교, 불교가 융합된 공간을 조성하여 조선 후기 은자 문화의 전범을 제시하였다.

3 육창六昌, 서울의 학문과 예술을 주도하다

1) 육창의 생애

장동 김문의 학문과 예술은 김수항의 아들들인 육창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육창의 맏이는 몽와夢窩 김창집이다. 1684년(숙종 10)에 문과에 급제했으나 "청요직에 오르지 말라"는 부친의 유언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출사하지 않았고 간혹 지방관을 지내는 정도였다. 1701년 50대 초반에 호조판서가 되어 비로소 정계 중심에 진출했다. 1716년에 벌어진 '『가례원류家禮源流』 논쟁'에서 노론의 여론을 이끌었고 1717년에 영의정에 올랐다. 경종이 즉위한 후에는 이른바 '노론사대신老論四大臣'의 대표자로 연잉군[영조]의 왕세제 책봉을 주도하였다. 이어 대리청정까지 추진하였지만 1721년(경종 1) 신축환국辛丑換局으로 유배되었고 이듬해 일어난 임인옥사壬寅獄事로 사사당하였다. 이 때 아들 김제겸과 손자 김성행도 함께 죽임을 당했다. 말년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이 도륙당하는 비운을 맞았지만, 정조 대에는 영조 즉위의 공로자로 인정받아 영조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게다가 19세기 세도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그의 가계에서 나왔으므로 그의 정계 영향력은 오히려 사후에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농암農巖 김창협은 어릴 때부터 재사才士로 알려졌다. 24세에 송시열을 만났는데, 송시열은 그를 두고 "서인의 영수가 되리라"고 탄복했다. 1682년(숙종 8)에 문과에 급제하여 서인의 신진 기수로 명성을 날렸고 대사성까지 올랐다. 그러나 기사환국으로 부친 김수항이 사사되자 다시는 관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경기도 농암에 은거했다가 남양주 미호渼湖에 거처를 정하고 석실서원石室書院(현 경기도 미금시)에서 아우 김창흡과 함께 강회講會하였고 많은 문인을 양성하였다. 1700년에 아들 김숭겸이 죽자 동교에 은거했다가 석실서원으로 돌아와 운명하였다. 그는 장동 김문이 배출한 최고의 학자이자 문장가였다. 그와 아우 김창흡의 학문은 이른바 '농연가학農淵家學'으로 국내외에 불렸고, 문인들은 서울의 노론 학파 이른바 '낙론洛論'을 형성하였다.

삼연三淵 김창흡은 학자이자 시인이었다. 21세에 진사에 급제한 후 과거를 단념하였고 평생 처사로 살았다. 학문도 주자학 일변도가 아니었다. 청년 시절에는 제자백가, 도교, 고금의 시에 심취하였다. 부친이 죽은 후에는 불교에 심취하기도 했다. 금강산을 수차례 오르는 등 조선 곳곳을 기행하였고, 은거한 곳도 다수였는데 철원의 삼부연, 설악산의 영시암과 오세암, 경기도의 벽계 등지가 유명하다. 성리학에 전념한 것은 40대에 접어들어서였다. 둘째 형 김창협과 함께 석실서원에서 문인을 양성하기도 했다. 숙종 후반기에 김창집에 정계에 진출하자 소론과 사문시비斯文是非를 촉발하여 정치 논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또 김창협이 죽은 뒤에는 문인들 사이에 일어난 성리性理 논쟁을 정리하여 낙론의 종지를 세웠다.

노가재老稼齋 김창업 또한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였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으나, 부친의 엄명으로 화가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그의 예인藝人 기질은 화목花木 취미에서도 잘 드러났다. 일찍부터 동대문 밖 동교에 은거하여 화목을 가꾸고 전장을 일궜다. 부친이 죽

은 후에는 경기도 영평에서 농사를 짓기도 했다. 갑술환국으로 정국이 바뀌자 다시 동교에 들어가 세상사에 신경을 끊었다. 1782년(숙종 38)에 맏형 김창집을 따라 연행하고, 연행록의 걸작으로 꼽히는 이른바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를 저술하여, 청나라의 문물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소개하였다. 교외로 나가 떠돌았던 김창흡과 달리 그는 성시 인근에서 세상을 달관하였던 '시은市隱'이었다 할 수 있다.

포음圃陰 김창즙은 조용히 주자학에 몰두한 선비였다. 부친의 유문을 모아 문집으로 편찬하였고, 이후 모친을 모시고 서울, 강화도, 경기도 광주 등지를 오가며 우거하였다. 그의 경학은 때로는 형들보다 나았다고 한다.

막내 택재澤齋 김창립(1666-1684)은 어려서는 형들에게 배우고, 커서는 기질이 잘 맞았던 김창흡에게 시를 배웠다. 서울 낙송루洛誦樓 옆에 중택재重澤齋를 짓고 낙송루시사洛誦樓詩社를 주도했으나 20세가 못 되어 요절하였다.

2) 낙론의 형성과 문예 방면에서의 성취

김창협과 김창흡은 이이에서 송시열로 이어지는 학통을 계승하고 18세기 서울의 노론 학파인 낙론洛論을 세우게 되었다. 김창협은 송시열에게 여러 차례 지도받았고, 송시열이 권상하와 그를 적전嫡傳으로 지목한 사실은 위에 서술하였다. 김창흡은 특정한 사문에 구애받지는 않았으나 송시열을 존숭했음은 물론이었다. 김창협과 김창흡의 또 다른 학문 원천은 서울이었다. 김창협 형제는 김창협의 장인이기도 했던 이단상李端相에게 배웠다. 이단상은 상수학象數學에 정통했다. 또 남산에 살던 처사 조성기趙聖期에게도 크게 영향받았다. 조성기는 성리설에서 이황과 이이를 비판적으로 종합하려 했고, 이 점은 형제가 훗날 낙론의 종지를 세우는 데 큰 자양분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김창협·김창흡 형제는 서인-노론의 학문을 계승하면서, 이이 성리설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수학과 박학博學의 학풍을 겸비한 것이 특징이었다.

한편 그들이 석실서원에서 길러낸 문인들은 훗날 낙론을 형성하였다. 낙론과 충청도의 노론 학파인 호론湖論이 조선 후기 최대의 성리논쟁이었던 호락논쟁을 전개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석실서원은 임인옥사 후 수십 년 동안 기능을 상실하였다. 18세기 중반에 김창협의 양손 김원행이 교육 기능을 일신하고 다시 많은 문인을 양성하였고, 그들 중 일부는 북학 그룹을 형성하였다.

육창은 문예 방면에서 학문에 버금가는 성취를 이루었다. 김창협은 문장에서 김창흡은 시에서 일가를 이루며 서울의 문단을 풍미하였다. 그들의 작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문학론이 미친 파장이 컸다. 그들은 명말에 일어난 의고주의擬古主義 문학을 재음미하며 조선에서의 유행을 비평하였다. 즉 의고주의 문학이 태동할 때 가졌던 형식 비판의 정신은 계승하면서 '의고'에 치우치는 모방을 경계하였다. 그것은 수입과 답습에 치중했던 고문 부흥 1세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동하는 고문의 정신을 살리자는 주장으로서, 고문 2세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그들은 '지금, 조선'이란 현실성과, 천기天機·천진天眞이란 진실함을 양 축으로 내세웠다. 현실적 감성에 충실하면서도 기품과 학식을 중시한 품격을 또한 중시한 것이다. 그 점에서 전통적인 재도載道 문학의 정신을 간직하면서 후대의 위항 문학을 발양시킨 공로 또한 있었다.

김창협과 김창흡을 비롯한 주도한 새로운 문풍은 문학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문화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였다. 17세기 중반 이후 조선은 '주자의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 국가를 재건했었다. 중화中華의 정통을 이었던 명나라가 망하고 유교 국가가 조선밖에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 속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주자가 제시한 '문화적 중화'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상황은 변하고 있었다. 국제 관계의 안정에 따른 긴장의 이완은 자연스런 현상이었고, 조선은 양난의 어려움을 딛고 국맥을 유지하였으며 나아가 사회 질서를 성공적으로 재건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 시점에서는 '조선이 곧 중화'라는 자부심이 일어났다. 문예 전반에서 일어난 조선풍朝鮮風의 유행은 그 결실이나 다름없었다.

김창흡과 김창업은 문예 방면에서 조선풍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김창흡은 18세기 진경 문화를 대표한 시인 이병연李秉淵과 화가 정선鄭敾을 지도하여 그들이 문학과 회화에서 조선의 정서를 반영한 작품을 제작하는 자양분을 제공했다. 김창업은 문인화가로 비록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현재 남아 있는 〈송시열 초상〉에는 비범한 재능이 엿보인다. 그의 후손들은 정선 화풍의 산수화에 가문의 기행·사경寫景 전통을 가미한 화풍을 발전시켰다. 김창업의 서자 김윤겸이 가장 유명하고, 김윤겸의 아들 김용행과 손자 김이승도 모두 화가로 이름을 날렸다.

육창이 문예에서 직접적으로 이룬 성과에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은 예단藝壇을 후원하고 새로운 흐름을 형성한 사실이었다. 17세기 후반 이후 서울의 경제적 활력과 도시 문화의 발달은 성장하는 중인층을 중심으로 세련된 미의식과 예술가적 자의식을 갖춘 예인 집단을 형성하게 하였다. 사대부는 그들 자신의 예술 취향을 다변화하며, 예술의 후원자로서 예단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육창은 조영석, 정선 등 최고의 문인화가, 당대 제일의 여항시인 홍세태, 거문고 명인 김성기 등을 지도하거나 교류하며 문예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조선의 문물, 산천이 중화라는 자부심에 기초하여 문화가 꽃핀 것은 육창만의 독점물은 아니었다. 조선의 어문, 역사, 지리 등에 대한 강조가 18세기 이후 정파를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왔던 것도 그 흐름의 연장선이었다. 다만 육창을 중심한 그룹은 자신들이 물려받은 성리학의 원칙을 지키며 문예 방면에서 새로운 조류를 만들어내는 데 큰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4 맺으며; 장동 김문과 탕평정치, 세도정치

경종 대에 일어난 이른바 1722년(경종 3) 임인옥사 이후 장동 김문 인사들은 한동안 출사하지 않았다. 영조의 탕평책이 확고해지는 18세기 중반부터 비로소 출사할 수 있었다. 이후 정조 대에 왕성하게 출사하여 학문에서는 낙론, 정치에서는 시파時派의 핵심이 되었다. 그 바탕에는 17세기 이래 쌓아올린 성과가 있었다. 정조는 김상용의 순절과 김상헌의 척화, 김수항 형제의 충절, 김창협·김창협 형제의 학문과 문장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세자(순조)와 김창집의 현손 김조순의 딸(순원왕후)과의 국혼을 결정했다. 이로서 그들은 19세기 최대의 외척이 되었고 세도가의 본산이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세기 장동 김문의 편지 고찰

Significance of the Letters of the Jangdong Kim Clan in the Seventeenth Century

이기현 Lee Kihyun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사

편지는 수신자에게 발신자의 생각을 전하는 문서이다. 조선시대 편지[1]는 소식을 전하는 동시에 학문과 정치적 논쟁을 진행하는 매개체였다. 안부 편지부터 학문, 정치, 예술을 논하는 편지, 개인적인 부탁부터 상소문을 의논하는 편지까지 내용이 다양하다. 조선시대 한문 편지는 한문을 짓고 쓸 수 있는 지식인이 향유하는 고급 문화였다. 편지에 보이는 생활 속 이야기는 일차 사료로서 역사 분야의 기초 자료 역할을 하며, 유명인의 편지는 서예 및 문학작품으로도 감상되었다. 과장된 수식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고받던 편지는 인물의 삶과 사상, 나아가 그 시대의 문화를 보여준다.

17세기 이후 중국의 영향으로 조선의 문인들은 편지를 예술 작품으로 감상하고, 문학적인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17세기 장동 김문의 편지는 편지가 예술 작품으로 향유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작성된 것들이다. 실용적인 편지를 쓴 글쓴이의 의도와 예술품으로 감상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17세기 장동 김문 편지를 분석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세기 장동 김문 편지의 양식적 특징을 살핀 뒤, 편지에 담겨있는 정치사와 일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7세기 편지 문학의 전개 양상과 장동 김문의 문학 인식에 대해 먼저 소개한다.

1 17세기 장동 김문 편지의 양식적 특징

1) 17세기 편지 문학의 전개 양상과 장동 김문

조선시대 문집에 수록하는 편지는 성리학과 관련된 담론을 담은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이황李滉과 기대승奇大升이 주고받은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을 담은 편지 등과 같이 철학적 내용을 담고 학문 논쟁을 이끌어가는 문장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문인들이 명明·청淸의 문화를 실시간으로 수용하면서 편지에 문학과 예술이라는 시각이 더해졌다. 16세기 말-17세기 초 중국의 문예 경향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허균許筠(1569-1618), 이항복李恒福(1556-1618), 이정귀李廷龜(1564-1635), 신흠申欽(1566-1628) 등이 편지의 문학적 측면을 인정하고 편지를 서와 서독·척독으로 분류하고 문집에서 나누어 편집하기 시작했다. 서는 공사公事나 학문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논문 성격의 긴 편지이고, 서독·척독은 개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전하는 50자 내외의 짧은 편지이다. 서독·척독의 짧은 편지들은 상투어를 생략하고 개인의 감정을 솔직하면서도 간략하고 리듬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와 함께 소식蘇軾(1037-1101)과 황정견黃庭堅(1045-1105)의 짧은 편지를 모은 『소황척독蘇黃尺牘』이 문인들 사이에 유행했다. 문인들은 잘 쓴 편지들을 모아 직접 편찬한 편지 선집選集을 만들어 돌려보기도 했다.

17세기에 솔직하면서도 짧고 경쾌한 새로운 유형의 문장이 유행하기 시작했지만, 장동 김문의 사람들은 여전히 옛 것을 전범으로 삼고 변하지 않는 원칙을 찾아내고자 했다. 그들은 문학과 예술이 별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도道로 통한다고 생각했으며, 그 지향점은 한유韓愈(768-824)와 구양수歐陽修(1007-1072)로 대표되는 당唐·송宋 고문古文과 한대漢代 훈고학訓詁學이었다. 옛것에서 전범을 찾고자 하는 시도는 서예에서는 한나라의 전서篆書와 예서隸書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인장印章 문화에서는 인장을 단순히 감상하는 물건이 아니라 고인古人과 자신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생각하며 그것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장동 김문의 학문 성향은 문집의 편찬에도 반영되었다. 동 시대에 함께 교유한 신흠 등이 자신의 문집에 개인적이며 짧고 경쾌한 편지 글을 '서독'으로 편차한 것과 달리 장동 김문의 문집에는 짧고 개인적인 내용의 편지는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고, 사상, 정치적 지향, 학문 토론의 내용을 담은 장문의 편지들만 남아 있다. 김수항이 문장文章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김창협이 「잡지雜誌」에서 문장의 구조와 작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하며 명나라 문단의 경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장동 김문은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서독·척독과 같은 새로운 경향의 글쓰기를 지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전하는 장동 김문의 일상생활 속 편지는 작성자의 의도와는 달리 후대에는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되었다. 조선 후기의 문인들은 글씨에 그 사람의 정신과 성품이 담겨있다고 생각했고, 선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그 속에 담긴 꾸미지 않은 정신을 느끼기 위해 편지를 작품으로 감상하였다. 이런 생각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척독집인 『완당척독』의 서문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 나는 항상 마음속으로 완당 김공[김정희]의 한묵翰墨을 사모하였다. 대체로 그 정화精華가 말 밖에 넘쳐흐르고 신묘함이 먹의 흔적[墨痕]에서 살아 움직여 사람들의 문아文雅한 마음과 운치韻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하였다. …(중간 생략)… 이 척독은 비록 말씀[咳唾]의 나머지라고는 하지만 혹은 경사經史·백사百家와 고문古文·시사詩詞를 논하였고 혹은 노불老佛·금석金石과 서체[楷隸]·명물名物 등을 고증하면서 고금을 드나들어 우뚝이 홀로 깊은 경지에 들어갔다.[2]

남병길은 김정희의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정수精髓가 넘쳐흐르는 듯하고 글씨의 흔적을 보기만 해도 사람의 마음에서 저절로 문기文氣와 운치韻致를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했다. 남병길은 김정희의 글씨에서 그가 담고자 한 정신과 추구하는 이상을 발견한 것이다. 김정희의

1 조선시대에는 간찰簡札, 서찰書札, 서간書簡을 편지의 일반 명칭으로 많이 사용하였고, 문학에서는 문체文體의 명칭으로 서書, 서독書牘, 간독簡牘, 척독尺牘을 주로 썼다. 본고에서는 '편지'를 대표 명칭으로 사용하되 구체적인 용어가 필요한 경우에 간찰, 서, 서독, 척독을 사용하였다.

2 남병길, 「완당척독서阮堂尺牘序」, 『완당척독阮堂尺牘』, "余嘗竊慕金公阮堂所爲翰墨. 蓋其精華溢於辭表, 神妙動於墨痕, 有足以撼發人之文心. …(중간 생략)… 雖云咳唾之餘, 或論經史百家古文詩詞, 或證佛老金石楷隸名物, 出古入今, 卓然孤詣."

짧은 편지글[척독尺牘]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편지가 중요한 논문이 아니라 곁가지 이야기인 '어르신 말씀의 나머지[該唯]'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경사經史·백사百家와 고문古文·시사詩詞, 노불老佛·금석金石과 서체[楷隷]·명물名物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자유로운 장르라는 점이다.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세기 장동 김문 편지의 형태 특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세기 장동 김문의 편지는 대부분 간찰첩, 혹은 간찰첩의 일부였지만 분리된 형태이다. 편지에 담긴 내용은 개인 일상사부터 정치 사건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른다. 이는 조선시대 일반적인 간찰첩의 형태 및 내용과 유사하다.

김상헌의 편지 2통이 포함된 『진신찰한縉紳札翰』도판8은 인물을 기준으로 편지를 수집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간찰첩 양식을 보여준다. 이 간찰첩은 조선시대 전반을 아우르는 거질의 간찰첩(총 22첩)으로 각 첩마다 왕조를 표시했으며 그 왕조에 속하는 대표적인 명사名士들의 편지를 수록하였다. 그 중 5책의 첫 번째 면에 당시 영의정을 지냈던 김상헌의 편지 두 통이 있다. 이 두통의 편지는 작성된 연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편지지의 양식 및 규격도 다르기 때문에 인물을 기준으로 편지를 모아 시대순으로 편집했음을 알 수 있다.

『진신찰한』이 유명한 문인들의 간찰을 총망라하는 작품이라면 『간찰첩簡札帖』도판12은 편찬자의 명확한 목적 아래에서 수집하여 편찬한 것이다. 여기에는 17-19세기 유명한 문인들의 간찰 27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서인西人·노론계老論系 문인의 간찰이다. 장동 김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장동 김문 인물들이 4명(김수흥, 김수항, 김창집, 김창협)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히 의미가 있다. 김근순金近淳이 《곡운구곡도첩谷雲九曲圖帖》의 발문跋文에서 말한 "이 첩은 선생과 그 아들, 조카 그리고 손자의 것으로 모두 열편의 시가 있는데, 도학·문학·명절이 모두 한 가문에 다 모였다."[3]는 감탄을 떠올리게 하며 17세기 장동 김문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17세기 장동 김문의 사회적 위상의 영향으로 다른 문인들에게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종류의 간찰첩도 만들어졌다. 《김수항·김창협간찰첩金壽恒金昌協簡札帖》도판6은 부자지간인 김수항과 김창협이 부자지간인 유창俞瑒(1614-1690)과 유득일俞得一(1650-1712)에게 보낸 편지만을 모은 특수한 형태의 간찰첩으로, 김수항이 유창에게 보낸 편지가 6통, 김창협이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가 15통 있다. 6통의 편지는 1669년(현종 10) 사이에 집중적으로 주고받은 편지이며, 15통의 편지는 1690년(숙종 16)과 1700년 즈음에 주고받은 편지이다. 17세기 중반 김수항과 유창은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서로 가까운 지역에 머무르면서 친밀하게 교유하였고, 아버지의 영향으로 젊은 시절을 친밀하게 보냈던 김창협과 유득일도 만년까지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였다. 17세기 급변하던 정국政局에서 한 사람의 우정도 수십 년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代를 이은 교유를 보여주는 이 간찰첩은 문학적 측면에서도,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교유 관계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간찰첩 편집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수항과 김창협, 유창과 유득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 의도적으로 편집한 자료임은 분명하다. 또한 유창과 유득일은 고위 관직을 두루 역임했지만 전하는 기록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문장가가 아니었던 고위 관직자의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김근순, 「발문」, 《곡운구곡도첩》, "是帖也, 先生子若姪爲孫, 合成十絕, 而道學文章名節, 並萃於一門."

《김씨오선생진적金氏五先生眞跡》도판11은 편지보다는 친필 글씨[眞跡]에 초점을 맞춘 자료이다. 서예 작품에는 대작大作과 일상생활 속의 글씨가 있는데, 이것은 일상생활 속의 감정을 담은 자연스러운 글씨를 감상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서명에는 오선생이라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4인[김수증, 김수항, 김창집, 김창흡]의 편지가 있다. 편지보다는 글씨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어서인지 편지 원래의 형태를 살리기 보다는 편지의 여백을 잘라내고 글씨를 잘 감상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다. 김창흡의 편지는 이 첩보다 큰 종이에 쓴 편지인 듯 글에 따라 세로로 잘라 첩에 나란히 붙였고, 편지의 내용도 전체가 아닌 긴 편지의 일부만 있다.

2 17세기 장동 김문 편지의 내용 분석

1) 정치적 사건의 이면

기사환국己巳換局(1689, 숙종 15)으로 남인南人이 집권한 이후 송시열宋時烈과 김수항金壽恒이 사사賜死되는 등 서인西人 중 특히 노론老論의 피해는 참혹하였다. 5년 뒤 갑술환국甲戌換局(1694, 숙종 20)으로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았는데, 이때 숙종肅宗(재위 1674-1720)은 남구만南九萬(1629-1711), 박세채朴世采(1631-1695) 등 온건파인 소론少論을 중심으로 등용하였다. 숙종은 자신의 결정에 반론을 제기하고 강경한 노선을 주장하는 노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남구만을 중심으로 한 소론은 남인의 처벌과 희빈禧嬪 장씨張氏(1689-1701)와 오빠인 장희재張希載(?-1701)의 처우에 대해 온건한 태도를 유지하여 세자(훗날의 경종景宗)의 정치적 보호자가 됨으로써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자 했다. 다만 당시 남인의 처벌과 장씨 남매의 처우에 대해 소론 내부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고, 이것은 소론 내부의 분열의 단서가 될 수 있었다.[4]

노론의 박상경朴尙絅과 강민저姜敏著(1651-1705) 등은 희빈 장씨 남매를 보호하는 남구만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고, 숙종은 소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박상경과 강민저에게 강한 형벌을 내렸다. 『숙종실록』과 당대 문인들의 문집을 보면 1694년 무렵 노론과 소론은 날이 선 대립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편지는 김창협의 『농암집』과 《김수항 김창협 간찰첩》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편지이다.

> 심극沈極과 이인병李寅炳 등은 실로 말할 것도 없지만, 영숙[유득일] 같은 현명한 분도 그 잘못을 모른 채 그저 "과격하고 억측한 단서가 없지 않다."라고 하니, "없지 않다"는 말은 어찌도 그리도 허술합니까? 의견이 이렇다면 어찌 바로잡고 교정하여 마구 치달리는 형국을 막아내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중간 생략)… 나머지 사람들은 실로 보잘것없는 소인들이지만, 영숙은 평소 강직하고 예리하다고 불리며 과감하게 간언하는 것을 자임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며 추세를 따르고 더 이상 분발하여 앞으로 나가려는 기세와 할 말을 다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니, 이런 상황에서 초야에서 말이 안 나오기를 바란들 가능하겠습니까.[5]

4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2, 아름다운날, 2007.

5 〈김창협이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694년 7월 13일, 《김수항 김창협 간찰첩》(도판6-12), 『농암집』 권17, "彼沈李輩, 固不足道, 以寧叔之明, 猶不知其非, 而但曰"不無峻激臆逆之端", "不無"之云, 何其歇後耶. 所見如此, 則尙何望其匡救矯正, 以障橫流之勢也. …(중간 생략)… 餘人固碌碌, 若寧叔, 豈非素號剛銳, 自任以敢言者, 而猶且雍容暇預, 隨流逐波, 無復有奮發直前之氣 · 極言竭論之誠, 如是而欲使草野無言, 其可得乎."

김창협의 문집인 『농암집』에는 김창협이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가 2통 수록되어 있다. 그 중 1통이 이것으로, 이 편지는 김창협의 정치 입장과 논리를 잘 보여주는 글 중 하나이다. 전체 1,870자에 해당하는 장문의 편지로, 유득일의 대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때 박세채의 문인인 유득일은 소론의 입장이었고, 송시열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던 김수항과 김창협은 노론의 입장으로, 이들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농암집』의 편지만을 보았을 때 김창협과 유득일의 관계가 매우 친밀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김수항 김창협 간찰첩》의 편지는 문집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하며 역사의 이면을 보여준다.

> 아침에 보내신 답장은 말씀하신 뜻을 모두 잘 알았습니다. 오늘 정말 나아가 뵈려고 했는데, 우연히 사람을 통해 며칠 전 잠시 나아갔던 일이 크게 비방을 초래했다는 말을 들었으니, 이후로는 결코 형의 집에 다시 발을 들여놓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훗날 응암鷹巖과 패동珮洞 사이에서 만나면 장애가 없을 듯하여 심부름꾼을 보내 이런 뜻을 전합니다.[6]

위의 편지는 6월 25일 편지 바로 뒤에 수록된 것으로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즈음 작성한 편지로 보인다. 노론인 김창협이 소론의 유득일을 만나 의견을 나눈 것이 큰 비방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 김창협은 이 편지에서 다시는 형의 집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며 편지를 하고는 응암과 패동 사이에서 만나자고 한다. 경기도 영평의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응암과 패동은 아버지 김수항과 유창이 정치적 침체기에 머물렀던 곳으로 김창협과 유득일은 젊은 시절 이곳에서 만나 학문과 시문을 교유하였다. 그간의 사건과 관련해서 김창협이 유득일을 만나려고 했지만, 여론을 의식하여 찾아가지 못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편지에 비해 유독 이 편지만 흐릿한 상태로 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득일은 정치적 입장을 노론 측으로 전향하였다. 이후 《김수항 김창협 간찰첩》에 수록된 7통의 편지는 이들의 지속되는 돈독한 관계를 보여준다. 그 중 한편을 소개한다.

> 심부름꾼이 전해준 편지가 잇따라 이르니 매우 감사드립니다. 사면해주기를 청한 것이 아직 윤허받지 못해서, 몹시 심란하실 듯합니다. 소본疏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니 매우 고맙습니다. 중간의 한 단락은 은미함과 완곡함이 부족한 듯합니다. 근래에 이러한 뜻으로 그대에게 얘기한 적이 없긴 하지만, 이렇게 쓰더라도 또한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7]

당시 조정에서 일어나는 논의에 대해 유득일이 김창협에게 조언을 구한 편지이다. 김창협도 그 사건에 대해 궁금하던 상황에 유득일이 그 상소문을 보내었고 김창협은 조언을 해주었다. 이 편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창협과 유득일은 젊은 시절부터 50대 이후까지 서로의 고민을 주고받는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였다. 이처럼 편지는 역사서와 문집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적 사건의 이면을 보여주어 역사와 사람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6 〈김창협이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미상, 《김수항 김창협 간찰첩》(도판6-13), "今日大擬進敍, 偶因人得聞頃日蹔進, 大致謫言, 自此決難復投此足於高門. 要之異時相遇於鷹巖珮洞之間, 可以無拘礙耳, 玆專伻人以布此意."

7 〈김창협이 병조판서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705년 7월 8일, 《김수항 김창협 간찰첩》(도판6-20), "伻書隨續, 感認至意. 辭免尙未准請, 想深悶撓. 疏本纔聞有說話, 欲見不可得, 蒙此披示, 幸幸. 中間一段, 似欠微婉, 然近來絕無以此義嘗敍於吾君者, 似此, 莫亦無妨否."

2) 일상의 공유와 감정의 토로

> 내가 위魏·진晉 이래 필묵 유적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편지를 보는 것이 더욱 좋았다. 옛 사람의 고상한 운치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대개 모두 애도를 표하거나 병을 묻고 서로 헤어져서 소식을 묻는 것으로 집안사람이나 친구 사이에 보낸 것으로 몇 줄에 불과할 뿐이다. …(중간 생략)… 모두 처음부터 신경 쓰지 않고 붓 가는대로 쓴 것이니 그 인품과 풍류를 상상할 수 있다.[8]

남공철南公轍(1760-1840)이 소식의 편지를 읽고 쓴 감상이다. 소식은 조선시대 문인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던 중국 문인의 한 명이었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즐겨 읽은 소식의 편지는 대부분 애도哀悼를 표하거나, 병을 묻거나 소식을 묻는 내용이다. 남공철은 생활 속 사소한 이야기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말하였다.

조선시대 편지를 보면 유독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힘듦을 토로하는 편지들이 많다. 이런 경향은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함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조선시대 사람들이 즐겨 읽었던 편지의 영향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편지를 감상할 때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편지 장르 고유의 수사적修辭的 표현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대조법을 많이 사용했고, 이는 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 어느덧 저물어 가는 봄철, 문 닫고 덩그러니 앉아 가만히 그대를 그리워하던 차에 문득 편지를 보내주시어 마치 청아한 가르침을 다시 듣는 듯하니 반갑고 설레는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9]

주변에 대한 묘사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다. 예쁜 꽃으로 둘러싸이고 싱그러움이 솟아나는 봄날이지만 김수항은 저물어가는 봄이라 느끼고, '문 닫고 덩그러니 앉아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홀로 외롭게 지내던 중에 받은 편지는 마음을 저절로 설레게 만들었다. 실록에 보이는 김수항의 모습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봄날 편지를 받고 마음이 설레는 김수항의 모습은 역사서 등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소론의 입장에서 쓴 『숙종실록』에 나오는 김수항 졸기의 주된 내용은 '곧고 굳세며[剛方] 융통성이 적었다'이다.

실록과 역사서 등에 전하는 모습이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면모이고, 엄정한 편집 과정을 통해 전하는 문집에 나타나는 모습이 개인이나 그 가문이 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면, 낱장으로 전하는 편지는 평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드러나는 솔직한 개인의 모습이다. 편지에서 보이는 모습은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인물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어 인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준다. 그리고 힘든 상황일 때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내비치거나 소통하는 수단도 결국은 편지였으며, 당시의 절절한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편지였다.

8 남공철, 「서화발미書畵跋尾 · 동파척맹묵각東坡尺盟墨刻」, 『금릉집金陵集』, "余嘗喜覽魏晉以來筆墨遺蹟, 而尤於簡牘札翰之間, 有以見昔人之高致也. 大率皆出於吊哀候病敍睽離通訊問, 施於家人朋友之間, 不過數行而已. …(중간 생략)… 皆初不經意, 信筆而作者, 其人與風流, 可以想矣."

9 〈김수항이 유창에게 쓴 편지〉, 1679년 3월 10일, 《김수항 김창협 간찰첩》(도판6-3), "春事忽已向闌, 塞寶塊坐, 政爾馳傃, 忽辱惠翰, 悅若更承淸誨, 披豁傾倒, 不可勝量."

저는 황량한 산의 가을 풀 더미 속에 죽은 딸아이를 묻었습니다. 병든 딸아이의 증상은 근래에 더욱 심하여 마치 심장이 타는 것처럼 슬픔이 북받치니, 이 삶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부처가 세계를 '번뇌煩惱의 바다'라고 하였는데, 비로소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다만 어디에서 한 움큼의 감로수甘露水를 얻어 이를 씻어낸단 말입니까.[10]

김창협의 셋째 딸 운雲(1679~1700)이 죽은 뒤,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이다. 1699년부터 김창협은 곁에 있는 가족들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다. 1699년 5월에는 조카인 김호겸이 죽음을 맞았고, 1700년 7월에는 셋째 딸이, 10월에는 외동아들 김숭겸이, 또 이어서 둘째 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모친상母親喪까지 맞게 되었다. 김창협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기억하기 위한 글을 남겼고, 『농암집』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셋째 딸 운에게는 "나는 여자라 한스럽게도 세상에 드러난 공덕이 없으니, 차라리 일찍 죽어서 우리 아버지의 몇 줄 글을 얻어 묘석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딸의 생전의 희망에 따라 묘지명을 써 주었다.[11] 『농암집』에 있는 묘지명이 망자亡者를 높이고 기리는 내용이 중심이라면 편지에는 김창협의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 그 자체가 그려져 있다. '심장이 타는 것처럼 슬픔이 북받친다'는 감정의 토로는 함께 힘든 상황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차마 하지 못하고, 친구인 유득일에게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일상사를 보완하는 1차 사료

『숙종실록』 29년 2월 10일의 기사에 보면 조권趙權이 숙종에게 당쟁黨爭의 폐단과 정치의 실무에 대해 조언을 올리는 기사가 나온다.

신은 '절약해서 사용하면 재물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래의 상황을 살펴보건대 전하께서는 재물을 물 쓰듯이 사용하여 왕실 가족에게 주는 것이 절도가 없고 별군직別軍職에게 상전賞典을 지나치게 많이 주고, 납약臘藥을 더 조제하여 약값이 만냥萬兩에 가깝고, 진상하는 청죽靑竹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12]

여기에서 말하는 납약은 납일臘日에 즈음하여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약이다. 납일은 동지冬至 뒤의 세번째 미일未日로, 납일에 궁중의 내의원內醫院에서 구급약으로 사용할 여러 가지 환약丸藥을 지어 올리면 임금은 이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납약에는 청심환淸心丸, 안신환安神丸, 소합환蘇合丸 등이 있는데, 그 중 우황이 가장 인기있는 약이었다. 이 납약은 매우 효능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원했고, 갖은 질병에 걸렸던 숙종肅宗은 납약을 짓는데 많은 비용을 사용해 실록에는 이를 경계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온다.

10 〈김창협이 호조참의 유득일에게 쓴 편지〉, 1700년 9월 3일, 《김수항 김창협 간찰첩》(도판6-15), "弟埋却亡女於荒山秋草中. 病女證情, 比更加劇, 悲憂所鑠, 方寸如燬, 此生良可哀也. 佛氏以世界爲煩惱苦海, 始知非虛語. 顧安所得一掬甘露水, 以洗之耶."

11 김창협, 「망녀오씨부묘지명병서亡女吳氏婦墓誌銘 并序」, 『농암집農巖集』 권27, "吾女子也, 恨無功德見於世, 無寧蚤死得吾父數行文, 以鐫墓石."

12 『숙종실록』 29년(1703) 2월 10일.

저는 내내 고달프고 변변치 못하게 지내는데, 병이 나이와 함께 더해지니 근심하고 불쌍해한들 어이하겠습니까. 사촌동생[從弟]의 죽음은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백부伯父[김수중]의 두 번째 기일이 단지 수십 일이 남았으니 더욱 슬플 뿐입니다. 말씀하신 납제臘劑는 매우 많았지만, 거의 다 나누어주어 다만 몇 종만 보냅니다.[13]

위의 『숙종실록』 기사보다 5일 전인 1703년 2월 5일에 김창집이 쓴 편지이다. 당시 김창집은 약방 제조를 겸하고 있었고, 김창집에게 납약을 부탁하는 요청이 많이 왔다. 납약을 제조한 지 1달 남짓 지난 시점이지만 거의 다 나누어주어 남은 것이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장동 김문의 편지에는 납제와 납약의 풍속뿐 아니라 공납품의 사용, 환곡과 진휼곡의 운영의 실제 등 역사서에서는 보기 어려운 국정의 사소한 부분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보내주신 새해 선물은 매우 감사합니다. 더욱이 이것은 공납供納한 나머지이니, 어찌 적막하고 쓸쓸한 집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고마운 마음이 갑절이나 감사합니다. 은혜로이 보내주신 붓 20자루 또한 잘 받았습니다.[14]

본부本府에서 환곡을 거두어들이는 일은 변통할 곳이 없지는 않지만, 감면 받지 못했다는 것은 호조[地部]의 소관이 아니라 곧 진휼곡賑恤穀이기 때문에 진휼청賑恤廳이 막아야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이후로 관찰사[方伯]가 만약 임금께 거듭 아뢴다면 혹 은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지요.[15]

1701년과 김창협이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공납품의 사용과 함경도 공납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함경감사로 있던 유득일은 김창협에게 한번에 20필씩 보낼 정도로 붓 선물을 많이 주었는데 붓과 먹은 평안도, 함경도와 황해도의 주요 공납품이었다. 1702년 유득일이 함경감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 김창협에게 품질이 좋은 붓과 먹을 선물해 주었다.[16]

김수흥의 편지는 진휼곡에 대한 관리자의 고민과 실제 생활에서 환곡과 진휼곡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진휼청은 흉년 등으로 굶주린 백성, 곤궁한 백성을 도와주는 진휼을 담당했던 관청이다. 평소에는 상평창이라 불렀으며 진휼을 시작하면 진휼청이라 고쳐 불렀다. 17세기 동아시아는 자연 재해와 기근이 자주 발생했고, 진휼청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상황에 따라 임시로 설치되는 진휼청은 임금의 지시에 따라 운영을 바꿀 수

13 〈김창집이 쓴 편지〉, 1703년 2월 5일, 《간찰첩》(도판12-3), "生一味勞碌, 病與年添, 悶憐奈何. 從弟之喪, 痛怛何言. 而伯父再朞, 只隔數旬,尤增愴慟耳. 所示臘劑等者甚多, 分散殆盡, 只送若干種."

14 〈김창협이 함경감사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701년 12월 20일, 《김수항 김창협 간찰첩》(도판6-18), "況是上供之餘, 豈雀羅門所宜得者耶. 珍謝倍切. 卄管亦領惠. 前者垂盡, 而此又繼之, 尤幸幸."

15 〈김수흥이 쓴 편지〉, 1673년 2월 28일, 《간찰첩》(도판12-1), "本府還上事, 不無變通之處, 而所謂未蒙減者, 非地部所管, 乃是賑恤穀, 故賑廳防塞矣. 可歎奈何. 此後方伯若申稟, 則或可蒙惠否."

16 1702년(숙종 28) 3월 28일 유득일은 대사간을 제수받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유득일은 서울로 돌아오기 직전까지 김창협에 붓과 먹을 선물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김창협이 함경감사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702년 5월 19일, 《김수항 김창협 간찰첩》(도판6-19), "보내주신 각종 선물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붓과 먹은 특히나 품질이 좋으니 송나라의 붓과 먹에 비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惠送各種, 感佩盛意. 筆墨尤佳妙, 不知蔡藻 · 李廷珪何如耳, 珍謝珍謝.)"

있는 여지가 있었고, 이를 자신의 고을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도 관찰사의 능력이었다. 이 편지는 실제 생활에서 환곡과 진휼곡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민한 관리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3 맺으며

조선시대의 편지는 단순한 안부는 물론이고 작성자의 감정이나 집안의 일상사, 경제적 처지,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대응, 정보의 교환, 학문적 토론, 선물의 교환, 청탁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선현이나 지인들의 편지를 여러 통을 모아 필적을 감상하기 위한 간찰첩을 만드는 것이 유행한다. 17세기 장동 김문의 편지를 비롯하여 다수의 편지가 문학적인 면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찰첩으로 엮인 편지는 문집이나 별도의 선집으로 엮은 책과 달리 문학적인 측면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의 솔직한 모습과 감정, 당시의 생활과 사회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으며, 저자의 필적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예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청풍계〉 세부, 《장동팔경첩》, 정선鄭敾, 조선 18세기, 첩, 종이에 엷은 색, 각 면 33.1×29.5cm

I

충절의 상징, 사림 명문가가 되다

Representative Family of Loyalty

개요

장동 김문이 척화의리斥和義理와 충절忠節로 대표되는 사림의 명문가로 명성을 굳힌 것은 김상헌의 힘이었다. 김상용이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화재로 사망하자, 그의 죽음이 실화失火로 인한 것인지 순절殉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인조仁祖(재위 1623-1649)도 순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김상헌 등의 강력한 주장으로 결국 순절로 공인받았고, 이들은 강화도에 누구나 볼 수 있게 큰 비석을 세웠다. 김상용 사후 30년 뒤에 세워진 〈김상용순의비金尙容殉義碑〉에는 장동 김문이 생각하는 충절의 상징으로서의 김상용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후 이곳은 강화도에 오는 사대부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으며, 이 비석의 글씨와 내용은 탑본 등의 방법으로 널리 향유되었다.

묘지와 비석(신도비 등)에 새긴 비지문碑誌文은 개인의 삶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되, 훌륭한 면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둔 글이다. 이는 가족보다는 뛰어난 문장가에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김수항, 김창협, 김창흡 등이 당시 최고의 문장가였기에 장동 김문의 비문碑文은 대부분 그들이 작성하였다. 김창협은 한유韓愈를 비롯한 당唐·송宋 문인들의 비지문과 『사기史記』의 문체 등을 분석하여 비지문 작법을 연구하고 기록했다. 그의 비지문은 일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학적 감동을 주는데, 〈김상용순의비〉의 문장도 그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장동 김문이 조상의 업적을 변하지 않는 금석에 새겨 전하면서, 명문가로서 자리 잡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이와 함께 유명한 학자들과 교유하고 『소학小學』과 학문에 힘쓸 것을 강조하며 가문의 철학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소개하였다.

The person who deserves the most credit for establishing the Jangdong Kim clan as an esteemed family of sarim and a model of loyalty is Kim Sangheon (1570-1652). During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1636-1637), Kim Sangyong (1561-1637) died on Ganghwa Island. At the time, there was some question about whether he had died a patriotic death fighting for his country, or merely been the unfortunate victim of a fire. But Kim Sangheon wrote a detailed report describing the heroic death of Kim Sangyong, convincing the government to officially honor him as a national martyr. Thus, Kim Sangyong became a shining symbol for the Jangdong Kim clan, as demonstrated by the "Stele for the Loyalty of Kim Sangyong," which was erected thirty years after his death. This stele was created solely through the efforts and influence of the descendants of Kim Sangyong, without any assistance from famous figures of the time. Through albums containing rubbings of inscriptions from steles and objects created by the Jangdong Kim clan, this chapter examines how the clan established itself as the paragon of loyalty while using their literary skills to honor great scholars of the p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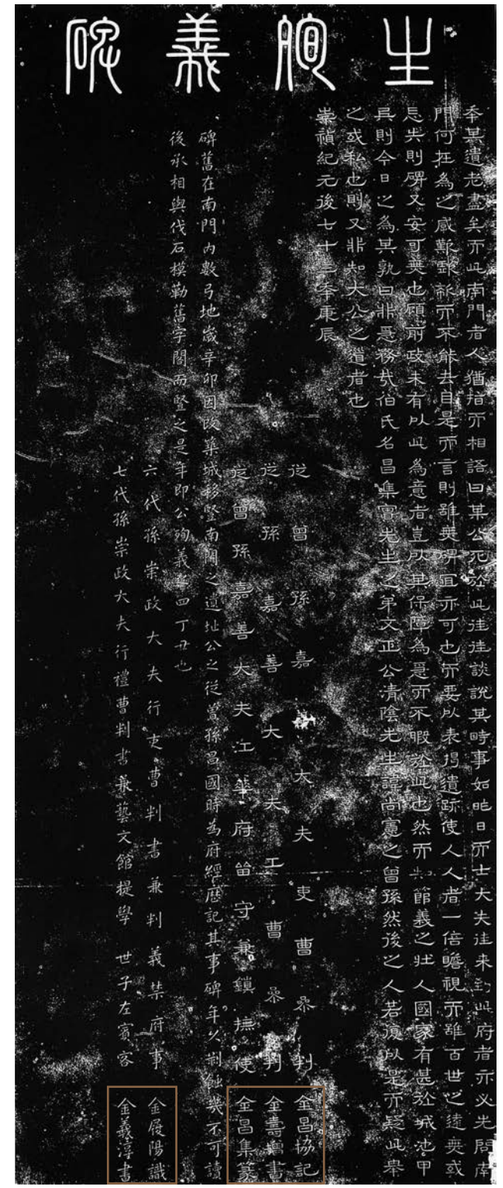
김상용순의비 탑본
金尙容殉義碑搨本

Rubbings of Steles for the Loyalty of Kim Sangyong

글 김창협, 글씨 김수증, 전서 김창집
지識 김이양金履陽, 글씨 김희순金羲淳
탑본 20세기
비석 조선, 1700년(숙종 26), 1817년(순조 17)
탑본, 종이에 먹, 166.0×67.0cm
본관414(탑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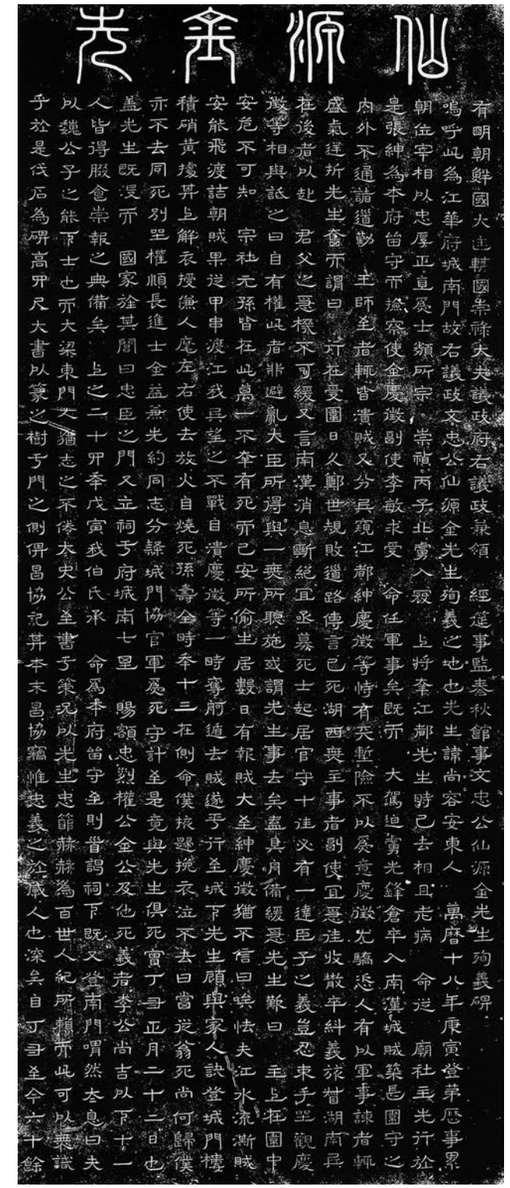
Kim Changhyeop (writing), Kim Sujeung·Kim Changjip (calligraphy)
Kim Iyang (writing), Kim Huisun (calligraphy)
Rubbings, 20th century
Stele, Joseon Dynasty 1700, 1817
Rubbings on paper, 166.0×67.0cm
bon 414

1



후면

김창협기
김수증서
김창집전
김이양지
김희순서



전면

*김창협의 『농암집』 권24에 「江華府南門仙源先生殉義碑記」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원 문

仙源金先生殉義碑(篆題)
有明 朝鮮國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右議政 兼領經筵事 監春秋館事 文忠公 仙源 金先生殉義碑

嗚呼. 此爲江華府城南門, 故右議政文忠公仙源金先生殉義之地也. 先生諱尙容, 安東人. 萬曆十八年庚寅, 登第, 歷事累朝, 位宰相, 以忠厚正直, 爲士類所宗. 崇禎丙子, 北虜入寇, 上將幸江都, 先生時已去相, 且老病, 命從廟社主先行. 於是張紳爲本府留守, 而檢察使金慶徵, 副使李敏求, 受命任軍事矣. 旣而大駕迫虜先鋒, 倉卒入南漢城. 賊築長圍守之, 內外不通, 諸道勤王師至者, 輒皆潰賊. 又分兵窺江都, 紳·慶徵等, 恃有天塹險, 不以爲意. 慶徵尤驕恣, 人有以軍事諫者, 輒盛氣逆折. 先生奮而謂曰, "行在受圍日久. 鄭世規敗, 道路傳言已死, 湖西無主事者. 副使宜急往, 收散卒糾義旅, 督湖南兵在後者, 以赴君父之急. 機不可緩." 又言"南漢消息斷絶, 宜亟募死士, 起居官守. 十往必有一達. 臣子之義, 豈忍束手坐觀." 慶徵等相與詆之曰, "自有權此者, 非避亂大臣所得與." 一無所聽施. 或謂先生, "事去矣, 盍具舟備緩急." 先生歎曰, "主上在圍中, 安危不可知, 宗社元孫, 皆在此, 萬一不幸, 有死而已, 安所偸生." 居數日, 有報賊大至, 紳·慶徵猶不信曰, "唉怯夫, 江水流澌, 賊安能飛渡." 詰朝, 賊果從甲串渡江, 我兵望之, 不戰自潰. 慶徵等一時奪舸遁去. 賊遂平, 行至城下, 先生顧與家人訣, 登城門樓積硝黃. 據其上解衣授傔人, 麾左右使去, 放火自燒死. 孫壽全時年十三, 在側, 命僕掖歸, 挽衣泣不去曰, "當從翁死, 尙何歸." 僕亦不去同死. 別坐權順長, 進士金益兼, 先約同志, 分隷城門協官軍, 爲死守計, 至是, 竟與先生俱死, 實丁丑正月二十二日也. 蓋先生旣沒, 而國家旌其閭曰, '忠臣之門', 又立祠于府城南七里, 賜額'忠烈'. 權公金公及他死義者, 李公尙吉以下十一人, 皆得腏食, 崇報之典, 備矣. 上之二十四年戊寅, 我伯氏承命爲本府留守, 至則首謁祠下. 旣又登南門, 喟然太息曰, "夫以魏公子之能下士也, 而大梁東門, 人猶志之不倦, 太史公至書于策. 況以先生忠節赫赫, 爲百世人紀所賴, 而此可以無識乎." 於是伐石爲碑, 高四尺, 大書以篆之, 樹于門之側, 俾昌協記其本末. 昌協竊惟忠義之於感人也深矣. 自丁丑至今六十餘年, 其遺老盡矣, 而此南門者, 人猶指而相語曰, "某公死於此", 往往談說其時事如昨日. 而士大夫往來道此府者, 亦必先問南門何在, 爲之感歎歔欷而不能去. 自是而言, 則雖無碑, 宜亦可也.[1] 而要以表揭遺跡, 使人人者, 一倍瞻視, 而雖百世之遠, 無或忘失, 則碑又安可無也. 顧前政未有以此爲意者, 豈其以保障爲急而不暇於此也. 然而知節義之壯人國家, 有甚於城池甲兵, 則今日之爲, 其孰曰非急務哉. 伯氏名昌集, 實先生之弟文正公淸陰先生諱尙憲之曾孫. 然後之人, 若復以是而疑此擧之或私也, 則又非知大公之道者也.

崇禎紀元後 七十三年 庚辰
從曾孫 嘉善大夫 吏曹叅判 金昌協 記
從孫 嘉善大夫 工曹叅判 金壽增 書
從曾孫 嘉善大夫 江華府留守 兼 鎭撫使 金昌集 篆

碑舊在南門內數弓地歲, 辛卯因改築城, 移竪南門之遺址. 公之從曾孫昌國, 時爲府經歷, 記其事碑. 年久剝蝕幾不可讀. 後承相與伐石, 模勒舊字, 閣而竪之. 是年卽, 公殉義之四丁丑也
六代孫 崇政大夫 行 吏曹判書 兼 判義禁府事 金履陽 識
七代孫 崇政大夫 行 禮曹判書 兼 藝文館提學 世子左賓客 金羲淳 書

1 宜亦可也: 『농암집』에는 "宜可也"로 되어 있다.

번역문

선원 김선생 순의비
유명 조선국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우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 문충공 선원 김선생 순의비

아! 이곳은 강화부 성 남문으로, 고故 우의정 문충공文忠公 선원 김선생이 순의殉義한 곳이다. 선생의 휘諱는 상용尙容이며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만력萬曆 18년인 경인년(1590, 선조 23)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대의 임금을 차례로 섬기며 재상을 역임하였는데, 충후忠厚함과 정직함으로 선비들의 추앙을 받았다.
숭정崇禎 병자년(1636, 인조 14)에 북방 오랑캐가 쳐들어와 임금께서 강화도로 행차하려 할 때, 선생은 이미 정승 자리에서 물러난 데다 늙고 병들었으므로, 임금께서 선생에게 종묘사직의 신주를 모시고 먼저 가도록 명하였다. 이때에 장신張紳(?-1637)이 강화부 유수였고, 검찰사檢察使 김경징金慶徵(1689-1637)과 부사副使 이민구李敏求(1589-1670)가 왕명을 받고 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의 행차[大駕]가 오랑캐에 쫓겨 황급히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둘러치고 지키니 안과 밖이 통하지 않고 여러 도에서 근왕병勤王兵이 이르러도 번번이 무너졌다. 적은 또 군대를 나누어 강화도를 엿보았는데, 장신과 김경징 등은 강화도가 천혜의 요새임을 믿고 신경쓰지 않았다. 김경징은 특히 교만 방자하여 군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를 내며 무시하곤 했다. 선생은 분개하여 말하였다. "임금께서 머무시는 곳이 포위된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정세규鄭世規가 전쟁에서 패하여 이미 죽었다는 소문이 있으니, 호서에서 군대를 주관할 사람이 없다. 부사가 빨리 가서 흩어진 병졸을 수습하고 의병을 모아, 후방에 있는 호남의 군대를 독려하여 위험에 처한 임금께 달려가야 한다. 조금도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 "남한산성의 소식이 끊겼으니, 한시바삐 목숨을 바칠 의사義士를 모집하여 임금의 안부를 살펴야 한다. 열 번 가면 한 번은 반드시 성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신하의 의리상 어찌 수수방관할 수 있겠는가?" 김경징 등은 서로 함께 비방하며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 피난 중의 신하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는, 한 가지도 따르지 않았다.
어떤 자가 선생에게 말하였다. "일이 이미 글렀습니다. 어찌 비상시를 대비하여 배를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선생이 탄식하였다. "임금은 포위되어 안위安危를 알 수 없고 종묘사직과 원손元孫이 모두 여기에 있으니, 만에 하나 불행한 사태가 생기면 죽음이 있을 뿐, 내 어찌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겠는가."
며칠 뒤에 적군이 강화도로 몰려온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장신과 김경징은 믿지 않았다. "참 겁쟁이구나. 강물에 얼음덩이가 떠다니는데 적이 어찌 날아서 건너겠느냐." 이튿날 동틀 무렵 적이 갑곶甲串으로 강을 건너오자, 우리 군대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궤멸하였다. 김경징 등은 순식간에 배를 빼앗아 타고 도망갔다. 적이 마침내 아무 저항 없이 성 밑에 이르렀다. 선생은 가족들에게 이별을 말하고 성문 누각에 올라 화약을 쌓았다. 그 위에서 옷을 벗어 종에게 건네고, 좌우에 있는 자들을 멀리 가라고 하고는 불을 놓아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 당시에 열세 살이던 손자 수전壽全이 옆에 있었는데, 선생이 종에게 데리고 돌아가라고 명하였으나 옷깃을 잡고 울며 떠나지 않았다. "할아버지를 따라 죽겠습니다.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종도 떠나지 않고 함께 죽었다. 별좌別坐 권순장權順長과 진사 김익겸金益兼도 이 일에 앞서 뜻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성문을 나누어 살피며 관군과 협력하여 목숨을 바쳐 지킬 각오를 하고 있었다. 이때에 선생과 함께 죽었으니, 정축년(1637, 인조 15) 정월 22일이었다.

선생이 돌아가신 뒤, 나라에서 고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충신의 문[忠臣之門]'이라 하고, 강화부의 성 남쪽 7리 되는 곳에 사당을 세워 '충렬忠烈'이라는 현판을 내렸다. 권공과 김공, 그 외 의義를 위해 죽은 자들로 이상길李尙吉 이하 11인이 모두 제향을 받게 되었으니, 은덕에 보답하는 전례典禮가 제대로 갖추어졌다 할 것이다.

금상今上 24년인 무인년(1698, 숙종 24)에 우리 백씨伯氏[김창집]가 명을 받들고 본부의 유수가 되었다. 본부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사당을 알현謁見하였다. 이어서 남문에 올라 크게 탄식하였다. "위魏나라 공자公子 신릉군信陵君은 선비들에게 겸손했던 것만으로도 그가 지내었던 대량大梁의 동문東門을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였고, 그 사실을 태사공太史公 사마천司馬遷이 역사에 기록하였다. 선생이 이룬 빛나고 빛나는 충절은 먼 후대에 이르도록 인륜이 보존되는 바탕이 될 것이니, 이 일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돌을 다듬어 높이 넉 자 되는 비석을 만들고 앞면을 큰 글씨로 새겨 남문 곁에 세우고는, 나 창협에게 이 일에 대해 기문記文을 짓게 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충의忠義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크다. 정축년부터 지금까지 60여 년이 흘러 당시 일을 직접 보았던 노인들은 다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이 남문을 가리키며 서로들 "아무 공이 이곳에서 죽었다." 하고 그 당시의 일을 마치 어제의 일처럼 말하곤 한다. 이 부府를 지나가는 사대부들도 반드시 먼저 남문이 어디냐고 물어 찾아와서는, 감탄하고 탄식하며 떠날 줄을 모른다. 이렇게 보면 비석이 없어도 괜찮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유적을 드러내어 사람들이 저마다 한층 더 우러러볼 수 있게 하고 백대의 먼 훗날까지도 행여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려면, 비석이 또 어찌 없어도 된다 하겠는가.

이곳을 다스린 사람 중에 아직까지 이러한 뜻을 품은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마도 나라의 방비를 견고히 하는 데에 급급하여 여기에까지 마음을 쓸 겨를이 없어서일 것이다. 절의가 성지城池나 무기보다 훨씬 더 나라를 굳건히 한다는 것을 안다면, 비석을 세우는 일이 그 누가 급선무가 아니라고 하겠는가.

백씨의 이름은 창집昌集으로, 사실 선생의 아우 문정공文正公 청음淸陰 선생 휘 상헌尙憲의 증손이다. 후세 사람이 만약 이 점을 가지고 이 일이 혹 사사로운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면, 그는 또 지극히 공평하여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는[至公無私] 도를 아는 자가 아닐 것이다.

숭정 기원후 73년 경진년(숙종 26, 1700)에
종증손 가선대부 이조 참판 김창협이 글을 짓고
종증손 가선대부 강화부 유수 겸 진무사 김창집이 전자를 쓰고
증손 가선대부 공조 참판 김수증이 글씨를 쓰다.

이 비는 전에는 남문 안 몇 걸음 되는 곳에 있었는데 신묘년에 성을 개축하면서 남문의 옛 터에 옮겨 세웠다. 공의 종증손 창국이 그 때에 본부의 경력으로 있으면서 이 일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비를 세운지 오래되어 벗겨지고 깎여서 거의 읽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후손들이 상의하여 돌을 다듬어 옛 글씨를 모사하여 새기고 각을 지어 세우니, 공께서 순의하신 네 번째 정축년(1817, 순조 17)이다.

6대손 숭정대부 행이조 판서 겸 판의금부사 김이양이 기록하고
7대손 숭정대부 행예조 판서 겸 예문관 제학 세자 좌빈객 김희순이 글씨를 쓰다.

해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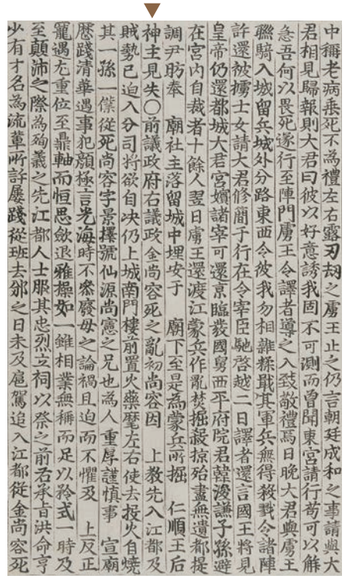
병자호란 때 순절한 김상용의 충절忠節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김상용은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빈궁嬪宮과 원손元孫을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했다. 청나라 군대가 강화로 들어오는 날, 김상용은 강화읍성의 남문에 화약을 쌓아 놓고 담배를 피워 화약을 모두 폭발시키고 순절하였다.참고1-1 이 사건에 대해 담배도 피우지 않던 사람이 담배를 찾은 것은 순절할 의도였다고 해석하는 의견과 부주의에 의한 실수였다는 주장이 있었다.참고1-2 동생 김상헌을 중심으로 자손들이 김상용의 순절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조정에서는 순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당시의 논쟁을 의식해서인지, 김상헌은 김상용의 행장과 신도비문에 그의 죽음에 대해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하였다.참고1-3 이 죽음은 이후 안동 김문이 성세盛世를 누리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김상용이 순절하고 60여 년 뒤, 김창집이 강화부사로 부임하여 증조부의 충절을 기리고자 세운 비석이 이것이다. 하지만 김상용은 자신의 삶이 후세에 간단명료하게 기억되길 원했다. 김상용이 직접 쓴 묘지명과 사위 장유가 곁에서 본 인간 김상용에 대한 글을 함께 소개한다.참고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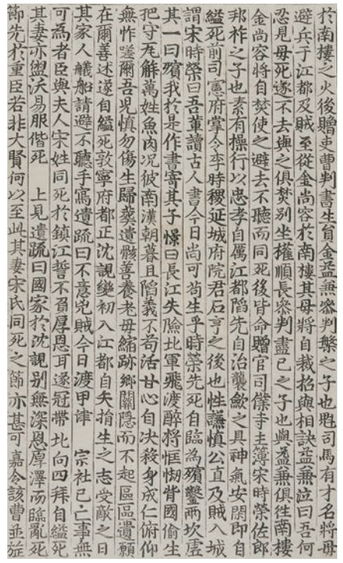
현재 순의비각 안에는 2기의 비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하나는 1817년(순조 17) 김상용의 7대손인 김희순이 세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1700년(순조 26) 김창집이 건립한 원 비석이다. 조선시대에는 원 비석이 풍화되어 상태가 나빠지면 후손들이 원 비석을 땅에 묻고 비석을 새롭게 만들어 세웠는데, 1976년 지금의 자리로 비각을 옮기던 중 땅에 묻혀있던 원 비석을 발견하여 함께 세운 것이다.

—

These steles were erected to commemorate the loyalty and patriotism of Kim Sangyong. With the outbreak of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1636-1637), Kim Sangyong took some of the spirit tablets of Joseon queens and kings and fled to Ganghwa Island, hoping to protect them. After the fall of the fortress of Ganghwa Island, however, Kim Sangyong committed suicide. His spirit and sacrifice were honored with the two steles that now stand inside a protective structure. The first one was erected by Kim Changjip in 1700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By 1817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the first stele had been eroded, and was thus buried and replaced with the second stele, erected by Kim Maesun. In 1976, when the protective structure was relocated, the first stele was excavated and placed alongside the second one.

김상용순의비각과 순의비,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5호(비석) ©문화재청





참고 1-1
김상용의 졸기
金尙容卒記

『인조실록仁祖實錄』 권34
조선, 1637년 1월 22일
책, 금속활자본, 54.9×34.0cm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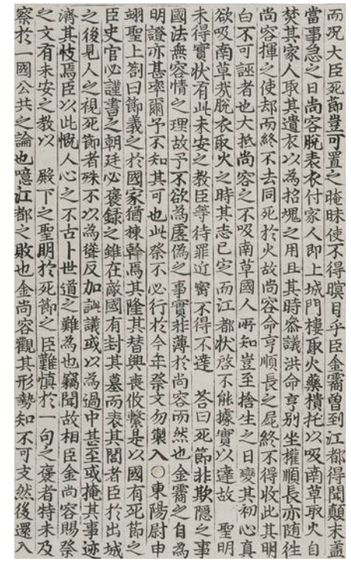
번역문

전 의정부 우의정 김상용이 죽었다. 병자호란 초기에 김상용이 임금의 명에 따라 먼저 강화도에 들어갔다. 적이 급박하게 들이닥치자 임시 관청[分司]에 들어가 자결하고자, 성의 남문루에 올라가 앞에 화약을 쌓고 좌우를 물러가게 하고 불에 뛰어들어 타 죽었다. 그의 손자 한 명과 하인 한 명이 따라 죽었다.

김상용의 자는 경택景擇이고 호는 선원仙源으로 김상헌金尙憲의 형이다. 사람됨이 중후하고 행동을 삼가고 조심했다. 선조宣祖(재위 1567-1608) 대에 청직淸職과 화직華職을 두루 역임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임금이 싫어해도 있는 힘을 다해서 의견을 주장하였다. 광해군光海君(재위 1608-1623) 대에는 폐모廢母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 화를 입을 뻔 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인조반정 이후 더욱 총애를 받아 삼공三公의 지위[鼎軸]에 이르렀지만, 항상 몸을 단속하고 물러날 것을 생각하며 항상 바른 지조를 지켰다. 정승으로서 뛰어난 업적은 없다 하더라도 한 시대의 모범이 되기에는 충분하였다. 국가가 위험에 처하자 먼저 의리義理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므로 강화도의 사람들이 그의 충렬忠烈에 감복하여 사우祠宇를 세워 제사를 지냈다.

해 설

이는 강화도에서 순절한 날인 1637년 1월 22일 실록에 실린 김상용의 졸기이다. 여기에는 함께 순절한 홍명형洪命亨(1581-1636), 김익겸金益兼(1614-1636), 권순장權順長(1607-1636) 등 10인의 졸기가 기록되어 있다. 1642년 강화도 유수부留守府에서는 충렬사忠烈祠(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1호)를 건립하고 병사호란 때 순절한 이들을 배향하였다.



참고 1-2
김상용에 대한 제문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돌려주다
此祭文還出給

『인조실록』 권35
조선, 1637년 10월 28일
책, 금속활자본, 54.9×34.0cm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번역문

예조가 우의정 김상용에게 치제致祭하기를 청하였다. 조중려趙重呂가 제문을 지어 바쳤는데, "태산泰山처럼 의리를 무겁게 하였고 홍모鴻毛처럼 목숨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부분이 있었다. 임금께서 사실과 맞지 않는 듯하다하여 쪽지를 붙여 내리고 조중려를 불러 물었다. 조중려가 대답했다. "김상용은 사생死生의 대절大節에 대하여 평소에 강구한 것이 있으므로 죽을 때에 먼저 화약火藥을 가져와서 불을 떨어뜨려 살신殺身의 인仁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애매모호한 일이 아니며 칭찬해야 할 일입니다. 남의 착한 일을 숨길 수 없으므로 제문에 사실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이런 분부를 받으니, 매우 황공합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착한 것을 칭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칭찬하는 말이 참되어야 죽은 자가 영화롭고 산 자가 사모할 것이다. 국가의 사체事體는 매우 중대한데, 어찌 칭찬만 위주로 하여 진위를 가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짐짓 불을 떨어뜨렸다는 말도 그럴듯하지 않다. 이 제문은 도로 내어 주라." (중간 생략) "절의를 지켜 죽은 것은 속일 일이 아니고 나라의 법은 사정을 용납할 수 없으므로, 내가 거짓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지 김상용에게 박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김휼金霘이 명백한 증거라 하는 것도 매우 경솔하여 나는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이 제사는 반드시 올해에 행할 것이 없으니, 제문은 짓지 말라."

해 설

김상용의 죽음 10개월 뒤 예조禮曹에서 김상용의 순절을 기리기 위해 제사를 올리기를 청하며 제문을 바쳤다. 이때 인조는 실화失火로 인한 죽음인지, 순절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제문을 짓지 말라고 하며, 순절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김상헌과 자손들, 노론계 인사들이 거듭 상소를 올려 인조는 결국 김상용의 순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참고 1-3
의리를 지키기 위해 순절하다
– 김상헌이 쓴 김상용 행장에서
伯氏右議政仙源先生行狀

김상헌
『청음선생집淸陰先生集』 권37
조선, 1640년경
책, 목판본
19.8×15.0cm
구9569

*이 행장은 6,321자로, 김상용의 생애와 순절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글이다. 여기에서는 순의비와 관련된 병자호란 당시 순절 부분과 후대의 평가 부분만 소개하였다.

번역문

(앞부분 생략)

12월 12일에 의주에서 위급함을 알리는 글이 올라오자, 순식간에 명령을 내려 늙고 병든 재신들은 먼저 도성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 14일에 정승 윤방尹昉에게 명하여 종묘와 사직을 받들고 먼저 강도江都[현재 강화도]로 가게 하였다. 선생께서는 이들의 뒤를 따라갔는데, 도중에 갑작스럽게 감기가 심해져 거의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이날 적병이 송경松京을 지났는데, 파발 군사들이 모두 달아나 우서羽書[군사 편지]가 제때에 이르러 오지 않았다. 임금께서 장차 도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담당 관리에게 차비를 차리게 하였으나, 성안에 소요가 일어나면서 호령이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자 백관들이 대부분 맥이 빠져서 그냥 걸어서 도망쳤으며, 사녀士女들은 길을 메운 채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저녁때가 되어 임금을 모신 가마가 비로소 출발하였는데, 호위하는 군사가 엉성하여 제대로 대열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미처 성문에 이르기도 전에 적의 염탐하는 군대[哨馬]가 이미 서쪽 교외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올라왔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찌하면 좋을지 몰랐다. 여러 신하들 가운데 어떤 자가 임금께서 우선은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행행하라고 권함에 따라, 드디어 임금께서 타신 가마를 돌려 수구문水口門을 지나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는데, 강도와는 연락이 단절되었다.

오랑캐들이 남한산성을 포위한 지 반달이 지나도록 다른 지역에서는 근왕勤王 군사가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달을 넘겨 이듬해 정축년(1637, 인조 15) 1월이 되어서야 충청감사 정세규鄭世規가 군사를 이끌고 먼저 왔다가 오랑캐를 만나 궤멸되었다. 그러자 뒤에 온 여러 군사들은 관망만 하면서 진격하지 않으므로, 성안이 더욱 위태롭게 되었다. 그런데도 강도검찰사江都檢察使 김경징金慶徵과 부사 이민구李敏求, 유수 장신張紳 등은 모두 처자식만 끼고 돌며 자신의 권한만 주장하면서 지키고 싸울 대비책은 생각하지 않은 채 오직 날마다 편안하게 지내기만 일삼았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규계하고 경책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기세를 부리며 꺾어 버렸으므로, 곁에서 보는 자들이 모두 한심스럽게 여겼다.

선생께서는 걱정과 분노가 특히 심해 분노하며 말하였다. "행재소가 포위된 지가 이미 오래되어 위급한 사태가 아침저녁 사이에 있게 되었다. 지금 정세규가 패하였는데, 거리에 떠도는 말이 그가 이미 죽어 호서군湖西軍에 군사軍事를 주관할 자가 없다고 한다. 강도에는 검찰사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니 부사는 마땅히 호서로 급히 달려가서 흩어진 병졸들을 수습하고 의병들을 끌어 모으며, 후방에 있는 호남의 군사들을 독려하여, 군사와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위급한 지경에 빠진 군부君父에게 달려 나가야 한다. 이 일은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민구는 가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며, 두려워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하는 것을 꺼렸다. 그러자 김경징과 이민구가 다시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눈치만 보면서 이리저리 핑계만 늘어놓았다.

선생께서 또 말하였다. "남한산성과 소식이 불통되었으니 급히 결사대를 모집하여 임금의 안부를 묻고 오랑캐의 형세를 탐지하여야 한다. 열 명을 가게 하면 반드시 한 명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신하 된 자의 의리에 있어서 어찌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서야 되겠는가." 김경징 등은 더욱더 선생의 말을 듣기 싫어하면서 서로 더불어 헐뜯으며 말하였다. "본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으니, 피난 온 대신이 간여할 바가 아니다." 이에 선생께서는 드디어 다시 말하지 않았다.

얼마 뒤에 통진通津의 임시 군수인 김적金迪이 오랑캐들이 대거 이르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장신과 김경징은 모두 믿지 않으면서 말했다. "그런가? 겁쟁이구나. 강물이 세차게 흐르는데, 오랑캐들이 어찌 날아서 건널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군대의 일을 등한시하였다. 21일에 오랑캐들이 포구의 나루터에 이르러 바닥이 평평한 작은 배 두 척에 항복한 자 수십 명을 실어 보내어 우리 측을 시험해 보았다. 그러자 충청수사忠淸水使 강진흔姜晉昕이 먼저 도망치고, 검찰사와 유수 등 여러 관원들이 일시에 배를 빼앗아 타고 도망쳤다. 오랑캐들이 드디어 진격해 성을 포위하였다.

선생께서는 일이 어찌해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집안사람들과 영결하고는 남쪽 성의 망루의 문[譙門] 가운데로 나가 입고 있던 융의戎衣를 벗어 종에게 준 다음, 불을 놓아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 옷을 남겨둔 것은 복復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생의 손자인 수전壽全은 나이가 열세 살로 당시에 선생의 곁에 있었는데, 하인에게 끌고서 가게 하니, 옷깃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가지 않은 채 "할아버지를 따라가야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하였고, 하인 역시 떠나가지 않았다. 이에 함께 불에 타 죽었으니, 1월 22일 임술일의 일이었다.

오랑캐들이 물러간 뒤에 여러 아들이 시신을 찾고자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이에 이해 4월 16일에 남겨 놓은 의관衣冠을 가지고 양주楊州 도혈리陶穴里의 선영 곁에 있는 동남쪽[巽向]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아, 애통하고 애통하다. 선생께서는 가정嘉靖 신유년(1561, 명종 16) 5월에 태어났으니, 77세였다. 일찍이 스스로 살아 있을 때 자신의 묘지墓誌를 지어 놓았으므로, 이에 따라 장사를 지내었다.

해 설

강화도 사건 이후 인조仁祖(재위 1623-1649)는 김상용의 순절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노론의 대신들과 김상헌, 그의 자손들이 거칠게 항의하여 순절을 인정받았다. 당시 조정의 논쟁을 의식해서인지, 김상헌은 김상용의 행장과 신도비문을 인물의 일대기순 서술이 아니라 강화도에서의 순절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신도비에 비해 분량의 제한이 적은 행장은 무려 6,300자가 넘는 장문의 글로 극적인 요소가 풍부하다. 특히 13살 손자 수전壽全이 옷깃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가지 않은 채 "할아버지를 따라가야지, 어디로 가겠습니까."라며 따라 죽는 부분은 읽는 이의 눈시울을 적신다.

참고 1-4

김상용이 직접 지은 자신의 묘지명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仙源居士自述墓銘

김상용

『선원유고仙源遺稿』 하下

조선, 1634년경

책, 목판본, 18.7×16.0cm

한국문집총간65

번역문

(앞부분 생략)

중국 천자의 조정에 축하 사절로 한번 다녀왔고, 국학[성균관]의 좨주[祭酒]로 있었으며, 병조와 형조의 시랑[侍郎[참의]]을 지냈다. 간성諫省[사간원]의 대사간大司諫으로 있으면서 궁궐 안이 엄숙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여, 한마디 말로 임금의 마음을 거슬러[逆鱗] 세 번이나 지방관을 지냈다[製錦].[1] 지신知申[도승지], 도헌都憲[사헌부], 경윤京尹[한성부판윤], 사구司寇[형조판서]로서 주머니를 여미듯 자신을 숨겨[括囊]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고, 올바름을 실천하여[履貞] 허물이 없었다.[2]

시절이 마침 비운否運에 해당하고 세상이 긴 밤의 시간에 들었으나 뜻을 지키며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르지[隨波] 않고 거친 들로 은둔했다[肥遯].[3] 나라의 천명이 새로워져서 폐지되었던 것을 일으키고 억울한 것을 풀고 펼치니, 종백宗伯과 참찬叅纂을 지내고 이조와 병조兵曹의 판서가 되었다. 다시 금오金吾[의금부]의 직職을 겸했으며 경연의 빈객으로서 삼사三事[의정]의 직위에 올랐으나 부끄럽게도 함유일덕咸有一德이 부족했다.

본성이 우직하고 말수가 적으며, 담백하고 고요하게 자신의 지조를 지켰다. 관직은 정내鼎鼐[정승]의 지위에 있으나, 산업은 옛날과 마찬가지였다. 늘그막에 청풍계에 집터를 골랐는데, 수석水石이 매우 아름다웠다. 언덕과 골짜기를 거닐며 본분을 즐기니, 주리고 목마름도 잊었다.

약간 년에 일생을 마쳤다. 아들이 넷, 딸이 일곱이다. 광형光炯, 광환光煥, 광현光炫이 아들이며, 광소光燾는 서자이다. 여러 손자와 사위가 너무 많으므로 일일이 기록하지 않는다.

아무 해에 이곳에 묻었다. 공이 스스로 비명을 지었다.

1 지방관을 지냈다[製錦]: 제금製錦은 비단을 마름질하여 옷을 짓는다는 뜻으로, 지방관이 뭠을 비유한 것이다.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 정鄭나라의 자산子產이 "어린 사람에게 수령을 시키는 것은 비단을 주어 마름질을 배우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한 말에서 유래했다.

2 주머니를……없었다: 괄낭은 주머니를 여민다는 뜻으로, 속에 감추어 두고서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역周易』 「곤괘坤卦」 육사六四에 "주머니 끈을 묶듯이 하면 허물도 없고 칭찬도 없을 것이다.[括囊无咎无譽.]"라는 구절이 있다.

3 거친 들로 은둔했다[肥遯]: 비둔은 세상을 피해 은둔하여 마음에 아무런 의심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주역』 「둔괘遯卦 · 상구上九」에 "여유로운 은둔이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肥遯無不利.]"라는 구절이 있다.

해 설

김상용은 자신의 삶에 대해 간단하고 객관적인 서술을 남겼다. 김상용은 이 글을 지을 때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묘지명에는 절의와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잘 나타나 있다. 김상용이 늘그막에 노닐고자 했던 청풍계는 그의 자손들이 학문과 예술을 꽃피우는 터전이 되었다.

참고 1-5

풍계 김공이 직접 지은 자신의 묘지명에 덧붙여 쓰다

故右議政楓溪金公自撰墓銘後敍

장유張維(1587-1638)

『계곡선생집溪谷先生集』 권7

조선, 1640년경

책, 목판본, 31.4×19.2cm

구6300

번역문

(앞부분 생략)

공은 선천적으로 강직하고 굳센 자질을 타고났다. 뜻이 정해지면 진 무왕秦武王 때의 역사力士인 맹분孟賁과 하육夏育[賁育]도 그의 의지를 바꿀 수 없었다. 공의 청렴결백한 몸가짐은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는 것으로 평소에 단 한 번도 집의 살림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었다. 50년 동안 조정에 있으면서 삼공三公의 지위에 이르렀지만 쌀독이 몇 번이나 비었고, 그때마다 집사람이 빌려와서 생활을 꾸려 나갔다. 의복도 화려하지 않았고 식사에도 고기반찬을 한 가지 이상 놓지 않았으며, 제사 음식도 모두 생활의 정도에 맞게 차리게 하고 이를 자손들이 그대로 따르게 했다.

공은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썼다. 특히 소전小篆과 대전大篆인 전주체篆籀體는 그 경지가 매우 정묘精妙하였다. 그래서 국가의 대전례大典禮 때 사용한 전문篆文이나 온갖 종류의 비액碑額을 보면 공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은데, 공 자신은 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노년에는 공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도 눈병을 이유로 종종 사양했기에 사람들이 공의 글씨를 얻는 것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다.

공은 매우 활발하게 교유하였다. 가장 친하게 지내던 분들은 모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분들로서 문장文章과 덕업德業으로 경상卿相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말년에 절의를 우뚝하게 세워 죽은 뒤에까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된 면에서 본다면 공보다 앞설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世道]로 본다면 어찌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 슬프구나.

해 설

장유는 김상용의 사위로, 어렸을 때 김상용에게 한유韓愈의 글을 배우며 고문古文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는 청나라와의 강화講和를 주장하고 삼전도三田渡의 비문碑文을 쓰는 등 김상용과 사상적 지향이 달랐고, 애연가였던 장유는 김상용에게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꾸지람을 듣기도 했지만 김상용을 존경했다. 이 글에는 장유가 사위로서 곁에서 지켜본 김상용의 일상의 모습이 잘 녹아있으며, 장유가 추억하는 김상용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다.

외할아버지의 문집인 『임당유고』 발문

『林塘遺稿』跋

Postscript of *Collected Works of Jeong Yugil*

2

김상헌
『임당유고林塘遺稿』
조선, 1621년 글, 1638년 간행
책, 목판본, 32.0×20.6cm
구4062

Kim Sangheon
Collected Works of Jeong Yugil
Joseon Dynasty 1621 (writing), 1638 (printing)
Woodblock printing on paper, 32.0×20.6cm
koo 4062

원 문

我外王父遺稿詩摠若干首. 嗚呼, 少哉. 小子伏而讀之旣久, 嗚呼, 不少哉. 王父十七, 中司馬, 二十四, 擢大魁, 以文詞大名於世, 賜暇東湖之書堂, 讀書儲養. 書堂故事, 陞堂上者輒去之, 獨王父仍命賜暇. 遂由書堂進提學, 由提學進大提學. 大提學卽古之大學士, 主文柄者也. 時中廟明廟繼好文詞, 館閣詞賦之作, 一歲月之間, 盈於箱篋. 王父天得逸才, 下筆連數十篇, 動若神助. 一時輩流雖以敏捷稱者, 皆自謂不及. 是以平生所著述極多, 殆數千萬首. 未及梓行, 遭壬辰兵禍失之. 今之所存乃千百之十一,[1] 豈不爲少也哉. 竊觀詩之道, 倡於虞廷賡載之歌, 而盛於周官列國采詩之後, 于以考其政治之得失, 風俗之美惡, 人心之邪正焉. 孔子曰, 溫柔敦厚, 詩教也. 苟於是乎近之, 雖一篇可也. 曷嘗以多爲尙也. 但不知觀此稿者, 能識其詩教之所發特深否也.[2] 小子固不敢妄爲形容, 而人之知不知, 又不須辨焉. 謹藏之, 以爲後世子孫寶焉. 至於遭遇太平, 坐鎭廊廟, 丕贊三朝文治之德之功, 有彝鼎之銘, 旂常之紀, 太史之筆, 永垂於不朽者, 斯不復贅云.
天啓辛酉秋, 外孫安東金尙憲謹識.

*김상헌의 『청음선생집』 권39에 「林塘遺稿跋」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 今之所存乃千百之十一: 『청음선생집』에는 "今之所存迺千百之十一"라 되어 있다.

2 能識其詩教之所發特深否也: 『청음선생집』에는 "能識其詩教之所發特深否歟"라 되어 있다.

번역문

내 외할아버지의 유고遺稿에는 시詩가 다만 몇 수만이 실려 있다. 아, 참으로 적구나. 소자小子[김상용]가 엎드려서 오랫동안 읽어 보았더니, 아, 적지 않구나.

외할아버지께서는 17세에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고, 24세에 대과大科에 급제하여 글로 세상에 크게 이름을 떨쳤으며, 동호東湖의 독서당[3]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하면서 소양을 길렀다. 독서당의 규칙에 당상堂上으로 승진하면 곧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유독 외할아버지만은 그대로 사가독서하라고 명하였다. 드디어 독서당을 거쳐서 제학提學으로 승진하고, 제학을 거쳐 대제학이 되었다. 대제학은 바로 옛날의 대학사大學士로, 문장을 주관하는 자리이다. 당시에 중종대왕과 명종대왕께서 글을 좋아하여 홍문관과 예문관에서 문장[詞賦]을 지은 것이 한 해 사이에 책 상자에 가득 찼다. 외할아버지께서는 타고난 재주로 붓을 들면 잇달아 수십 편을 지었으니, 신령이 도와주는 것만 같았다. 당시의 벗들은 아무리 민첩하다고 불리는 이들도 모두 스스로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다. 이에 평생 저술한 바가 아주 많아 거의 수천 수나 되었다. 그러나 미처 간행하기도 전에 임진년(1592, 선조 25)의 병화兵禍를 만나 모두 잃어버렸다. 지금 남겨진 것은 백분의 일 정도밖에 안 되니, 어찌 적은 것이 아니겠는가.

시를 보는 이치는 우정虞庭의 「갱재가賡載歌」[4]에서 시작되어 주관周官에서 열국列國의 시를 채집한 뒤에 성대해졌는데, 이것으로 정치의 득실과 풍속의 미악美惡과 인심의 사정邪正을 살폈다. 공자孔子께서 "온유돈후溫柔敦厚가 시의 가르침이다."라 하셨으니, 참으로 이 이치에 가까운 것이라면 한 편만 남아 있더라도 괜찮은 것이다. 어찌 많은 것을 숭상하였겠는가. 다만 이 유고를 보는 자들이 그 시교詩敎가 드러난 것이 특히 깊다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 소자가 참으로 섣불리 묘사할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알고 모르는 것은 또 따져 볼 필요도 없다. 삼가서 잘 보관하여 후세에 자손들의 보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태평의 시대를 만나 조정[廊廟]에 듬직하게 앉아 세 임금을 크게 도와 문치文治를 이룩한 덕과 공에 대해서는 이정彝鼎의 명銘과 기상旂常의 기紀와 태사太史의 필筆[5]이 있어 영원토록 썩지 않고 드리워질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다시 군더더기 말을 늘어놓지 않는다.

천계天啓 신유년(1621, 광해군 13) 가을에 외손자 안동安東 김상헌은 글을 짓다.

3 동호東湖의 독서당: 1517년(중종 12)에 한강 연안의 두모포豆毛浦[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지은 독서당이다.

4 우정虞庭의 「갱재가賡載歌」: 우정은 순舜 임금의 조정을 말하고, 「갱재가」는 고요皐陶가 불렀다는 노래이다. 『서경』 「익직益稷」에 있다. "고요가 손을 올리고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고……이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기를, '임금이 밝으시면 대신들이 훌륭하여 뭇 일들이 편안하리라.[元首明哉 股肱良哉 庶事賡哉.]' 하였다."

5 태사太史의……필筆: 이정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신주神酒를 따르는 데 쓰는 세 발 달린 솥이다. 옛날에는 여기에 공로가 있는 신하들의 이름과 공적 사항을 기록하였다. 기상旂常은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깃발이다. 태사는 사관史官을 가리킨다.

해 설

『임당유고』는 김상용과 김상헌의 외할아버지 임당林塘 정유길鄭惟吉(1515-1588)의 문집이다. 정유길은 많은 시문을 남겼지만 2차례 왜란으로 대부분 사라졌다. 이후 아들 정창연鄭昌衍이 유고遺稿를 수집하고 김상용, 김상헌이 1621년 책의 형태로 만들고, 1622년 신흠申欽에게 서문序文까지 받았으나, 인조반정,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을 겪으며 계속 간행하지 못했다. 1637년 증손曾孫 정태화鄭太和가 충청도관찰사가 되어 마침내 이 책을 간행하였다. 정유길은 동호의 독서당에서 이황李滉, 김인후金麟厚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공부하였다. 정유길은 장동 김문에게 예술적 재능과 함께 당대 유명 인사들과 교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중요한 인물이다.

—

Jeong Yugil (鄭惟吉, 1515-1588), whose penname is "Imdang" (林塘) comes from a family from Dongnae, Busan. As a venerated writer and calligrapher, Jeong Yugil closely communicated with many renowned scholars of the time, including Yi Hwang and Kim Inhu. This legacy and network of literary talent would have a deep influence on the lives of Jeong Yugil's maternal grandchildren, Kim Sangyong and Kim Sangheon.

『종덕신편』 뒤에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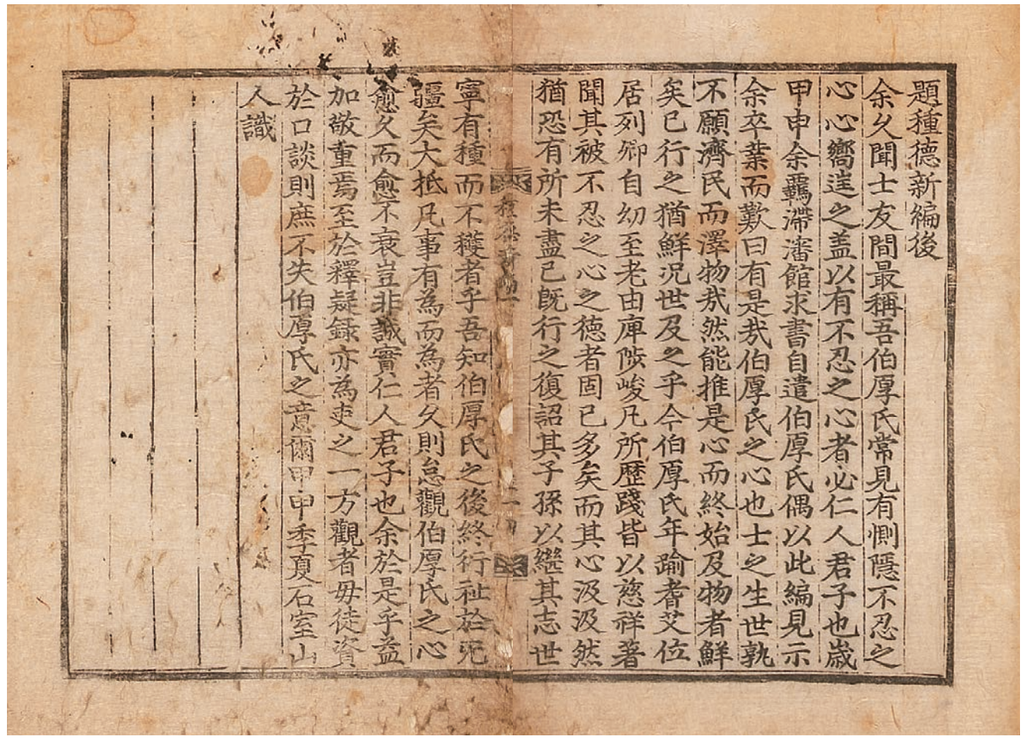
題種德新編後

Postscript on *New Edition of Cultivation of Morals* (種德新編)

김수항
『종덕신편種德新編』(김육金堉 저)
조선, 1644년
책, 목판본, 33.0×21.3cm
구4058

Kim Suhang
New Edition of Cultivation of Morals (種德新編) (Kim Yuk, writer)
Joseon Dynasty 1644
Woodblock printing on paper, 33.0×21.3cm
koo 4058

3


題種德新編後
余久聞士友間最稱吾伯厚氏常見有惻隱不忍之
心心嚮往之蓋以有不忍之心者必仁人君子也歲
甲申余羈滯瀋館求書自遣伯厚氏偶以此編見示
余卒業而歎曰有是哉伯厚氏之心也士之生世孰
不願濟民而澤物哉然能推是心而終始及物者鮮
矣已行之猶鮮況世及之乎今伯厚氏年踰耆艾位
居列卿自幼至老由庫陟峻凡所歷踐皆以慈祥著
聞其被不忍之心之德者固已多矣而其心汲汲然
猶恐有所未盡已既行之復詔其子孫以繼其志世
寧有種而不穫者乎吾知伯厚氏之後終衍祉於无
疆矣大抵凡事有為而為者久則怠觀伯厚氏之心
愈久而愈不衰豈非誠實仁人君子也余於是乎益
加敬重焉至於釋疑錄亦為吏之一方觀者毋徒資
於口談則庶不失伯厚氏之意爾甲申季夏石室山
人識

원 문

余久聞士友間, 最稱吾伯厚氏常見有惻隱不忍之心, 心嚮往之. 蓋以有不忍之心者, 必仁人君子也. 歲甲申, 余羈滯瀋館, 求書自遣, 伯厚氏偶以此編見示. 余卒業而歎曰, 有是哉, 伯厚氏之心也. 士之生世, 孰不願濟民, 而澤物哉. 然能推是心, 而終始及物者鮮矣. 已行之猶鮮, 況世及之乎. 今伯厚氏年踰耆艾, 位居列卿. 自幼至老, 由庫陟峻, 凡所歷踐, 皆以慈祥著聞. 其被不忍之心之德者, 固已多矣, 而其心汲汲然, 猶恐有所未盡. 已既行之, 復詔其子孫, 以繼其志. 世寧有種, 而不穫者乎. 吾知伯厚氏之後, 終衍祉於無疆矣. 大抵凡事有爲而爲者, 久則怠. 觀伯厚氏之心, 愈久而愈不衰. 豈非誠實仁人君子也. 余於是乎益加敬重焉. 至於『釋疑錄』, 亦爲吏之一方. 觀者毋徒資於口談, 則庶不失伯厚氏之意爾. 甲申季夏石室山人識.

*김상헌의 『청음선생집』 권39에 「書金侍郎伯厚種德新編後」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번역문

나는 오래전에 친구들이 백후씨伯厚氏[1]가 항상 측은지심惻隱之心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칭찬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저절로 끌렸다. 측은지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仁人君子]이기 때문이다.

갑신년(1644, 인조 22)에 내가 청나라 심양瀋陽에 억류되어 있을 때, 책을 구해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었다. 백후씨가 우연히 이 『종덕신편』을 보여 주었는데, 나는 이 책을 다 읽은 후 감탄하였다.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백후씨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태어난 선비 중 어느 누가 백성들을 구하고 만물에 은택을 미치게 하고자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그 마음을 발전시켜 항상 만물에 영향을 주는 자는 거의 없다. 스스로 실천하는 것도 드문데, 세상 사람들에게 은택을 미치는 자이겠는가.

지금 백후씨는 나이가 예순 살을 넘었으며, 높은 관직[列卿]에 올랐다. 어려서부터 만년까지 낮은 자리부터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지나온 관직마다 모두 자상하다고 소문이 났다. 측은지심의 덕을 입은 자들이 참으로 많을 것인데도 그는 스스로 마음을 급급해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을까 염려하는 듯했다. 이에 자신이 이미 실천하고, 또 자손들을 가르쳐 그 뜻을 잇게 하였다. 세상에 씨를 뿌리고서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는가. 나는 백후씨의 후손들이 끝내 무한한 복을 받을 것임을 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속셈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경우에는 오래 지나면 게을러진다. 백후씨의 마음을 살펴보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더 쇠하지 않았다. 어찌 성실하고도 어진 군자가 아니겠는가.

나는 이에 더욱 공경하고 소중하게 여겼다. 『석의록釋疑錄』[2]도 훌륭한 관리가 되는 방도가 될 수 있다. 책을 읽는 자들이 말만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면 백후씨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갑신년(1644, 인조 22) 늦여름에 석실산인石室山人이 글을 짓다.

해 설

윤근수尹根壽의 문하에서 같이 공부한 김육은 열 살 무렵 『소학小學』 「가언嘉言」에 있는 정명도程明道의 "참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을 반드시 구할 수 있을 것이다.[苟存心於愛物 於人必有所濟]"라는 구절에 감동받고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 두었다가 이 책을 지었다고 한다. 김상헌도 어려서부터 『소학』을 공부하고 실천하고자 했으며, 정인홍鄭仁弘 사건에 연루되어 외직外職에 근무하면서 매일 『소학』을 수백 번 읽으면서 많은 힘을 얻었다. 김상헌이 추구한 학문은 현실과 떨어져 있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소학』은 그의 지향점에 맞는 수양서였다. 이러한 학풍은 가풍으로 연결되어 삼수육창三壽六昌 학문의 기반을 이루었다.

1 백후씨伯厚氏: 백후는 김육金堉(1580-1658)의 자이다. 본관은 청풍淸風, 호는 잠곡潛谷, 시호 문정文貞이다. 전란 이후 국가 재정 등을 복구할 때, '대동법' 등의 제도를 시행하여 백성 구제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 이외에도 상평통보의 주조, 마차 및 수차의 제조와 보급 등 혁신적인 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다.

2 『석의록釋疑錄』: 중국 역대 지방관들의 명판결을 모은 책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의 마음의 거울로 삼기 위하여 저술한 듯하다.

—

Revered as a Neo-Confucianist scholar and paragon of integrity, Kim Suhang wrote the annotation for New Edition of Cultivation of Morals (種德新編), a guide to help average people improve their morality and behavior.

곡운 김수증 선생 묘표 탑본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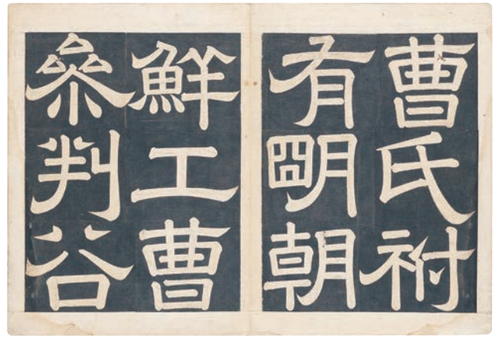
谷雲先生墓表搨本帖

Album of Rubbings of the Epitaph from the Tomb of Kim Sujeung and His Wife

4

글 김창흡
조선 후기
첩, 탑본, 각 면 40.6×28.5cm
덕수2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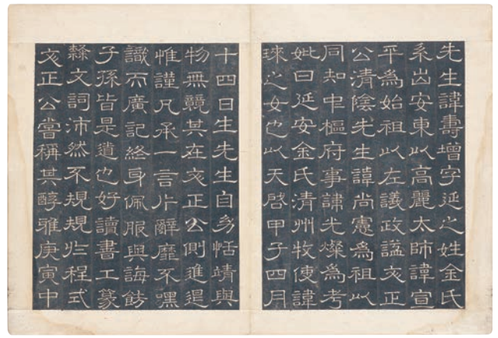
Kim Changheup (writing)
Late Joseon Dynasty
Rubbings on paper, 40.6×28.5cm (each page)
duk 2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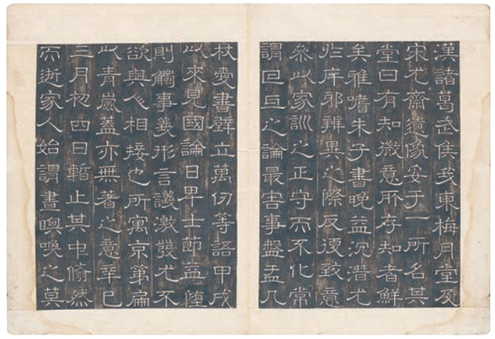
3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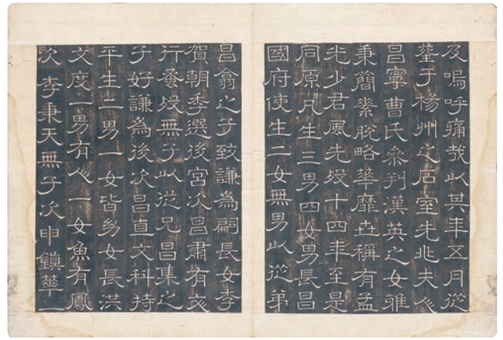
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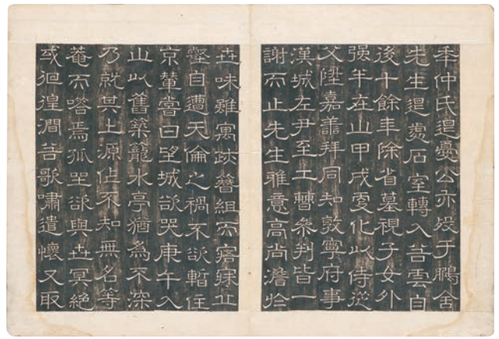
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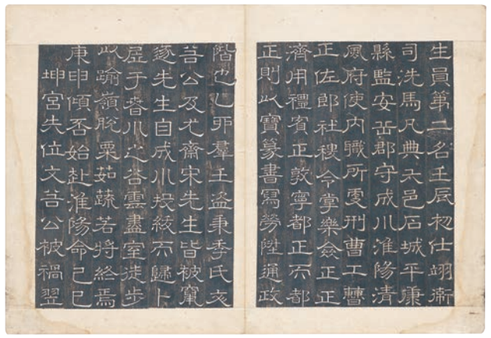
13 12



1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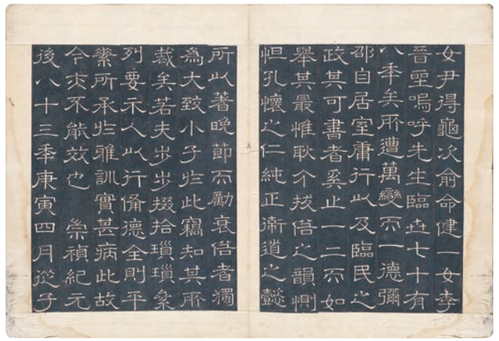


11 10



9 8

18



17 16

원 문

贈貞夫人 昌寧 曹氏 祔 有明 朝鮮 工曹叅判 谷雲 先生 金壽增之墓

先生諱壽增, 字延之, 姓金氏, 系出安東, 以高麗太師諱宣平爲始祖, 以左議政諡文正公淸陰先生諱尙憲爲祖, 以同知中樞府事諱光燦爲考, 妣曰延安金氏, 淸州牧使諱琠之女也. 以天啓甲子四月十四日生先生, 自幼恬靖, 與物無競, 其在文正公側, 進退惟謹, 凡承一言片辭, 靡不默識而廣記, 終身佩服與誨飭子孫, 皆是道也, 好讀書工篆隷, 文詞沛然, 不規規於程式, 文正公嘗稱其醇雅, 庚寅, 中生員第二名, 壬辰, 初仕翊衛司洗馬, 凡典六邑, 石城平康縣監, 安岳郡守, 成川淮陽淸風府使, 內職所更, 刑曹工曹正佐郎, 社稷令, 掌樂僉正, 正, 濟用禮賓正, 敦寧都正, 而都正則以寶篆書寫勞, 陞通政階也, 乙卯, 羣壬盜秉, 季氏文谷公及尤齋宋先生皆被竄逐, 先生自成川投紱而歸, 卜居于春川之谷雲, 盡室徒步以踰嶺, 脫粟茹蔬, 若將終焉. 庚申傾否, 始赴淮陽命, 己巳坤宮失位, 文谷公被禍, 翌年, 仲氏退憂公亦歿于鵬舍, 先生退處石室, 轉入谷雲, 自後十餘年, 除省墓視子女外, 强半在山, 甲戌更化, 以侍從父, 陞嘉善, 拜同知敦寧府事, 漢城左尹, 至工曹叅判, 皆一謝而止, 先生雅意高尙, 澹於世味, 雖寓迹簪組, 而寤寐丘壑, 自遭天倫之禍, 不欲暫住京輦, 嘗曰望城欲哭, 庚午入山, 以舊築籠水亭猶爲不深, 乃就其上源, 作不知, 無名等菴而嗒焉孤坐, 欲與世冥絶, 或徊徨澗谷, 歌嘯遣懷, 又取漢諸葛武侯我東梅月堂及宋尤齋遺像, 妥于一所, 名其堂曰有知, 微意所存, 知者鮮矣. 雅嗜朱子書, 晩益沉潛, 尤於斥邪辨異之際, 反復致意, 叅以家訓之正, 守而不化, 常謂回互之論最害事, 盤盂几杖, 愛書壁立萬仞等語, 甲戌以來, 見國論日卑, 士節益墮, 則觸事義形, 言議激發, 尤不欲與人相接也. 所寓京第, 扁以靑嵐, 蓋亦無著之意, 辛巳三月初四日, 暫止其中, 翛然而逝, 家人始謂晝瞑, 喚之莫及. 嗚呼痛哉. 以其年五月五日, 從葬于楊州之石室先兆, 夫人昌寧曹氏, 叅判漢英之女, 雅秉簡素, 脫略華靡, 世稱有孟光少君[1]風, 先沒十四年, 至是同原, 凡生三男四女, 男長昌國府使, 生二女無男, 以從弟昌翕之子致謙爲嗣, 長女李賀朝, 季選[2]後宮, 次昌肅有文行, 早沒無子, 以從兄昌集之子好謙爲後, 次昌直文科持平, 生二男一女, 皆幼, 女長洪文度一男有人, 一女魚有鳳, 次李秉天無子, 次申鎭華一女尹得龜, 次兪命健一女李晉聖. 嗚呼. 先生臨世七十有八年矣, 所遭萬變而一德彌卲, 自居室庸行, 以及臨民之政, 其可書者, 奚止一二, 而如擧其最, 惟耿介拔俗之韻, 惻怛孔懷之仁, 純正衛道之懿, 所以著晩節而勵衰俗者, 獨爲大致, 小子於此, 竊知其所裁矣. 若夫步步掇拾, 瑣瑣累列, 要示人以行備德全, 則平素所承於雅訓, 實甚病此, 故今亦不能效也. 崇禎紀元後八十三年庚寅四月[3]從子昌翕謹識[4].

1 孟光少君: 『삼연집』에는 "少君孟光"으로 되어있다.

2 選: 『삼연집』에는 "入"으로 되어있다.

3 崇禎紀元後八十三年庚寅四月: 『삼연집』에는 이 부분이 없다.

4 識: 『삼연집』에는 "述"로 되어있다.

번역문

증정부인 창녕 조씨와 합장한 유명 조선국 공조참판 곡운 선생 김수증의 묘

선생의 휘는 수증壽增이고 자는 연지延之이며 성은 김씨인데 김씨의 가계는 안동에서 나왔다. 고려 태사 선평宣平이 시조이다. 좌의정을 지낸 문정공 청음선생淸陰先生 김상헌金尙憲이 할아버지이고 동지중추부사 김광찬金光燦이 아버지이다. 어머니는 연암김씨延安金氏로 청주목사 주珠의 딸이며, 천계天啓 갑자년 4월 14일에 선생을 낳았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고요함을 좋아하여 남과 겨루지 않았다. 문정공의 곁에 있을 때는 나아가고 물러남을 조심스럽게 하고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가만히 새겨 널리 기억하였다. 종신토록 실천하고 자손에게 가르쳐 준 것은 모두 이렇게 얻은 도리였다. 글 읽기를 좋아하고 전서篆書와 예서隷書에 조예가 깊었으며 문장이 풍부하며 격식에 얽매이지 아니하였다. 문정공은 순수하고 우아하다고 칭찬하였다.

경인년(1650, 효종 즉위년) 생원시에서 두 번째로 합격하였고, 임진년(1652, 효종 3)에 익위사 세마翊衛司洗馬로 관직에 처음 나갔다. 외직으로는 모두 여섯 고을을 맡아 보았는데, 석성현감石城縣監, 평강현감平康縣監, 안악군수安岳郡守, 성천부사成川府使, 회양부사淮陽府使, 청풍부사淸風府使를 역임했다. 내직으로는 형조정랑刑曹正郎, 공조정랑工曹正郎, 공조좌랑工曹佐郎, 사직서령社稷署令, 장악원첨정掌樂院僉正과 장악원정掌樂院正, 제용감정濟用監正과 예빈시정禮賓寺正,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을 지냈다. 돈녕부도정은 보寶의 전서篆書를 베낀 공로로 통정대부의 품계에 오른 뒤 제수되었다.

을묘년(1675, 숙종 즉위년) 일단의 무리가 국가 권력을 도둑질하고, 동생인 문곡공文谷公[김수항]과 우재 송선생尤齋宋先生[송시열]이 모두 유배당했다. 선생은 성천에서 관인官印을 내던지고 돌아와 강원도 춘천의 곡운에 터를 잡고 살았다. 가족이 모두 걸어서 고개를 넘었고 껍데기만 벗긴 곡식과 채소를 먹고 살았다. 그곳에서 일생을 마치려고 하였으나 경신년(1680, 숙종 6)에 막힌 운세가 뒤집혀 회양부사로 부임하라는 명을 받았다. 기사년(1689, 숙종 15)에 왕비가 자리를 잃었고 동생 김수항이 화를 당했으며 이듬해에는 둘째 퇴우공退憂公[김수흥] 역시 유배지[鵬舍]에서 운명하였다. 선생은 석실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곡운으로 들어갔다. 이후 10여 년 동안 성묘와 자녀를 돌보는 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중에 있었다.

갑술년(1694, 숙종 20) 정국이 바뀌자 시종관侍從官으로서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고,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과 공조참판工曹叅判에 임명되었으나 한 번 사은하고 그만두었다. 선생은 뜻이 고상하고 세상일에 담담하여 관직에 발을 붙이고 있을 때도 자나 깨나 산골짜기와 들판에 마음을 두었다. 특히 천륜의 화를 당한 후로는 잠시도 서울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으며, "도성을 바라보면 통곡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오년(1690, 숙종 16)에 산에 들어가면서 지어놓은 농수정籠水亭이 별로 깊은 곳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훨씬 위쪽에 부지不知와 무명無名이라는 암자를 지었다. 선생은 우두커니 혼자 앉아 세상과 인연을 끊고자 했으며, 가끔 골짜기를 방황하며 노래와 휘파람으로 회포를 날렸다. 한나라의 제갈무후諸葛武侯, 우리나라의 매월당梅月堂[김시습]과 송우재宋尤齋의 남긴 뜻을 본받아 한 곳에서 안도하기 위해 당堂 이름을 유지有知라고 붙였다. 그러나 이렇게 은밀한 뜻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주자의 글을 좋아하여 만년에는 더욱 파고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사학邪學을 배척하고 이단을 구별하는 부분을 반복해서 궁구하였으며, 이를 참작하여 가훈家訓을 바르게 지키고 물들지

않았다. "돌고 도는 논의가 일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말하면서, 쟁반, 사발, 상자, 지팡이에 "만길 높이의 벼랑에 서있다." 같은 말들을 즐겨 써두었다.
갑술년(1694, 숙종 20) 이후로 정치적 논쟁이 나날이 저속해지고 선비의 절개가 더욱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사건을 마주하면 의기義氣가 치솟아 말씀이 격해져서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다. 한양의 집에 청람靑嵐이라는 편액을 걸어놓은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었는데 신사년(1701, 숙종 27) 3월 4일 잠깐 그 집에 머물렀다가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집안 람들은 처음에는 낮잠을 자는 줄 알고 불렀으나 소용없었다. 아아, 슬프도다! 그해 5월에 선산이 있는 경기도 양주의 석실에 장사지냈다.
부인 창령 조씨昌寧曺氏는 참판 한영漢英의 딸로서 고아하였으며 간소한 것을 좋아하고 소탈하고 사치를 싫어하여, 세상 사람들은 맹광孟光과 소군少君의 풍취가 있다고 했다. 선생보다 1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선생의 장례를 치르면서 합장했다. 3남 4녀를 낳았다. 맏아들 창국昌國은 부사가 되었고 딸 둘을 낳았으나 아들이 없어 사촌동생 창흡昌翕의 아들 치겸致謙으로 후사를 이었다. 창국의 큰사위는 이하조李賀朝이고 둘째 딸은 후궁[영빈 김씨寧嬪金氏]으로 뽑혔다. 둘째 아들 창숙昌肅은 문장에 뛰어났으나 일찍 죽었고 아들이 없어 사촌형 창집昌集의 아들 호겸好謙으로 뒤를 이었다. 셋째 아들 창직昌直은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持平이 되었고 2남 1녀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첫째 딸은 홍문도洪文度와 혼인했는데, 장남은 유인有人이고 장녀는 어유봉魚有鳳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이병천李秉天에게 출가하였는데 자녀가 없다. 셋째 딸은 신진화申鎭華에게 출가하여 1녀를 두었는데 그 딸은 윤득귀尹得龜에게 시집갔다. 넷째 딸은 유명건兪命健에게 출가하여 1녀를 두었는데 그 딸은 이진성李晋聖에게 시집갔다.
아아! 선생은 세상에 내려와 78년을 살았다. 그동안 만 가지 변고를 겪었으나 덕만은 더욱 높아져 집안에서의 일상 생활에서부터 백성을 다스리는 정사에 임해서까지 기록할 만한 것이 어찌 한 둘에 그치겠는가? 그 중에서 가장 우뚝한 것을 들자면 빛나는 절개일 것이다. 속세를 초월한 운치와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널리 생각하는 인자함, 순수한 바름으로 도를 지키는 아름다움은 만 가지 절개로 드러나, 쇠미해진 풍속을 진작시키는 근원으로서 유독 지극하게 되었다. 나 역시 여기에서 선생의 그릇을 알게 되었다. 낱낱이 들추고 나열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행함이 갖추어지고 덕이 온전해지는 것이라면, 평소 받은 아훈雅訓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큰 병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숭정崇禎 기원후 83년 경인년(1710, 숙종 36) 4월
조카 창흡昌翕이 글을 짓다.

해 설

김수증과 학문 성향과 기질이 비슷하며 가장 따르던 조카 김창흡이 지은 김수증의 묘갈명이다. 글씨는 김수증의 예서풍隸書風의 글씨인데 탑본첩에는 글씨를 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고 비석도 마모가 심하여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 김수증의 글자를 집자集字했거나 김수증의 글씨를 계승한 이의 글씨로 보인다. 김수증 개인의 생활에 대한 기록은 많이 전하지 않는데, 동생 김수흥, 김수항과 달리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산수에 은거해 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문에는 김수증이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였고 서예에 조예가 깊었으며, 동생들의 죽음을 겪은 이후로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산속에 은거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김수증의 은거는 산수 속에서 자연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리학적 내면세계를 현실로 구현하는 과정이었다. 김수증이 은거했던 화음동 정사의 바위에는 태극도太極圖, 하도河圖, 낙도洛圖, 팔괘도八卦圖 등이 새겨져 있다.
김수증은 송宋나라 구양수歐陽修(1007-1072)의 학문 경향을 본받아 중국과 한국의 탑본을 모아 세심하게 연구하여 자신의 글씨에 녹아내려고 했다. 이렇게 완성된 김수증의 예서는 이후 서인에서 분파된 노론, 소론의 학자들이 계승하였다.

This album contains rubbings of the epitaph from the double burial mound of Kim Sujeung and his wife. The epitaph was erected in 1710, with an inscription composed by Kim Changhyeop and transcribed in calligraphy by Kim Changheup, who was influenced by Kim Sujeung's calligraphy. Kim Sujeung excelled at multiple styles of calligraphy (including seal script), such that his writings were often used in inscriptions on steles and other objects. Starting with Kim Sujeong, the seal script of the Jangdong Kim clan was prevalent throughout the eighteenth century, appearing in many writings and inscriptions.

바위에 새겨진 태극도, 팔괘도 등

삼일정

삼일정 지붕 모서리의 태극 그림

강원도 화천 화음동 정사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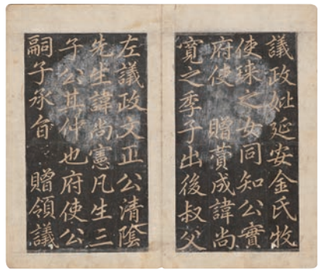
김수흥묘지명 탑본첩
金壽興墓誌銘搨本帖

Album of Rubbings of
the Epitaph from the Tomb of
Kim Suheung and His Wife

5

글 김창협, 글씨 김창흡
조선, 18세기
첩, 탑본, 각 면 32.0×19.0cm
구5342

Kim Changhyeop (writing), Kim Changheup (calligraphy)
Joseon Dynasty 18th century
Rubbings on paper, 32.0×19.0cm (each page)
koo 5342


18 17

16 15

14 13

30 29

28 27

26 25

40 39

38 37

36 35

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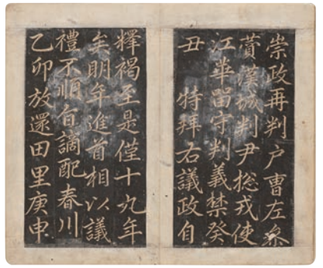
4 3

2 1

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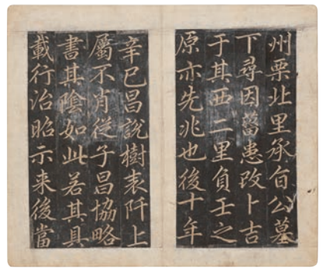
10 9

8 7


24 23

22 21

20 19


34 33

32 31

'宋光涑'을 종이로 가린 모습

원 문

*김창협의 『농암집』 권28에 「仲父退憂先生墓表」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有明朝鮮國議政府領議政退憂堂金公壽興之墓貞敬夫人南原尹氏祔左

公字起之,[1] 號退憂堂, 安東人, 高麗太師宣平之後, 考諱光燦, 同知中樞府事贈領議政, 妣延安金氏, 牧使琡之女, 同知公實府使贈贊成諱尙寬之季子, 出後叔父, 左議政文正公淸陰先生諱尙憲, 凡生三子, 公其仲也. 府使公嗣子承旨贈領議政諱光爀, 無子, 公又出爲其後. 公爲人聰達果敏, 寬簡慈惠. 少學于文正公, 克遵義方. 仁祖戊子, 中司馬一等, 孝宗乙未, 擢庭試, 明年, 又登重試. 初隷承文院,[2] 歷注書, 翰林, 春坊, 玉堂, 諫院, 吏兵曹郎, 知製敎. 辛丑, 通政, 廣州府尹, 大司諫, 承旨, 大司成, 兵曹叅知, 叅議. 甲辰, 嘉善, 京畿監司, 漢城右尹, 都承旨. 丙午, 資憲, 戶曹判書. 丁未, 崇政再判戶曹左叅贊,[3] 漢城判尹,[4] 摠戎使, 江華留守, 判義禁. 癸丑, 特拜右議政, 自釋褐至是僅十九年矣. 明年, 進首相, 以議禮不順旨, 謫配春川. 乙卯, 放還田里, 庚申更化, 起拜領中樞. 戊辰, 復爲首相, 己巳禍作, 安置長鬐. 庚午十月十二日, 卒于謫所, 壽六十五. 越四年甲戌, 姦黨屛殛, 首命復官賜祭, 公始與吾先君, 相次登朝, 同闡詞科, 淸名雅望, 並臨一時已而. 公特以才猷, 顯度支之政, 論者以謂近世少比, 然公雅愛儒術, 尤喜讀朱子書, 前後再相, 皆在吾先君中讒去位之後, 公見陰陽消長已兆, 而一意以匡主德扶士林爲事. 他不顧問, 遂再被竄逐, 卒以柩歸, 以視吾先君, 雖受禍有輕重, 而君子謂其守正不撓, 畢身殉國, 皆不愧爲文正公孫云. 夫人南原尹氏, 牧使衡覺女, 生二男, 昌烈夭, 昌說判官, 五女, 縣令洪澤普, 庶尹宋光涑,[5] 牧使李喜朝, 應敎李晩成, 叅奉李聖佐.[6] 昌說三男四女,[7] 皆幼, 外孫男女二十餘人. 公始葬楊州栗北里承旨公墓下, 尋因菑患, 改卜吉于其西二里負壬之原, 亦先兆也. 後十年辛巳, 昌說樹表阡上,[8] 屬不肖從子昌協, 略書其陰如此, 若其具載行治, 昭示後來, 則當有神道之刻焉爾.[9]

夫人南原尹氏, 承政院承旨晧孫, 星州牧使衡覺之女. 二十歸于公, 性柔惠寬, 簡於物無, 嫌猜於事, 無帶礙其處先後間. 尤善終身無間言, 聽悟强記博通經史. 凡世治亂人賢不得失無不明辨. 雅矜重名節, 當已庚之際變故酷矣. 猶時時收淚, 顧子弟以大義相寬譬, 終不作怨悔語, 其識度如此. 生於天啓丙寅十二月十五日, 卒於崇禎後丙戌九月初六日. 以其十一月初六日, 祔葬于公左. 昌協謹又附記其事於墓石之房.[10]

1 公字起之: 『농암집』에는 "公諱壽興, 字起之"로 되어있다.

2 初隷承文院: 『농암집』에는 "始隷承文院"으로 되어있다.

3 崇政再判戶曹左叅贊: 『농암집』에는 "崇政左叅贊"으로 되어 있다.

4 漢城判尹: 『농암집』에는 "庚戌, 崇祿漢城判尹"으로 되어 있다.

5 庶尹宋光涑: 『농암집』에는 "郡守宋光涑"으로 되어 있다. 탑본첩에는 '宋光涑'이 가려져 있다.

6 應敎李晩成, 叅奉李聖佐: 『농암집』에는 "校理李晩成, 士人李聖佐"로 되어 있다.

7 昌說三男四女: 『농암집』에는 "昌說三男三女"로 되어 있다.

8 昌說樹表阡上: 『농암집』에는 "昌說始樹表阡上"로 되어 있다.

9 若其具載行治, 昭示來後, 當有神道之刻焉爾: 『농암집』에는 "若其本末具載, 昭示後來, 則當有神道之刻焉"로 되어 있다.

10 夫人南原尹氏……昌協謹又附記其事於墓石之房: 『농암집』에는 이 부분이 없다.

번역문

유명 조선국 의정부 영의정 퇴우당 김수흥의 묘, 정경부인 남원 윤씨를 옆에 함께 모시다.

공의 휘는 자는 기지起之, 호는 퇴우당退憂堂이고 본관은 안동으로, 고려 태사太師 선평宣平의 후예이다. 돌아가진 아버지의 휘 광찬光燦으로, 동지중추부사 증영의정이고, 어머니는 연안 김씨延安金氏로, 목사 내琡의 딸이다. 동지공은 사실 부사府使 증 찬성 휘 상관尙寬의 막내아들로, 숙부 좌의정 문정공文正公 청음淸陰 선생 휘 상헌尙憲의 후사로 나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공은 그 중 둘째이다. 부사공의 사자嗣子 승지 증 영의정 휘 광혁光爀에게 아들이 없자 공이 또 나가 그의 후사가 되었다.

공은 사람됨이 총명하여 사리를 통달했으며, 과감하고 민첩하며, 너그럽고 대범하였으며 자애롭고 은혜로운 데다 어려서 문정공에게 수학하여 정도正道를 잘 따랐다. 공은 무자년(1648, 인조 26)에 사마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을미년(1655, 효종 6)에 정시庭試에 뽑혔으며 이듬해에 또 중시重試에 급제하였다. 처음에는 승문원承文院에 서용되었다가 주서, 한림, 춘방春坊, 옥당, 간원, 이조와 병조의 낭청, 지제교를 지냈다. 신축년(1661, 현종 2)에는 통정대부에 올라 광주부윤廣州府尹, 대사간, 승지, 대사성, 병조의 참지와 참의를 지냈고, 갑진년에는 가선대부에 올라 경기감사, 한성우윤, 도승지를 지냈으며, 병오년에는 자헌대부에 올라 호조판서를 지내고 정미년(1667, 현종 8)에는 숭정대부에 올라 좌참찬을 지냈고, 경술년(1670, 현종 11)에는 숭록대부에 올라 한성판윤, 총융사, 강화유수, 판의금부사를 지냈으며, 계축년에는 특별히 우의정에 제수되었는데, 처음 벼슬에 오른 뒤로 이때까지 겨우 19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듬해에 영의정에 올라 예법을 논한 일이 임금의 뜻에 맞지 않아 춘천에 유배되었다가 을묘년(1675, 숙종 1)에 시골로 돌아왔고, 경신년(1680, 숙종 6)에 교화가 새로워지자 다시 영충추부사에 제수되고 무진년(1688, 숙종 14)에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가, 기사년의 화가 일어나 경상도 장기長鬐에 안치되어 경오년(1690, 숙종 16) 10월 12일에 유배지에서 6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그로부터 4년 뒤인 갑술년에 간당奸黨들이 쫓겨나자 맨 먼저 공을 복관復官하고 제사를 내리도록 명하였다.

공은 처음에 우리 선군先君과 차례로 조정에 오르고 함께 문과에 급제하여 청아한 명망이 당대에 나란히 으뜸이었는데, 얼마 뒤에 공은 특히 뛰어난 재능과 계책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데에 이름이 나서 논자들이 "근세에 비할 자 드물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은 평소에 유술儒術을 배우고 특히 주자의 글을 읽기를 좋아하였다. 공이 전후로 두 번 정승에 오른 것은 모두 우리 선군이 참소를 당하여 벼슬을 떠난 뒤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공은 음양陰陽의 소장消長하는 조짐을 보고서 오직 임금의 덕을 바로잡고 사림을 부지하는 것을 일삼고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시 쫓겨나 마침내 널 속에 누운 몸으로 돌아왔다. 우리 선군이 당한 경우와 견주어 보았을 때 비록 받은 화의 크기가 다르기는 하나 군자들은 "정도를 지켜 흔들리지 않고 종신토록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모두 문정공의 손자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였다.

부인은 남원 윤씨南原尹氏로 목사 형각衡覺의 딸인데, 2남 5녀를 낳았다. 아들 중에 창렬昌烈은 요절하였고 창열昌說은 판관을 지냈으며, 딸들은 현령 홍택보洪澤普, 군수 송광속宋光涑, 목사 이희조李喜朝, 교리 이만성李晩成, 사인士人 이성좌李聖佐 등과 혼인했다. 창열은 3남 3녀를 두었는데 모두 아직 어리고, 외손은 손자와 손녀가 20여 명이다.

공의 처음 장지는 양주楊州 율북리栗北里에 있는 승지공承旨公의 묘 아래였다가, 얼마 뒤에 재

환災患으로 그 서쪽 2리 되는 곳의 임좌壬坐 방향인 남남동향의 언덕으로 개장하였는데, 그 역시 선영이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신사년(1701, 숙종 27)에 창열이 비로소 언덕 위에 묘표를 세우려고 부족한 조카인 나[창협昌協]에게 부탁하기에, 이렇게 음기陰記를 썼다. 공의 본말을 자세히 갖추어 후세 사람들에게 밝게 보여 주는 것은 마땅히 따로 신도비에 새겨야 할 것이다.
부인은 남원 윤씨로 승정원 승지 길喆의 손녀이고, 성주목사 형각의 딸이다. 스무살에 공에게 시집왔다. 성품은 부드럽고 은혜로우며 관대했고 물건에 대한 욕심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어 동서지간에 처신함에 항상 문제가 없었다. 평생토록 선하여 사람들의 흠잡는 말이 없었고, 경사에 널리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잘 기억하였으며, 세상의 다스림과 어진 사람들을 명백하게 판단하였다. 평소 명예와 절개를 소중히 여겼으니 기미, 경신 연간의 변고를 매우 고통스러워 했다. 때때로 눈물을 흘렸지만 자식들에게는 대의大義와 너그러운 말을 할 뿐 끝내 원망과 후회의 말은 없었으니, 그 인품이 이러했다. 천계 병인년(1626, 인조 4) 12월 15일에 태어나서 숭정후 병술년(1706, 숙종 32) 9월 6일에 돌아가셨다. 11월 6일에 퇴우당 공의 옆에 함께 모셨다. 창협이 묘석의 옆에 이 일을 삼가 기록한다.

해 설

김수홍은 벼슬에 나아갔을 때에나 물러났을 때에도 백성에 대한 근심을 먼저 하겠다는 마음에서 퇴우退憂를 호로 삼았다. 이러한 마음은 그의 정치와 생활에도 잘 반영되었다. 그는 강인한 성격의 김수항과는 달리 부드럽고 실무를 잘 처리하였다. 평생 관직 생활을 해서 많은 저술을 남기지는 않았다.
김수홍의 사후 그의 문집을 편집하는 과정은 조카 김창흡이 김수홍의 사위 이희조李喜朝(1655-1724)와 주고받은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이희조는 많은 글을 싣고자 했지만 김창흡이 소차疏箚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문집 편집 작업이 진행되던 1710년 전후는 유배지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삼촌의 관작이 회복된 시점이었지만, 여전히 정당간의 정치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숙종실록』의 그외 졸기에서 김수홍의 인물됨을 잘 확인할 수 있다.

> 전 영의정領議政 김수홍金壽興이 장기長鬐의 적소謫所에서 졸卒하였는데, 65세였다. 김수홍의 자字는 기지起之이며,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의 손자이다. 아우 김수항金壽恒과 차례로 조정에 등용되었는데, 문사文詞는 김수항보다 못하였으나 또한 아량이 있어 쓸 만하였다. 간사幹事하는 기량이 남보다 뛰어나서 과단果斷하고 민첩하게 처리하였으므로, 탁지度支의 정사政事는 사람들이 근세에 드문 것으로 일컬었다. 현종顯宗 때에 특별히 정승으로 제배除拜되고 이어서 수상首相에 올랐는데, 급제한 지 겨우 10여 년이었으나 남들이 갑자기 올랐다고 하지 않았다. 김수홍은 일찍부터 어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경술經術에 마음을 두었었다. 전후 정승의 벼슬에 있던 것은 오래지 않으나 한결같이 유현儒賢을 부호扶護하고 군덕君德을 보도輔導하는 것을 주장삼고, 낭패스러운 형세가 되더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므로, 세상에서 이 때문에 칭찬하였다. 어려운 때를 당하여 횡액을 면하지 못하여 장해瘴海에서 해를 겪고 마침내 널[柩]로 돌아오니, 선류善類가 누구나 다 상심하고 통탄하였다. 뒤에 문익文翼이라 증시贈諡하였다.

이처럼 유연함을 가지고 단단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김수홍이 있었기에 장동 김문은 정치적 부침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탑본첩은 다른 비문 탑본첩과는 다른 2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김수홍의 둘째 사위인 송광속宋光涑의 이름이 첨지籤紙로 가려져 있는 점이다. 송광속은 본관은 여산礪山으로 포천 출신의 문인이다. 묘의 주인 김수홍과 남원 윤씨의 이름을 가린 것이 아니라 사위인 송광속의 이름에 첨지를 붙인 것으로 보아 여산 송씨 집안의 사람이 소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탑본의 마지막 부분에 남원 윤씨에 관한 부분을 추가로 기록한 점이다. 남원 윤씨는 김수홍보다 16년 늦게 사망했다. 남원 윤씨 사후 묘소에 모실 때, 16년간의 일을 추가로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탑본첩이 18세기 이후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

This album contains rubbings of the epitaph from the tomb of Kim Suheung and his wife. Kim Changhyeop composed and wrote the inscription for the epitaph of his uncle and aunt. The granite epitaph, erected in 1646, has a rectangular base stone that is carved with a lotus design and a wave pattern, along with a capstone that resembles a paljak (hip and gable) roof. In the middle of the album, there is a paper marker attached to the name “宋光涑” (i.e., Song Gwangsok), who was Kim Suheung’s son-in-law.

II

한 장의 종이에 마음을 담아 전하다

Letters Written from the Heart

1
세대를 이은 우정
Friendship over Generations

2
편지에 담은 세상
The World Contained in Letters

개요

17세기 전반기는 1592-1598년의 임진왜란과 1636-1637년의 병자호란, 1644년 명나라의 멸망과 청나라의 등장으로 기존의 동아시아 질서가 흔들리던 시기였다. 이 시기 조선의 지식인들은 절박한 상황을 이겨내고 사회를 재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을 지탱하는 힘 중 하나가 사상이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그들의 문집에서도 확인된다. 17세기 문집들은 개인의 감정 표현보다는 사상 및 정치적 상황과 관계있는 산문의 비중이 커졌다.

게다가 김수증, 김수흥, 김수항[삼수三壽]은 서인西人의 핵심 세력이 되어 정국을 이끌었지만, 환국으로 정권을 잃었을 때 남인南人의 미움을 받아 유배를 당하거나 유배지에서 사사賜死되는 등 정치적 부침이 심하였다. 뛰어난 문장가로 유명했던 김수항, 김창협, 김창흡 등의 문집에도 이러한 면모가 여실하게 드러난다.

여기에서는 장동 김문의 편지를 번역하여 문집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이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정치적 시련을 맞아 울분을 토로하는 말, 오랜만에 편지를 받아 즐거워하는 장면, 아픈 자식을 걱정하며 도움을 청하는 모습 등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다. 딱딱하고 아량이 없다는 평을 받은 김수항이 친구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후련해지면서도 더 그리워진다."며 애정 가득한 마음을 표현하는 편지를 읽으면, 정치적 입장과 개인 생활 사이의 그의 모습을 상상해보게 된다. 정치 사상이 김수항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더 깊게 생각하게 된다. 또한 편지의 사이사이에는 당대의 역사와 생활사가 숨겨져 있다. 예컨대 환곡還穀과 진휼곡賑恤穀의 운영, 임금이 환약을 하사하는 납제臘劑의 풍습과 같은 생활사가 문득문득 나타나서 우리의 역사를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The seventeenth century was a transitional period that saw the emergence and establishment of a new social order within the Joseon Dynasty. Already devastated by the Imjin War (a series of Japanese invasions, 1592-1598), Joseon could offer little resistance during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and eventually surrendered in 1637. In China, the transition from the Ming Dynasty to the Qing Dynasty was finalized in 1644, and this event had major repercussions for Joseon intellectuals who had long supported the Ming. As such, the class of Joseon scholars took it upon themselves to construct a new social order, with the Jangdong Kim clan playing an integral role in this endeavor.

This chapter introduces personal letters of the Jangdong Kim clan, in which they freely discuss their daily lives and private thoughts. Most of these letters have never been published before, and thus shed new light on lesser-known members of the Jangdong Kim clan.

1 세대를 이은 우정

Friendship over Generations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교유는 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김상용과 김상헌이 외할아버지 정유길에게 글을 배우면서 동래 정씨와 교유하는 문인들과 학문을 탐구하고 친분을 쌓은 것처럼 당시의 교유는 집안과 집안 사이의 만남이었다.

장동 김문의 세대를 이은 우정을 보여주는 간찰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간찰첩은 김수항과 그의 셋째 아들 김창협의 편지를 모은 것이다. 김수항은 유창兪瑒[1](1614-1690)에게, 김창협은 유창의 둘째 아들인 유득일兪得一[2](1650-1712)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것이다.

유창과 유득일은 서인계 문인으로 고위직을 지냈고, 대체로 무난하게 정치에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 유창의 자료는 아들 유득일이 편집한 것으로 보이는 『추담집秋潭集』이 전하지만, 유득일은 아직 문집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만년에 경기도 영평에 은거하고, 김창즙金昌緝의 『포음집圃陰集』을 읽고 시를 남기는 등 장동 김문의 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들의 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소개되지 않았다. 이 간찰첩은 장동 김문의 교유를 보여 주면서 기록이 많이 전하지 않는 유창과 유득일의 기록을 채워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김수항의 편지는 1678년 9월 28일부터 1679년 10월 25일까지 약 1년 남짓 사이에 유창에게 보낸 것으로 모두 6통이다. 내용은 주로 안부와 일상사를 주고받은 내용이다. 김창협의 편지는 15통으로, 유득일에게 보낸 것이다. 날짜가 확인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1694년 2월 28일부터 1705년 7월 8일까지 약 10여 년간 보낸 편지이다.

1 유창兪瑒(1614-1690):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백규伯圭, 호는 추담楸潭, 운계雲溪이다. 1635년 생원이 되고, 1650년 증광문과에 급제, 1653년 세자시강원설서를 거쳐 이듬해에 지평持平이 되었다. 1655년 통신부사로 일본에 다녀오고, 동부승지, 충청도 관찰사에 이어 1662년 우부승지에 임명되었다. 다음해 좌승지를 지내고 광주목사廣州牧使가 되었다. 이후 수원 부사·병조 참판을 지내고 1674년 고부사告訃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2 유득일兪得一(1650-1712):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영숙寧叔, 호는 귀와歸窩이다. 박세채朴世采의 문인이다. 1677년(숙종 3) 알성 문과에 급제하고 1683년(숙종 9) 지평으로 있으면서 김익훈金益勳이 모반설을 조작했다고 폭로하고 그의 처벌을 주장하다가 진도 군수珍島郡守로 좌천된 뒤에 곧 파직되었다. 나중에 다시 기용되어 여러 도의 감사를 역임하고 대사성, 대사헌, 형조와 병조의 판서 등 요직을 지냈다. 1706년 10월에 동지 정사冬至正使로 연경에 갔다가 이듬해 3월에 돌아왔다. 김창협보다 1년 연상이다. 『연행일기초燕行日記艸』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This album contains five letters that Kim Suhang (金壽恒, 1629-1689) sent to Yu Chang (兪瑒, 1614-1690), and thirteen letters that Kim Changhyeop (金昌協, 1651-1708, third son of Kim Suhang) sent to Yu Deukil (俞得一, 1650-1712, son of Yu Chang). These letters demonstrate that the two families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through multiple generations.

The five letters by Kim Suhang were written from September 28, 1678 to October 25, 1679, and were sent to "Seungji Yu." "Seungji" is the title for the Royal Secretary of the Royal Secretariat, so the recipient is presumed to be Yu Chang. The five letters include friendly greetings and details about daily life. Some of the thirteen letters by Kim Changhyeop are undated, but those with dates range from February 28, 1694 to July 8, 1705, a period of more than ten years.

김수항 김창협 간찰첩

金壽恒金昌協簡札帖

Album of Letters by Kim Suhang and Kim Changhyeop

6

김수항, 김창협
조선, 17-18세기
첩, 종이에 먹,
각 면 38.5×26.5cm
구8678

Kim Suhang and Kim Changhyeop
Joseon Dynasty 17th-18th century
Ink on paper,
38.5×26.5cm (each page)
koo 8678

7 6

19 18

17 16

15 14

31 30

29 28

27 26

43 42

41 40

39 38

54

53 52

51 50

5 4

3 2

1

13 12

11 10

9 8

25 24

23 22

21 20

37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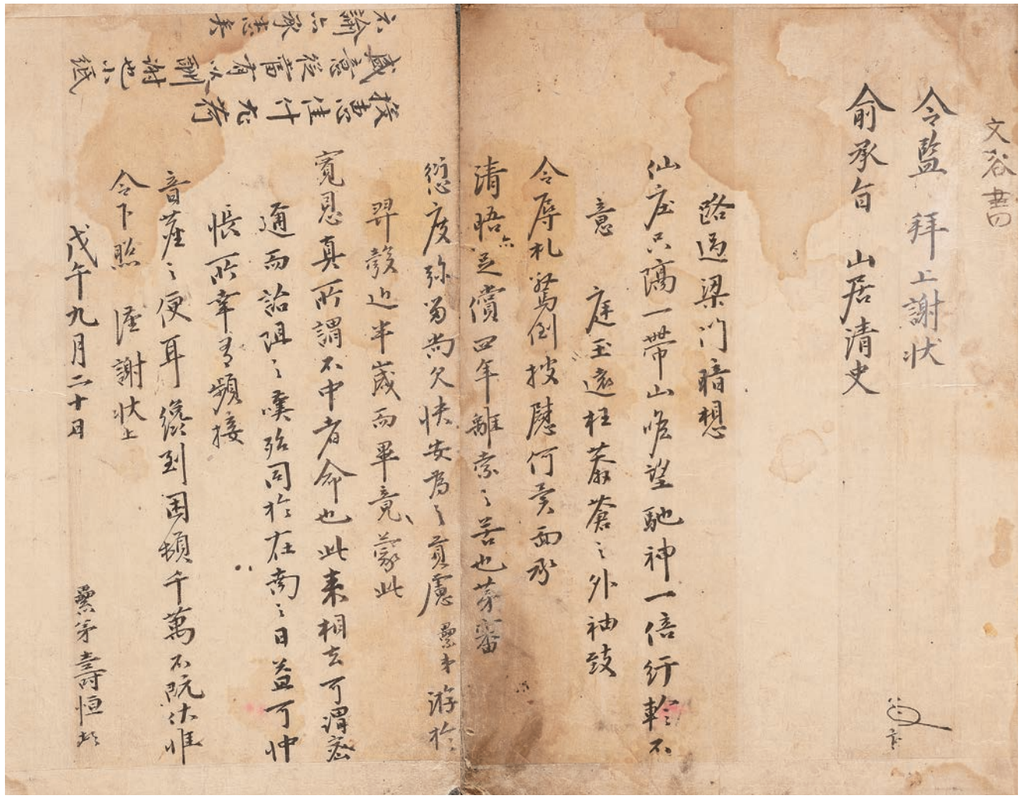
35 34

33 32

49 48

47 46

45 44



2 1

김수항이 유창에게 보낸 편지 (1678.9.20.)
金壽恒筆 簡札
Kim Suhang's Letter to Yu Chang

6-1

원 문

[皮封]
令監 拜上謝狀
兪承旨 山居淸史 [手決]

路過梁門, 暗想仙庄只隔一帶山, 瞻望馳神, 一倍紆軫. 不意庭玉遠枉莽蒼之外, 袖致令辱札, 驚倒披慰, 何異面承淸晤. 亦足償四年離索之苦也. 第審愆度彌留, 尙欠快安, 爲之貢慮. 纍弟游於羿彀近半歲, 而畢竟蒙此寬恩, 眞所謂不中者命也. 此來相去可謂密邇, 而詒阻之嘆, 殆同於在南之日, 益可忡悵. 所幸有頻接音塵之便耳. 纔到困頓, 千萬不旣. 伏惟令下照. 謹謝狀上.
戊午九月二十日, 纍弟壽恒頓.

投惠佳什, 尤荷盛意, 從當有以酬謝也. 小紙示諭, 亦承悉矣.

번역문

영감令監께 절하고 감사의 편지를 올립니다.
유승지兪承旨[1] 산거山居의 청사淸史께.

양문梁門[양문역]을 지나다 산 하나만 넘으면 바로 영감의 거처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다보니 그리운 마음이 갑절이나 사무칩니다. 그런데 뜻밖에 아드님[유득일]이 멀리서 삭막한 교외까지 와서 영감의 서찰을 소매 속에 넣어와 전해주니 놀라우면서도 위로가 됩니다. 이 어찌 직접 뵙고 청담淸談을 듣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4년간 헤어져 쓸쓸히 지내던[2] 괴로움을 보상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영감의 환후가 오래도록 낫지 않아 아직 쾌차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것이 걱정입니다.
죄인의 몸인 이 아우는 반년 가까이 예羿의 과녁에서 노닐면서도 끝내 이런 너그러운 은혜를 입었으니 참으로 이른바 "맞지 않는 자는 운명이다."[3]라고 한 경우입니다. 이곳으로 와서 머무는 거리가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으나 막혀있다는 탄식은 남쪽에 있을 때와[4] 거의 같으니 더욱 서글픕니다. 소식을 전하는 인편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막 도착하여 녹초가 된지라 많은 말을 다하지 않습니다. 영감께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편지를 올립니다.
무오년(1678, 숙종 4) 9월 20일, 아우[纍弟][5] 김수항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보내 주신 아름다운 시편의 성대한 뜻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꼭 화답하는 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별지別紙에서 말씀하신 내용 또한 잘 알겠습니다.

1 유승지兪承旨: 유창을 말한다. 현종대 승지 경력이 있어 승지라 불렀다.

2 헤어져……지내던: 벗들을 떠나 쓸쓸히 홀로 사는 것으로, 자하子夏가 "내가 벗을 떠나 쓸쓸히 홀로 산 지가 오래이다.[吾離群而索居, 亦已久矣.]"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예기禮記·단궁상檀弓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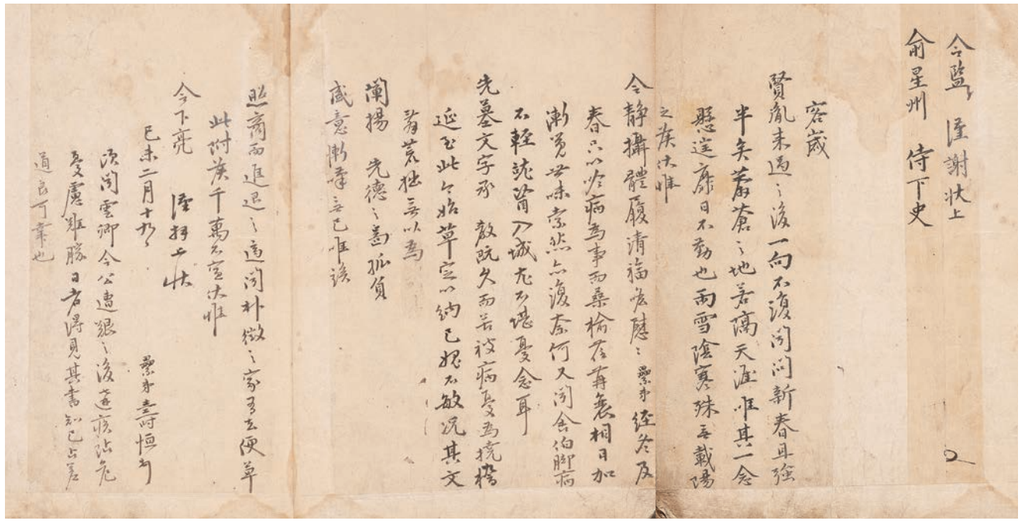
3 예羿의……운명이다: 『장자莊子』 「덕충부德充符」에 "활의 명사수인 예羿의 사정거리 안에서 노니는 자가운데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자는 적중되기에 꼭 알맞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을 맞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운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遊於羿之彀中, 中央者中地也, 然而不中者命也.]"라는 말이 있다.

4 남쪽에 있을 때: 1675년 7월 전라도 영암군에 유배되어 있던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아우[纍弟]: 윗사람에게 자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다.

해 설

1678년 9월 유창과 김수항은 정치적 침체기였다. 유창은 1666년 12월에 철원으로 유배되었다가 1667년 3월 유배에서 풀려나 경기도 영평[현재의 포천]에 머물고 있었다. 김수항은 1675년 7월 전라도 영암으로 유배되었다가 1678년 9월 철원으로 이배되었는데, 그때 경기도 영평의 양문梁門을 지나며 쓴 편지로 보인다. 김수항은 철원으로 유배지를 옮겨 가족, 친구들과는 가까워졌지만 지형이 험악하여 여전히 쉽게 만날 수 없었다. 가깝지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주는 애절함, 소식을 자주 주고받기 바라는 바람이 편지에 가득하다.
철원으로 오는 김수항을 위로하며 유창이 시를 보내주었나 보다. 김수항과 주고받은 몇편의 편지만 보아도 유창이 자주 시를 지어 지인들에게 보냈음을 알 수 있는데, 현재 문집에는 조금만 남아 전하는 것이 아쉽다.
1675년 유배는 김수항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장동 김문의 사상적 변환점이 되었다 할 수 있다. 첫째 형 김수증은 "도성을 바라보면 통곡하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강원도 화악산으로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은거하였다. 여기에서 김수증은 곡운구곡을 경영하며 새로운 은거 문화를 구축하였다. 철원으로 유배지를 옮긴 뒤 김수항은 아들들과 경기도 영평 지역 명승지인 백운산, 삼부연 등을 유람하였는데, 이때 그의 아들들이 남긴 문학 작품은 후대 조선 후기 산수유람 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5 4 3

김수항이 유창에게 보낸 편지 (1679.2.19.)
金壽恒筆 簡札
Kim Suhang's Letter to Yu Chang

6-2

원 문

[皮封]
令監 謹謝狀上
兪星州 侍下史 [手決]

客歲賢胤來過之後, 一向不復聞問, 新春且强半矣. 莽蒼之地, 若隔天涯, 唯其一念懸遑, 靡日不勤也. 雨雪陰寒, 殊無載陽之候, 伏惟令靜攝體履清福, 瞻慰瞻慰. 纍弟經冬及春, 只以吟病爲事, 而桑榆荏苒, 衰相日加, 漸覺世味索然, 亦復柰何. 又聞舍伯脚病不輕, 就醫入城, 尤不堪憂念耳. 先墓文字, 承敎旣久, 而苦被病憂爲撓, 稽延至此, 今始草定以納, 已媿不敏. 況其文辭荒拙, 無以爲闡揚先德之圖, 孤負盛意, 慚嘆無已. 唯竢照商而進退之. 適聞朴徵之家有去便, 草此附候. 千萬不宣. 伏惟令下亮. 謹拜上狀.
己未二月十九日, 纍弟壽恒頓首.

頃聞雲卿令公遭艱之後, 遘疾阽危, 憂慮難勝, 日者得見其書, 知已占差道. 良可幸也.

번역문

영감께 감사의 편지를 올립니다.
유성주兪星州[1] 시하侍下의 사史께.

지난해 아드님이 다녀간 뒤로 내내 더는 소식을 주고받지 못했는데 새봄이 또 반이나 지났습니다. 그다지 멀지 않은 근교가 마치 하늘 끝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오직 그리운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눈비가 내려 음산하고 추워 따뜻해질 기미가 전혀 없는 이때에 삼가 조용히 몸을 다스려서 탈이 없고 만복萬福하실 줄로 생각되니 위안이 됩니다.
죄인의 몸인 이 아우는 겨울부터 봄까지 병이나 앓으며 지내느라 노년의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고 나날이 여위어 세상 살 맛 점점 사그라드니 또한 어찌하겠습니까. 게다가 저의 큰형님께서 다릿병이 심상찮아 치료를 받으러 도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욱 근심을 견딜 수 없습니다.
선대인先大人의 묘도 문자墓道文字를 부탁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괴롭게도 병에 시달리느라 이렇게까지 지체하다가 이제야 초안을 작성하여 보내니 저의 불민함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더구나 그 표현이 거칠고 서툴러 선인의 덕을 드러내어 밝힐 길이 없어 성대한 뜻을 저버렸으니 그지없이 부끄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오직 잘 살피시어 결정하시기만 기다리겠습니다.
마침 박징지朴徵之[2]의 집에 떠나는 인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강 이 정도로만 써서 인사드립니다. 많은 말은 이만 줄이고 격식을 펴지 않습니다. 영감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절하고 편지를 올립니다.
기미년(1679, 숙종 5) 2월 19일, 아우 김수항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지난번에 운경雲卿[3] 영공께서 부친상을 당한 뒤로 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일전에 그의 편지를 받아보고 이미 차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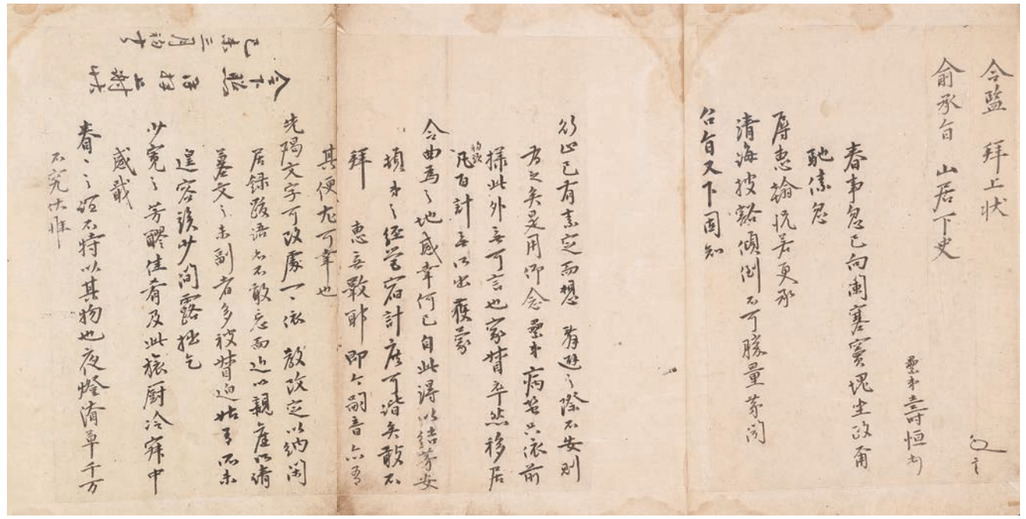
1 유성주兪星州: 유창을 말한다. 성주 목사星州牧使를 지냈기 때문에 성주라 불렀다.

2 박징지朴徵之: 박태징朴泰徵(1630–?)으로,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징지徵之, 호는 돈재遯齋이다. 박세기朴世基의 아들이며, 유계兪棨와 송시열의 문인이다.

3 운경雲卿: 남용익南龍翼(1628–1692)의 자이다. 본관은 의령宜寧, 호는 호곡壺谷, 시호는 문헌文憲이이다. 1646년 진사가 되고 1648년 문과에 급제한 뒤 병조 좌랑·홍문관 부수찬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1655년 통신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파견되었으며, 좌참찬·예문관 제학 등을 지냈다. 1689년 희빈 장씨가 왕자를 낳아 숙종이 그를 원자로 삼으려 하자, 여기에 극언으로 반대하다가 명천으로 유배되어 3년 뒤 그곳에서 죽었다.이 편지를 쓰기 전해인 1678년 8월 부친상을 당했다.

해 설

벗들과 비교적 가까운 철원으로 유배지를 옮겼지만 지난해에 편지를 주고받은 이후 새봄이 반이나 지나서야 다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마 폭설이 쏟아지는 강원도의 날씨와 험한 지형 때문에 겨울에는 소식을 주고받지 못했을 것 같다. 전라도 영암보다 훨씬 가까워졌고, 산 하나만 넘으면 그곳에 벗이 있지만 연락을 할 수 없어,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졌다. 또한 매서운 추위에 오가는 이 없이 작은 방에서 병과 싸우며 시간을 보내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쓸쓸했을 것이다.
김수항은 유창의 아버지의 묘갈명 작성을 부탁받았는데 오래도록 답변을 해 주지 못하였다. 유창의 부친 유여해가 1664년에 사망했고 이 편지를 작성한 해가 1679년이니, 꽤 오래도록 심사숙고했음을 알 수 있다. 유창이 오랜 시간 기다려 받은 이 글은 다행히도 유창의 마음에 들었는지, 약간의 수정 과정을 거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묘지명은 『문곡집』 권18에 「贈叅判兪公墓碣銘」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8 7 6

김수항이 유창에게 보낸 편지 (1679.3.10.)
金壽恒筆 簡札
Kim Suhang's Letter to Yu Chang

6-3

원 문

[皮封]
令監 拜上狀
兪承旨 山居下史 [手決]

春事忽已向闌, 塞竇塊坐, 政爾馳傃, 忽辱惠翰, 怳若更承清誨, 披豁傾倒, 不可勝量. 第聞召旨又下, 固知行止已有素定, 而想辭避之際, 不安則有之矣, 是用仰念. 纍弟病蟄, 只依前樣, 此外無可言也. 家督卒然移居, 初頭凡百, 計無所出, 獲蒙令曲爲之地, 感幸何已. 自此得以結茅安頓, 弟之經營宿計, 庶可諧矣, 敢不拜惠無斁耶. 卽今嗣音, 亦有其便, 尤可幸也. 先碣文字可改處, 一一依敎改定以納. 閑居錄跋語亦不敢忘, 而近以親舊所請墓文之未副者, 多被督迫, 姑有所未遑. 容竢少間露拙, 乞少寬之. 芳醪佳肴及此旅廚冷寂中, 感戢眷眷之誼, 不特以其物也. 夜燈潦草, 千萬不究. 伏惟令下照. 謹拜上謝狀.
己未三月初十日, 纍弟壽恒頓首.

번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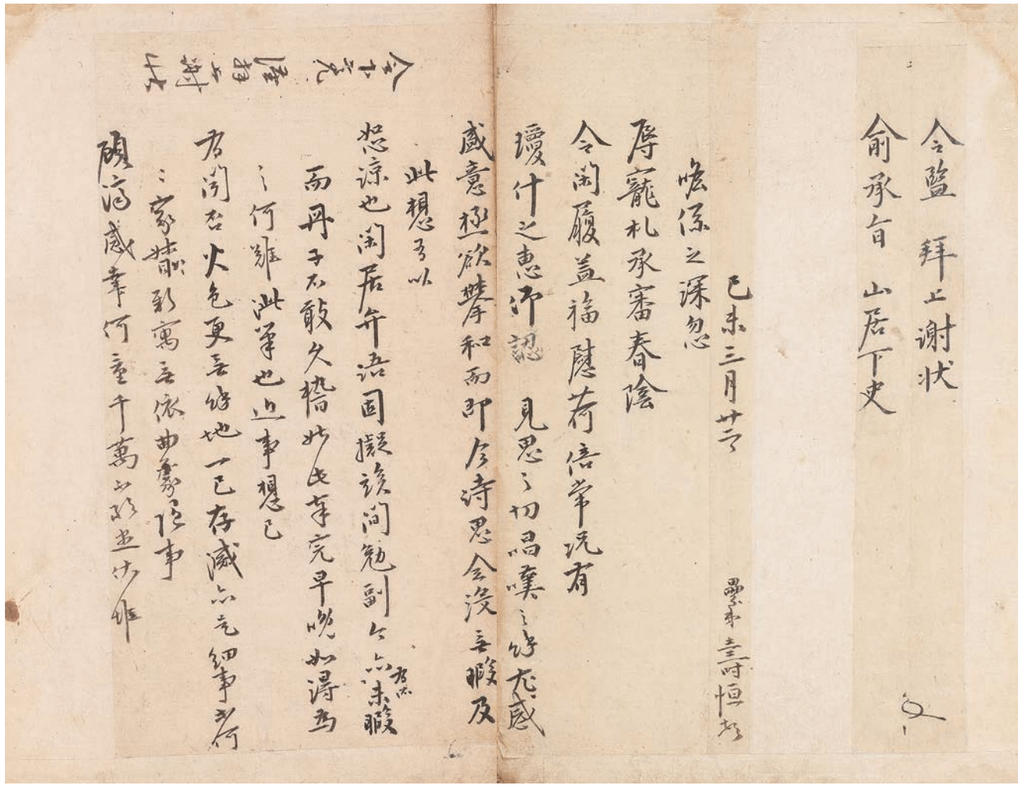
영감께 절하고 편지를 올립니다.
유승지 산거山居의 하사下史[1]께.

어느덧 저물어 가는 봄철, 문 닫고 덩그러니 앉아 가만히 영감을 그리워하던 차에 문득 편지를 보내주시니 마치 청아한 가르침을 다시 듣는 듯하여 후련해지고 설레는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소명召命이 또 내려왔다 하니 거취에 대해서는 이미 평소 정하신 바가 있겠지만, 생각건대 사양하여 피할 때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이니 이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
죄인의 몸인 이 아우는 병으로 틀어박혀 그저 이전대로 지내고 있으니 이밖에 달리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큰애[김창집]가 갑자기 이사하게 되어 애초에 모든 일을 어떻게 해나갈지 대책이 없었는데 영감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로부터 큰애가 집을 짓고 편히 지내게 되어서 이 아우도 오래전부터 세워오던 계획을 거의 이루게 되었으니 어찌 은혜에 끝없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서신을 전할 방편도 있게 되었으니 더욱 다행스럽습니다.
선대인의 묘갈 문자 중 고쳐야 할 곳은 일일이 말씀하신 대로 고쳐 보냅니다. 『한거록閑居錄』의 발문도 감히 잊지 않고 있습니다만, 근래 친구들에게 부탁받고 미처 써주지 못한 묘문墓文 때문에 여기저기서 독촉받느라 우선은 겨를이 없습니다. 틈이 나기를 기다렸다 졸렬한 솜씨를 드러내고자 하니 조금만 느긋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향기로운 술과 맛깔스런 안주가 썰렁한 이곳 객지 주방까지 미치니 돌봐주시는 마음에 감사하는 것은 보내 주신 물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밤 등불 아래 어지러이 대강 쓰느라 많은 말을 다하지 않습니다. 영감께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편지를 올립니다.
기미년(1679, 숙종 5) 3월 10일, 아우 김수항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해 설

주변에 대한 묘사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다. 예쁜 꽃으로 둘러싸이고 싱그러움이 솟아나는 봄날이지만 김수항은 저물어가는 봄이라 느끼고, "문 닫고 덩그러니 앉아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받은 편지는 마음을 절로 생동하게 만들었다.
유창은 1678년 좌승지에 제수되었으나 사은謝恩하지 않고 경기도 영평에서 그대로 지냈는데, 1679년 3월 또 좌승지에 제수되었다. 당시 유창은 영평에 은거하기로 거취를 정한 이후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김상헌에게 물어본 듯하다. 김상헌은 유창이 자신이 정한 바를 따르더라도 임금의 명을 사양하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을 알고 염려해주고 있다. 유창은 이후로도 계속 병으로 사양하다가 1680년 4월에 예조참의로 결국 사은하였다.
1681년 유창이 경기도 영평에 은거하면서 시문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한거록』이다. 유창은 1679년 책은 완성하였고 주변 문인들에게 서문과 발문을 요청하고 있었고, 김수항도 그 중 한 명이었다.

1 하사下史: 편지 봉투에 수신자를 직접 지칭하는 것은 실례이므로,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을 써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다.



10 9

김수항이 유창에게 보낸 편지 (1679.3.22.)
金壽恒筆 簡札
Kim Suhang's Letter to Yu Chang

6-4

원 문

[皮封]
令監 拜上謝狀
兪承旨 山居下史 [手決]

瞻傃之深, 忽辱寵札. 承審春陰令閑履益福, 慰荷倍常. 況有瓊什之惠, 仰認見思之切, 唱嘆之餘, 尤感盛意. 極欲攀和, 而卽今詩思全沒, 無暇及此, 想有以恕諒也. 閑居弁語, 固擬竢間勉副, 今亦有所未暇, 而册子不敢久稽, 姑此奉完. 早晚如得爲之, 何難泚筆也. 近事想已有聞否. 火色更無餘地, 一己存滅, 亦是細事, 奈何奈何. 家督新寓無依, 曲蒙隨事顧濟, 感幸何量. 千萬不敢盡. 伏惟令下亮. 謹拜上謝狀.
己未三月廿二日, 纍弟壽恒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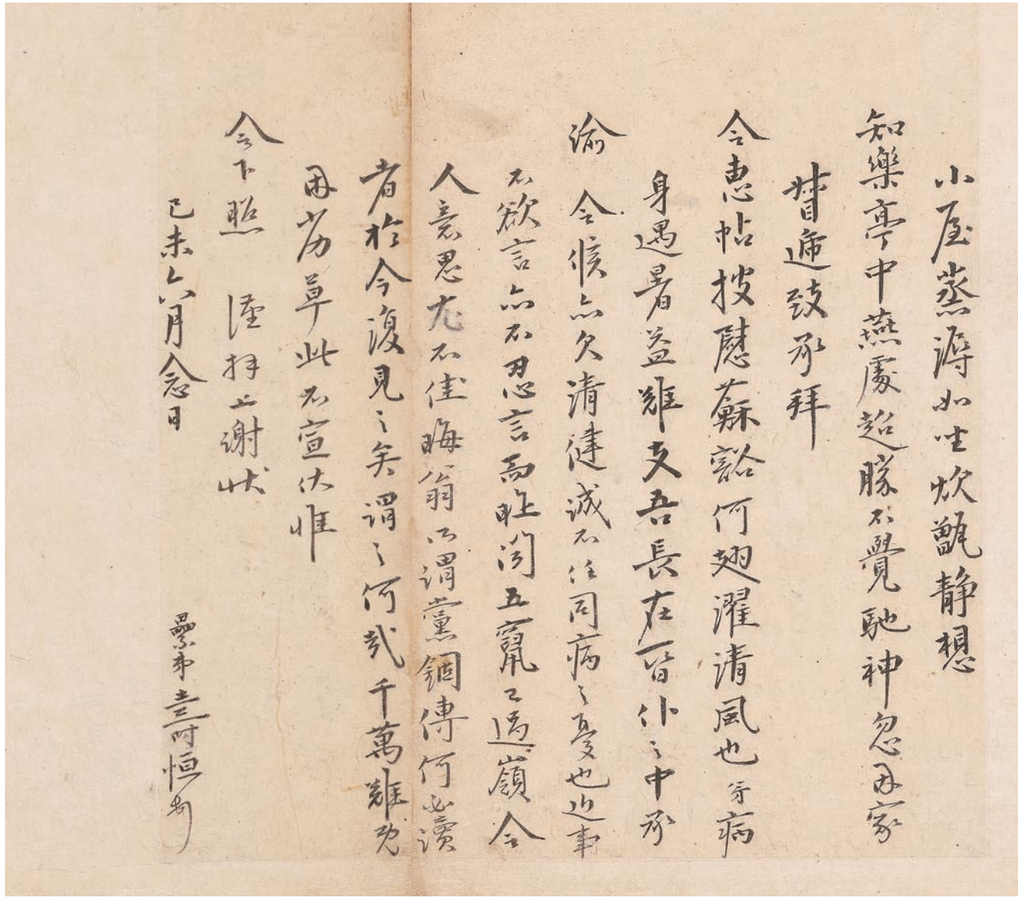
번역문

영감께 절하고 감사의 편지를 올립니다.
유승지 산거의 하사께

그리움이 깊어가던 차에 문득 보내 주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흐린 봄날 영감이 한가로이 지내시고 복이 가득하시다는 것을 알았으니 평소보다 갑절이나 위안이 됩니다. 더구나 아름다운 시편까지 보내주시어 저를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읊조리고 감탄하다가 성대한 뜻에 더욱 감동하였습니다. 이에 화답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만, 지금은 시상詩想이 완전히 사라져 시를 지을 겨를이 없으니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한거록閑居錄』의 서문은 틈을 보아 힘껏 쓰려 했으나 지금도 역시 겨를이 없기에 책자를 오래 갖고 있을 수 없어 우선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쓸 수 있게 된다면 붓을 드는 일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근래 일에 대해선 벌써 들으셨겠지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국政局은 더 이상 여지가 없고 이 한 몸 죽고 사는 것 역시 작은 일에 불과하니 어찌 하겠습니까.
저희 큰애[김창집]가 새로 이사해서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일마다 여러모로 보살피고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말은 감히 다하지 못합니다. 영감께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절하고 감사의 편지를 올립니다.
기미년(1679, 숙종 5) 3월 22일, 아우 김수항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해 설

현재 전하는 유창의 『한거록』(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에는 송시열宋時烈, 박세채朴世采, 남구만南九萬, 남용익南龍翼 등 당대 서인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에게 받은 서문과 발문이 실려 있다. 하지만 김수항은 글빚에 쫓겨 『한거록』 서문은 결국 완성하지 못하였는지 『문곡집』과 『한거록』에 김수항의 서문은 보이지 않는다. 이 편지에서 김수항이 『한거록』에 대한 글을 쓰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김수항은 급하게 돌아가는 정치 상황에서 마음에 시상詩想이 사라져 글을 쓸 수 없다고 하며 일단 『한거록』을 돌려보내게 되었다.
이때는 김수항과 송시열 등의 서인들이 2차 예송논쟁에서 패하여 유배당한 상태였다. 지난번 편지를 받은 지 이틀 후인 12일 충청도 회덕懷德에 사는 생원生員 송상민宋尙敏이 스승 송시열이 간신들의 모함을 받고 있다는 책자를 만들어 올렸다가 당시 영의정이었던 허적許積의 탄핵을 받고 17일 옥중에서 죽었다. 이 편지를 쓴 전날인 21일에는 예론禮論으로 다시 상소하면 역률逆律로 논단할 것임을 내외에 선포하도록 어명御名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김수항의 우려대로 송시열은 편지를 보낸 이후 25일 경상도 거제도巨濟島로 이배되었다. 뜻을 같이하던 주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유배되는 소식을 듣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김수항은 절망했을 것이다.



12 11

김수항이 유창에게 보낸 편지 (1679.6.20.)
金壽恒筆 簡札
Kim Suhang's Letter to Yu Chang

6-5

원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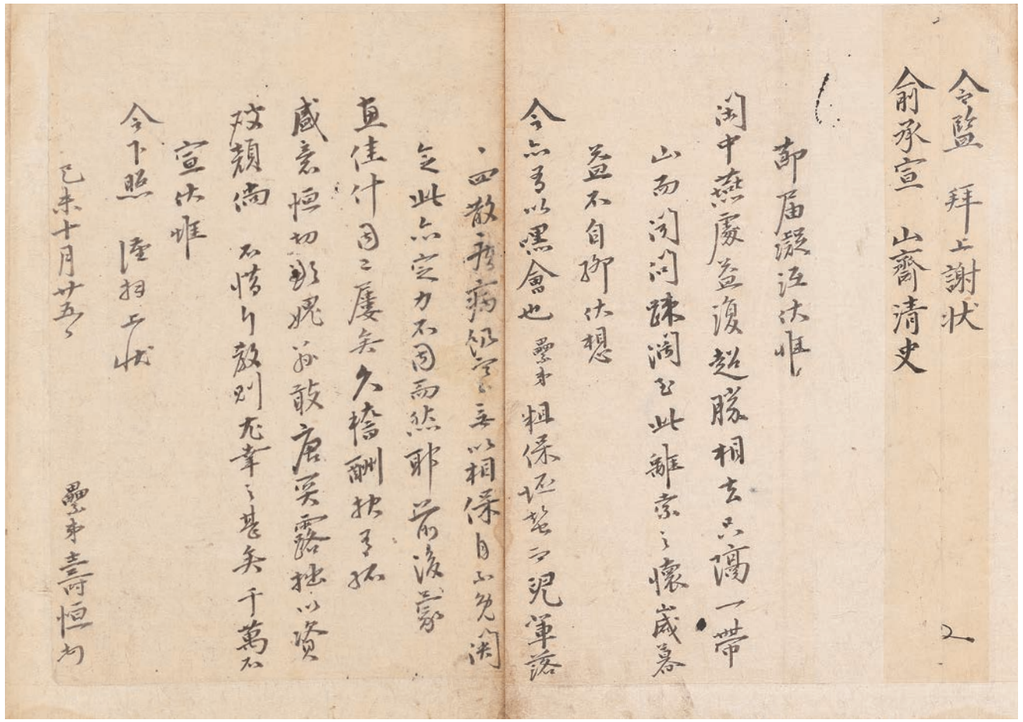
小屋蒸溽如坐炊甑. 靜想知樂亭中燕處超勝, 不覺馳神. 忽因家督遞致, 承拜令惠帖, 披慰蘇豁, 何翅濯清風也. 弟病身遇暑, 益難支吾, 長在昏仆之中, 承諭令候亦欠清健, 誠不任同病之憂也. 近事不欲言, 亦不忍言, 而昨聞五竄已過嶺, 令人意思尤不佳. 晦翁所謂黨錮傳何必讀者, 於今復見之矣, 謂之何哉. 千萬難旣. 困劣草此, 不宣. 伏惟令下照. 謹拜上謝狀.
己未六月念日, 纍弟壽恒頓首.

번역문

무더위 속 작은 오두막이 마치 불 때는 시루 안에 있는 듯합니다. 이때에 지요정知樂亭에서 한가로이 지내시니 매우 좋으실 듯 합니다. 문득 큰애가 보낸 인편으로 영감께서 보내 주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위로가 되고 후련해지는 마음이 어찌 맑은 바람을 쏘이는 것 같을 뿐이겠습니까. 이 아우는 병든 몸으로 더위를 만난지라 더욱 버티기 힘들어 오래도록 까무러쳐 쓰러져 지내던 중에 영감의 건강도 편치 않다는 것을 알게되니 참으로 동병상련同病相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근래 일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도 않고 차마 말할 수도 없는데, 어제 먼 곳으로 쫓겨난[竄逐] 다섯 신하가 이미 고개를 넘었다 하니 마음이 더욱 불편합니다. 회옹晦翁이 이른바 "「당고전黨錮傳」을 어찌 읽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한 것을 지금 세상에 다시 보게 되었으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많은 말은 다하기 어렵습니다. 몸이 노곤하여 대강 이 정도로만 쓰고 격식을 펴지 않습니다. 영감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절하고 감사의 편지를 올립니다.
기미년(1679, 숙종 5) 6월 20일, 아우 김수항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해 설

근래의 일이란 민정중閔鼎重·민유중閔維重·이숙李翽.·이익李翊·이선李選이 유배를 당한 사건이다. 1679년(숙종 5) 6월 8일 남인南人인 대사헌 이원정李元楨이 이 5명이 송시열에게 지나치게 동조했으니 유배를 보낼 것을 청했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들은 각각 경상도 장흥長興, 경상도 흥해興海, 전라도 명천明川, 평안도 양덕陽德, 경상도 구성龜城[현재 영주]으로 유배되었다.
「당고전黨錮傳」은 붕당의 폐해를 말할 때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로 일의 옳고 그름은 가리지 않고 같은 무리끼리 뭉쳐서 서로 돕고 다른 무리를 배척하는 행태를 말한다. 후한의 환제桓帝(재위 146-168) 때 진번陳蕃, 이응李膺 등이 환관의 농간을 막고자 태학생들과 함께 공격하였지만, 도리어 조정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려 옥에 갇힌 사건이다.
이 시기 김수항은 서인 세력들이 정계에서 계속 축출당하면서 자신들의 사상적 지향을 펼치지 못하고 정치적 입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크게 근심하였다.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변하였다. 남인들의 세력이 계속 커지는 것을 경계한 숙종이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남인들을 대거 축출하였다. 이 편지 속 사건의 중심 인물인 이원정도 이때 유배를 가다가 다시 소환되어 장살杖殺[매로 쳐서 죽이는 형벌] 당하였다.



14 13

김수항이 유창에게 보낸 편지 (1679.10.25.)
金壽恒筆 簡札
Kim Suhang's Letter to Yu Chang

6-6

원 문

[皮封]
令監 拜上謝狀
兪承宣 山齋淸史 [手決]

節屆凝沍, 伏惟閑中燕處益復超勝. 相去只隔一帶山, 而聞問踈闊至此, 離索之懷, 歲暮益不自聊. 伏想令亦有以嘿會也. 纍弟粗保坯蟄, 而兒輩落落四散, 疾病飢寒無以相保, 自不免關念. 此亦定力不固而然耶. 前後蒙惠佳什, 固已屢矣, 久稽酬報, 有孤盛意, 恒切歉媿. 玆敢唐突露拙以資破顔, 倘不惜斤敎, 則尤幸之甚矣. 千萬不宣. 伏惟令下照. 謹拜上狀.
己未十月廿五日, 纍弟壽恒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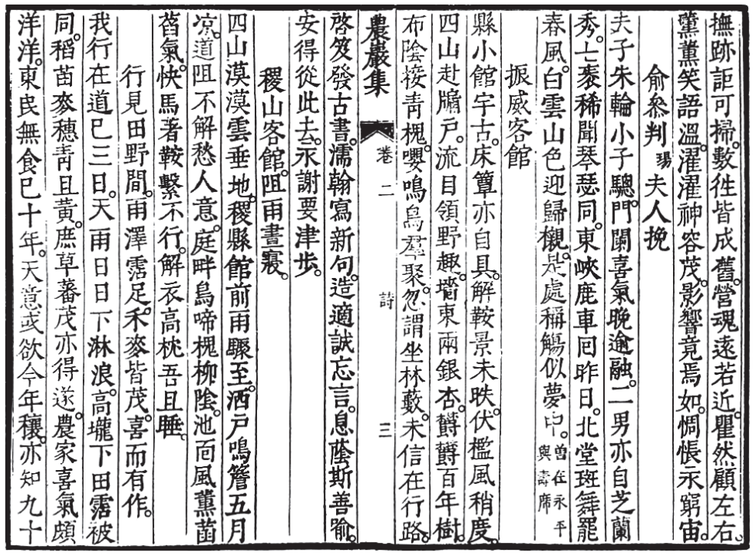
번역문

영감께 절하고 감사하는 편지를 올립니다.
유승선兪承宣[유승지] 산재山齋의 청사淸史께

엄동설한嚴冬雪寒이 다가오는 지금, 한가로운 가운데 일상의 기거가 더욱 좋으시겠지요. 서로 간의 거리가 단지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인데 소식이 이렇게까지 뜸하니, 홀로 쓸쓸히 지내는 회포를 세밑에 더욱 달랠 길 없습니다. 삼가 영감께서도 묵묵히 이해하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죄인인 이 아우는 그럭저럭 몸을 보전하며 칩거하고 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은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져 질병과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수양해서 얻어진 힘이 단단하지 못해 그런 듯합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아름다운 시편을 받은 것이 참으로 여러 차례인데 화답하는 시를 오래도록 보내지 못해서 성대한 뜻을 저버렸기에 늘 부끄러운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이에 감히 당돌하게 졸렬한 솜씨를 드러내어 웃음거리로 삼게 보내드리니, 혹 바로잡아 주신다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많은 말은 이만 줄이고 격식을 펴지 않습니다. 영감께서 이해해주십시오. 삼가 절하고 편지를 올립니다.
기미년(1679, 숙종 5) 10월 25일, 아우 김수항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해 설

이 간찰첩의 6통의 편지만 보더라도 유창은 종종 김수항에게 시를 지어 보낸 것으로 보인다. 김수항은 아름다운 시를 받을 때마다 다음에는 꼭 화답시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곤 했다. 드디어 이번 편지에서 화답시를 같이 보내게 되었다. 아쉽게도 화답시는 김수항의 『문곡집』에는 남아있지 않다. 「유참판 부인에 대한 만사」(김창협, 『농암집』)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문은 중요한 날에 함께 하며 대를 이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참고6-1
이 간찰첩에 실린 편지 중 김수항이 유창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이다. 위의 편지에서 보았듯이 겨울 동안 인편이 오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인 1680년에는 숙종이 남인들을 대거 축출해내고, 서인들을 요직에 등용하는 경신환국이 일어났고, 이때 김수항도 정계에 복귀하여 영의정이 되었다.



撫跡詎可掃。數往皆成舊。營魂遠若近。瞿然顧左右。
薰薰笑語溫。濯濯神容茂。影響竟焉如。惆悵永窮宙。

俞叅判[瑒]夫人挽

夫子朱輪小子驄。門闌喜氣晩逾融。二男亦自芝蘭秀。七袠稀聞琴瑟同。東峽鹿車回昨日。北堂斑舞罷春風。白雲山色迎歸櫬。是處稱觴似夢中。曾在永平與壽席

振威客館

縣小館宇古。床簟亦自具。解鞍景未昳。伏檻風稍度。四山赴牖戶。流目領野趣。墻東兩銀杏。爵爵百年樹。布陰接青槐。嚶鳴鳥聲聚。忽謂坐林藪。未信在行路。

農巖集 卷二 詩 三

啓笈發古書。濡翰寫新句。造適誠忘言。息蔭斯善喻。安得從此去。永謝要津步。

稷山客館阻雨晝寢

四山漠漠雲垂地。稷縣館前雨驟至。酒戶鳴簷五月凉。道阻不解愁人意。庭畔烏啼槐柳陰。池面風薰菡萏氣。快馬著鞍繫不行。解衣高枕吾且睡。

行見田野間。雨澤霑足。禾麥皆茂。喜而有作。

我行在道已三日。天雨日日下淋浪。高壠下田霑被同。稻苗麥穗青且黃。庶草蕃茂亦得遂。農家喜氣頗洋洋。東畏無食已十年。天意或欲今年穰。亦知九十

참고 6-1
유참판[유창] 부인에 대한 만사
俞叅判[瑒]夫人挽

김창협
『농암집農巖集』 권2
조선, 1688년경 글, 1769년 간행
책, 목판본, 28.5×17.6cm
구2325

번역문

유참판 부인을 떠나보내며

夫子朱輪小子驄	남편은 참판이요 둘째 아들 지평이라
門闌喜氣晩逾融	가문의 즐거움이 해마다 깊어져
二男亦自芝蘭秀	두 아들도 지란처럼 저절로 빼어나고
七袠稀聞琴瑟同	칠순 나이 드문 일 금슬 좋게 해로했네
東峽鹿車回昨日	동쪽 골짝에 녹거[1] 몰고 돌아온 지 어제였고
北堂斑舞罷春風	봄바람에 북당 위해 반무[2] 한껏 추었나니
白雲山色迎歸櫬	백운산 산빛 아래 오는 상여 맞이할 제
是處稱觴似夢中	이곳에서 축배 든 일 꿈속처럼 아련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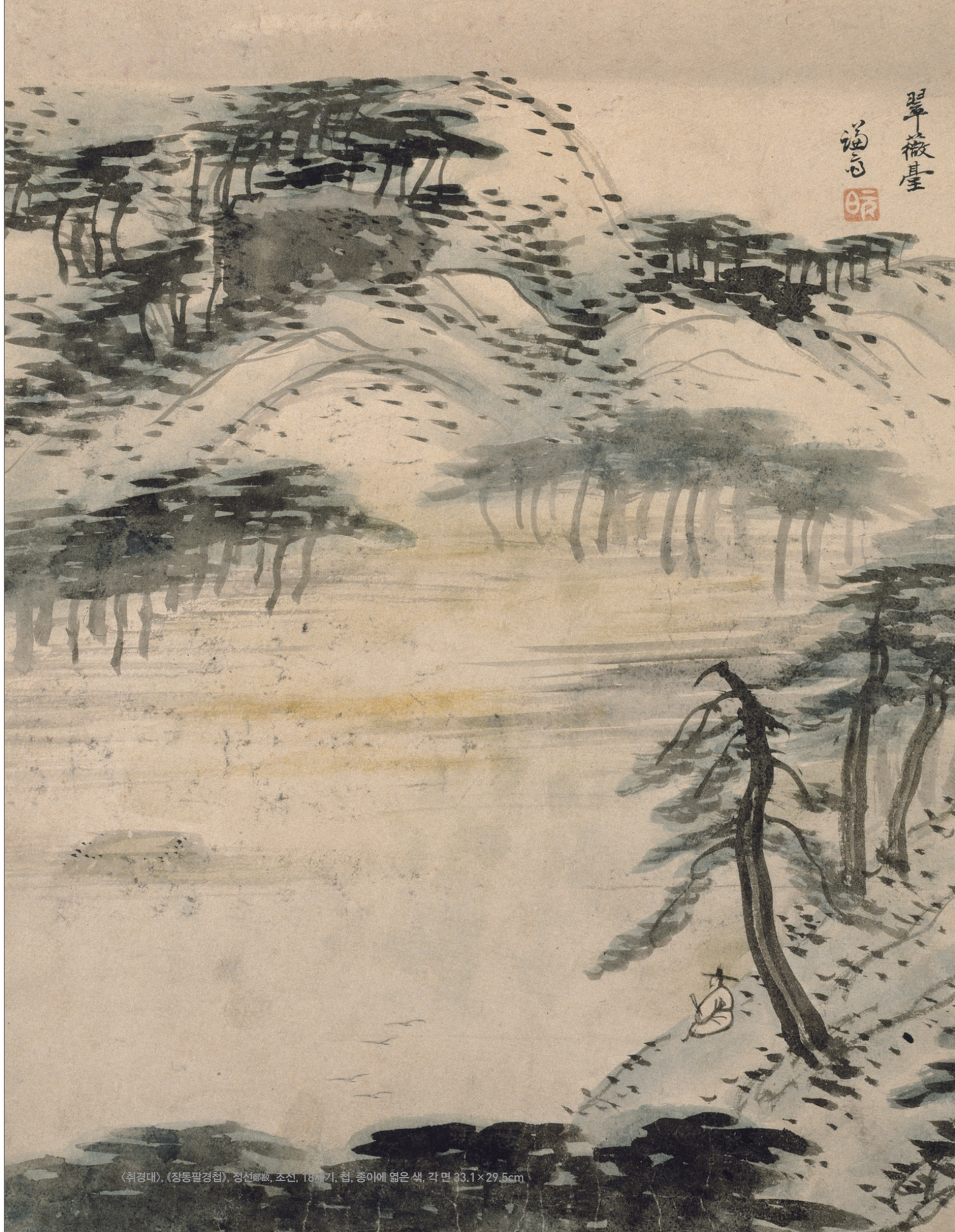
[전에 경기도 영평永平에 있을 때 수연壽宴에 참석하였다.]

해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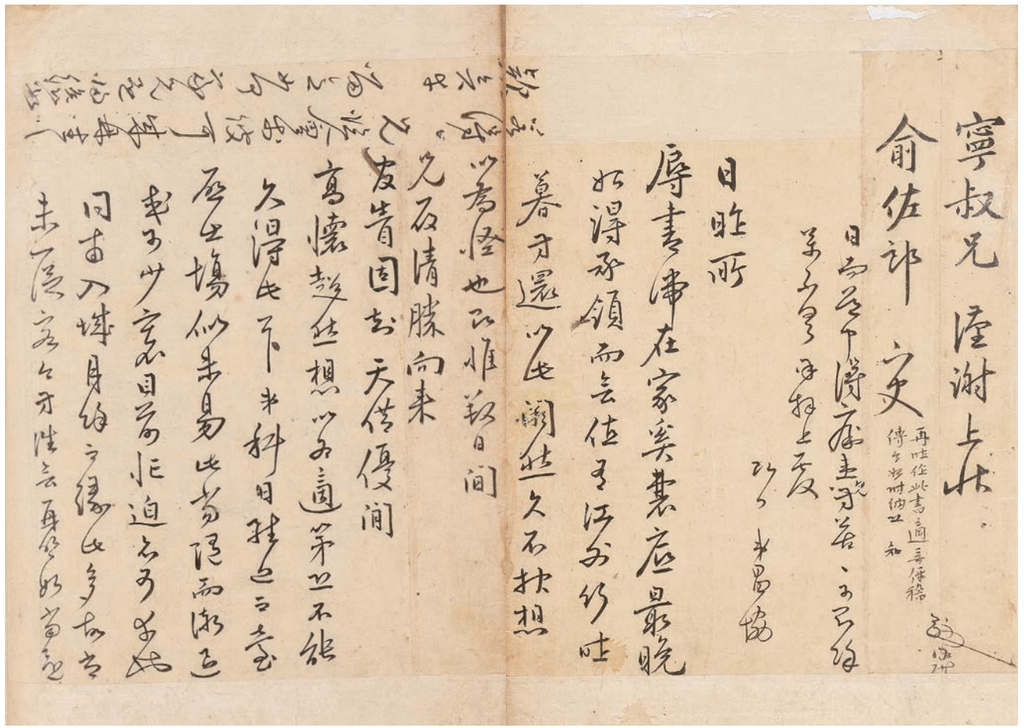
유창이 경기도 영평에 은거하고 있을 때, 김수항의 유배지가 영평 인근인 강원도 철원으로 옮겨졌다. 정치적 지향이 같았던 이들은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 교유는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김수항의 아들 김창협은 유창의 부인이자 유득일의 어머니의 환갑 잔치[壽宴]에도 초대되었으며, 돌아가셨을 때 김창협이 만사挽詞를 지었다. 김창협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관직에 나아가지 않아 만년에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다. 이때 유득일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모습들이 이어 소개하는 편지들에 잘 나타나 있다.

1 녹거鹿車: 사슴 한 마리를 실을 만한 작은 수레로 검소한 생활을 뜻한다.

2 반무斑舞: 춘추 시대 노래자老萊子가 나이 칠십에 부모를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하여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이씨 부인은 50세까지 시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셨다.



〈취경대〉, 《장동팔경첩》, 정선鄭敾, 조선, 18세기, 첩, 종이에 엷은 색, 각 면 33.1×29.5cm



16 15

김창협이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미상)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7

원 문

[皮封]
寧叔兄 謹謝上狀
兪佐郎 下史 [手決]謹封

再昨作此書, 適無伻, 稽傳, 今始附納. 恐知. 日昨所辱書, 滯在家奚囊底, 最晚始得承領, 而會値有江外行, 昨暮方還, 以此闕然久不報. 想以爲怪也. 卽惟數日間兄履淸勝. 向來官書, 固知天借優閒, 高懷超然. 想以爲適, 第恐不能久得此耳. 弟科日雖近, 而臺啓出場似未易, 此當隨而漸退, 或可少寬目前忙迫, 亦可幸也. 同甫入城月餘, 而緣此多故, 尙未一從容, 今方往會, 再明始當還. 若得兄臨會於彼, 可成鼎坐之款矣. 幸留意如何. 家兄還歸纔數日, 而道中得痢患, 方苦苦, 可悶. 餘萬不具. 謹拜上覆.
卽日, 弟昌協.

번역문

영숙寧叔형께 감사의 편지를 올립니다.
유좌랑兪佐郎의 집사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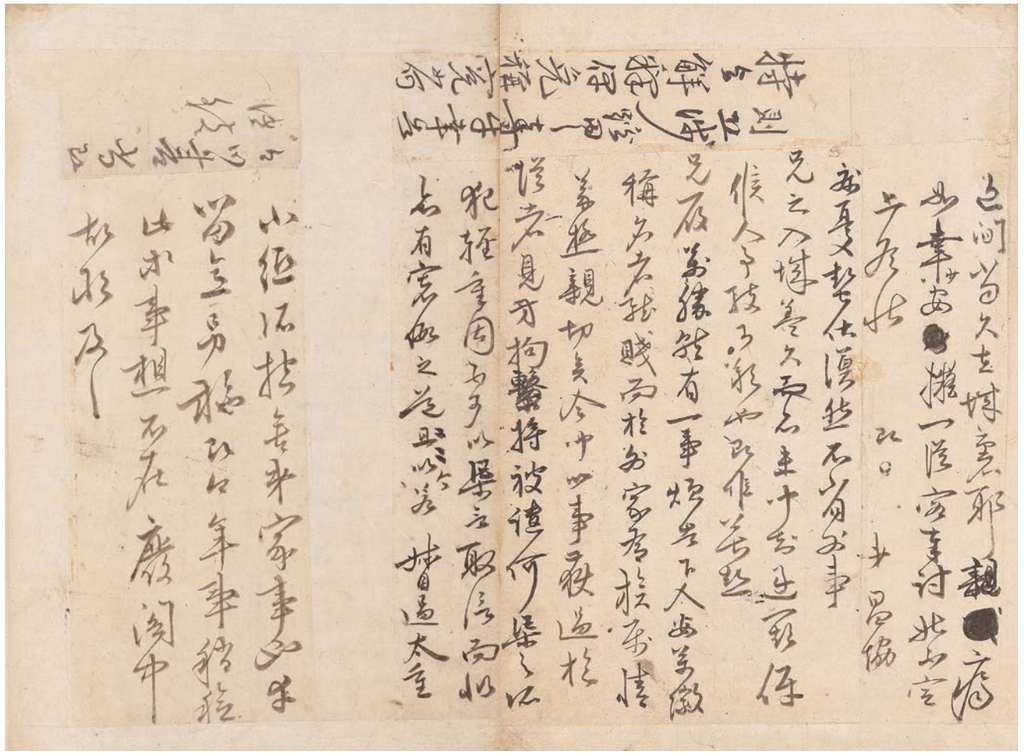
그저께 이 편지를 썼는데 마침 심부름꾼이 없어 전송이 늦어져 이제야 부칩니다. 이해해주시겠지요. 며칠 전 보내신 편지는 집의 보따리 속에 파묻혀 있어서 너무 늦게야 받아보았는데 마침 강외江外[1]에 다녀올 일이 생겨 어제 저녁 막 돌아왔기에 이로 인해 빠트리고 오래도록 답신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괴이하다 여기셨겠지요. 그간에 형의 건강은 편안하셨는지요? 지난날 관직에서 해임된 일은 하늘이 한가한 시간을 빌려준 것이라 마음이 초연하실 줄로 압니다. 흡족하게 여기시겠지만 다만 이러한 날을 오래 누리실 수는 없을 듯합니다.
저는 과일科日이 가까워졌지만 대계臺啓의 결말이 쉽지 나지 않을 듯하여 이에 따라 날이 연기될 것 같으니, 혹 목전의 다급함이 다소 풀릴 수 있다면 또한 다행일 것입니다.
동보同甫[2]가 도성에 들어온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일이 많아 여태 한 번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막 만나러 가서 모레 돌아올 예정입니다. 만약 형이 그곳으로 오신다면 셋이 다정히 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유념해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가형家兄[김창집]께서 돌아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도중에 설사병을 얻으셔서 한창 괴로워하고 계시니 근심스럽습니다. 나머지 많은 말들은 이만 줄이고 격식을 갖추지 않습니다. 삼가 절하고 답장을 올립니다.
당일에 아우 창협.

1 강외江外: 서울 도성에서 볼 때 한강 밖, 즉 한강 남쪽 지역을 가리킨다.

2 동보同甫: 이희조李喜朝(1655-1724)로,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동보, 호는 지촌芝村.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정관재靜觀齋 이단상李端相의 아들이자 김창협의 처남이며,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다.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이 있은 뒤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건원릉 참봉健元陵叅奉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였고, 다시 천거되어 전설사 별검典設司別檢에 임명되었다. 진천 현감, 천안 군수, 해주 목사, 의금부 도사, 공조 좌랑, 이조 좌랑, 대사헌 등을 지내고, 1725년(영조 1)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지촌집芝村集』이 있다.

해 설

김창협이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총 15통 중 날짜가 기록된 편지들이 날짜순으로 편집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편지도 1694년 즈음이나 그 이전에 작성된 편지임을 알 수 있다. 1689년은 김창협이 아버지 김수항과 중부仲父 김수흥이 유배를 갔다가 돌아가신 후 경기도 영평 백운산 근처에서 지내던 시기이다. 당시 김창협은 응암鷹巖의 지명을 농암農巖으로 바꾸고 자신의 호로 삼았는데, 평생 농사를 지으며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환국의 급박함도 지나가고 아버지와 중부의 삼년상도 지나고 은거하기로 결심한 시점이어서인지, 보고 싶은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서인지 즐거우면서도 편안한 마음이 편지 밖으로 느껴진다.
이 편지를 주고 받은 시기에 유득일은 관직에서 해임되어 낙담하고 있던 시기였다. 김창협은 유득일에게 하늘이 한가한 시간을 빌려준 거라 생각하며 이런 날을 즐기라며 위로해준다. 실제로 유득일은 이후 계속 관직을 역임하여 자유롭게 은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이희조는 김창협보다 4살 연하이다. 이희조의 아버지가 김창협의 스승이자 장인인 이단상이며, 이희조는 김창협의 숙부인 김수흥의 사위이다. 이희조는 김창협, 김창흡과 사상적 지향을 같이하는 친밀한 사이로, 이들의 문집에는 서로 간에 주고받은 편지가 많이 전한다.



18 17

김창협이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미상)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8

원 문

病憂蟄伏, 漠然不省外事. 兄之入城蓋久, 而亦未聞知, 遂闕伻候, 人事致可歎也. 卽惟苦熱兄履萬勝. 就有一事煩者, 下人安萬徽稱名者雖賤, 而於外家爲族屬, 情義極親切矣. 今聞以事獲過於從者, 見方拘繫, 將被譴何. 渠之所犯輕重, 固不可以渠言取信, 而似亦有寬假之道. 今若督過太重則恐涉蹊田之奪牛, 幸者特與解釋, 俾免稱寃如何. 近間當久在城裏耶. 親癠如幸少安, 擬一從容奉討, 姑不宣. 上候狀.
卽日, 弟昌協.

小紙所控, 舍弟家事也, 幸留意另施. 卽今年事稍稔, 此等事想不在廢閣中, 故敢及之. 白川書, 當卽傳致.

번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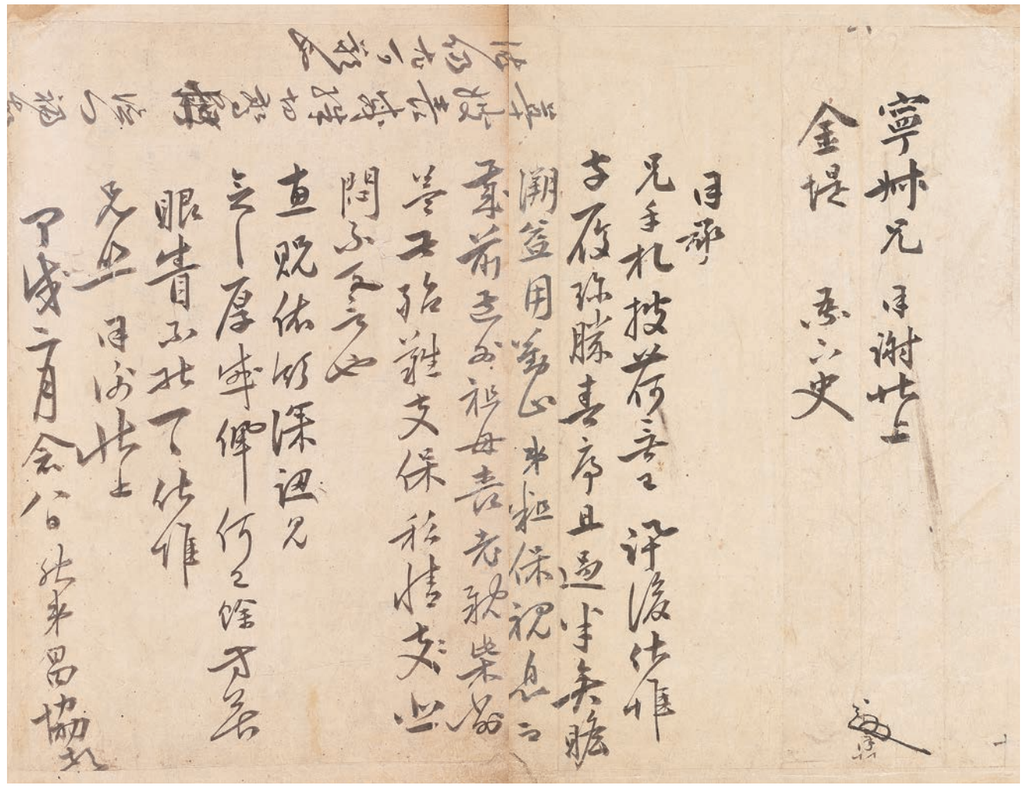
질병과 우환으로 칩거하느라 바깥일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형이 도성에 들어온 지 오래 되었는데도 소식을 듣지 못하여 안부를 여쭙지 못했으니, 인간사가 탄식할 만 합니다. 뜨거운 날씨에 형의 건강은 어떠신지요?
한 가지 번거로운 일이 생겼는데 안만휘安萬徽라 불리는 하인은 비록 천인이기는 하지만 외가에 족속으로 인정과 의리상 매우 친밀한 사이입니다. 지금 듣자니 어떤 일로 그대의 종자에게 잘못을 범해 현재 구금되어 장차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범한 일의 경중은 그의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또한 관대하게 처리할 방도가 있을 듯합니다. 지금 만약 허물을 책하는 것이 너무 무거우면 혜전탈우蹊田奪牛[1] 격이 될 듯하니 부디 특별히 석방해주시어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일을 면하게 함이 어떠신지요.
근간 도성에 오래 계실 예정입니까? 모친의 병환이 다행히 다소 나아지면 한 번 조용히 만나뵙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도로만 쓰고 격식을 펴지 않습니다. 문안 편지를 올립니다.
당일에 아우 창협.

별지에서 부탁한 것은 아우의 집안일이니, 부디 유념하시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금년 농사가 조금 결실이 있으니 이러한 일은 거절하지 않으시리라 생각되기에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배천白川의 편지는 즉시 전하겠습니다.

해 설

여러 가지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이다. 김창협 집안의 하인과 유득일 집의 하인이 시비가 붙어서 구금되어 있었는데, 관대하게 처리해 주기를 부탁하는 내용이다.
김창협 집의 하인 안만휘는 하인이기는 하지만 외가의 족속이라는 점에서 양인과 노비 사이에서 출생한 이로 추정된다. 그래서 다른 노비들과 달리 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오면 부계 중심의 사회가 공고해지지만, 김창협 때만 하더라도 외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까지 보내는 등 모계 중심의 영향이 남아 있었으며, 외가의 사정에 대해 항상 잘 알고 있었다.
김창협은 아버지의 사후死後 경기도 영평 백운산 근처 농암에서 머물다가 어머니의 병환을 간호하기 위해 경기도 양주 근처 삼주三洲로 가족들과 이사하고 농암과 삼주를 오가면서 지내었다. 삼주는 선조의 선영와 위패를 모신 석실서원 인근 지역이다.
조선시대 편지는 일반적으로 봉투[皮封]와 내용으로 구성된다. 내용은 다시 본문과 별지別紙로 나누어진다. 별지에는 본문에는 적기 어려운 은밀한 부탁이나 보내는 선물 등을 기록한다. 그래서 편지 별지에는 구체적이고 은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은밀한 내용과 본문과 분리되는 형식의 특성으로 전해지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1 혜전탈우蹊田奪牛: 소가 남의 전답田畓에 들어가면 벌로 그 소를 빼앗는다는 말이다. 벌罰이 죄罪보다 무거움을 뜻한다.



20 19

김창협이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694.2.28.)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9

원 문

[皮封]
寧叔兄 謹謝狀上
金堤 衙下史 [手決]謹封

謹承兄手札, 披荷無已. 訊後伏惟字履珍勝. 春序且過半矣, 瞻溯益用勤止. 弟粗保視息, 而歲前遭外祖母喪, 老親柴削益甚, 殆難支保, 私情悲悶不可言也. 惠既依領. 深認見念之厚, 感佩何已. 餘方苦眼眚, 不能一一. 伏惟兄照. 謹謝狀上.
甲戌二月念八日, 服弟昌協頓.

尊嫂喪戚, 殊切驚怛. 德門禍故荐仍, 尤可歎也.

번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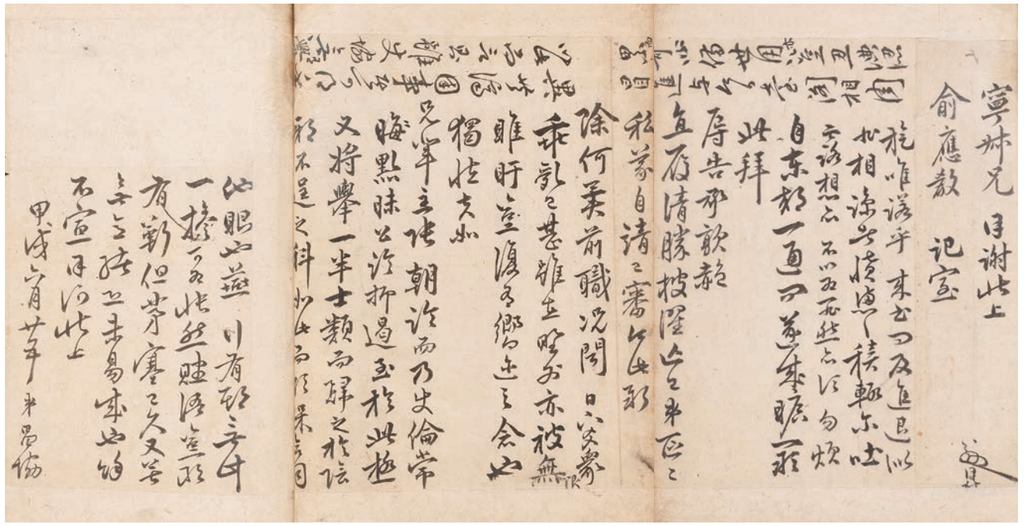
영숙형에게 감사의 편지를 올립니다.
김제金堤 관아官衙의 집사께.

직접 쓰신 형의 편지를 받으니 정말 반갑습니다. 편지를 보내신 이후로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봄도 반이 지났으니 그리운 마음 더욱 간절합니다. 저는 그럭저럭 목숨을 보전하고 있지만 세전에 외조모 상을 당해 모친이 몸을 상하신 것이 더욱 심하여 거의 지탱하기 어려우시니 슬프고 근심스러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보내 주신 선물은 잘 받았습니다. 돌보아 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깊이 느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어찌 사라지겠습니까? 나머지 말들은 지금 눈병으로 고생하고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형께서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편지를 올립니다.
갑술년(1694, 숙종 20) 2월 28일, 아우 복인服人 창협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존경하는 형의 형수 상은 너무도 놀랍고 슬픕니다. 형의 가문에 화가 이어지니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해 설

1694년 2월 김창협이 44세에 유득일에게 쓴 편지이다. 당시 김창협은 여러 차례 관직을 제수받았지만 "청요직에 오르지 말라."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사직하고 농암에 은거해 있던 시기이다. 이때 유득일은 김제현감으로 부임하였다. 전라도 김제와 경기도 양주라는 먼 거리와 함께 김창협의 외조모 상과 어머니의 병환, 유득일 집안에 이어지는 상喪 때문에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 유득일은 1690년에 부친상을 당하고, 둘째 형 유회일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시묘侍墓를 하다가 3개월 만에 죽었다. 그리고 부친상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상을 당한 것이다.
유득일은 자신의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협을 살뜰하게 돌보아 주었다. 장동 김문은 서울에 정착하기 시작한 16세기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지만, 정치적 부침을 겪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약간의 생활고가 있었다.



23 22 21

김창협이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694.6.25.)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10

원 문

[皮封]
寧叔兄 謹謝狀上
兪應敎 記室 [手決]謹封

自東郊一通問, 遂成曠闕. 此拜辱告, 承歊施直履淸勝, 披濯亡已. 弟區區私義, 自靖已審, 今此新除, 何異前職. 況聞日下爻象, 乖亂已甚, 雖在野外, 亦被無限睢盱, 豈復有嚮邇之念也. 獨怪夫如兄輩主張朝論, 而乃使倫常黯昧, 公論抑遏, 至於此極, 又將擧一半士類而歸之於陰邪不逞之科. 如此而欲保合同異, 共濟國事, 其可得乎. 以此而言, 則雖使協無有釁累而可備世用, 亦豈忍淟涊冒進, 與今日臺閣相周旋唯諾乎. 來書問及進退, 似非相諒者. 憤懣之積, 輒爾吐露, 想亦不以爲罪. 然亦須勿煩他眼也. 燕行有期, 無計一摻, 可爲悵然. 贐語豈敢有靳. 但茅塞已久, 又苦無意緖, 恐未易成也. 餘不宣. 謹謝狀上.
甲戌六月廿五日, 弟昌協.

번역문

영숙형께 삼가 감사하는 편지를 올립니다.
유응교兪應敎의 기실記室[1]에.

동교東郊에서 한 번 문안 편지를 올린 이후로 끝내 편지를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보내 주신 편지를 받고, 뜨겁게 찌는 날씨에도 건강이 좋다고 하시니 마음이 매우 편안합니다. 저의 구구한 사적인 의리는 은둔[自靖][2]해야 함이 너무도 분명하니, 지금 새로 제수된 관직이 어찌 이전에 내린 관직과 다르겠습니까? 하물며 서울의 상황이 이미 극히 혼란하며, 재야에 있어도 무한한 질시를 받는데 어찌 다시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유독 괴이한 건 형들께서 조론朝論을 주장하여 윤리를 어지럽히고 공론公論을 막은 것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고 또 장차 사류士類의 절반을 들어 사특하여 불량하다는 죄목에다 밀어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도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과 화합하여 국사를 함께 처리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말해보면 제가 잘못이 없어 세상에 쓰일 수 있다 해도 또한 어찌 욕됨을 참고서 억지로 나아가 지금의 대관臺官들과 서로 주선하면서 유유낙낙할 수 있겠습니까. 보내신 편지에서 진퇴에 대해 물으신 것은 저를 헤아려 주신 게 아닌 듯합니다. 분함과 우울함이 쌓인 끝에 문득 마음을 토로한 것이니 허물하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다른 사람 눈에 띄게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북경으로 떠나실 날이 다가왔는데도 한 번 뵐 길이 없으니 마음이 서글픕니다. 전별시는 어찌 감히 아끼겠습니까만, 마음이 막혀버린 지[3] 이미 오래 되었고 괴롭게도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쉽게 짓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나머지는 이만 줄이고 격식을 펴지 않습니다. 삼가 감사하는 편지를 올립니다.
갑술년(1694, 숙종 20) 6월 25일, 아우 창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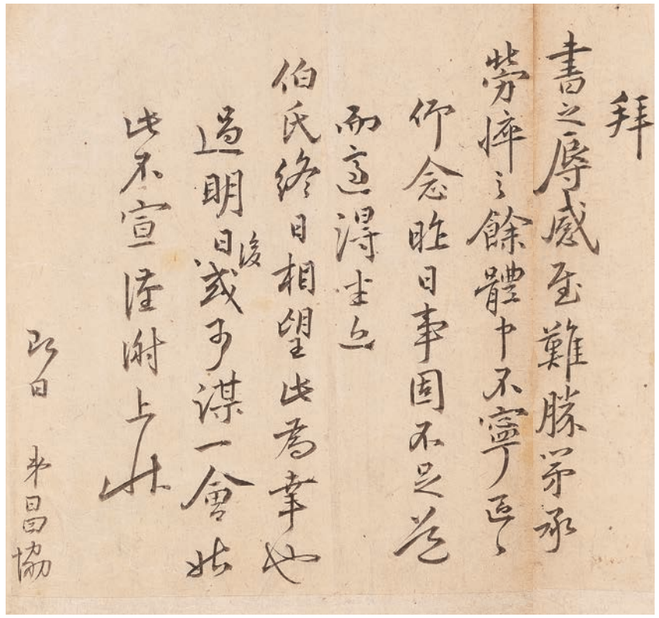
해 설

당시 열흘 전 조정에서는 희빈 장씨禧嬪張氏(1689-1701)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 6월 15일 김수항의 문인인 강민저姜敏著가 남구만南九萬(1629-1711) 등이 희빈 장씨를 옹호한다고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자, 남구만을 지지하는 심극沈極과 이인병李寅炳이 노론 배후설을 주장하며 공격하였다.
이때는 갑술환국甲戌換局(1694, 숙종 20)으로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은 시점이다. 숙종은 자신의 결정에 반론을 제기하고, 강경한 노선을 주장하는 노론이 부담스러워 온건한 소론을 등용했다. 남구만을 중심으로 한 소론은 아직 남인의 처벌과 희빈 장씨의 처우에 대해 온건한 태도를 유지하여 세자(훗날의 경종景宗)의 정치적 보호자가 됨으로서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자 했다. 강민저는 소론의 약점인 희빈 장씨를 비판하였고, 소론에서는 강민저 개인의 상소를 노론 전체의 의견으로 만들어 정국에 대한 대립 구도로 만들었다. 김창협은 노론이 배후인 체제로 갈 경우 노론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지만, 박세채의 문인으로 소론의 입장이었던 유득일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김창협의 우려대로 숙종은 소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박상경과 강민저에게 강한 형벌을 내렸다. 강민저는 1695년에 다시 소론 남구만 일파의 죄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진도에 유배되었다. 3년 만에 풀려 나온 뒤 벼슬을 단념하고 향리에서 후진을 양성하면서 오직 학문에 전념하였다. 여러 번 관직에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 기실記室: 기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리로, 지금의 서기書記나 비서관을 가리킨다.

2 은둔[自靖]: 스스로 의리와 지조를 지키는 것으로, 『서경』「미자微子」에 "스스로 의리에 편안하여 사람마다 스스로 선왕先王에게 뜻을 바칠 것이니, 나는 떠나가 은둔함을 돌아보지 않겠다.[自靖, 人自獻于先王, 我不顧行遯.]"라고 한 것이 보인다.

3 마음이 막혀버린 지: 원문의 '모색茅塞'은 띠풀에 덮여 길이 막혀버렸다는 의미로, 마음이 물욕에 가리움을 이른다. 『맹자孟子』「진심盡心」에 "그대의 마음이 모색하였다.[茅塞子之心矣.]"라는 말이 있다.



24 23

김창협이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미상)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11

원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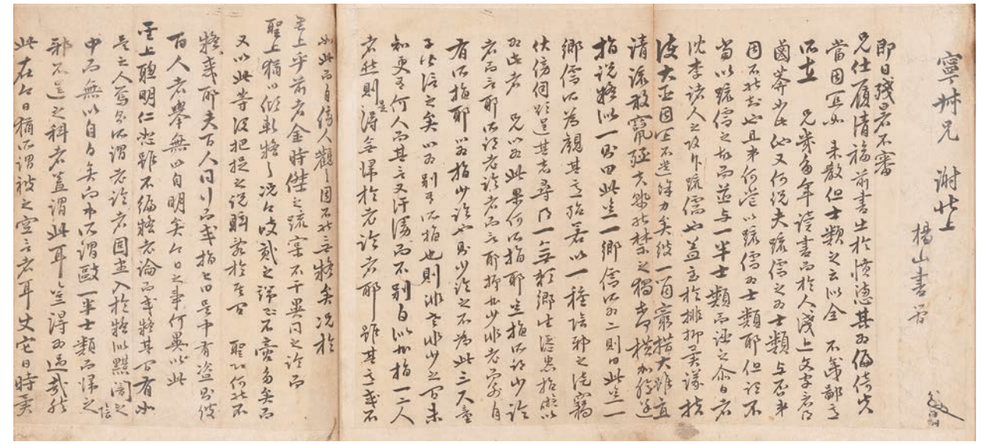
拜書之辱, 感慰難勝. 第承勞悴之餘, 體中不寧, 區區仰念. 昨日事, 固不足道, 而適得坐近伯氏, 終日相望, 此爲幸也. 過明日後, 或可謀一會, 姑此不宣. 謹謝上狀.
卽日, 弟昌協.

번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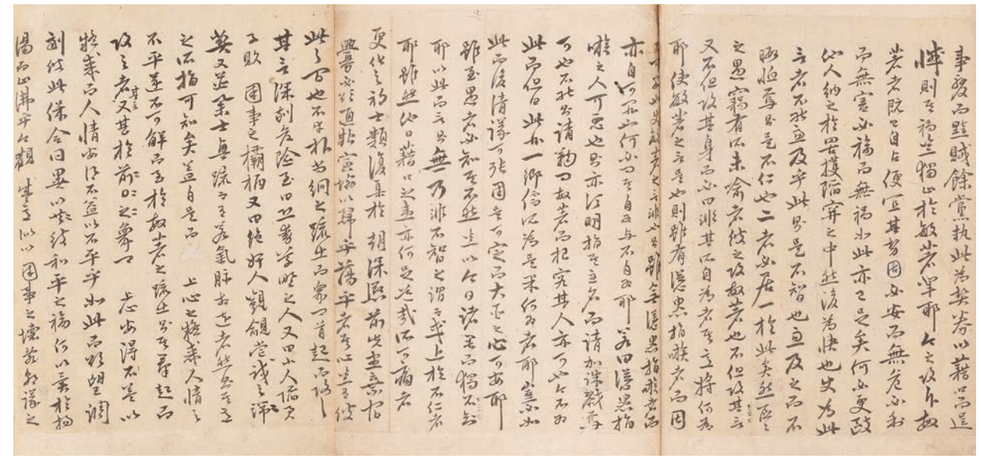
보내 주신 편지를 받으니 감사하고 매우 위로가 됩니다. 다만 국사에 힘쓰시던 끝에 몸이 편찮으시다 하니 구구한 저의 마음은 우러러 염려됩니다.
엊그제 일은 실로 말할 게 못되지만 마침 형 가까이에 앉아 종일 서로 바라볼 수 있었으니 이 점이 다행스럽습니다. 며칠 후에 혹 한 번 만날 수 있을 듯합니다.
우선 이런 정도로만 쓰고 격식을 펴지 않습니다. 감사의 편지를 올립니다.
당일에 아우 창협.

해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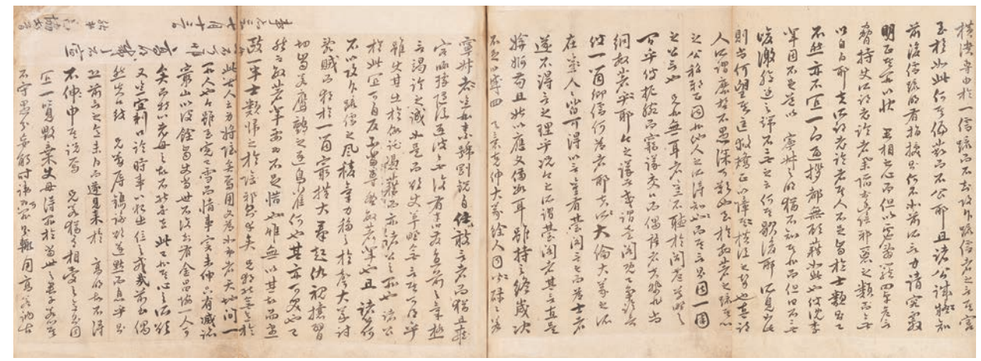
짤막하지만 가득한 그리움과 반가움이 느껴지는 편지이다. 편지를 쓴 날짜가 즉일[당일]이라 적혀있어 언제 쓴 편지인지는 모른다. 종일 같이 있으며 마음 속 회포를 풀었나 보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적은 다른 편지와 달리 필획에서도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27 26 25



30 29 28



34 33 32 31

김창협이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694.7.13.)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12

*김창협의 『농암집』 권17에 「與俞寧叔」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지면상의 문제로 "『농암집』에는 "…"라 되어 있다"는 설명은 생략하고 『농암집』의 문구만 밝힌다.

1 前書出於憤懣, 其爲偏倚失當: 出於憤懣之極, 其言之偏倚失當
2 兄幾多年讀書: 兄幾多年讀古人書
3 夫疏儒之爲士類與否, 弟固不能知也: 夫疏儒之爲士類與否, 非弟所能知也
4 日者: 日昨
5 固宜不遺餘力矣: 則固宜其無餘力矣
6 彼一箇窮措大: 彼一介窮措大
7 獨奈何橫加臆逆: 獨奈何橫加億逆
8 觀其意: 彼觀其意
9 竊伏傍伺: 竊伏旁伺
10 尋得一無賴鄉生, 慫恿指嗾, 以爲此者: 尋得一無賴鄉儒, 慫慂指嗾, 而爲此者
11 兄以爲此果何所指耶: 然未知此果何所指耶
12 所謂老論者而言耶: 指老論者而言耶
13 三尺童子皆信之矣: 三尺童子皆信之
14 則非老非少之間: 則非少非老之間
15 然則是得無歸於老論者耶: 似非指一二人者
16 而自傍人觀之: 而自旁人觀之
17 而聖上猶以傾軋疑之: 而聖上已以傾軋疑之
18 況今岐貳之端, 不啻多矣: 況今歧貳之端, 不翅多矣
19 如是之人焉: 如是之人參焉
20 黯闇之中: 黯黯之中
21 毆一半士類而歸之陰邪不逞之科者, 蓋謂此耳, 豈得爲過哉: 毆一半士類而歸之於陰邪不逞之科者, 其不以此乎, 然此在今日
22 猶所謂被之空言者耳: 尙所謂被之空言者耳
23 使它日時異事變: 使他日時移事變
24 既已自占便宜, 其勢固必安而無危, 必利而無害, 必福而無禍: 既已自占便地, 其勢有必安而無危, 有必利而無害, 有必利而無害
25 然區區之愚, 竊有所未喻者: 抑協之愚, 竊有所未曉者
26 則雖有慫恿指嗾者: 則雖有慫慂指嗾者
27 則雖無慫恿指嗾者: 則雖無慫慂指嗾者

원 문

[皮封]
寧叔兄 謝狀上
楊山書簡 [手決]謹封

卽日殘暑, 不審兄仕履淸福. 前書出於憤懣, 其爲偏倚失當,[1] 固宜如來敎. 但士類之云, 似全不識鄙意所在. 兄幾多年讀書,[2] 而於人淺近文字, 看得鹵莽如此, 他又何說. 夫疏儒之爲士類與否, 弟固不能知也.[3] 且弟何嘗以疏儒爲士類耶. 但謂不當以疏儒之故而竝與一半士類而誣之爾. 日者,[4] 沈李諸人之攻斥疏儒也, 蓋急於排抑異議·扶護大臣, 固宜不遺餘力矣.[5] 彼一箇窮措大,[6] 雖直請流放竄殛, 夫孰能禁之. 獨奈何橫加臆逆,[7] 指說疑似, 一則曰此豈一鄉儒所爲. 二則曰此豈一鄉儒所爲. 觀其意,[8] 殆若以一種陰邪之徒, 竊伏傍伺,[9] 欲逞其志, 尋得一無賴鄉生, 慫恿指嗾, 以爲此者.[10] 兄以爲此果何所指耶.[11] 豈指所謂少論者而言耶.[12] 所謂老論者而言耶. 抑非少非老而別自有所指耶. 以爲指少論也, 則少論之不爲此, 三尺童子皆信之矣.[13] 以爲別有所指也, 則非老非少之間,[14] 未知更有何人而其言又汗漫而不別白. 似非指一二人者, 然則是得無歸於老論者耶.[15] 雖其意或不如此, 而自傍人觀之,[16] 固不能無疑矣, 況於君上乎. 前者金時傑之疏, 寀不干異同之論, 而聖上猶以傾軋疑之.[17] 況今岐貳之端, 不啻多矣,[18] 而又以此等沒把捉之說, 眩亂於其間, 聖心何能不疑惑耶. 夫百人同行, 而或指之曰是中有盜, 則彼百人者, 擧無以自明矣. 今日之事, 何以異此. 聖上聰明仁恕, 雖不偏疑老論, 而或疑其間有如是之人焉,[19] 則所謂老論者, 固盡入於疑似黯闇之中,[20] 而無以自白矣. 向弟所謂"毆一半士類而歸之陰邪不逞之科"者, 蓋謂此耳, 豈得爲過哉.[21] 然此在今日, 猶所謂被之空言者耳.[22] 使它日時異事變,[23] 而黯賊餘黨執此爲契券, 以藉口而逞憾, 則其禍豈獨止於敏著輩耶. 今之攻斥敏著者, 旣已自占便宜, 其勢固必安而無危, 必利而無害, 必福而無禍.[24] 如此亦已足矣, 何必更毆他人, 納之於罟擭陷穽之中, 然後爲快也. 使爲此言者, 不能慮及乎此, 則是不智也; 慮及之而不暇恤焉, 則是不仁也, 二者必居一於此矣. 然區區之愚, 竊有所未喩者.[25] 彼之攻敏著也, 不但攻其言, 又不但攻其身, 而必曰"非其所自爲"者, 其意將何爲耶. 使敏著之言是也, 則雖有慫恿指嗾者,[26] 而固不可罪也; 使敏著之言非也, 則雖無慫恿指嗾者,[27] 而亦自可罪也, 何必問其自爲與不自爲耶. 若曰慫恿指嗾之人可惡也,[28] 則亦須明指其主名, 而請加誅戮焉可也[29]; 不能則請鞫問敏著, 而根究其人亦可也. 今不爲此, 而但曰"此非一鄉儒所爲",[30] 是果何爲者耶. 豈必如此而後, 淸議可張, 國是可定, 而大臣之心可安耶. 雖至愚者, 必知其不然, 豈以今日諸君而獨不知耶. 以此而言, 則無乃非不智之謂而或近於不仁者耶. 雖然, 他日藉口之患, 亦何足道哉. 所可痛者, 更化之初, 士類復集於朝, 深懲前失, 盡棄宿釁,[31] 必欲通融寅協, 以歸乎蕩平者,[32] 其心豈有彼此之間也. 不幸朴尙絅之疏出, 而象卿首起而攻之, 其言深刻危險, 至曰"恐動草野之人", 又曰"小人陷君子, 敗國事之欄柄", 又曰"絶奸人覬覦嘗試之弊", 又竝擧士興疏, 而有若氣脈相連者.[33] 然則其意之所指,[34] 可知矣. 蓋自是而上心之疑惑·人情之不平, 遂不可解. 而至於敏著之疏出, 則其群起而攻之者, 其言又甚於象卿, 上心安得不益以疑惑.[35] 而人情安得不益以不平乎. 如此而欲望調劑彼此, 保合同異, 以致和平之福, 何以異於揚湯而止沸乎.[36] 今觀盛意, 似以國事之壞亂·朝議之橫潰, 專由於一儒疏,[37] 而不知攻斥疏儒者之言, 其害至於如此, 何其偏蔽而不公耶.[38] 且諸公誠知前後儒疏明有指授,[39] 則何不如前所言, 力請究覈, 明正其罪, 以快君相之心, 而但以虛辭籠罩, 危言脅持, 使所謂老論者, 擧陷於幽陰邪慝之類, 而無以自白耶. 夫所謂老論者, 其人不足齒於士類則已, 不然, 亦不宜一向逼拶, 都無顧藉如此也. 彼沈李輩, 固不足道, 以寧叔之明, 猶不知其非, 而但曰"不無峻激臆逆之端",[40] "不無"之云, 何其歇後耶. 所見如此, 則尙何望其匡救矯正, 以障橫流之勢也.[41] 眞詩人所謂"靡哲不愚", 深可歎也.[42] 至於敏著之疏, 其心之公私邪正, 固非他人之所得知, 而其言則固一國之公言也. 兄非無耳者, 豈不聽於閭巷草野之間乎. 彼扼腕而竊議, 交口而偶語者, 夫孰非尙絅敏著耶. 今之議者, 或謂: "臺閣旣已爭論矣, 彼一箇鄉儒, 何爲者耶." 夫大倫大義之所在, 人人皆可得以言,[43] 豈有臺閣言之而爲士者遂不得言之理乎. 況今之所謂臺閣者, 其言直是媕婀苟且, 姑以應文備數耳, 雖持之終歲, 決不足以感回天意,[44] 克伸大義. 餘人固碌碌, 若寧叔,[45] 豈非素號剛銳, 自任以敢言者.[46] 而猶且雍容暇預, 隨流逐波, 無復有奮發直前之氣·極言竭論之誠,[47] 如是而欲使草野無言, 其可得乎. 雖使其出於假託憑藉, 而亦諸公之罪也. 諸公於此, 宜可自反,[48] 不當專咎敏著輩也. 且諸公何不以攻斥疏儒之風稜氣力, 移之於聲大義·討亂賊, 而獨於一箇窮措大, 群起仇視,[49] 攘臂切齒, 若鷹鸇之逐鳥雀,[50] 何也. 其亦可笑也已. 然而敏著輩, 要爲不足惜. 惟無以其故而盡毆一半士類, 歸之於陰邪, 則幸矣, 兄獨能無意於此.[51] 古人云: "身將隱矣, 焉用文爲." 如弟者, 天地間一罪人也. 今雖至寃已雪, 而情事實未伸, 只有滅跡窮山, 以沒餘齒,[52] 使當世不復知有金昌協一人可矣. 而特以老母之故,[53] 不能遠去, 此已非其心之所欲, 又豈宜刺口論時事, 以犯出位之戒哉. 前書偶然失口, 致兄勤辱鐫諭. 欲遂默而息乎, 則恐前言之意未白, 而遂見棄於高明, 故不得不申其說焉. 兄若猶有相愛之意,[54] 則固宜一覽毁棄, 使毋得罪於當世之君子.[55] 若以其不守愚分, 妄觸時諱, 爲可罪,[56] 則輒用高若訥古事, 亦無不可. 惟高明裁之. 不宣. 甲戌七月十三日, 服弟昌協頓首.[57]

28 慫恿指嗾之人可惡也: 慫慂指嗾之人可惡也
29 而請加誅戮焉可也: 而請加刑戮焉
30 此非一鄉儒所爲: 此非一鄉儒所爲者
31 盡棄宿釁: 盡棄舊釁
32 以歸乎蕩平者: 以歸於蕩平者
33 而有若氣脈相連者: 有若氣脉相連者
34 然則其意之所指: 然則其意之所在
35 則其群起而攻之者, 其言又甚於象卿, 上心安得不益以疑惑: 則其羣起而攻之者, 倍於前日, 而其言之深刻危險, 又甚於象卿, 聖心安得不益以疑惑
36 如此而欲望調劑彼此, 保合同異, 以致和平之福, 何以異於揚湯而止沸乎: 如此而欲望其保合彼此, 調劑同異, 何以異於揚湯而止沸耶
37 專由於一儒疏: 專由於一疏儒
38 何其偏蔽而不公耶: 又何偏蔽而不公耶
39 且諸公誠知前後儒疏明有指授: 且兄輩誠疑前後儒疏, 明有指授
40 不無峻激臆逆之端: 不無峻激億逆之端
41 以障橫流之勢也: 以障其橫流之勢乎
42 深可歎也: 尤可歎也
43 人人皆可得以言: 人人皆可得而言之
44 雖持之終歲, 決不足以感回天意: 雖終年閒歲, 何足以感回宸聽而克伸大義
45 若寧叔: 若寧叔者
46 自任以敢言者: 以敢言自任者
47 而猶且雍容暇預, 隨流逐波, 無復有奮發直前之氣·極言竭論之誠: 而猶且雍容暇豫, 逡巡却步, 無復有奮發直前極言竭論之意
48 宜可自反: 宜亦可以自反
49 移之於聲大義·討亂賊, 而獨於一箇窮措大, 群起仇視: 移之於明大義討亂賊, 而獨於一介窮措大, 古人所謂怪鬼輩者輒羣起仇視
50 若鷹鸇之逐鳥雀: 若鷹鸇之逐鳥雀者
51 然而敏著輩, 要爲不足惜, 惟無以其故而盡毆一半士類, 歸之於陰邪則幸矣, 兄獨能無意於此: 然而敏著, 要爲不足道也, 惟無以一鄉儒之故, 並與一半士類, 而歸之於陰邪不逞之科, 則幸矣
52 只有滅跡窮山, 以沒餘齒: 只合深入窮山, 滅跡匿影
53 而特以老母之故: 而特以老母在堂
54 而遂見棄於高明, 故不得不申其說焉, 兄若猶有相愛之意: 而重得罪於高明, 故不得不更申其說, 兄猶有相愛之意
55 使毋得罪於當世之君子: 使毋得罪於當世
56 爲可罪: 爲罪
57 不宣. 甲戌七月十三日, 服弟昌協頓首.: 『농암집』에는 이 부분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번역문

영숙寧叔 형께 감사하는 편지를 올립니다.
양산楊山[58]에서 올리는 서간.

요사이 늦더위에 잘 지내시는지요? 지난번 편지는 불만에 차서 썼으니, 치우치고 합당함을 잃은 점은 실로 지적하신 것과 같습니다. 다만 '사류士類' 운운한 말씀은 제 의도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신 듯합니다. 형께서는 그렇게 오래 글을 읽었는데도 이 사람의 천근한 글에 대해 이 정도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 다른 글에 대해서야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 상소한 유생이 사류인지의 여부는 실로 제가 알지 못합니다. 또 제가 언제 상소한 유생을 사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단지 상소한 유생 때문에 사류의 절반을 함께 모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을 뿐입니다.

일전에 심극沈極과 이인병李寅炳 등이 상소한 유생을 공격할 적에는 자신들과 다른 논의를 배격하고 대신을 비호하기에 급급하였으니, 실로 여력을 남기지 않고 힘을 다 쏟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유생이야 일개 빈한한 서생이니, 곧바로 쫓아내고 찬배하고 죽이기를 청한다 해도 누가 금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함부로 억측을 하고 의구심을 사실인양 말하여 첫 번째에도 "이 어찌 일개 시골 유생이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하고, 두 번째에도 "이 어찌 일개 시골 유생이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라고 한단 말입니까.

저들의 뜻을 살펴보면, 거의 일종의 음험하고 사악한 무리가 숨죽이고 엿보다가 자기네 뜻을 펴려고 무뢰한 시골 유생을 찾아내어 종용하고 사주하여 이런 짓을 했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형은 이것이 과연 누구를 가리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혹 이른바 소론을 가리켜 말한 것이겠습니까? 이른바 노론을 가리켜 말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소론도 아니고 노론도 아니고 달리 따로 가리키는 바가 있겠습니까?

소론을 가리킨 것이라고 한다면 소론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믿고 있을 터이고, 따로 가리키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노론도 아니고 소론도 아닌 그 중간에 다시 누가 있기에 그 말이 또 모호하고 명백하지 않단 말입니까. 아무래도 한두 사람을 지적한 것이 아닌 듯하니, 그렇다면 이는 노론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뜻이 혹 이렇지 않다 해도 제삼자가 보면 실로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성상이야 어떻겠습니까. 앞서 김시걸金時傑[59]의 상소는 실로 어느 한쪽의 논의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성상께선 오히려 배제하고 모함한다고 의심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갈래를 달리하는 단서가 무수히 많은데 거기에 또 이런 애매모호한 설로 혼란을 가중시켰으니, 성심聖心이 어찌 의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백 명이 함께 가는데 혹 손가락질하며 이 중에 도둑이 있다고 한다면, 저 백 명이 모두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일이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상께서 총명하고 인자하시니 노론을 두루 의심하지야 않겠지만 혹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의심한다면 이른바 노론들은 실로 전부가 의혹스럽고 애매한 지경에 빠져들어 스스로 결백을 입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른바 "사류의 절반을 몰아서 음험하고 사악하며 불령한 죄과에 빠뜨린다."고 한 것은 대개 이를 의미한 것이니, 어찌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직 이른바 공언空言으로 치부된 것일 뿐입니다. 가령 훗날 시사時事가 변해서 음험한 잔당들이 이것을 증거로 삼아 구실을 만들어 유감을 풀려고 한다면 그 화가 어찌 강민저 등에서 그치고 말겠습니까. 오늘날 강민저를 공격하는 자들은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니, 그 형세가 실로 필시 편안하여 위태로움이 없고, 필시 유리하여 피해가 없으며, 필시 복을 누려 화란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어찌 꼭 다시 다른 사람들을 몰아서 덫과 함정에 빠뜨리고 나서야 통쾌해한단 말입니까. 가령 이 말을 한 자가 여기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면 이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생각이 여기에 미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면 이는 어질지 못한 것이니, 이 중에 필시 하나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어리석은 저로서는 삼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들이 강민저를 공격할 때에 그의 말만 공격하거나 그 당사자만 공격할 뿐 아니라 반드시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 그 의도가 장차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가령 강민저의 말이 옳다면 종용하고 사주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령 강민저의 말이 그르다면 비록 종용하고 사주한 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데, 어찌 굳이 그 스스로 했는지의 여부를 따진단 말입니까. 만약 종용하고 사주한 사람이 가증스럽다고 한다면 모름지기 그 주범의 이름을 명확히 지적해서 주벌을 하도록 청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강민저를 국문해서 그 사람을 캐내도록 청하는 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이는 일개 시골 유생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 이것이 과연 무얼 하자는 것입니까? 어찌 꼭 이렇게 한 뒤에야 청의淸議가 펴지고 국시國是가 정해져 대신의 마음이 안정된단 말입니까.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자라도 틀림없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터인데, 어찌 오늘날 제군諸君만이 유독 모른단 말입니까. 이것으로 말해보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할 게 아니라 혹 어질지 못한 데 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훗날 구실로 삼을 걱정이야 뭐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통탄스러운 것은 다음과 같은 점입니다. 개혁을 단행할 초기에 사류가 다시 조정에 모여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과거의 허물을 다 청산하여 기필코 화합하고 합심하여 공명정대한 정국을 이루려고 하였으니, 그 마음이야 어찌 피차의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불행히 박상경朴尙絅의 상소가 나오자 상경象卿 김몽신金夢臣이 먼저 나서서 공격하였는데,[60] 그 말이 심각하고 음험하여 "초야에 있는 사람을 동요시킬까 두렵다."느니, "소인이 군자를 모함하고 국사를 그르치는 단서"라느니, 또 "간사한 이가 엿보고 시험하는 폐단을 끊어야 한다."라느니 하면서 사흥士興 김시걸金時傑의 상소까지 아울러 거론하여 기맥이 서로 연관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가 가리키는 바를 알 만하니, 대개 이 이후로 성상의 마음에 이는 의혹과 민심의 불평이 결국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저의 상소가 나오자 떼를 지어 일어나 공격하는 자들은 그 말이 김몽신보다 심하니, 성상의 마음이 어찌 더 의혹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민심이 어찌 더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데도 피차의 입장을 조제調劑하고 다른 의견을 보합保合하여 화평한 복을 이루기를 바라고자 한다면, 불을 때면서 물이 끓지 않게 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제 형의 의도를 살펴보건대, 국사가 혼란하고 조정의 논의가 궤멸되는 것이 전적으로 일개 유생의 상소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상소한 유생을 공격한 자의 말이 그 폐해가 이러한 데 이르는 줄은 모르는 듯하니, 어쩌면 그리도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합니까.

또 제공이 참으로 전후의 유생의 상소가 명백히 사주를 받은 것인 줄 알았다면 어째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그 죄를 명백히 바로잡도록 힘껏 청하여 군상君相의 마음을

58 양산楊山: 경기도 양주의 별칭이다.

59 김시걸金時傑: 1653-1701.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사흥士興, 호는 난곡蘭谷, 시호는 헌간獻簡이다. 1684년(숙종 10) 문과에 급제하여, 수찬, 사간, 응교, 승지, 전라도 관찰사, 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60 박상경의……공격하였는데: 박상경은 강민저 보다 앞서 유사한 내용으로 상소하였고, 이를 공격하는 응교應敎 김몽신金夢臣의 상소는 『숙종실록』 20년 윤5월 13일에 실려 있다.

시원스럽게 풀어드리지 않고, 단지 허황한 말로 혐의를 씌우고 위협하는 말로 협박하여 이른바 노론을 모두 음험하고 사특한 부류로 몰아넣어 결백을 밝힐 수 없게 한단 말입니까. 저 이른바 노론이란 자들이 그 인물의 면모가 사류에 끼워주기에 부족하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줄곧 핍박하여 전혀 이렇게 돌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저 심극과 이인병 등은 실로 말할 것도 없지만, 영숙 같은 현명한 분도 오히려 그 잘못을 모른 채 그저 "과격하고 억측한 단서가 없지 않다."라고 하니, "없지 않다."는 말은 어찌도 그리도 허술합니까? 소견이 이렇다면 오히려 어찌 바로잡고 교정하여 마구 치달리는 형국을 막아내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참으로 시인이 이른바 "명철하다는 사람치고 어리석지 않은 이가 없다.[靡哲不愚]"[61]는 격이니, 몹시 한탄스럽습니다.

강민저의 상소에 이르러서는, 그의 마음이 공정한지 사사롭고 사특한지를 실로 남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만, 그의 말은 실로 온 나라의 공론입니다. 형도 귀가 없는 사람이 아니니 어찌 항간이나 초야에서 듣지 못했겠습니까. 저 팔짱을 끼고 남몰래 논의하고 입을 모아 수군대는 자들이 누군들 박상경이나 강민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논의하는 자들은 혹 "대각에서 이미 쟁론하였는데, 저 일개 시골 유생은 뭐 하는 자인가?"라고 하는데, 무릇 대륜大倫이나 대의大義에 관계되는 것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으니, 어찌 대각에서 말했다고 해서 선비된 자가 마침내 말할 수 없는 이치가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오늘날 이른바 대각이란 그 말을 그저 얼버무리고 구차히 하여 우선 형식이나 갖추고 인원수나 채울 뿐이니, 비록 한 해가 다가도록 버틴다고 해도 결코 성상의 뜻을 감동시켜 돌리고 대의를 펴지 못할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실로 보잘것없는 소인들이지만, 영숙이야 어찌 평소 강직하고 예리하다고 불리며 과감하게 간언하는 것을 자임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며 추세를 따르고 더 이상 분발하여 앞으로 나가려는 기세와 할 말을 다 하겠다는 성심誠心이 없으니, 이와 같으면서 초야에서 말이 안 나오기를 바란들 가능하겠습니까.

가령 그 상소가 거짓되고 빙자한 데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역시 제공諸公의 잘못입니다. 제공은 이에 대해 의당 자신들을 반성해야지 전적으로 강민저 등만 허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제공은 어찌하여 상소한 유생을 공격하는 매서운 기력을 대의를 천명하고 난적을 성토하는 데에 쓰지 않고, 단지 일개 빈한한 서생에 대해 떼를 지어 일어나 원수보듯이 하며 팔을 휘두르며 이를 갈기를 매가 참새를 몰듯이 해대니, 이는 어째서입니까? 이 역시 가소로울 뿐입니다. 어쨌거나 강민저 등은 안타까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 때문에 사류의 절반을 다 몰아서 음험하고 사악한 데로 밀어 넣는 일이 없다면 다행인데, 형만 유독 이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단 말입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장차 은거하려는 마당에 글을 어디에 쓰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62] 저 같은 자는 이 세상의 일개 죄인입니다. 이제 비록 지극한 원통함은 이미 씻어졌지만 심사는 실로 펴지지 않고 맺혀 있으니, 그저 깊은 산중에서 자취를 숨기고 여생을 보내어 당세에 김창협이란 인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게끔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노모 때문에 멀리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조차도 제 마음에 바라는 바가 아닌데 또 어찌 시사時事를 비판하여 지위를 벗어났다는 경계를 범하겠습니까.

이전 편지에서 어쩌다 실언을 하여 형께서 수고스럽게 가르침을 주게끔 하였습니다. 그대로 입 다물고 그만두자니 앞서 한 말뜻이 명백하지 않아 결국 고명께 버림받게 될까 두려워서

61 명철하다는……없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억抑」의 시구詩句이다.

62 옛사람이……하였습니다: '옛사람'은 개지추介之推이다. 춘추 시대 진 문공晉文公이 공자公子 시절에 19년 동안 국외로 망명할 당시 개지추는 온갖 고난을 겪으며 줄곧 수행하였다. 문공이 귀국하여 즉위하자 개지추는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고 몸을 숨기면서 "말이란 몸을 꾸미는 것입니다. 제가 장차 은거하려 하는데 꾸미는 일을 어디에 쓰겠습니까.[言, 身之文也, 身將隱, 焉用文之.]"라는 말을 어머니에게 남겼다고 한다. 『사기史記』 권39.

부득이 그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께서 만약 아껴주시는 뜻이 아직 있다면 실로 한번 보고 폐기하여 당대의 군자에게 죄를 얻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분수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시대의 금기를 저촉한 것을 탓하신다면 곧 고약눌高若訥의 고사를 쓰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63]

현명한 그대께서 재량하여 처리하십시오. 격식을 펴지 않습니다.

갑술년(1694, 숙종 20) 7월 13일, 아우 복인服人 창협昌協이 머리를 조아리며 올립니다.

해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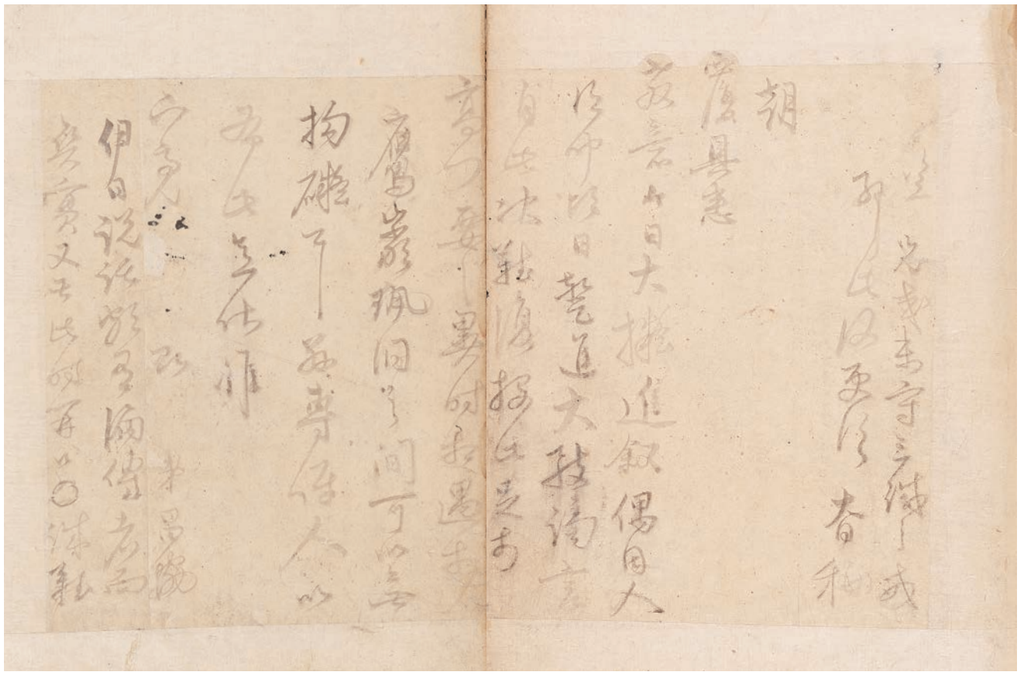
김창협이 경기도 양주에 머무를 때 보낸 편지이다. 어머니께서 1693년 외할머니의 묘를 모시기 위해 경기도 영평永平에서 양산楊山의 묘사墓舍로 나와 거처하셨고, 김창협도 어머니를 문안하기 편한 양주楊州 금촌金村[지금의 남양주시 금곡동]으로 이사하였다.

여기에서 김창협은 6-10의 편지에 이어서 소론에 대한 유득일의 대처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 편지를 쓴 시점은 1684년 남인들은 역모 사건으로 권력을 잃고 유배를 당했으며, 서인 중 소론 세력을 중심으로 다시 정계에 등용되기 시작한 때이다. 이때 희빈 장씨 때문에 폐서인 당했던 인현왕후仁顯王后(1667-1701)도 4월에 왕후로 복위하였다. 숙종은 김수항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김창협에게 계속해서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때 서인 내부에서도 남인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요구하는 노론과 온건파 소론으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서인에서 분파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강력하게 탄압하고자 하진 않았다. 유득일 역시 이러한 태도를 견지했고, 이에 대해 김창협이 비판한 한 것이다. 정치적 상황으로 가족들의 죽음을 겪었으며, 자신의 사상을 견지하고 잘못된 것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김창협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한 사람의 발언이 노론 전체를 의심하게 만들면 "사류의 절반을 몰아서 음험하고 사악하며 불령한 죄과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김창협은 이 편지의 말미에서도 산중에 자취를 감추고 여생을 보내고자 함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창협에게는 동부승지, 우부승지, 좌부승지의 관직이 제수되었다.

63 고약눌高若訥의……없습니다: '고약눌'은 송 인종宋仁宗 당시 간신 여이간呂夷簡의 일파로, 인종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다. 1036년(경우 3) 5월에 천장각대제天章閣待制로 있던 범중엄范仲淹이 국사를 함부로 논했다는 죄를 받고 목주睦州로 좌천되어 갈 때, 관각교감館閣校勘 구양수歐陽脩가 고약눌에게 편지를 보내어 간언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책망하자, 그는 화가 나서 그 편지를 인종에게 보이며 구양수를 탄핵하여 이릉현령夷陵縣令으로 좌천시켰다. 곧 작자 자신을 구양수에게 견주어 상대방이 자신의 편지에 유감을 품고 화풀이를 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송사宋史』 권288.



36 35

김창협이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미상)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13

원 문

朝覆, 具悉教意. 今日大擬進敍, 偶因人得聞頃日蹔進, 大致謫言, 自此決難復投此足於高門. 要之異時相遇於鷹巖珮洞之間, 可以無拘礙耳, 玆專伻人以布此意. 伏惟 下亮.
卽, 弟昌協.

伊日說話, 頗有漏傳者而爽實又甚, 此時開口誠難. 豈兄或未守三緘之戒耶. 此後更須眷秘.

번역문

아침에 보내신 답장에서 말씀하신 뜻을 모두 잘 알았습니다. 오늘 정말 나아가 뵈려고 했는데, 우연히 사람을 통해 며칠 전 잠시 나아갔던 일이 크게 비방을 초래했다는 말을 들었으니, 이후로는 결코 형의 집에 다시 발을 들여놓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훗날 응암鷹巖[1]과 패동珮洞[2] 사이에서 만나면 장애가 없을 것이기에 이에 전팽專伻[3]을 보내 이런 뜻을 전합니다. 삼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일에 아우 창협.

그날 이야기는 누설하여 전하는 사람이 자못 많고 사실과 어그러진 것 또한 심하니 이러한 때 입을 여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형께서 혹 삼함三緘의 경계[4]를 지키지 못하신 것인지요. 이후로는 더욱 말을 조심해주십시오.

해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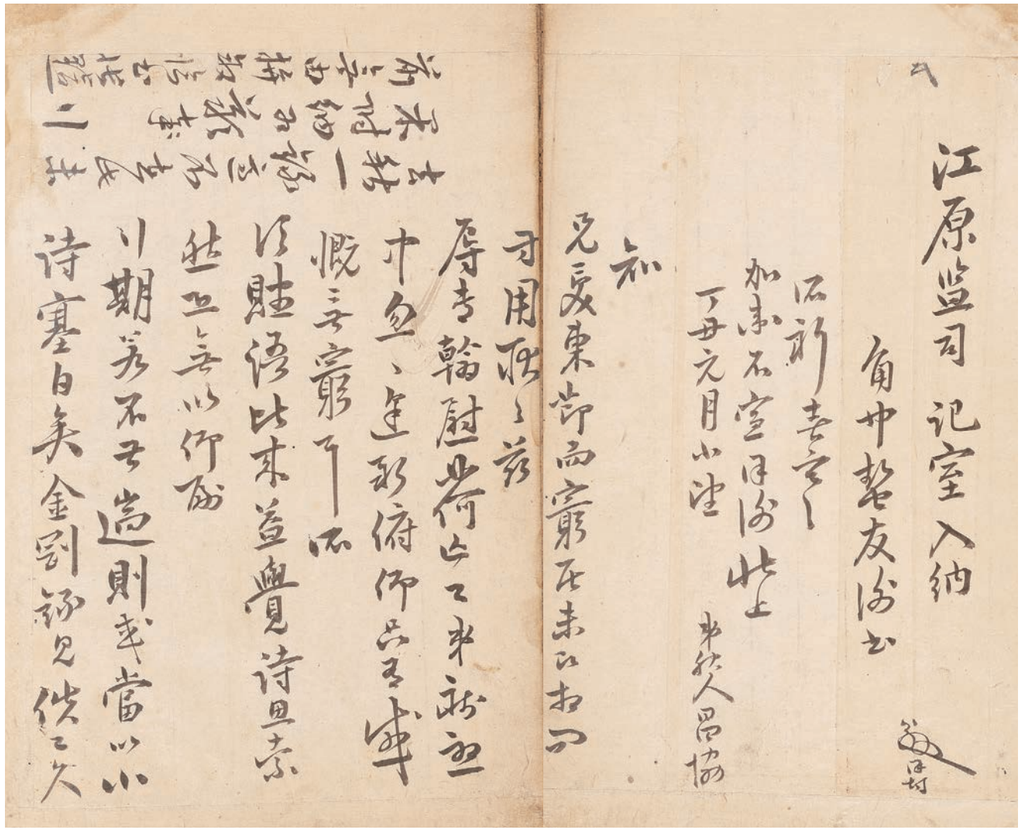
김창협이 앞의 편지에서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강하게 주장한 이야기가 잘못 전해져서 비방을 받았나 보다. 김창협은 유득일의 집에도 다시 가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전하며, 말조심을 당부한다. 김창협이 계속 자취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김창협을 불러들이는 조정을 보면 김창협의 당대 위상을 알 수 있다. 김창협은 1695년에도 이조참의, 부제학, 개성유수, 형조참판, 대사헌 등을 제수받았지만 모두 사양하고 농암에 은거하였다.

1 응암鷹巖: 경기도 영평현永平縣 백운산 아래에 있는 동음洞陰 마을의 다른 이름이다. 김창협이 29세 때인 1679년(숙종 5)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이곳에 터를 잡아 집을 짓고 들어가 살면서 농암農巖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2 패동珮洞: 경기도 영평현의 백운산 자락에 있던 마을로, 김수항이 이곳에 은거할 생각으로 1679년(숙종 5 8월에 송로암送老菴을 지었다. 김창협이 지은 「영령정기泠泠亭記」를 보면, 김수항이 백운산白雲山 주위에서 고故 이의건李義健 낚시터를 발견하고 좋아하여 '풍패동風珮洞'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였다.

3 전팽專伻: 어떤 소식이나 물건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보내는 사람을 말한다. 전족專足 또는 전인專人이라고도 한다.

4 삼함三緘의 경계: 삼함은 입을 세 겹으로 꿰맸다는 뜻으로, 말조심을 비유하는 말이다. 공자孔子가 주周나라 태묘太廟에 갔을 적에 쇠로 만든 사람[金人]의 입을 세 겹으로 꿰맨[三緘其口] 것을 보았는데, 그 등 뒤에 새긴 명문銘文을 보니 "옛날에 말조심을 하던 사람이다. 경계하여 많은 말을 하지 말지어다. 말이 많으면 실패가 또한 많으니라.[古之愼言人也. 戒之哉! 無多言. 多言多敗.]"라고 되어 있었다고 한다. 『공자가어孔子家語 · 관주觀周』



38 37

김창협이 강원감사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697.1.14.)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14

원 문

[皮封]
江原監司 記室入
納角巾蟄友謝書 [手決]

謹封知兄受東節, 而窮居未卽相問, 方用耿耿, 玆辱專翰, 慰荷亡已. 弟病憂中忽忽逢新, 俯仰只有感慨無窮耳. 所須贐語, 比來益覺詩思索然, 恐無以仰副. 行期若不甚遄, 則或當以小詩塞白矣. 金剛錄見佚已久, 去秋一錄適不在此, 未果附納爲歎. 行前無由拚敍, 臨書悵黯. 所祈春寒之加衛. 不宣. 謹謝狀上.
丁丑元月小望, 弟服人昌協.

번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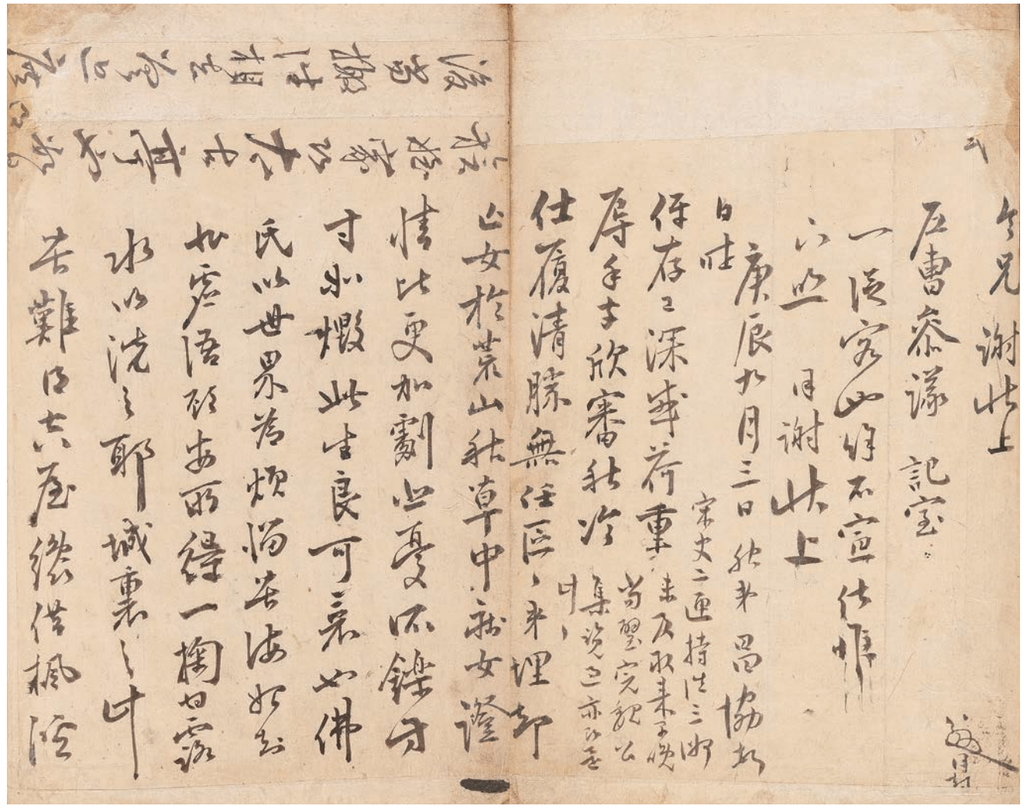
강원감사 기실記室 입납入納.
각건角巾[1] 차림으로 숨어 지내는 친구의 감사하는 답장.

형께서 강원감사의 직임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궁벽한 데 살고 있어 즉시 안부를 여쭙지 못했기에 한창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편지를 보내주셨으니 위로되고 감사하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저는 병고와 우환 속에 황망하게 새해를 맞았으니 덧없이 흐르는 세월에 다만 한없이 감개할 뿐입니다.
부탁하신 전별시는 요즘 시상이 더욱 메말랐으니 올리지 못할 듯합니다. 떠나실 날이 아주 촉박하지 않다면 혹 짧은 시로 책임을 면하겠습니다. 『금강록金剛錄』은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고 지난 가을 한 번 기록해둔 것은 마침 여기에 있지 않아서 실로 보내드릴 수 없으니 한탄스럽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만나 뵙고 회포를 풀 길이 없기에 편지를 쓰노라니 슬프고 우울합니다.
봄추위에 더욱 몸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격식을 펴지 않습니다. 감사의 편지를 올립니다.
정축년(1697, 숙종 23) 1월 14일, 아우 복인 창협.

해 설

앞의 편지들과 약 3년 정도의 공백이 있다. 유득일은 1696년(숙종 22) 12월 21일에 강원도관찰사[강원감사]에 제수되었다. 김창협은 소식을 들었지만 인편이 없어 연락을 하지 못하다가 유득일이 편지를 보낸 인편을 통해 답장을 하게 되었다. 유득일은 강원감사로 부임하면서 김창협에게 전별시와 금강산에 대해 기록한 『금강록金剛錄』을 부탁했다.

1 각건角巾: 은자隱者가 착용하는 복장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는 말이다. 『진서晉書』「왕준열전王濬列傳」에 "전장에서 돌아온 뒤에 사제私第에서 각건 차림을 하고 오吳를 평정한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40 39

김창협이 호조참의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700.9.3.)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15

원 문

[皮封]
令兄 謝狀上
戶曹叅議 記室 [手決]謹封

日昨伻存, 已深感荷, 重辱手字, 欣審秋冷仕履淸勝, 無任區區. 弟埋却亡女於荒山秋草中. 病女證情, 比更加劇, 悲憂所鑠, 方寸如燬, 此生良可哀也. 佛氏以世界爲煩惱苦海, 始知非虛語. 顧安所得一掬甘露水, 以洗之耶. 城裏之計, 苦難得空屋, 纔借楓溪族姪家, 卽太古亭也. 數日後, 當搬往, 相去差近, 庶得一從容也. 餘不宣. 伏惟下照. 謹謝狀上.
庚辰九月三日, 服弟昌協頓.

宋史二匣, 持往三洲, 未及取來, 早晚當璧完. 魏公集, 覽過, 亦卽還計計.

번역문

영형令兄께 감사하는 편지를 올립니다.
호조참의戶曹叅議 기실記室에.

며칠 전에 심부름꾼을 보내 안부를 물어주어 매우 감사했는데, 또 편지를 보내주시어 기쁘게도 차가운 가을 날씨이지만 건강이 좋으시다는 것을 알았으니, 제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저는 황량한 산의 가을 풀 더미 속에 죽은 딸아이를 묻었습니다. 병든 딸아이의 증상은 근래에 더욱 심하여 마치 심장이 타는 것처럼 슬픔이 북받치니, 이 삶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부처가 세계를 번뇌煩惱의 바다라고 하였는데, 비로소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다만 어디에서 한 움큼의 감로수甘露水[1]를 얻어 이를 씻어낸단 말입니까.
도성都城으로 들어가려는 계획은 빈집을 구하기 어려워 겨우 풍계楓溪[2]에 있는 친척 조카의 집을 빌렸으니, 곧 태고정太古亭입니다. 며칠 뒤에 거처를 옮기면 거리가 조금 가까워질 것이니 한 번 만날 수 있을 듯합니다. 나머지는 이만 줄이고 격식을 펴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감사하는 편지를 올립니다.
경진년(1700, 숙종 26) 9월 3일, 복제服弟 창협昌協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송사宋史』 2갑匣은 삼주三洲[3]에 가지고 갔다가 미처 가져오지 못했으니, 조만간에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위공집魏公集』[4]도 보고나서 또한 바로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1 감로수甘露水: 도리천兜利天에 있는 달콤한 영액靈液으로 한 방울만 먹어도 온갖 괴로움이 없어지고, 산 사람은 오래 살 수 있으며, 죽은 사람은 부활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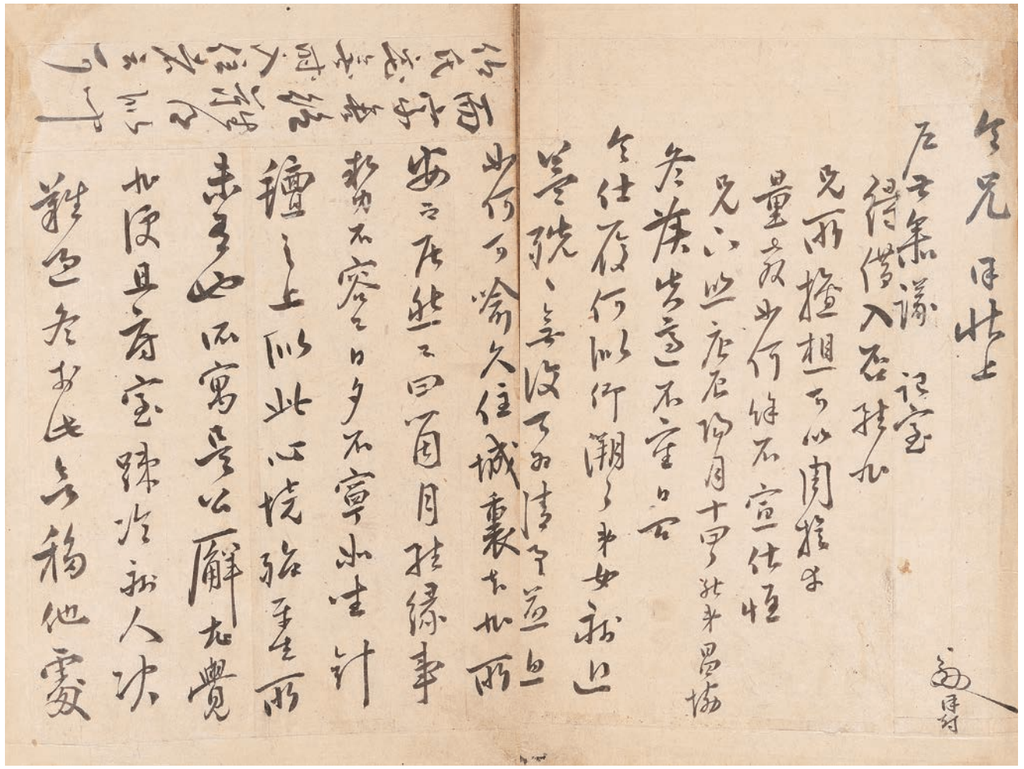
2 풍계楓溪: 청풍계靑楓溪

3 삼주三洲: 미음渼陰 석실서원 주변을 가리킨다. 김창협이 47세 되던 1697년(숙종 23)에 이곳에 거처를 정한 뒤, 몇 칸짜리 사랑채를 지어 '삼산각三山閣'이라 이름을 붙였다. 삼산각 앞에 세 개의 모래톱이 있어 '삼주'라 이름하였다.

4 위공집魏公集: 『한위공집韓魏公集』을 가리키는 듯하다. '한위공韓魏公'은 송나라의 명재상 한기韓琦(1008–1075)로, 자는 치규稚圭, 호는 공수贛叟, 시호는 충헌忠獻이고, 위공魏公은 그의 봉호封號이다. 벼슬은 외직으로 상주相州·병주并州 등의 지주知州, 대명지부大明知府 등을 지냈는데 치적이 있었고, 사신으로는 익주益州 등의 체량 안무사體量按撫使·섬서 안무사陝西按撫使 등을 지냈으며, 내직으로 추밀사樞密使·사도司徒·시중侍中을 지냈는데 이것들은 모두 재상의 직이다. 부필富弼과 함께 명재상으로 불린다.

해 설

유득일이 감원감사로 있던 시절에는 편지를 자주 주고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1700년의 편지로 넘어간다. 아마 김창협이 사랑하던 딸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는 편지를 보냈나 보다. 1700년은 김창협의 마음이 타는 듯이 아픈 해였다. 7월 총명했던 셋째 딸이 죽고, 10월 외아들 숭겸이 병으로 죽었다. 편지를 쓴 시기는 딸을 묻고, 아들의 병이 위중하던 때였다. 서울 풍계로 거처를 옮기려고 했던 것도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태고정은 장동 김문을 명문가로 만든 증조부 김상용이 처음 터를 잡은 곳이다.



42 41

김창협이 호조참의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700.10.14.)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16

원 문

[皮封]
令兄 謹狀上
戶曹叅議 記室 [手決]謹封

冬候失適, 不審日間令仕履何似. 仰溯仰溯. 弟女病, 近益殊殊, 無復可爲, 情事煎迫, 如何可喩. 久住城裏, 本非所安, 而居然已四箇月, 雖緣事勢不容已, 日夕不寧, 如坐針氈之上, 似此心境, 殆平生所未有也. 所寓是公廨, 尤覺非便, 且房室疎冷, 病人決難過冬. 於此欲移他處, 而家舍絶難得. 似聞伯氏宅, 時無入住者云, 可得借入否. 雖非兄所擅, 想可以周旋, 幸量敎如何. 餘不宣. 伏惟兄下照.
庚辰陽月十四日, 服弟昌協.

번역문

영형令兄께 삼가 편지를 올립니다.
호조참의戶曹叅議 기실記室에.

겨울 날씨가 순탄치 않은데, 그간 영형의 건강은 어떠신지요? 우러러 그립고 그립습니다.
제 딸아이의 병이 매우 위태로웠는데도 더 이상 손 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 애타는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도성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은 본디 편안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데 어느덧 이미 4개월이 지났습니다. 비록 일의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나 밤낮으로 편치 않아 마치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듯하니 이런 심정은 거의 평생토록 겪어보지 못한 것인 듯합니다.
머물고 있는 집이 관청이라서 몹시 편치 않은 데다 방이 써늘하여 환자가 결코 겨울을 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하나 집을 구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얼핏 형의 백씨伯氏[1]의 집에 지금 입주한 사람이 없다고 들은 듯한데, 빌려서 들어갈 수 있는지요? 비록 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디 헤아려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나머지는 이만 줄이고 격식을 펴지 않습니다. 형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년(1700, 숙종 26) 10월 14일, 복제服弟 창협昌協.

해 설

김창협의 셋째 딸 운雲(1679-1700)이 죽은 뒤,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이다. 1699년부터 김창협은 곁에 있는 가족들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다. 1699년 5월에는 조카 김호겸이 죽음을 맞았고, 1700년 7월에는 셋째 딸이, 10월에는 외동아들 김숭겸이, 또 이어서 둘째 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모친상母親喪까지 맞게 되었다. 김창협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기억하기 위한 글을 남겼고, 『농암집』에서 이를 볼 수 있다.참고6-2,3
『농암집』에 있는 묘지명이 망자亡者를 높이고 기리는 내용이 중심이라면 편지에는 김창협이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 그 자체가 그려져 있다. '심장이 타는 것처럼 슬픔이 북받친다'는 감정의 토로는 함께 힘든 상황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차마 하지 못하고, 친구인 유득일에게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손쓸 방도가 없이 지켜보고만 있는 마음,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듯한 심정은 평생 겪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아들까지 병에 걸렸는데 거처할 수 있는 마땅한 집이 없어서 유득일의 형인 유신일의 비어 있는 집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하지만 이 편지를 쓰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아들 숭겸도 사망하였다.

1 형의 백씨伯氏: 유신일俞信一(1636-1699)로,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도숙道叔이다. 1675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689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집의執義·필선 등을 거쳐 1699년에 회양부사淮陽府使가 되었다. 이때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상경하던 함경도의 유생 이우백李友白이 말을 헤쳤다며 곤장을 쳐서 죽게 만들었는데, 이 일로 유신일도 형신刑訊을 받다가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참고 6-2
먼저 떠난 나의 딸에게
亡女吳氏婦墓誌銘

김창협
『농암집』 권27
조선, 1700년경
책, 목판본, 28.5×17.6cm
구2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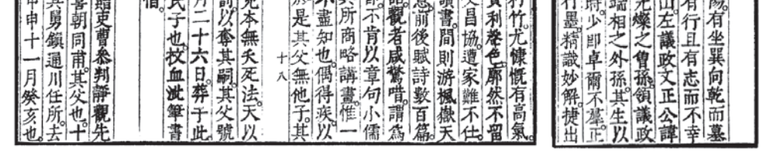
번역문

수양首陽 오진주吳晉周 명중明仲의 처 안동 김씨는 농암거사農巖居士의 딸로, 숭정 기미년(1679, 숙종 5) 12월 17일 자시에 태어났다. 당시에 거사는 돌아가신 의정공議政公[김수항]이 유배 중이라 영평永平 백운산白雲山 산중으로 물러나 은구암隱求菴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네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을 운雲이라 하였고 자는 여덕女德 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당시의 뜻을 부친 것이었다. 거사에게는 이보다 앞서 딸 둘이 있었으나 너의 용모가 매우 단정하고 가슴에 슬기를 지닌 것을 보고는 특히 더 사랑하였다. (중간 생략)

네가 죽었을 때에 거사는 곧 그 묘지에 글을 지을 생각이었는데, 이윽고 숭겸이 죽고 또 얼마 뒤에 둘째 딸이 죽고 또 이어 모친상을 당하는 바람에 마음이 매우 비통하여 문장을 지을 수가 없었다. 거사는 예전에 일가의 일찍 죽은 여자를 위해 묘문墓文을 지은 적이 있는데, 네가 그때 그 글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문장을 얻어 그 이름이 영원히 전해질 것이니, 죽음이 불행하지 않겠다." 하였고, 또 가끔 남편 명중에게 "나는 여자라 한스럽게도 세상에 드러난 공덕이 없으니, 차라리 일찍 죽어서 우리 아버지의 몇 줄 글을 얻어 묘석墓石에 새겼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지금 네가 이미 죽었는데 내가 제때에 명銘을 짓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만다면 아비와 자식의 눈이 모두 흙 속에서 감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마침내 비통한 눈물을 참고 글을 써서 유택幽宅에 묻는 바이다. 아, 그것이 정말 참언讖言이었단 말인가. 이제 너는 과연 소원을 이루었느냐?

해 설

김창협이 셋째 딸 운(1679-1700)을 떠나보내며 쓴 글이다. 김운은 학식과 글재주를 지닌 야무지고 어여쁜 셋째 딸이었다. 그녀가 언젠가 한 말이 계속 김창협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 "나는 여자라 한스럽게도 세상에 드러난 공덕이 없으니, 차라리 일찍 죽어서 우리 아버지의 몇 줄 글을 얻어 묘석에 새겼으면 좋겠다."



참고 6-3
죽은 아들의 무덤에 쓰다
亡兒墓表

김창협
『농암집』 권28
조선, 1700년경
책, 목판본, 28.5×17.6cm
구2325

번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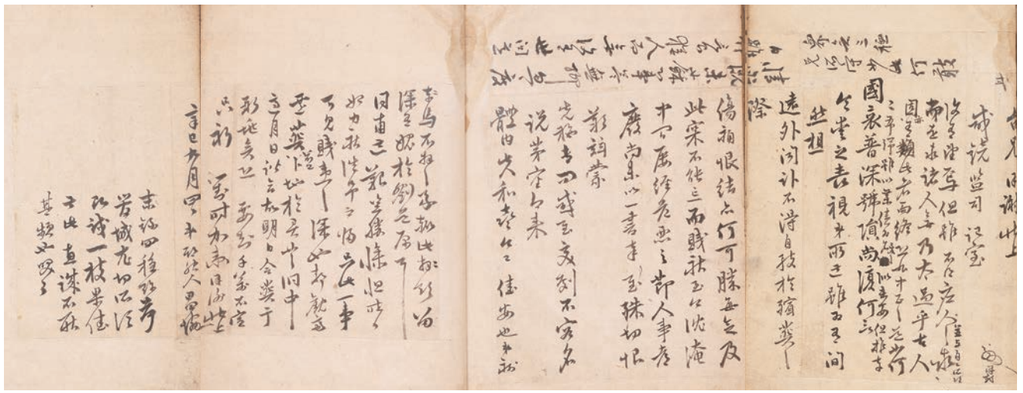
(앞부분 생략)

그는 마음속에 재화와 이익, 아름다운 음악과 여색은 전혀 담아 두지 않았으니, 좋아하는 것은 오직 산수山水와 문장뿐이었다. 그의 아비 창협昌協이 집안의 환난을 당하여 벼슬을 하지 않았던 까닭에 그는 어려서부터 부친을 따라 농암農巖과 삼주三洲를 드나들며 밭 갈고 고기를 잡으면서 책을 읽었다. 그리고 간간이 풍악산楓嶽山, 천마산天摩山을 유람하고 화산華山 꼭대기에 올라 팔극八極을 휘젓는 뜻이 있었다. 그러면서 전후에 걸쳐 지은 시가 수백 편이 되는데 대체로 모두 기발하고 노련하여 근래의 진부하고 여린 언어를 구사하지 않았으니, 그의 시를 본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며 "소릉少陵 두보杜甫의 격조와 법식을 얻었다."고 하였다. (중간 생략)

그는 우연히 병을 얻어 경진년(1700, 숙종 26) 10월 20일에 19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리하여 그의 아비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고 그의 처 박씨朴氏도 아들이 없어 양 대에 혈윤血胤이 끊기게 되었다. 이 아이에게는 본디 요절할 이유가 없었으니, 하늘이 그의 아비가 내실은 없이 좋은 명성을 훔친 것을 미워하여 사자嗣子를 빼앗아 가는 벌을 내린 것이다. 아비가 울부짖으며 귀신을 불러 봐도 끝내 속죄할 수가 없어 마침내 그해 12월 26일에 이곳에 장사 지냈다. 이윽고 또 백대 뒤에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게 될까 염려하여 피눈물을 닦으며 붓을 적셔 비석에 써서 후세 사람들에게 분명히 고함으로써 그의 애석한 사정을 알게 하는 바이다.

해 설

김숭겸은 김창협의 외아들이다. 김창협은 아들이 없어서 형 창집의 아들을 양자養子로 들였고,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였다. 그래서인지 출중한 능력을 지닌 아들이었지만, 김창협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책읽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걱정하고, 성급하고 침착하지 않음을 걱정하는 내용들이 많다. 김창협은 20세이던 셋째 딸을 떠나보내고 3개월 뒤 19세 아들마저 잃고 만다. 울부짖으며 피눈물을 닦으며 이 글을 남긴 김창협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46 45 44 43

김창협이 함경감사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701.9.4.)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17

원 문

[皮封]
台兄 謹謝狀上
咸鏡監司 記室 [手決]謹封

國哀普深號隕, 尙復何言. 令愛之喪, 視弟所遭, 雖爲有間然, 想遠外聞訃, 不得自致於殯葬之際, 傷痛恨結, 亦何可勝. 每念及此, 寀不能忘, 而賤疾至今沈淹, 中間屢經危惡之節, 人事都廢, 尙未以一書奉慰, 殊切恨歎. 玆蒙先施專問, 感慰交劇, 不容名說. 第審日來體內失和, 喜今已佳安也. 弟病情旣未蘇, 心事益無聊, 忽忽度日, 雖言食猶人, 而無復有世間意象矣. 三椏, 兄所守如此, 何敢復有望焉. 但雖不得應人之求, 並與自己所得, 而遠求諸人, 無乃太過乎. 古人固亦有類此者, 而終恐非中正之道, 如何如何. 布端雖以藥債爲名, 受之似未安. 但推車馬不拜之義, 輒此欲留, 深有媿於劉道原耳. 同甫遭艱, 豈勝慘怛. 昨日始力疾往吊而歸, 只此一事可見賤患之深也. 靜觀齋遷葬, 前已卜地於靈芝洞中, 適月日諧合, 故明日合葬于新兆矣. 恐要知. 千萬不宣. 只祈對時加衛. 謹謝狀上.
辛巳九月四日, 弟期服人昌協.

末錄四種, 珍荷管城, 尤切所須, 卽試一枝, 果佳甚. 此惠, 誠不厭其頻也. 笑笑.

번역문

태형台兄께 삼가 감사하는 편지를 올립니다.
함경감사咸鏡監司 기실記室에.

국상國喪으로 온 나라가 울부짖고 있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따님[令愛]의 상은 제가 겪은 것과 차이가 있지만, 먼 곳에서 부음을 들어 빈장殯葬을 할 때 몸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이니, 애통함과 한스러움을 또한 어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늘 이것이 염려되어 실로 잊지 못하고 있는데, 저의 병은 지금까지도 여전하고, 중간에 위태롭고 나쁜 일을 여러 차례 겪어 인사를 모두 폐한지라 위로하는 편지 1통도 보내지 못했으니 매우 한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특별히 보내 주신 문안 편지를 받으니 고맙고 위로되는 마음이 지극하여 뭐라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며칠 사이에 건강을 잃었다가 기쁘게도 지금은 이미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병이 아직 낫지 않은 데다 마음까지 더욱 무료하여 그냥저냥 날을 보내고 있으니, 비록 말하고 먹는 것이 남과 같으나 세상살 맛이 전혀 없습니다.
삼아三椏[1]는 형이 지키는 바가 이와 같으니 어찌 감히 더 바라겠습니까. 다만 남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주지는 못하더라고 도리어 멀리 있는 남에게 다른 물건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옛사람도 진실로 또한 이러한 사례가 있었으나, 결국엔 중정中正의 도가 아닐 듯하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단布端이 비록 약값 명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다만 수레나 말을 주더라도 사례하지 않는 의리[2]를 적용하여 이렇게 받아 두고 싶지만, 유도원劉道原에게 깊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3]
동보同甫[이희조]가 상喪을 당했으니, 참담하고 슬픈 마음을 어찌 견디겠습니까. 엊그제 비로소 병을 무릅쓰고 조문하고 돌아왔으니, 단지 이 하나의 일로도 저의 병이 깊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관재靜觀齋의 천장遷葬은 이전에 미리 영지동靈芝洞에 묏자리를 잡아 두었는데, 마침 날짜가 잘 들어맞아서 내일 새 무덤에 합장할 것입니다.[4] 요컨대 형도 알고 있어야 할 듯합니다.
많은 말은 이만 줄이고 격식을 펴지 않습니다. 시절에 맞게 더욱 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감사하는 편지를 올립니다.
신사년(1701, 숙종 17) 9월 4일, 아우 기복인期服人 창협.

끝에 기록한 4가지 물품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붓은 마침 필요하던 것이어서 바로 한 자루 시험해 보니, 과연 매우 좋았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자주 보내주시더라도 싫지 않습니다.

1 삼아三椏: 인삼의 별칭으로, 삼아오엽三椏五葉의 줄임말이다. 줄기가 세 대로 갈라지고, 다섯 개의 작은 잎이 손바닥 모양으로 겹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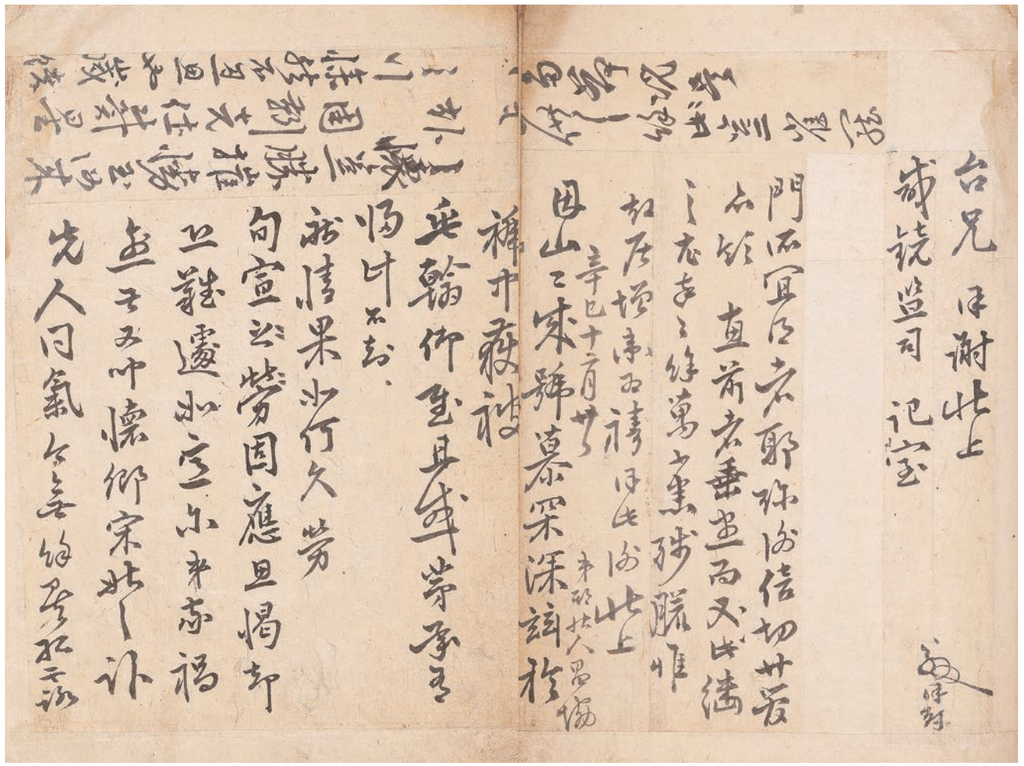
2 수레나……의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구 간에 선물을 주고받더라도 서로 사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논어』 「향당鄕黨」에 "공자께서는 친구가 준 선물은 비록 수레나 말이라 하더라도 제사 지낸 고기가 아니면 절하지 않으셨다.[朋友之饋, 雖車馬, 非祭肉, 不拜.]"라고 하였다.

3 유도원劉道原에게……따름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을 제외하고는 일절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던 유도원에게 부끄럽다는 말이다. '유도원'은 송나라 때의 학자 유서劉恕를 가리키는데, 도원은 그의 자이다. 사마광이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저술하다가 복잡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곳을 만나면, 그에게 맡겨 처리하였다고 한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겨울에도 추위를 막을 의복이 없었는데, 그가 하직하고 남쪽으로 갈 때 사마광이 한두 벌의 옷과 버선, 그리고 담비 털로 된 요 하나를 주었더니 받지 않았다. 사마광이 강권하자 마침내 받았으나, 영천潁川에 이르러 모두 돌려주었다. 사마광은 그를 칭찬하여 "내가 준 것도 받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받으려 하겠는가."라고 하였다고 한다. 『고금사문유취속집古今事文類聚續集』

4 정관재靜觀齋를……것입니다: '정관재'는 이단상李端相(1628-1669)의 호이다. 이단상은 김창협의 장인이다. 이단상과 그의 아내 전의 이씨全義李氏를 영지동靈芝洞에 합장할 예정이라는 말이다.

해 설

1701년 8월 16일 숙종의 두 번째 왕비인 인현왕후가 사망하여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상태였다. 김창협은 셋째 딸, 둘째 딸, 아들, 모친상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상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은 채 서울 동교에 있는 김창업의 별장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 유득일은 함경감사였는데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김창협을 살뜰하게 보살펴주었다. 김창협은 유득일의 도움이 고맙지만 포와 같이 비싼 것은 받을 수 없다며 돌려서 거절했다.



48 47

김창협이 함경감사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701.12.20.)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18

원 문

[皮封]
台兄 謹謝狀上
咸鏡監司 記室 [手決]謹封

因山已成, 號慕罔深. 玆於褫中, 獲被垂翰, 仰慰且感. 第承有歸計, 不病情果如何. 久勞旬宣, 固應思愒, 却恐難遽如意爾. 弟家禍愈甚, 又聞懷鄉宋姑之訃. 先人同氣今無餘矣, 孤露之懷, 豈勝摧慟. 玉汝來赴國靷, 竟作戴星之行, 慘然不忍思也. 歲饋多荷, 況是上供之餘, 豈雀羅門所宜得者耶. 珍謝倍切. 廿管亦領惠. 前者垂盡, 而此又繼之, 尤幸幸. 餘萬不悉. 殘臘, 惟起居增衛爲禱. 謹此謝狀上.
辛巳十二月廿日, 弟期服人昌協.

번역문

태형台兄께 삼가 감사하는 편지를 올립니다.
함경감사咸鏡監司 기실記室에.

인산因山이 이미 이루어졌건만 울부짖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습니다. 인편을 통해 보내 주신 편지를 받으니 우러러 위로되고 감사합니다. 다만 돌아올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병세는 과연 어떠한지요? 오랫동안 감사監司의 직무[1]에 수고하셨으니 진실로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장은 여의치 않을 듯합니다.
저는 집안의 화가 더욱 심한데다 또 회덕懷德에 계신 송고宋姑[2]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선친의 동기同氣 중에 이제는 살아계신 분이 없게 되었으니, 고로孤露의 마음[3]이 어찌 쓰라림과 슬픔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옥여玉汝가 국상에 참여하였다가 끝내 객지에서 부음을 받고 부랴부랴 달려갔으니[4] 참담함을 차마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새해 선물은 매우 감사합니다. 더욱이 이것은 공납供納한 나머지이니, 어찌 적막하고 쓸쓸한 집[5]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고마운 마음이 갑절이나 감사합니다. 은혜로이 보내 주신 붓 20자루 또한 잘 받았습니다. 이전에 보낸 것이 다 떨어져 가는데, 이번에 또 이어 보내주시니 더욱 고맙고 고맙습니다. 나머지 많은 말들은 다 하지 않습니다. 섣달에 지내시는 것이 더욱 좋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삼가 이렇게 감사하는 편지를 올립니다.
신사년(1701, 숙종 27) 12월 20일, 아우 기복인期服人 창협昌協.

1 감사監司의 직무: 원문은 '순선旬宣'인데, 순旬은 순찰巡察의 뜻이고 선宣은 왕정王政을 편다는 뜻으로, 관찰사가 되어 지방에 왕정을 펴는 것을 의미한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강한江漢」에 "왕이 소호를 명하여 와서 왕정을 펴게 하였네.[王命召虎, 來旬來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 송고宋姑: 송씨에게 시집간 고모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송규렴宋奎濂(1630-1709)에게 시집간 고모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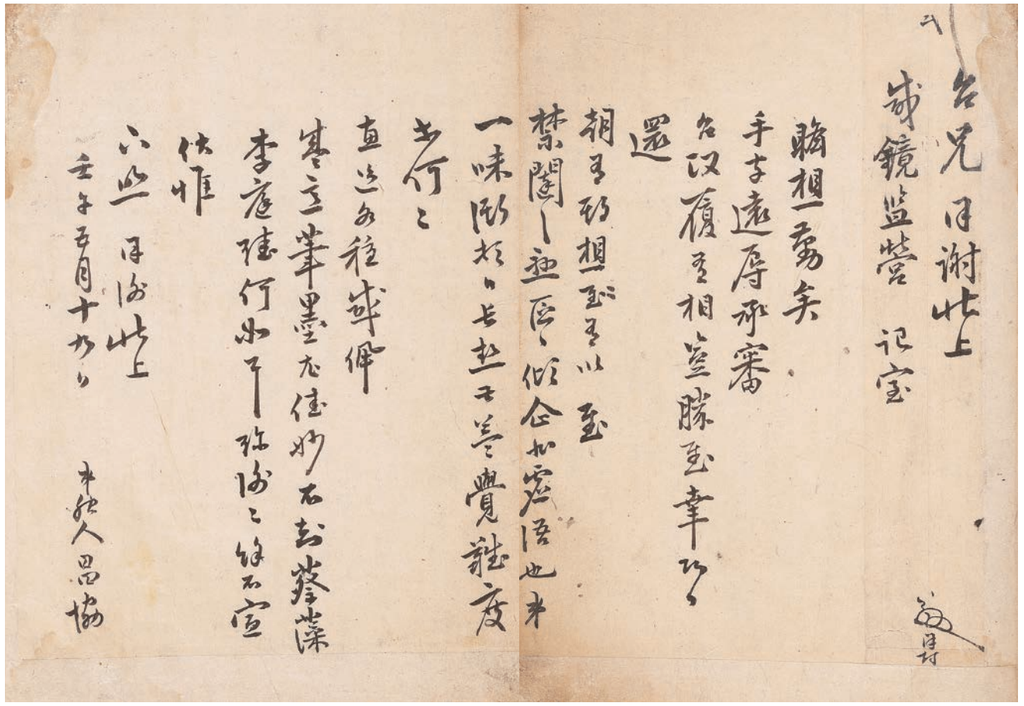
3 고로孤露의 마음: 어버이를 여읜 슬픔을 말한다. '고로'는 부모가 사망하여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고단孤單함을 이른다.

4 옥여玉汝가……달려갔으니: 송상기宋相琦(1657-1723)가 국상에 참여했다가 모친의 부음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이다. '옥여'는 송상기의 자로, 본관은 은진恩津 호는 옥오재玉吾齋이다. 송규렴宋奎濂의 아들이고,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며, 김창협의 고종사촌 동생이다. 1684년(숙종 10) 정시 문과에 병과 급제한 뒤, 3차례 대제학을 지냈으며, 저서에 『옥오재집』이 있다. 원문의 '대성戴星'은 객지客地에서 부모의 부음訃音을 받고 밤을 새워 가며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적막하고……집: 원문은 '작라문雀羅門'인데, 참새 잡는 그물을 펼쳐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문정門庭이 적막한 것을 말한다. 한나라 적공翟公이 정위廷尉로 있을 때에는 빈객이 서로 다투어 찾아오는 바람에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가 파직된 뒤에는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아 문 앞에 참새 그물[雀羅]을 칠 정도가 되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해 설

1701년 3월 큰아버지 김수증이 사망하고, 12월에는 고모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다. 고모를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동기 중에는 살아계신 분이 없으니 어버이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만 같다. 셋째 딸, 둘째 딸, 아들, 모친상에 이어 큰아버지, 고모의 죽음 등 1700년부터 1701년까지 김창협의 편지는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



50 49

김창협이 함경감사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702.5.19.)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19

원 문

[皮封]
台兄 謹謝狀上
咸鏡監營 記室 [手決]謹封

瞻想勤矣, 手字遠辱, 承審台政履有相, 豈勝慰幸. 卽日還朝有期, 想有以慰禁闥之戀. 區區傾企, 非虛語也. 弟一味澌頓, 日長熱甚, 益覺難度, 奈何奈何. 惠送各種, 感佩盛意. 筆墨尤佳妙, 不知蔡藻李廷珪何如耳, 珍謝珍謝. 餘不宣. 伏惟下照. 謹謝狀上.
壬午五月十九日, 弟服人昌協.

번역문

태형台兄[1]께 삼가 감사하는 편지를 올립니다.
함경咸鏡 감영監營의 기실記室에.

그리운 마음 간절하였는데, 손수 쓰신 편지를 멀리서 보내주시어 편지를 받고 형께서 정사를 돌보시는데 건강이 신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위안이 되고 다행스러운 마음을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논의에서 태형께서 조정으로 돌아올 가망이 있게 되었으니, 대궐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위안이 될 줄로 생각됩니다. 구구한 저의 기대가 헛된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기력이 쇠진되고 있는데 날이 길고 더위가 심해지니, 더욱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어이하겠습니까.
은혜로이 보내 주신 각종 선물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붓과 먹은 특히나 품질이 좋으니, 채조蔡藻[2]의 붓과 이정규李廷珪[3]의 먹에 비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이만 줄이고 격식을 펴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삼가 감사하는 편지를 올립니다.
임오년(1702, 숙종 28) 5월 19일, 아우 복인服人 창협昌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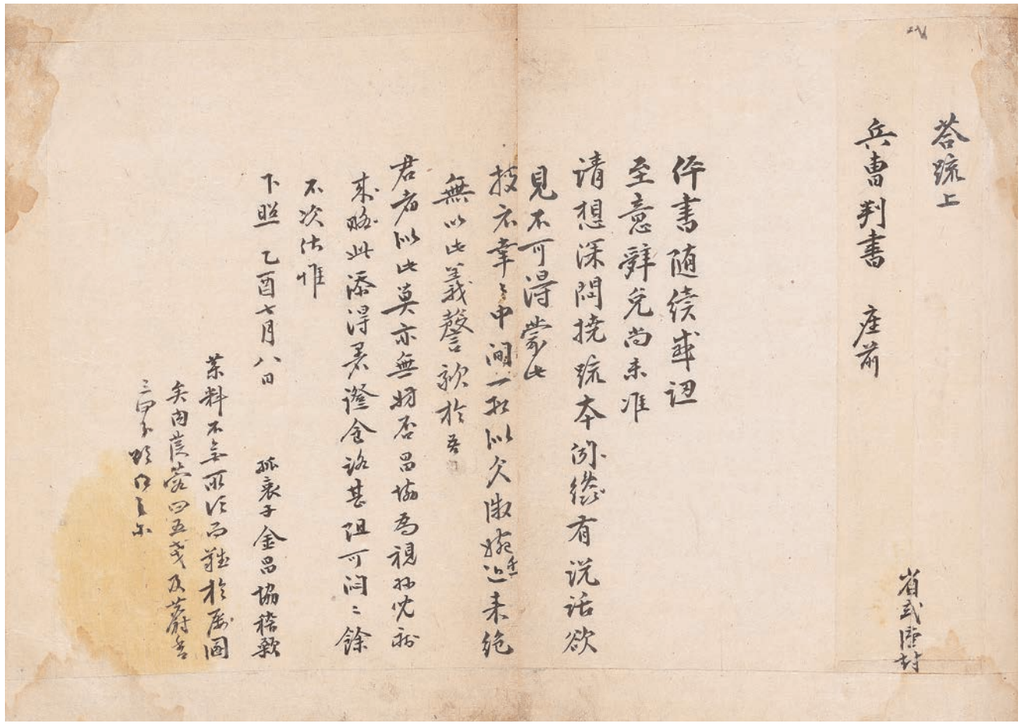
해 설

함경감사로 있던 유득일은 유독 붓 선물을 많이 주었다.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에서는 붓과 먹을 공납하였다. 청모필靑毛筆은 날다람쥐의 털을 맨 붓이고, 황모필黃毛筆은 족제비의 꼬리털을 맨 붓이다. 함경감사였던 유득일은 김창협에게 품질좋은 붓과 먹을 종종 선물해 주었다. 이때 유득일은 함경감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숙종실록』 28년 3월 28일에 유득일을 대사간으로 제수하는 기사가 있다.

1 태형台兄: 형을 높여 부르는 존칭.

2 채조蔡藻: 송宋나라 때 붓을 만드는 장인匠人이다. 참고로 주희朱熹의 「채조의 붓에 발문을 붙이다[跋蔡藻筆]」에 "채조가 붓을 만들면 글씨에 능숙한 이는 그 붓을 알아보았다. 이는 고故 원주沅州 여 사군呂使君의 말이다. 인하여 그가 만든 대추씨 모양의 붓을 시험해보았는데, 오래되어도 더욱 정묘한 것이 기뻤으며, 아울러 산양山陽의 이웃집 젓대 소리에 대한 감회가 깊이 일어났다. 경원慶元 병진년(1196) 동지 5일전에 회옹이 쓰다.[蔡藻造筆, 能書者識之, 此故沅州呂使君語也. 因試其所製棗心樣, 喜其老而益精, 并深山陽鄰笛之感. 慶元丙辰冬至前五日, 晦翁書.]"라고 하였다. 『주자대전朱子大全』 권84.

3 이정규李廷珪: 송나라 때 먹을 만드는 장인 이정규李廷邽를 가리킨다. 이정규는 남당南唐의 역수易水 사람으로, 원래의 이름은 해정규奚廷珪였는데, 뒤에 이씨 성을 하사받고서 이름을 이정규李廷邽로 고쳤다. 대대로 묵공墨工이었고, 이정규 때에 이르러서 이름이 더욱 드러나 송나라 이래로 제일이라고 불리었다. 그가 만든 먹은 단단하기가 옥과 같은데, 인문印文에 규邽 자를 새긴 것이 가장 좋고, 규圭 자를 새긴 것이 그다음이며, 규珪 자를 새긴 것이 그다음이라고 한다.



52 51

김창협이 병조판서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705.7.8.)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20

원 문

[皮封]
答疏上
兵曹判書 座前 省式謹封

伻書隨續, 感認至意. 辭免尚未准請, 想深悶撓. 疏本纔聞有說話, 欲見不可得, 蒙此披示, 幸幸. 中間一段, 似欠微婉. 然近來絶無以此義聲欬於吾君者, 似此, 莫亦無妨否. 昌協爲視孫兒病略來此, 添得暑證, 食路甚阻, 可悶可悶. 餘不次. 伏惟下照.
乙酉七月八日, 孤哀子金昌協稽顙.

藥料不無所須, 而難於屢溷矣. 肉蓯蓉四五戔及麝香三四分, 欲得之爾.

번역문

답소答疏를 올립니다.
병조판서兵曹判書 좌전座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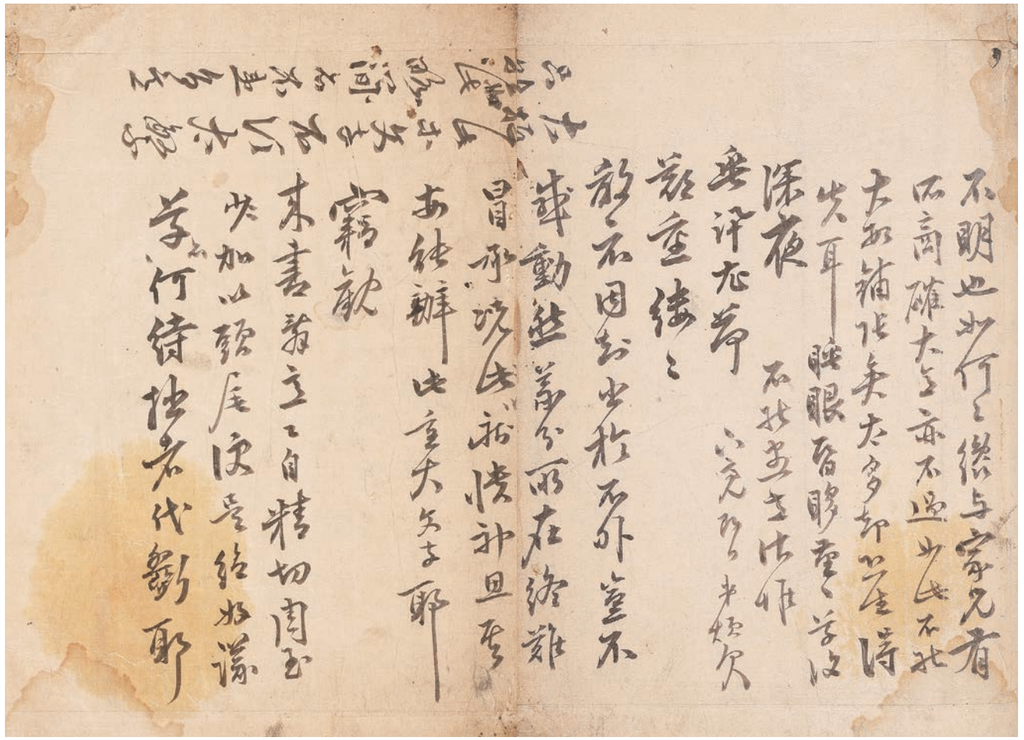
심부름꾼이 전해 준 편지가 잇따라 이르니 지극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사면해 주기를 청했지만, 아직 윤허받지 못했으니, 몹시 심란할 것 같습니다. 소본疏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보여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중간의 한 단락은 은미함과 완곡함이 부족한 듯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전혀 이러한 뜻으로 그대에게 얘기한 적이 없긴 하지만, 이렇게 쓰더라도 또한 무방하지 않겠는지요?
저는 손자의 병이 어떠한지 살피러 여기에 왔는데, 더위를 먹어 밥을 전혀 먹지 못하고 있으니, 걱정이고 걱정입니다.
나머지는 서술하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유년(1705, 숙종 31) 7월 8일, 고애자孤哀子 김창협은 계상稽顙[1]합니다.

약재藥材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자꾸 귀찮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육종용肉蓯蓉 네댓 전戔과 사향麝香 서너 푼分을 얻고자 할 뿐입니다.

해 설

이 편지는 유득일과 김창협의 긴밀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무슨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조정에서 일어나는 논의에 대해 유득일이 김창협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창협도 그 사건으로 궁금해 하던 상황에 유득일이 보내온 상소문을 보고 중간 단락에 은미함과 완곡함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답하였다.
이 때 김창협은 모친상을 치르던 중이었고, 편지 봉투의 "답소答疏"는 발신자가 상주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1702년 이후 3년간의 편지는 보이지 않는다. 김창협은 1702년 6월 모친상을 당하고 1705년 8월에 삼년상을 마쳤다. 이 편지를 받은 7월은 삼년상을 마치기 직전 무렵이다.

1 계상稽顙: 두 무릎을 꿇은 다음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구부려서 하는 절로, 극도의 경건함을 나타낼 때 하는 절이다. 삼년상을 치를 때의 예절이다.



54 53

김창협이 쓴 편지
(미상)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6-21

원 문

深夜垂訊, 尤荷鄭重. 縷縷敎示, 固知出於不外, 豈不感動. 然義分所在, 終難冒承, 況病憒神思, 其安能辨此重大文字耶. 竊觀來書, 辭意已自精切周至, 加以頭尾, 便是絶好. 議草, 亦何待拙者代斲耶. 大抵此等文字, 不須太繁, 只姑如此簡略, 亦不患旨意不明也. 如何如何. 纔與家兄有所商確, 大意亦不過如此, 不能大段鋪張矣. 太多, 却恐生得失耳. 睡眼昏眵, 董董草復, 不能盡意. 伏惟下亮.
卽日, 弟煩欠.

번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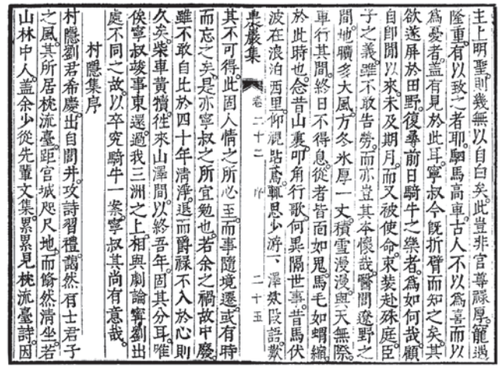
깊은 밤에 안부 편지를 보내주시니 정중한 뜻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신 것은 참으로 저를 도외시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왔음을 알겠으니, 어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분수[義分]로는 끝내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욱이 오랜 병으로 정신이 흐릿하니 어찌 이처럼 중대한 문장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 주신 글을 가만히 살펴보건대, 이야기[辭意]가 이미 본디 절실하고 치밀하며 더욱이 처음과 끝이 매우 좋습니다.
의초議草[1]는 또한 어찌 저처럼 졸렬한 자가 대작代作[2]할 필요하겠습니까. 대저 이런 종류의 글은 지나치게 번다해서는 안되니, 단지 이처럼 간결하게 하더라도 주제가 분명하지 않은 병폐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형家兄[김창집]과 상의해봤는데, 대의가 또한 이와 같을 뿐이었으니, 크게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나치게 번다하면 도리어 문제가 생길 듯합니다.
졸려서 눈이 침침하여 겨우 거칠게 답장하고 뜻을 다 펴지 못합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卽日]에 아우가 번거롭게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해 설

김창협이 추구하는 문장의 모습이 드러나는 글이다. 김창협은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연구했고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김창협은 자신의 문학 비평론을 펼친 「잡지雜誌」에서 문장 구조가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고 글의 변화를 주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며, 과다한 문장 수식은 배제하고 사실 기록에 충실한 문장이 좋은 글이라고 했다.
이번 편지와 함께 받은 글에 대해 김창협은 이야기가 절실하고 치밀하여 좋으며 특히 처음과 끝이 매우 좋다고 평가하였다. 어떠한 종류의 글을 부탁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글에 대해 지나치게 번다해서는 안되며, 간결하면서 주제가 분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김창협이 지향하던 한유韓愈(768-824), 구양수歐陽修(1007-1072)의 당唐·송宋 고문古文의 경향과 유사하다.
김창협은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치에 대한 논의부터 글쓰기, 일상 감정의 토로까지 자신의 내밀한 부분을 거리낌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는 둘 사이의 단단한 신의信義를 보여준다. 서로가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젊은 시절부터 만년까지 함께한 둘 사이를 돌이켜보는 글을 함께 소개한다.참고6-4

1 의초議草: '의議' 양식의 초고를 짓는 일을 가리키는 듯하나,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2 대작代作: 원문의 '대착代斲'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감당키 어려운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노자老子』에 "훌륭한 목수를 대신해 나무를 깎으면 손을 다치지 않는 때가 거의 없다.[夫代大匠斲者, 希有不傷其手矣.]"라는 말이 있다.



참고 6-4

연경 가는 유영숙에게

贈俞寧叔赴燕序

김창협

『농암집』 권22

조선, 1706년

책, 목판본, 각 면 28.5×17.6cm

구2325

번역문

왕년에 나는 동음洞陰 영평永平 백운산白雲山 기슭에 살았었는데, 당시에 영숙은 백운산 남쪽의 용호동龍虎洞에 있었다. 나는 자주 바위와 샘,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곳에서 그와 종유할 수 있었으니, 그곳은 나에게 있어 도연명陶淵明이 순박한 사람들이 있어 좋아했던 남촌南村과 같은 의미였다. 하루는 영숙이 자신이 지은 「기우가騎牛歌」를 나에게 보내왔는데, 그것은 즉흥을 기록한 것으로서 옛날 영척甯戚과 유응지劉凝之의 일[1]을 끌어다가 자신을 비유한 것이었다. 나는 "두 사람은 출처의 본말이 같지 않고 영숙은 또 초야에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니, 훗날 부귀해지더라도 지금의 소를 타는 즐거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으로 몇 마디 글을 써 답하였다. (중간 생략)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의 일로, 그동안의 세도世道와 인사人事의 변화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영숙은 이미 내외의 관직을 두루 거치고 상경上卿의 지위에 올라 나라의 중신이 되었으니, 내가 전에 한 말이 과연 증명된 것이다. 영숙은 세 지방에 관찰사로 나가서는 깃발과 부절符節을 잡고 창과 대장기를 세우고서 지방 각 성城의 장수와 관리들을 앞에서 내달리게 하고, 들어와 경기京畿의 군대를 통솔할 때에는 대장기와 북을 세우고 단壇 위에 앉아 삼군三軍을 지휘하며 훈련을 감독하였는데, 그런 때에는 영숙이 젊은 시절 소를 타고 다닐 때의 생각을 기억하는지, 아니면 잊어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군자는 처지에 맞게 행동하는 법, 백관과 많은 직무와 수많은 군사들도 한 언덕, 한 골짝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일 뿐이니, 조금이라도 그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취하거나 버리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정체된 것이다.

해 설

김창협과 유득일의 오랜 친구 관계가 담겨있는 작품으로, 간찰첩의 마지막 편지를 주고받은 다음해(1706, 숙종 32)에 쓴 글이다. 김창협은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연경燕京에 가는 유득일을 전송하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김창협과 유득일은 아버지 김수항과 유창이 경기도 영평에 은거하던 시절에 만나 학문과 문학을 토론하며 교유하였다. 어린 시절의 모습을 김창협은 도연명陶淵明이 순박한 사람들이 있어 좋아했던 남촌南村과 같은 곳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에도 김창협은 유득일과 자신의 삶의 길이 다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실제로 유득일은 고위 관직을 역임하였고 김창협은 은거하여 학문에 힘을 쏟았다. 서로의 길이 다르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친구의 모습이 담긴 작품이다.

1 영척甯戚과 유응지劉凝之의 일: 영척은 춘추 시대 위衛나라 사람인데, 제 환공齊桓公이 밤에 밖에 나갔다가 그가 소뿔을 두드리며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고서 어진 인물임을 알고 객경客卿으로 등용하였다. 『초사장구楚辭章句 · 이소경離騷經』 유응지는 남조南朝 송宋나라 때의 인물인데, 노래자老萊子와 엄자릉嚴子陵의 고고한 기풍을 좋아하여 벼슬살이를 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인적이 없는 형산衡山 꼭대기에 은거하여 자급자족하며 살았다. 『송서宋書 · 유응지열전劉凝之列傳』

2

편지에 담은 세상

The World Contained in Letters

조선시대 편지는 소식을 전하는 동시에 학문과 정치적 논쟁을 진행하는 매개체였다. 안부 편지부터 학문, 정치, 예술을 논하는 편지, 개인적인 부탁부터 상소문을 의논하는 편지까지 내용이 다양하다. 조선시대 한문 편지는 한문을 짓고 쓸 수 있는 지식인이 향유하는 고급 문화였다. 편지에 보이는 생활 속 이야기는 일차 사료로서 역사 분야의 기초 자료 역할을 하며, 유명인의 편지는 서예 및 문학 작품으로도 감상되었다. 과장된 수식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고받던 편지는 인물의 삶과 사상, 나아가 그 시대의 문화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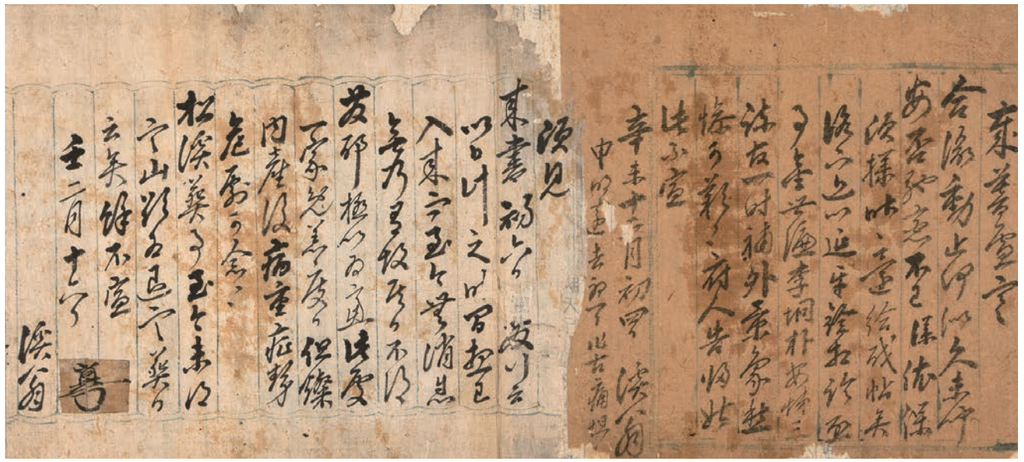
During the Joseon period, letters were used not only by families seeking to exchange news and greetings, but also by scholars conducting ongoing academic discussions. Letters from this period are filled with a wide variety of contents, ranging from brief tidings to long articulations of scholarly, political and social issues to requests for personal favors, such as to discuss a petition with the king. Thus, in addition to being part of the daily culture for correspondence, letters were also crucial channels for exchanging ideas between intellectuals who could read and write Chinese characters. Illuminating diverse elements of daily life, these letters are significant primary materials for historical research, but they can also be appreciated for their literary value and the artistic quality of their calligraphy. As such, these letters of daily correspondence evince not only the life and thoughts of the individuals, but also the social culture of the period.

김상용이 쓴 편지
金尙容筆 簡札
Kim Sangyong's Letters

7

김상용
조선, 1631년, 1632년
간찰, 종이에 먹, 39.4×61.2cm
구7027

Kim Sangyong
Joseon Dynasty 1631, 1632
Ink on paper, 39.4×61.2cm
koo 7027



원 문

1.
歲暮雪寒, 合衙動止何似. 久未聞安否, 馳戀不已. 僕依保頃樣. 昨昨還給職帖矣. 洛下, 近以延平銓相論啓事, 金世濂李坰朴安悌三諫官一時補外, 景象愁慘, 可歎可歎. 府人告歸, 姑此不宣.
辛未十二月初四日, 溪翁.

申明遠去初一日作古, 痛怛痛怛.

2.
頃見來書, 初六日發行云, 以日計之, 昨間想已入來, 而至今無消息, 無乃有故, 其日不得發耶. 極以爲慮. 此處, 一家免恙, 度日. 但燦內產後病重, 症勢危劇, 可念可念. 松溪葬事, 至今未得定山, 欲爲退定葬日云矣. 餘不宣.
壬二月十六日. [手決]
溪翁.

번역문

1.
세밑의 눈 내리는 추위에 그대는 어떻게 지내는가? 오랫동안 안부를 듣지 못했으니, 그리움이 그지없네. 나는 늘상 비슷하다네. 엊그제 직첩을 돌려주었네. 도성은 근래 이조판서 이귀李貴(1557-1633)에 대해 논의한 일로 김세렴金世濂, 이경李坰, 박안제朴安悌 세 간관諫官이 일시에 외직에 보임되어 분위기가 참담하니 몹시 한탄스럽네. 부府에서 보내 온 사람이 돌아간다고 해서 우선 이렇게만 쓰네. 격식을 차리지는 않았네.
신미년(1631, 인조 9) 12월 4일, 계옹溪翁.

신명원申明遠[1]이 지난 1일에 고인故人이 되었으니, 참으로 애통하네.

2.
지난번에 보낸 편지를 보니 6일에 출발한다고 하였네. 날짜를 꼽아보니 어제쯤 이미 도착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으니, 무슨 일이 있어 그날 출발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몹시 걱정되네. 나는 여기에서 가족들이 별탈이 없어 그럭저럭 지내고 있네. 다만 찬燦[2]의 아내가 출산 후에 병이 심하여 증세가 위중하니 염려되네.
송계松溪[3]의 장사葬事는 지금까지도 산소를 정하지 못하여 장례 일을 미루고자 한다고 하였네. 나머지는 이만 줄이고 격식을 펴지 않네.
임[4] 2월 16일, 계옹.

해 설

김상용이 71세와 72세에 쓴 편지이다. 1631년 10월 김상용은 이조판서에 제수되었으나 곧 파직되었다. 이 편지는 파직되어 직첩을 돌려준 직후 누군가에게 보낸 것이다. 만년이라 그런지 파직된 사실에 대한 울분보다는 도리에 맞지 않게 돌아가는 조정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벗 신명원의 죽음과 이인기의 장례에 대해 논하는 부분에서 처연함마저 느껴진다.

—

Many of Kim Sangyong's writings were destroyed during the Second Manchu Invasion (1636-1637). Although a compilation of his writings was published, it did not include any personal letters describing his feelings or daily activities. As such, these two letters, which Kim Sangyong wrote to his family when he was around seventy years old, have great significance. Kim wrote the letters after being appointed as the Minister of Personnel, but he was soon dismissed. Two months later, he was appointed as Uuijeong (Third State Councilor), but he resigned shortly after due to his old age.

1 신명원申明遠: 명원은 신감申鑑(1570-1631)의 자字이다. 본관은 평산平山, 호는 소선笑仙·만옹慢翁이다. 신흠申欽(1566-1628)의 아우이다.

2 찬燦: 김상용의 조카인 김광찬金光燦(1597-1668)이다.

3 송계松溪: 이인기李麟奇(1549-1631)의 호이다. 이인기의 본관은 청해靑海, 자는 인서仁瑞이다. 만년에는 시를 짓고 글씨를 쓰면서 김상헌, 정작鄭碏(1533-1603) 등과 교유했다. 저서에 『송계유고松溪遺稿』가 있다.

4 임: 임신년(1632, 인조 10)

김상헌이 쓴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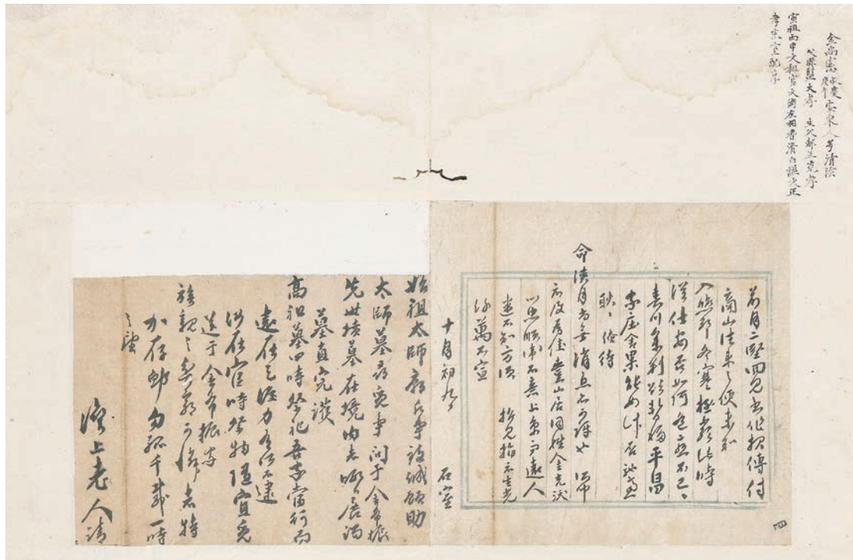
金尙憲筆 簡札

Kim Sangheon's Letter

8

김상헌
조선, 17세기
첩, 종이에 먹, 39.3×60.8cm
1981년 이홍근 기증, 동원3786

Kim Sangheon
Joseon Dynasty 17th century
Ink on paper, 39.3×60.8cm
Bequest of Lee Hong-kun, 1981, don 3786



원 문

1.

前月二堅回見書, 作報傳付商山往來之便, 未知入照耶. 冬寒極嚴. 此時從仕安否如何. 遙戀不已不已. 春川叅判欲暫移平昌家庄舍, 果能如計否. 馳慮耿耿. 俺待命浹月, 尙無消息, 亦可訝也. 所聞示及爲佳. 豐山居同姓金光沃, 以忠順衛, 不意上京, 而遠人迷不知方, 須招見指示生光. 餘萬不宣. 十月初九日, 石室.

2.

始祖太師廟願事, 致誠顧助. 太師墓尋覓事, 問于金希振. 先世墳墓在境內者, 暇日展謁, 墓直完護. 高祖墓四時祭祀, 吾家當行, 而遠在天涯, 力有所不逮, 汝在官時, 祭物, 隨宜覓送于金希振家. 族親之貧窮可憐者, 特加存卹, 勿孤千載一時 之望.

灣上老人請.

번역문

1.

지난달 이수二堅[1]가 돌아오는 편에 보낸 준 편지를 보고 답장을 써서 경상도 상주[商山]로 왕래하는 인편에 부쳤는데, 받아보았는가? 겨울 추위가 몹시 매섭구나, 벼슬살이는 어떠한가? 멀리서 그리워함이 끝이 없구나.

춘천春川 참판이 잠시 평창平昌 집에 딸린 농막으로 기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잘 되었는가? 매우 걱정되네.

나는 성상의 명을 기다린 것이 한 달이 되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으니 또한 의아하다네. 들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네.

풍산豐山[2]에 사는 일가 김광옥金光沃이 충순위忠順衛[3]에 배속되어 뜻밖에 상경하였는데, 멀리 있는 내가 아득히 방편을 모르겠으니, 모쪼록 불러서 가르쳐주어 내 체면을 살려주시게. 나머지 많은 말은 이만 줄이고 격식을 펴지 않네.

10월 9일, 석실石室

2.

시조 태사묘[4]에서 원하는 일은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도와주어라. 태사의 묘소를 찾는 일은 김희진[5]에게 물어보아라. 선대의 분묘墳墓 중 경내에 있는 것은 짬이 날 때 참배하고, 묘지기가 잘 보호하게 해라.

고조 묘소의 사시四時 제사는 우리 집이 행해야 하나, 하늘 끝에 멀리 있어 힘이 미치지 않으니, 네가 관직에 있을 때 제수를 알맞게 마련하여 김희진 집에 보내어라.

족친 중에 빈궁하여 가련한 자는 특별히 위로하고 도와주어 천년에 한 번 만나는 바람을 저버리지 말라.[6]

만상노인灣上老人이 부탁한다.

1 이수二堅: 이름에 '이二' 자가 들어가는 하인을 가리키는 듯하다. '수堅'는 '수竪'와 통하는데, 하인이라는 말이다.

2 풍산豐山: 경상도 안동의 속현이다. 김상헌은 1637년(인조 15) 형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한 소식을 듣고 경상도 풍산에 은거했으며, 1640년 11월 청나라에 압송되기 전까지 여기서 지냈다.

3 충순위忠順衛: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후위後衛인 충무위忠武衛에 속하였던 군대이다.

4 시조始祖 태사묘太師廟: 안동 김씨의 시조 김선평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묘당이다. 현재 경북 안동시 북문동에 있다. 고려 건국에 공을 세운 김선평, 권행權幸, 장정필張貞弼 세 태사太師의 위패를 봉안한 곳이다. 처음에는 안동부사安東府舍에 있다가, 1542년 오늘날의 자리로 옮겨졌다. 1613년(광해군 5) 묘우를 확대하고 '삼공신묘三功臣廟'에서 '태사묘太師廟'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되었으나 1963년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정비되었다. 1974년 경상북도 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되었다.

5 김희진金希振: 김상헌의 9촌 조카로, 경상도 안동 풍산현에 거주하였다. 1637년(인조 15)에 김상헌이 풍산에 은거했을 때, 찾아와 글을 배웠다. 이 당시 김상헌의 시문을 수습하여 간직하였다. 김상헌이 의주에 억류되어 있을 때 안동에서 찾아가 배알하였다.

6 족친……말라: 서울과 안동에 떨어져 있던 친척들이 시조의 묘당廟堂에 참배하고, 묘소를 찾으며, 고조高祖의 사시제四時祭를 지내는 등의 일을 통해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는 모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이므로 족친 중에 가난한 자들을 잘 도와주라는 말이다.

해 설

간찰첩 『진신찰한縉紳札翰』에 포함된 편지이다. 『진신찰한縉紳札翰』은 총 22첩으로 역대 유명한 문인들의 편지를 시대순으로 모아 두었다. 김상용의 순절 후 김상헌은 안동 김문을 절의를 대표하는 명문가를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단한 기반이 필요했는데 안동 김문의 동종同宗 의식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기반을 다져나갔다. 김상헌은 자신이 청나라에 의해 의주에 억류되어 있으면서도 처음 만나는 친척도 매우 귀하게 대해주라고 당부하고 있다.

—

Strongly emphasizing the unity and solidarity of the Kim clan, Kim Sangheon implored his family to welcome and assist any relative or member of the Andong Kim clan who visited Seoul, even if they were meeting for the first time.

김상헌이 손자에게 쓴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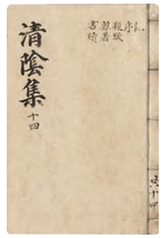
寄孫壽增兄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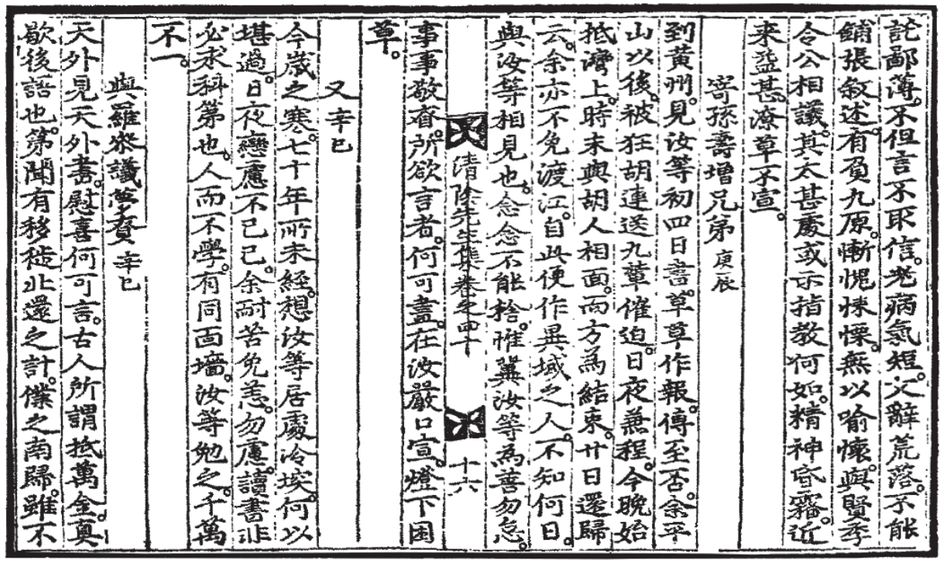
Kim Sangheon's Letter to grandsons

9

김상헌
『청음선생집』 권40
조선, 1861년 간행
책, 목판본, 30.5×20.2cm
구9569

Kim Sangheon
Collected Works of Kim Sangheon (淸陰先生集)
Joseon Dynasty 1861
Woodblock printing on paper, 30.5×20.2cm
koo 9569





원 문

1.

寄孫壽增兄弟 庚辰

到黃州, 見汝等初四日書, 草草作報, 傳至否. 余平山以後, 被狂胡連送九輩催迫, 日夜兼程, 今晚始抵灣上. 時未與胡人相面, 而方爲結束, 廿日還歸云. 余亦不免渡江. 自此便作異域之人, 不知何日, 與汝等相見也. 念念不能捨. 惟冀汝等爲善勿怠, 事事敬愼. 所欲言者, 何可盡. 在汝嚴口宣. 燈下困草.

2.

又 辛巳

今歲之寒, 七十年所未經. 想汝等居處冷埃, 何以堪過. 日夜戀慮不已已. 余耐苦免恙, 勿慮. 讀書非必求科第也. 人而不學, 有同面墻. 汝等勉之, 千萬不一.

번역문

1. 손자 수증 형제에게

황해도 황주黃州에 도착하여 너희들이 4일에 보낸 편지를 보고서 서둘러서 답장을 썼는데, 잘 전해졌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황해도 평산平山을 지난 후, 포악한 오랑캐들이 잇달아 아홉 놈을 보내어 재촉하는 탓에 밤낮없이 서둘러 오늘 저녁에 비로소 평안도 만상灣上[의주]에 도착하였다. 아직 오랑캐들을 만나진 못했지만, 짐을 꾸리고 20일에는 심양瀋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나 역시 강을 건너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이역 땅의 사람이 될 터이니, 언제 너희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항상 너희들을 잊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오직 선을 행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고 일마다 공경스럽고 신중하길 바란다. 하고 싶은 말을 어찌 다 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야 한다. 등불 아래에서 피곤하여 대강 쓴다.

2. 또 보낸다

금년의 추위는 칠십 평생 처음 겪는 것이다. 너희들의 거처가 싸늘할텐데,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밤낮없이 그립고 염려되는구나. 나는 고통을 참으면서 건강을 해치지는 않았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글을 읽는 것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사람이면서 학문을 배우지 않으면 담벼락을 마주한 것과 같이 깜깜하게 된다. 너희들은 힘써 공부하거라. 하고픈 말은 많으나 다 쓰지 못하고 이만 줄인다.

해 설

김상헌은 당대 명사들과 활발하게 교유했지만, 그의 문집에는 편지가 많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김상헌 자신이 직접 문집을 편차할 때 편지는 자신의 사상과 삶을 보여주는 데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2통의 편지가 문집에 수록된 것은 김상헌의 생각이 잘 담겨 있기 때문이다. 김상헌은 손자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지도 모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善을 행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고", "글을 읽는 것은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당부한다. 수증 형제는 이 당부를 잘 지켰고, 17세기 후반 장동 김문은 도학道學과 문예를 대표하는 가문이 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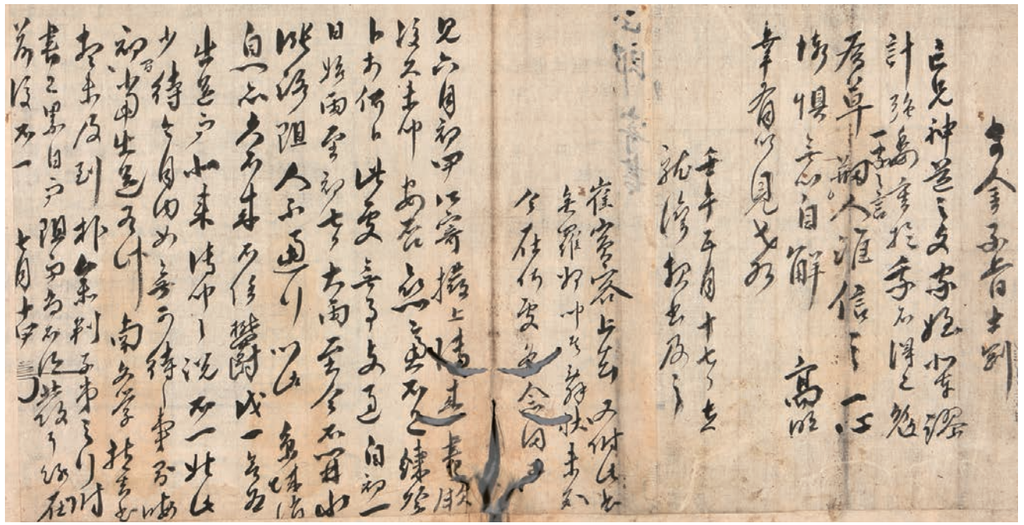
During the Joseon period, it was common practice for descendants to compile and publish the writings of their ancestors. Being a skilled writer, Kim Sangheon edited and compiled his own writings two times while he was alive—once in 1636 (at the age of sixty-six) and again in 1645 (at the age of seventy-five)—preparing them for posthumous publication. Notably, however, he did not include any letters in those compilations. After his death, Kim Sangheon's descendants added some of his letters to the compilation, although few were extant at the time of publication.

김상헌이 쓴 편지
金尙憲筆 簡札
Kim Sangheon's Letter

10

김상헌
조선, 1642년
간찰, 종이에 먹, 39.3×60.8cm
구7029

Kim Sangheon
Joseon Dynasty 1642
Ink on paper, 39.3×60.8cm
koo 7029



원 문

1.
寄金承旨士剛
亡兄神道之文, 家姪輩謬計, 强委重於我, 不得已勉爲草刱, 一家之言, 人誰信之. 一心慚懼, 無以自解, 高明幸有以見敎.
壬午五月十七日, 在龍灣, 報書及之.
崔賓客上去, 又附此書矣. 羅州聞其辭狀, 未知今在何處. 爲念罔已.

2.
見六月初四所寄撥上傳來書, 厥後, 久未聞安否, 戀慮不已. 練祭卜於何日. 此處無事支過. 自初一日始雨, 至初七日大雨, 至今不開, 水漲路阻, 人不通行. 以此京城消息, 亦久不來, 不任鬱戈. 一欲爲出送, 而北來傳聞之說不一, 姑此少待. 今月內, 如無可待之事, 則晦初間, 當出送爲計. 南文學持去書, 想未及到. 朴叅判子弟之行, 附書已累日, 而阻而尙不得發耳. 餘在前後, 不一. 七月十四日. [手決]

번역문

1.
승지 김사강金士剛[1]에게 부치다
망형亡兄의 신도비명[2]은 조카들의 잘못된 계획[3]으로 억지로 제게 중임을 맡겨 하는 수 없이 초고를 잡았던 것입니다. 한 집안 사람의 말이니 누가 이를 믿겠습니까. 온 마음이 부끄럽고 두려워 스스로 해소할 없으니, 그대께서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오년(1642, 인조 20) 5월 17일, 용만龍灣[4]에서 답장을 보냅니다.

최빈객崔賓客이 상경하기에 또 이 편지를 부칩니다. 나주羅州[5]는 사직소를 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염려됩니다.

2.
6월 4일에 파발擺撥로 부쳐 보내온 편지를 보고 그 뒤로 오랫동안 안부를 듣지 못하였으니, 그리움과 염려가 그지없다. 연제練祭[6]는 며칠로 잡았느냐? 나는 여기에서 별일 없이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 1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여 7일까지 큰비가 내렸는데, 아직까지 날이 개지 않아 물이 불어나고 길이 막혀 사람이 다니지 못한다. 이 때문에 서울 소식 또한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겠다. 한번 내보내고자 하나 북쪽에서 전해오는 말이 일정하지 않아 우선 이렇게 조금 기다리고 있다. 이번 달 안에 만약 기다릴 만한 일이 없으면 그믐과 초하루 사이에 내보낼 계획이다.
남문학南文學이 가지고 간 편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줄로 생각된다. 박참판朴叅判의 자제가 가는 길에 편지를 부친 것이 이미 며칠 되었는데, 길이 막혀서 아직도 출발하지 못하였다. 나머지는 그간 보낸 편지에 있으니, 하나하나 적지 않는다.
7월 14일.

1 김사강金士剛: 사강은 김집金集(1574-1656)의 자이다. 본관은 광산光山, 호는 신독재愼獨齋이다. 벼슬보다는 경전 연구와 수양에 힘썼다. 이이李珥의 학문과 송익필宋翼弼의 예학禮學, 아버지 김장생金長生의 학문을 이어받았으며, 그 학문을 송시열宋時烈에게 전하여 기호학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망형의 신도비명: 형 김상용에 대한 신도비명이다.

3 조카들의……계획: 당대의 명망가가 아닌 자신에게 형의 신도비명을 쓰게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로, 겸사이다.

4 용만龍彎: 의주義州의 별칭이다. 김상헌은 1640년에 11월에 청의 출병 요구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일로 심양瀋陽으로 압송되었는데, 병이 심해져 1641년 12월에 의주로 오게 되었다.

5 나주羅州: 나주에서 벼슬한 어떤 사람을 말한다.

6 연제練祭: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인 소상小祥을 말한다. 소상 후 담제禫祭 전까지 연사練絲로 만든 상복인 연복練服을 입는데 연사는 무명과 모시 등의 생사를 잿물에 담갔다가 삶은 뒤에 물에 빨아 말려서 희고 광택이 나게 만든 실을 말한다. 이 때문에 소상을 연제라고도 한다.

해 설

간찰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가 분리된 편지로 보인다. 첫 번째 편지에서는 자신의 형인 김상용의 신도비명을 직접 짓고 이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였다. 1장에서 소개했듯 김상헌은 자손들이 김상용의 순절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사건이 가문을 지탱하는 정신적인 힘이 되도록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신도비의 서술에서도 강화도에서 순절하는 순간을 가장 먼저, 극적으로 서술한 뒤 성품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두 번째 편지에서는 억류당한 상황에서도 가문의 제사를 돌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These two letters were written by Kim Sangheon while he was being detained by China's Qing Dynasty. In the first letter, Kim reports that he has been selected to compose the epigraph for the tomb of King Sangyong, and asks for some assistance. In the second letter, he expresses the anguish and frustration of missing his family, which was recently intensified by the closing of roads due to flooding, which made it impossible for him to receive any news from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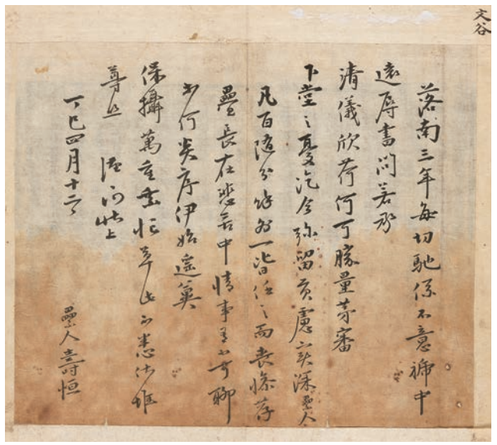
김씨오선생진적
金氏五先生眞跡

Album of Letters by
Five Members of the Kim C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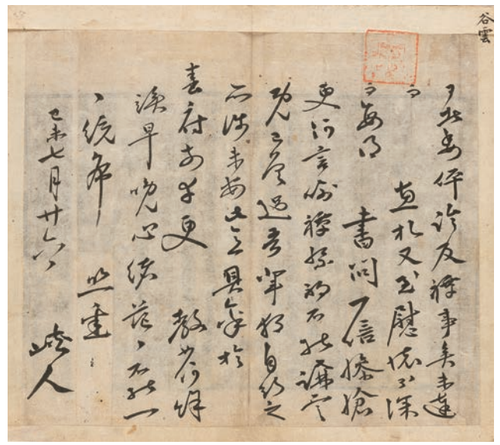
11

김수증 외
조선 후기
첩, 종이에 먹, 각 면 30.4×17.2cm
구8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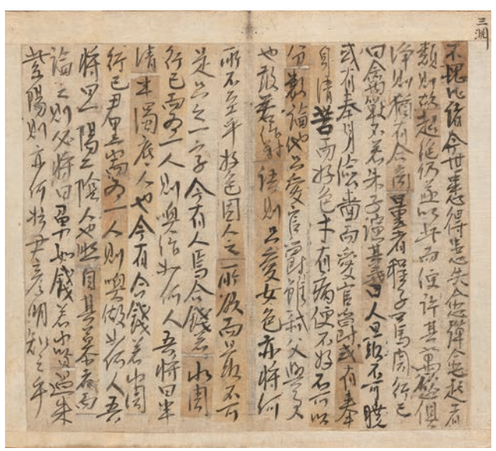
Kim Sujeung et al
Late Joseon Dynasty
Ink on paper, 30.4×17.2cm (each page)
koo 8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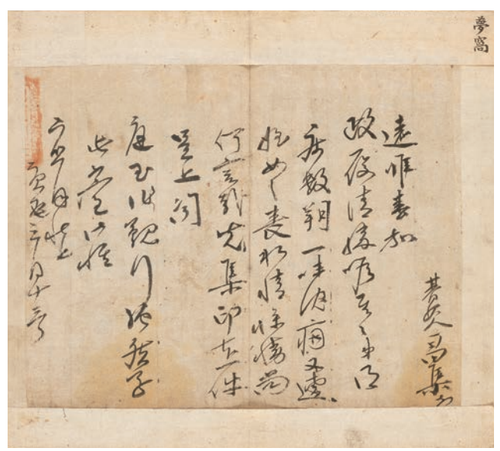
4



3



8



7

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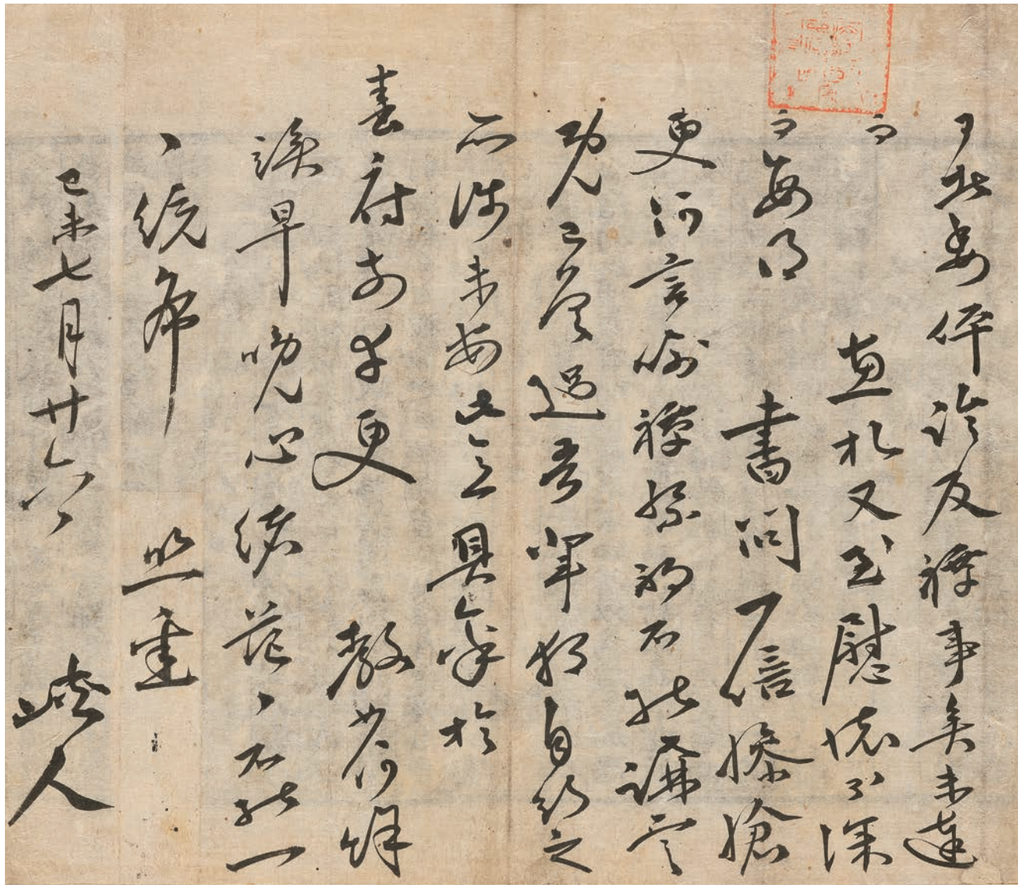
1

5

장동 김문의 삼수三壽(수증, 수흥, 수항), 육창六昌(창집, 창협, 창흡, 창업, 창즙, 창립) 중 수증, 수항, 창집, 창흡의 간찰을 모은 간찰첩이다. 표지의 서명에는 오선생五先生이지만 4명의 간찰만이 있다. 김수증, 김수항, 김창집의 편지는 안부를 묻고 자신의 감회를 토로한 일상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반면 김창흡의 편지는 김창흡과 소론계 문인의 논쟁의 시발이 된 편지 중 일부가 실려 있다. 수록된 편지의 내용으로 볼 때 장동 김문의 후손이나 그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누군가가 이들의 필적筆跡을 곁에 두고 감상하기 위해 편집한 간찰첩으로 보인다.

—

Over the years, the Jangdong Kim clan produced a number of talented writers and calligraphers, led by the three members with “Su” in their first names (i.e., Sujeung, Suheung, and Suhang) and the six brothers with “Chang” in their names (i.e., Changjip, Changhyeop, Changheup, Changeop, Changjeup, and Changrip). This album includes letters written by four of the esteemed Kim writers: Sujeung, Suhang, Changjip, and Changheup. Although the title states that five members of the Jangdong Kim clan are represented, the album currently only includes letters from those four members. The letters are relatively informal, containing simple greetings and expressions of feelings between family members, as well as details about their daily lives. The album was likely produced by the later descendants of the Jangdong Kim clan, to be kept close at hand for reviewing and appreciating the calligraphic styles of their ancestors.



2 1

김수증이 쓴 편지
(1679.7.26.)
金壽增筆 簡札
Kim Sujeung's Letter

11-1

원 문

日者委伻論及禫事矣, 未達而惠札又至, 慰懷則深, 而每得書問一信, 慘愴, 更何言喻. 禫祭初不能講定, 旣已差過, 吾輩獨自行之, 亦涉未安, 此意具稟於春府丈, 幸更敎, 如何. 餘竢早晩. 心緖茫茫, 不能一一. 統希照悉.
己未七月廿六日, 峽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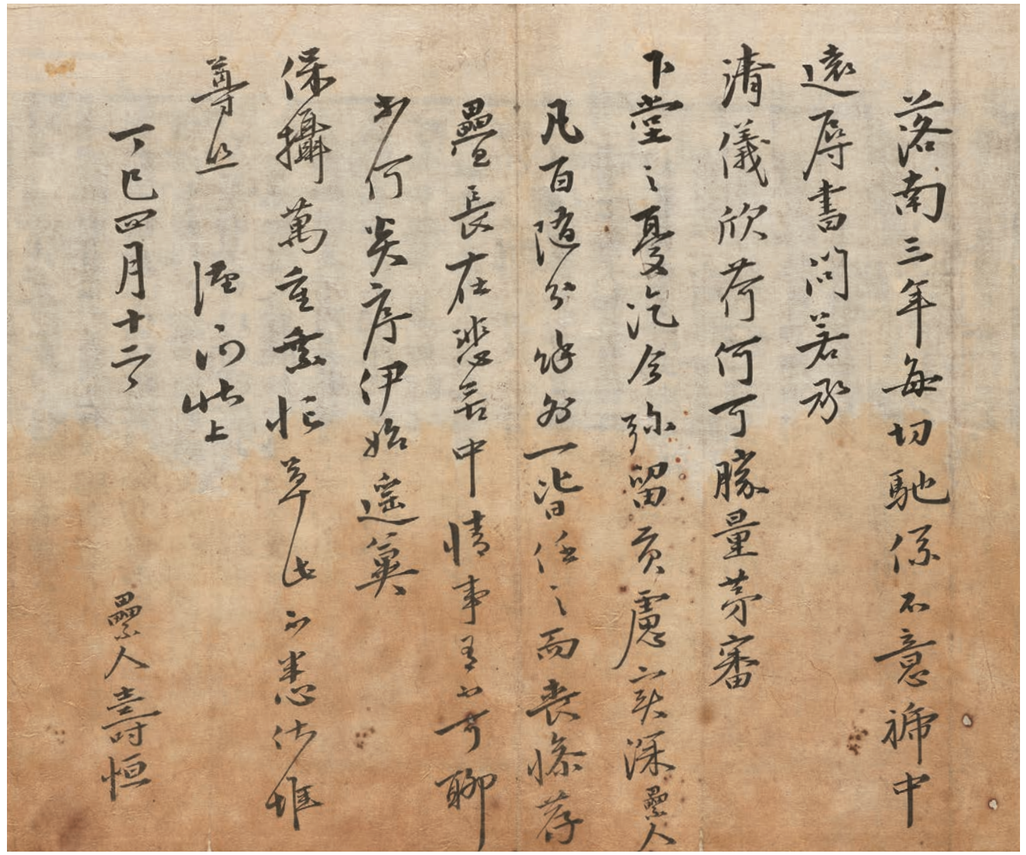
번역문

며칠 전에 특별히 보낸 심부름꾼을 통해 담제사禫祭祀[1]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미처 전달하기도 전에 보내준 편지가 또 이르러 내 마음을 몹시 위로해주네만, 안부 편지 한통을 받을 때마다 참담하고 슬픈 마음을 어찌 다시 말로 형용하겠는가. 담제사는 애초에 강정講定하지 못해 이미 잘못되었고 우리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으니, 이 뜻을 춘부장께 갖추어 물어보고 부디 다시 알려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나머지는 조만간에 만나서 말씀드리겠네. 마음이 어수선하여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네. 두루두루 잘 이해해주시기 바라네.
기미년(1679, 숙종 5) 7월 26일, 협인峽人.

해 설

1679년은 동생 김수항은 강원도 철원에 유배되어 있고, 김수흥은 강원도 춘천으로 유배되었다가 해배되어 경기도 영평에 은거하고 있던 시기이다. 이때 김수증은 춘협[춘천]에 머무르고 있었고, 자신을 협인峽人이라고 표현했다. 김수증은 장동 김문의 종손宗孫으로서 정치가로 이름을 날린 동생들과 달리 안동 김문을 현창하는 사업과 문화 예술 방면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1 담제사禫祭祀: 초상初喪으로부터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27개월 만에, 곧 대상大祥을 치른 그 다음 달 하순下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이다.



4 3

김수항이 쓴 편지
(1677.4.12.)
金壽恒筆 簡札
Kim Suhang's Letter

11-2

원 문

落南三年, 每切馳係, 不意遞中遠辱書問, 若承淸儀, 欣荷何可勝量. 第審下堂之憂, 訖今彌留, 貢慮實深. 纍人凡百隨分, 餘外一皆任之, 而喪慘荐疊, 長在悲苦中, 情事有不可聊, 奈何. 炎序伊始, 遙冀保攝萬重. 乘忙草此不悉. 伏惟尊照. 謹謝狀上.
丁巳四月十二日, 纍人壽恒.

번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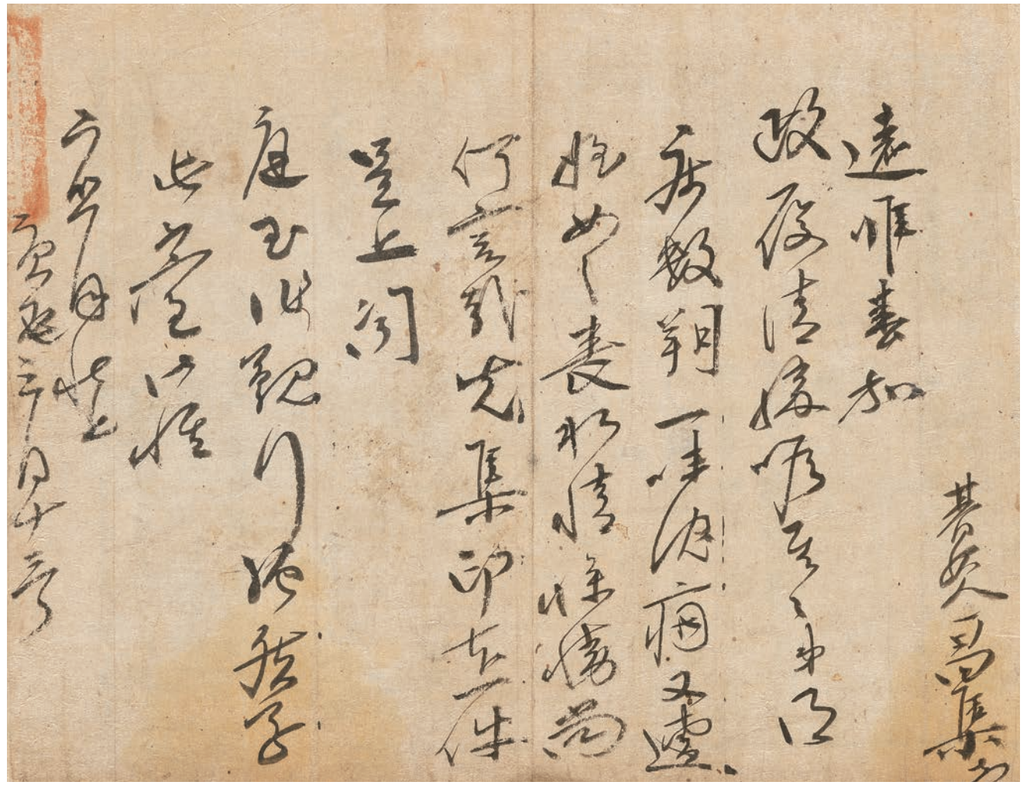
남쪽으로 내려온 지 3년 동안 항상 그리웠는데,[1] 생각지도 못하게 역마[遞中]를 통해 멀리서 보내신 안부 편지를 받고 마치 맑은 의표를 직접 뵙는 듯하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어찌 한량이 있겠습니까. 다만 발을 다친 우환[2]이 지금까지도 오래 남아 있다고 하니 걱정이 실로 깊습니다.
죄인은 모든 것을 분수에 따르며 살고 있고 나머지는 일체 모두 내버려두고 있는데, 상참喪慘이 거듭 이어져 늘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으니 심사를 달랠 길이 없습니다. 어이하겠습니까.
더위가 이제 시작되었으니 부디 몸을 잘 보중하시기를 멀리서 바랍니다. 바쁨을 틈타 대강 이렇게만 쓰고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존형께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을 올립니다.
정사년(1677, 숙종 3) 4월 12일, 죄인 수항.

해 설

김수항이 전라도 영암으로 유배되었을 때 쓴 편지이다. 서울에서만 생활을 했던 김수항은 전라도 영암으로 유배를 가면서 죄인이라는 신분과 낯선 환경에서 소극적인 생활 태도를 보였다. 이 때는 월출산 등을 답사하자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삼가고 있던 시절로, 멀리서 온 안부 편지가 특히 반가웠을 것이다.
이 편지를 보내고도 6개월이 지나서야 김수항은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월출산 등을 주변 지역을 답사하기 시작하고 교유와 사상의 폭을 더 넓히게 되었다.

1 남쪽으로……그리웠는데: 1675년(숙종 1) 7월에 전라도 영암靈巖으로 귀양을 왔기 때문에 한 말이다.

2 발을 다친 우환[下堂之憂]: '하당지우下堂之憂'는 증자曾子의 제자인 악정자춘樂正子春이 당堂을 내려가다가 발을 다쳤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예기禮記·제의祭義』



6 5

김창집이 쓴 편지
(1700.3.13.)
金昌集筆 簡札
Kim Changjip's Letter

11-3

원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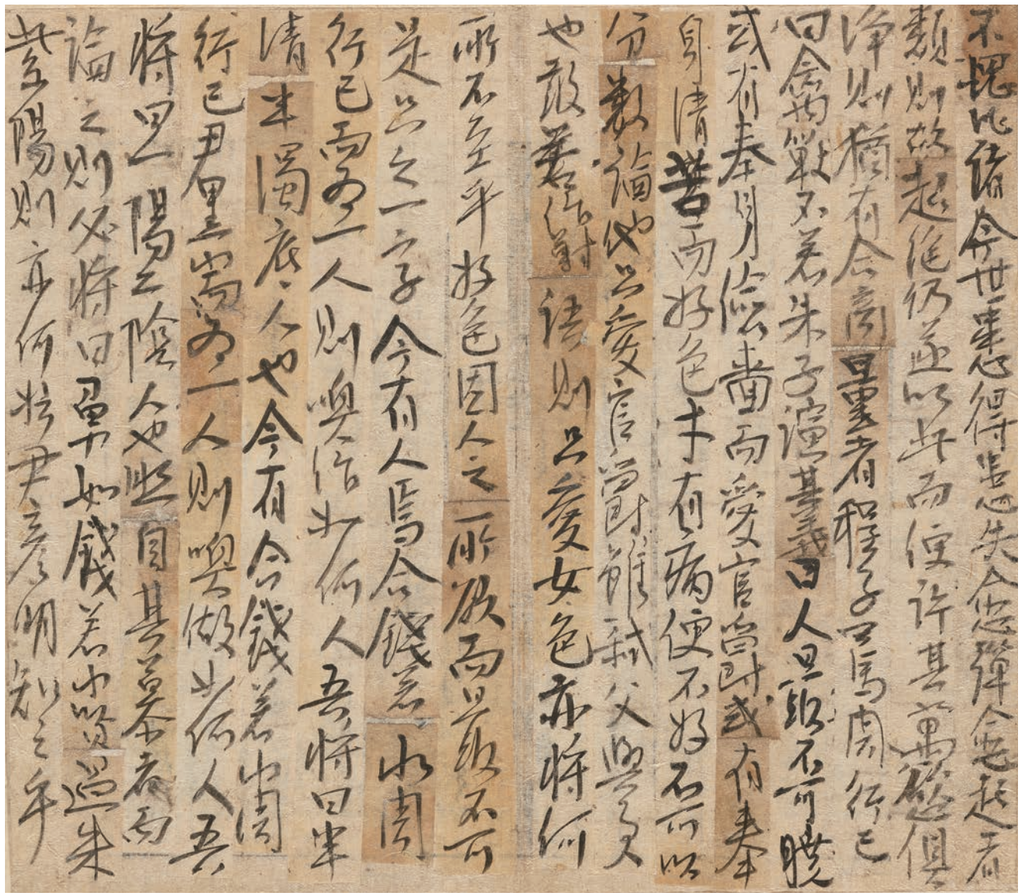
遠惟春和 政履淸勝, 瞻慰瞻慰. 弟得病數朔, 一味沈痼, 又遭姪女之喪, 私情慘慟, 尙何言哉. 先集印本一件呈上. 聞庭玉作覲行, 强疾草此. 不宣. 伏惟下照. 謹狀上.
庚辰三月十三日, 朞服人昌集頓.

번역문

멀리서 따사로운 봄날에 백성을 다스리는 중에도 건강이 좋으실 거라 생각하니, 우러러 위로가 됩니다. 저는 병에 걸려 몇 개월 동안 내내 끙끙거리고 있는 데다 질녀의 상까지 만나 마음이 참담하고 애통합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간행한 선친의 문집 1질을 보내드립니다.
아드님[庭玉]께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覲行] 간다기에 병을 무릅쓰고 대강 이렇게 씁니다. 격식을 갖추지 않습니다. 굽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편지를 올립니다.
경진년(1700, 숙종 26) 3월 13일, 기복인朞服人 창집昌集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해 설

아버지 김수항의 문집 1건을 보낸 것으로 보아 장동 김문과 상당히 친밀한 사이의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로 보인다. 이 문집은 김수항의 첫째 아들 김창집이 강화유수江華留守로 있을 때 간행 비용을 마련하여 1699년(숙종 25)에 간행한 초간본初刊本이다. 이때 장동 김문은 운각활자芸閣活字[교서관 활자]로 먼저 초간본을 간행한 후, 교정이 완료되면 목판본으로 중간본을 간행했는데, 김수항의 『문곡집』도 이 순서에 따라 1699년 운각활자로 초간본을 간행하고, 1702년 송준길宋浚吉의 문인 안세징安世徵이 영광군수로 있으면서 일부를 수정하여 중간본으로 간행했다.
1700년을 전후한 시기는 장동 김문 사람들에게 슬픔으로 가득했다. 1699년 5월, 사촌인 김창숙에게 양자로 간 아들 김호겸이 병으로 죽었고, 1700년에는 조카 3명(김창협의 딸 둘과 아들)의 죽음을 겪었다.



8 7

김창흡이 이덕수에게 보낸 편지(일부)
(1703)
與李德壽
Kim Changheup's Letter to
Yi Deoksu

11-4

*『삼연집三淵集』 권22에 있음.

1 才有病: 『삼연집』에는 "纔有病"라 되어 있다.

원 문

……不愧. 比諸今世患得患失愈彈愈起者類, 則故超絶, 仍遂以此而便許其萬慾俱淨, 則猶有合商量者. 程子罵周行己曰"禽獸不若", 朱子演其義曰, "人最不可曉. 或有奉身儉嗇而愛官爵, 或有奉身清苦而好色. 才有病,[1] 便不好. 不可以分數論, 他只愛官爵, 雖弑父與君也敢." 若作對語, 則只愛女色, 亦將何所不至乎. 好色固人之所欲, 而最不可是'只'之一字. 今有人焉, 合錢若水, 周行己而爲一人, 則喚作如何人. 吾將曰半清半濁底人也. 今有合錢若水, 周行己, 尹黑水而爲一人, 則喚做如何人. 吾將曰一陽二陰人也. 然自其慕者而論之, 則必將曰勇如錢若水, 賢過朱紫陽, 則亦何妨尹彦明知之乎. ……

번역문

……부끄럽지 않네. 오늘날 얻지 못할까 걱정하고 잃을까 걱정하는 마음[2]이 갈수록 심해지는 부류에 비하면 본디 뛰어나지만, 마침내 이것으로써 온갖 욕심이 모두 깨끗하다고 인정한다면 오히려 따져봐야 할 점이 있네. 정자程子가 주행기周行己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짐승보다 못하다."[3]라고 하였는데, 주자朱子가 그 뜻을 부연하여 말하기를 "사람은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몸을 받들기를 검소하게 하면서도 관작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받들기를 청고淸苦하게 하면서도 여색을 좋아하기도 한다. 조금이라도 이런 병통이 있으면 좋지 않다. 분수分數로 논할 수도 없으니, 그가 단지 관작만 좋아한다면 부모와 군주를 시해하는 것도 감히 할 것이다."[4]라고 하였네. 만약 짝하여 말을 만들면 단지 여색만 좋아한다면 또한 장차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는가가 될 걸세. 여색을 좋아하는 것은 본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이나, 가장 불가한 것은 '단지[只]' 한 글자이네.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전약수錢若水[5]와 주행기를 합하여 한 사람으로 만들면 어떤 사람으로 불러야 하겠는가? 나는 반은 맑고 반은 탁한 사람이라 말할 것이네. 이제 전약수, 주행기, 윤흑수尹黑水[6]를 합하여 한 사람으로 만들면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나는 양陽이 하나에 음陰이 둘인 사람이라 말할 것이네. 그러나 사모하는 자의 입장에서 논한다면 필시 용맹함은 전약수와 같고 어짊은 주자양朱紫陽보다 낫다고 말할 것이니, 또한 윤언명尹彦明이 그것을 안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2 얻지……마음: 재물이나 벼슬을 얻기 전에는 얻지 못할까 걱정하고 얻은 뒤에는 행여 그 벼슬이나 재물을 잃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논어』 「양화陽貨」에 "비루한 사람과 더불어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부귀를 얻기 전에는 그것을 얻지 못할까 걱정하고, 이미 그것을 얻고 나서는 또 잃어버릴까 걱정한다. 진실로 그것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면 못할 짓이 없게 된다.[鄙夫, 可與事君也與哉? 其未得之也, 患得之, 旣得之, 患失之. 苟患失之, 無所不至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3 짐승보다 못하다: 정이程頤가 문인 주행기周行己를 경계한 말이다. 주행기가 어렸을 적에 외가의 여인과 혼사를 맺기로 말이 오간 적이 있었는데, 문과에 급제한 뒤에 그 여인이 두 눈이 다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가를 들어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였다. 정이가 이것을 보고 "나도 서른 이전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진보가 빠른 자는 퇴보도 빠른 법이다."라고 하며 늘 안타까워하였다. 나중에 그가 술자리에서 기생과 정분을 통하고는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정이가 그 사실을 알고는 "그 녀석은 짐승만도 못하구나. 어찌 의리에 해롭지 않단 말이냐."라고 하였다. 『이정전서二程全書 · 전문잡기傳聞雜記』

4 사람은……것이다: 『주자어류朱子語類』 권13 「학學 7」에 나오는 구절을 축약하여 인용한 것이다.

5 전약수錢若水: 관직이 한창일 때 용맹하게 물러난 송宋나라 때의 인물인데, '급류용퇴急流勇退'라는 고사로 유명하다. 한 도승道僧이 진단陳摶에게 전약수錢若水의 사람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급류 속에서 용감하게 물러날 사람이다.[是急流中勇退人也.]"라고 하였는데, 뒤에 과연 전약수는 벼슬이 추밀부사樞密副使에 이르자 40세의 나이로 즉시 관직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

6 윤흑수尹黑水: 윤휴尹鑴(1617-1680)를 가리키는데, 그가 여주驪州 여강驪江에서 살았으므로 그를 배척해서 일컫는 말이다. 여驪는 검다[黑]는 뜻이 있으므로 흑黑으로 바꾸어 소인小人임을 암시한 것이고, 강江은 물[水]이므로 이를 합하여 흑수라 한 것이다.

해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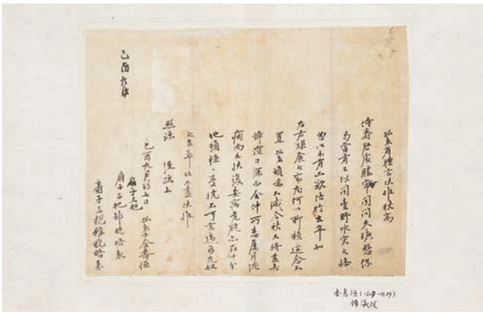
『김씨오선생진적』에 실린 다른 편지들은 한통의 완결된 낱장 편지인데 반해, 김창흡의 편지는 편지를 글씨 간격에 맞추어 잘라서 붙였으며, 한 통의 편지 전체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수록하였다. 이 편지는 김창흡의 『삼연집』 권22에도 수록되어 있다. 편지의 수신자인 이덕수李德壽(1673-1744)는 김창흡의 문인이다. 이 편지에서 김창흡은 박세당朴世堂이 이경석李景奭의 비문碑文을 지으면서 송시열을 배척하고 『사변록思辨錄』을 지어 주자朱子를 모욕한 것을 비난하였다. 이 편지로 김창흡은 이하성李廈成 등 소론계의 배척을 받게 되었다.

간찰첩
簡札帖
Album of Let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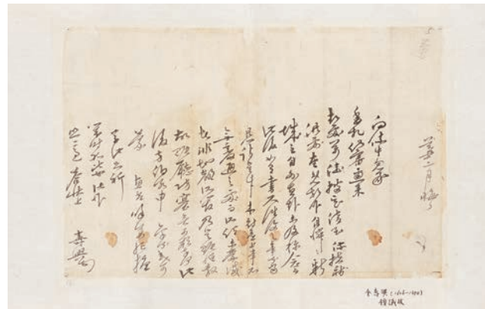
12

김수흥 외
조선, 17–19세기
첩, 종이에 먹, 각 면 38.0×27.7cm
구7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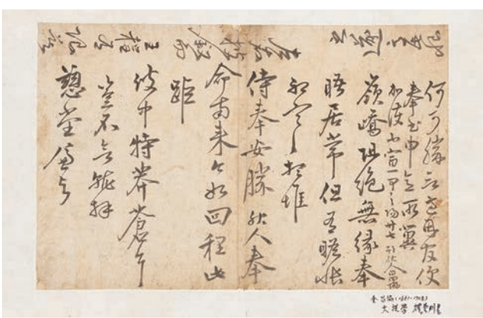
Kim Suheung et al
Joseon Dynasty 17th–19th century
Ink on paper, 38.0×27.7cm (each page)
koo 7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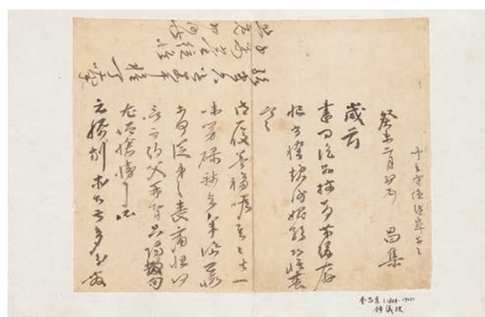
2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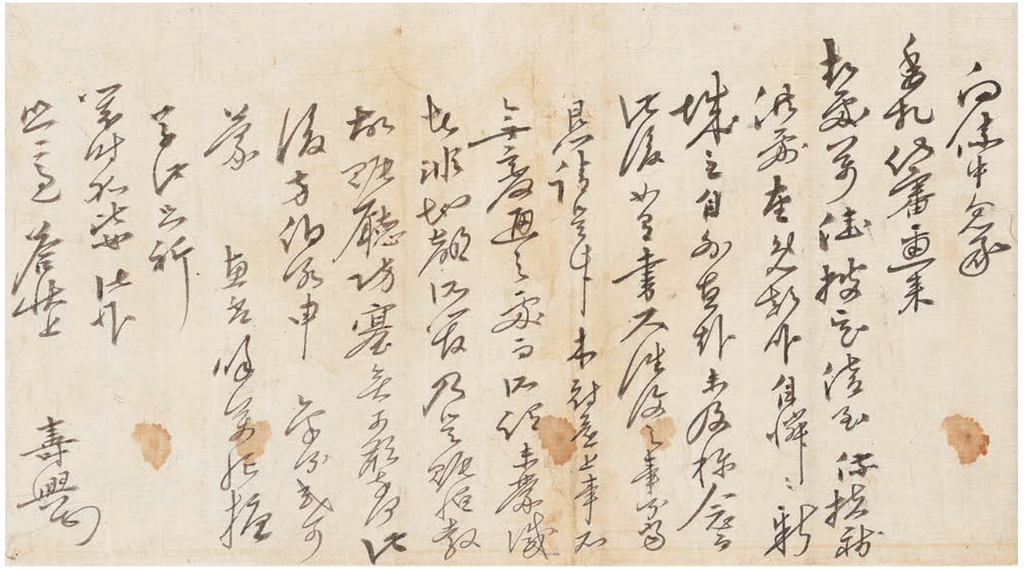


3

조선시대 사람들은 글씨에 그 사람의 인품과 추구하는 이상이 담겨있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선현先賢을 본받고 추모하기 위해 선현의 필적筆跡을 서첩으로 만들어 곁에 두고 감상하였다. 이 간찰첩에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활동한 유명한 문인 20명의 간찰이 수록되어 있다. 한 가문의 간찰이 4통이나 수록된 것은 장동 김문이 유일하다. 이는 장동 김문이 예단에서 가졌던 위상을 잘 보여준다.

—

This album of letters was intended to serve as an easily accessible guide for studying and appreciating the calligraphy of great scholars of the past. In the late Joseon period, in conjunction with the overall trend of collecting art, many scholars compiled their own albums of calligraphy from the letters of friends or revered scholars. For example, a letter by the master calligrapher Kim Jeonghui was meticulously carved into a solid surface (either stone or wood) and widely circulated in the form of a print. This album contains letters written by twenty famous literati scholars who were active from the seven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y. Notably, four of the letters were written by members of the Jangdong Kim clan, the largest number of letters from any single family. Thus, this album clearly demonstrates the elevated status of the Jangdong Kim clan within the field of art.



1

김수흥이 쓴 편지
(1673.2.28.)
金壽興筆 簡札
Kim Suheung's Letter

12-1

원 문

向儁中, 忽承委札, 仍審邇來起處萬佳, 披慰倍至. 僕扶病供劇, 堇勉顚仆, 自憐自憐. 新城主自外直赴, 未及稱念, 而此後如有書尺往復之事, 則當恳請是計. 本府還上事, 不無變通之處, 而所謂未蒙減者, 非地部所管, 乃是賑恤穀, 故賑廳防塞矣. 可歎奈何. 此後方伯若申稟, 則或可蒙惠否. 餘萬忙擾, 草此. 只祈對時加毖. 伏惟照亮. 答狀上. 癸丑二月晦日.
壽興頓.

번역문

그리워하던 중에 홀연히 보내 주신 편지를 받고서 근래 편안하게 지내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매우 기쁘고 위로가 됩니다. 저는 병든 몸으로 분주히 정사에 종사하면서 그나마 거꾸러지는 것은 면하였으니, 가련하고 가련합니다.
새로운 수령[城主][1]이 외지에서 곧바로 부임하여 아직 부탁[稱念][2]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후로 만약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있으면 간청해 볼 생각입니다.
본부本府[3]에서 환곡을 거두어들이는 일은 변통할 곳이 없지는 않지만, 감면 받지 못했다는 것은 호조[地部]의 소관이 아니라 곧 진휼곡賑恤穀이기 때문에 진휼청賑恤廳이 막아야 것입니다. 한탄스럽지만 어이하겠습니까. 이후로 관찰사[方伯]가 만약 성상께 거듭 아뢴다면 혹 은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지요.
나머지 많은 말은 바쁘고 어수선하여 대강 이 정도로만 씁니다. 시절에 맞게 더욱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을 올립니다.
계축년(1673, 현종 14) 2월 그믐, 수흥은 머리를 조아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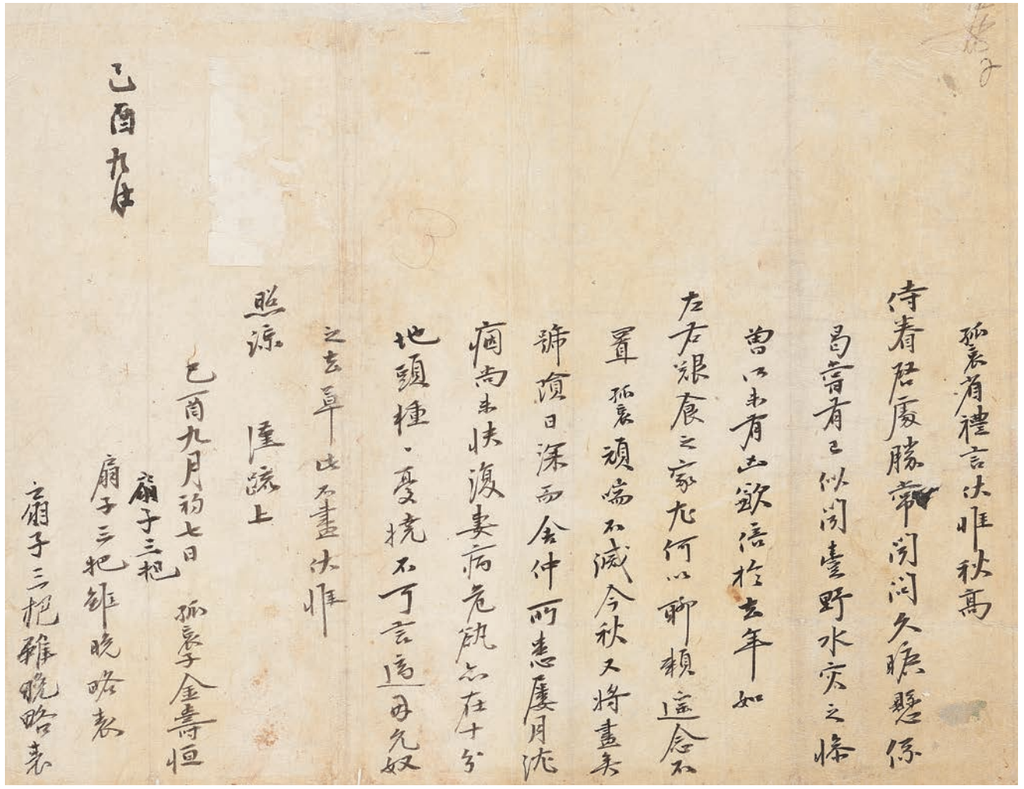
해 설

김수흥은 1655년 과거에 급제하여 1675년 유배되기 전까지는 순탄하게 관직 생활을 하였다. 이 편지는 김수흥이 호조판서로 있을 때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고 이에 답하는 편지이다. 진휼청은 흉년 등으로 굶주린 백성, 곤궁한 백성을 도와주는 진휼을 담당했던 관청이다. 평소에는 상평창이라 불렀으며 진휼을 시작하면 진휼청이라 고쳐 불렀다. 17세기 동아시아는 자연재해와 기근이 자주 발생했고, 진휼청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이 편지는 실제 생활에서 환곡과 진휼곡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려준다.

1 수령[城主]: 한 고을의 주인이란 뜻으로, 수령을 말한다.

2 부탁[稱念]: 관원이 외방에 나아갈 적에 고관들이 사적으로 은근히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成宗實錄』 9년 4월 8일 조에 "수령이 부임할 적에 그 지방 출신의 공경대부들이 그를 알든 모르든 간에 모두 술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전별하며 자기 노비들을 잘 봐 달라고 청하는 것이 상하 간에 풍속을 이루었는데, 이를 일러 칭념이라고 하였다.[凡守令之赴任也, 公卿大夫, 知與不知, 皆持酒肉而餞之, 請其奴婢完護, 上下成俗, 名之曰稱念.]"라는 말이 나온다.

3 본부本府: 이 당시 김수흥은 호조판서를 맡고 있었다.



2

김수항이 쓴 편지
(1669.9.7.)
金壽恒筆 簡札
Kim Suhang's Letter

12-2

원 문

孤哀省禮言. 伏惟秋高, 侍眷啓處勝常. 聞問久曠, 懸係曷嘗有已. 似聞豐野水灾之慘, 曾所未有, 凶歉倍於去年, 如左右艱食之家, 又何以聊賴. 遙念不置. 孤哀頑喘不滅, 今秋又將盡矣, 號隕日深. 而舍仲所患, 累月沈痼, 尙未快復, 妻病危飢, 亦在十分地頭, 種種憂撓, 不可言. 適因允奴之去, 草此不盡. 伏惟照諒. 謹疏上.
己酉九月初七日, 孤哀子金壽恒.

扇子三把, 雖晩略表.

번역문

고애자孤哀子는 예를 생략하고 말씀드립니다. 깊은 가을에 어버이를 모시고 가족을 돌보는 체후가 좋을 줄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식을 전하지 못한 것이 오래되었으니 그리움이 어찌 일찍이 그친 적이 있겠습니까.
얼핏 들으니 풍산豐山[1] 들판의 참혹한 수재水災는 예전에 없던 것으로 흉작이 작년에 비해 배나 된다고 하던데, 가난한 그대의 집안은 또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멀리서도 염려를 놓지 못합니다.
고애자는 모진 목숨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올 가을이 또 다하려 하니, 애통함이 날로 깊습니다.[2] 중씨仲氏[3]의 병은 몇 달간 질질 끌면서 아직도 낫지 않고 있고, 아내의 병 또한 위중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이니, 가지가지로 걱정스럽고 심란한 마음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침 윤노允奴[4]가 간다기에 대강 이 정도로만 쓰고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삼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편지를 올립니다.
기유년(1669, 현종 10) 9월 7일, 고애자孤哀子 김수항.

부채 3자루를 보내니, 늦긴 했지만 약소하나마 마음을 표합니다.

해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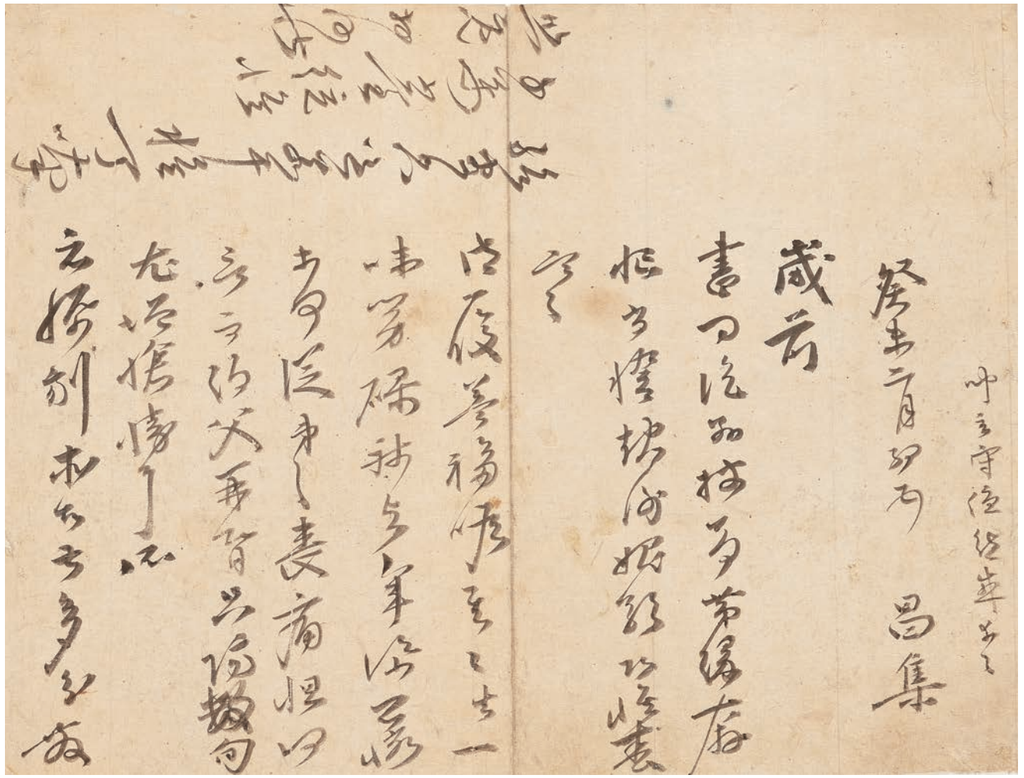
편지 앞머리의 "고애자는 예를 생략하고 말씀드립니다[孤哀省禮言]."는 상중喪中에 있으므로 편지 앞에 붙이는 인사말을 생략한다는 의미이다. 김수항은 이 편지를 보내기 1년 전인 1668년 2월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1669년은 장동 김문이 아직 정치적 부침에 휘말리기 전으로 생활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러난 편지들이 많이 전한다. 남공철이 소식의 편지를 읽고 내용의 대부분이 "대개 애도를 표하거나 병을 묻고 서로 헤어져서 소식을 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는 생활의 실제 고통이라기보다는 당시 편지의 일반적인 겸손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풍산豐山: 안동安東의 속현屬縣이다.

2 고애자는……깊습니다: 부모를 여의고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돌아가신 부모 생각에 슬픔을 느낀다는 말이다. 『예기禮記』「제의祭義」에 "서리와 이슬이 내렸을 때 군자가 그것을 밟게 되면 반드시 슬픈 마음이 일어나니, 추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봄에 우로가 내려 적셨을 때 군자가 그것을 밟게 되면 반드시 놀라는 마음이 있어서 장차 어버이를 다시 뵈올 듯이 한다.[霜露旣降, 君子履之, 必有悽愴之心, 非其寒之謂也. 春雨露旣濡, 君子履之, 必有怵惕之心, 如將見之.]"라고 하였다.

3 중씨仲氏: 김수항의 둘째형 김수흥金壽興을 가리킨다.

4 윤노允奴: 이름에 '윤' 자가 들어간 하인을 가리킨다.



3

김창집이 쓴 편지
(1703.2.5.)
金昌集筆 簡札
Kim Changjip's Letter

12-3

원 문

前書問, 訖玆披荷. 第緣奔忙, 尙稽報謝, 媿歎. 卽惟春寒, 侍履益福, 瞻慰瞻慰. 生一味勞碌, 病與年添, 悶憐奈何. 從弟之喪, 痛怛何言. 而伯父再朞, 只隔數旬,尤增愴慟耳. 所示臘劑等者甚多, 分散殆盡, 只送若干種, 可嘆. 千萬不宣. 統惟照亮. 拜謝狀.
癸未二月初五, 昌集.

聞主守優待, 感幸感幸.

번역문

작년 말에 보내 주신 안부 편지로 지금까지도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합니다. 다만 분주하고 바빠 아직도 답장을 미루고 있으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지금 봄추위에 어버이를 모시는 중에도 건강을 좋으시다고 생각하니 더욱 위로가 됩니다. 저는 내내 고달프고 용렬한데, 병이 나이와 함께 더해지니 근심하고 가련해 한들 어이하겠습니까.
종제從弟의 상은 애통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1] 백부伯父[김수증]의 두 번째 기일이 단지 수십 일이 남았으니 더욱 슬프고 애통할 뿐입니다.
말씀하신 납제臘劑[2]는 매우 많으나, 거의 다 나누어 주어 단지 몇 종류만 보낼 뿐이니, 안타깝습니다.
많은 말은 이만 줄이고 격식을 펴지 않습니다. 두루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절하며 답장을 보냅니다.
계미년(1703, 숙종 29) 2월 5일, 창집.

수령[主守][3]이 잘 대해준다고 하니 잘 대한다고 하니 매우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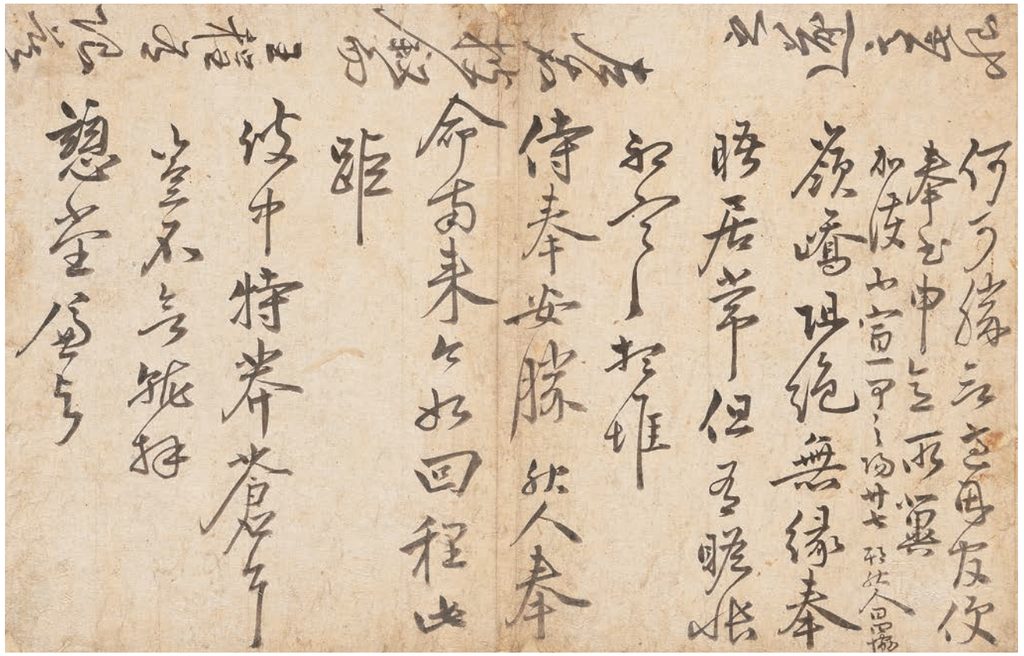
해 설

김창집은 영의정 등 고위 관직을 역임했지만 1722년 유배지에서 사사되어 현재 전하는 글이 많지 않다. 김창집의 문명으로 보면 다른 글들도 많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자 김원행이 시詩와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인 장주章奏 문자만을 정리하여 문집을 만들었다. 이는 당시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서간이나 다른 글은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김창집의 문집 『몽와집』에는 편지를 비롯한 그의 일상생활을 알 수 있는 글은 거의 전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김창집의 성향과 생활을 보여주는 이 편지들이 더욱 가치가 있다.

1 종제從弟의……있겠습니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할 때 김창직金昌直(1653-1702)이 부친상을 치르다 죽었기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종제'는 김수증金壽增의 셋째 아들 김창직을 말한다.

2 납제臘劑: 해마다 임금이 납일臘日, 곧 동지 뒤 세 번째 미일未日 즈음에 연로한 대신들이나 가까운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환약 형태의 상비약으로, 청심원淸心元, 안신원安神元, 소합원蘇合元 등이 있으며, 납약臘藥이라고도 한다.

3 수령[主守]: 주쉬主倅와 같은 말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고을의 수령을 일컫던 말이다.



4

김창협이 쓴 편지
(1684.10.27.)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12-4

원 문

嶺嶠阻絶, 無緣奉晤, 居常但有瞻悵. 初寒, 想惟侍奉安勝. 服人奉命南來, 今始回程, 此距彼中, 特莽蒼耳, 豈不欲就拜慈堂, 兼與左右披叙. 而王程有限, 莫之遂意, 恨何可勝言. 適因官便, 奉書申意. 所冀加護. 不宣.
甲之陽廿七. 期服人昌協.

번역문

영교嶺嶠[1]가 길이 막히고 끊어져 만나 뵐 길이 없으니, 늘 슬프기만 합니다. 첫 추위에 어버이를 모시는 근황은 편안하고 건승하십니까?
복인服人은 명을 받들어 남쪽으로 왔다가 이제야 돌아갑니다.[2] 이곳에 있는 저와 그곳에 있는 그대와의 거리가 다만 망창莽蒼[3]일 뿐이니 어찌 나아가 자당慈堂을 배알하고 겸하여 그대와 회포를 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왕정王程[4]에 기한이 있어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한스러움을 어찌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 관아의 인편이 있기에 편지를 보내 뜻을 폅니다. 몸을 더욱 잘 보호하기 바랍니다. 격식을 펴지 않습니다.
갑○년(1684, 숙종 10) 10월 27일, 기복인期服人 창협.

해 설

김창협은 1669년 진사시에 합격하지만 1675년 아버지 김수항이 예송논쟁에 패하여 전라도 영암으로 유배되자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영암으로 갔다. 1680년 아버지가 영의정에 제수되어 서울로 돌아오자 이때부터 과거를 준비하여 1680년 별시 초시에서 수석을 하고, 1682년 문과에 장원을 하며 관직 생활을 시작한다. 1684년 8월 김창협은 암행어사가 되어 영남지방을 살피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이 편지는 서울로 올라가면서 쓴 편지이다.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만나지 못해 아쉽다는 언급에서 영남 지역의 사람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된다. 김창협의 문집인 『농암집』에는 편지가 많이 수록되어 있지만 학문과 사상을 토론한 편지가 대부분이고 관직 생활 초기의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편지는 중요하다.

1 영교嶺嶠: 영嶺은 고개, 교嶠는 뾰족하고 높은 산의 의미로, 산이 높고 고개가 많은 지역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영남嶺南 지역을 말한다.

2 복인服人은……돌아갑니다: 1684년(숙종 10) 8월에 김창협이 암행어사가 되어 영남嶺南을 염찰하러 왔기에 한 말이다.

3 망창莽蒼: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 『장자』「소요유逍遙遊」에 "가까운 교외에 가는 자는 세 끼 밥만 가지고 갔다가 돌아와도 배가 여전히 부르고, 백 리를 가는 자는 전날 밤에 양식을 찧어서 준비해야 하고, 천 리를 가는 자는 삼 개월 전부터 양식을 모아야 한다.[適莽蒼者, 三飡而反, 腹猶果然, 適百里者, 宿舂糧, 適千里者, 三月聚糧.]"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4 왕정王程: 왕사王事를 위해 분주하는 여정旅程, 곧 사신 길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김창협이 영남을 염찰한 뒤 서울로 올라가는 길을 말한다.

김수흥이 쓴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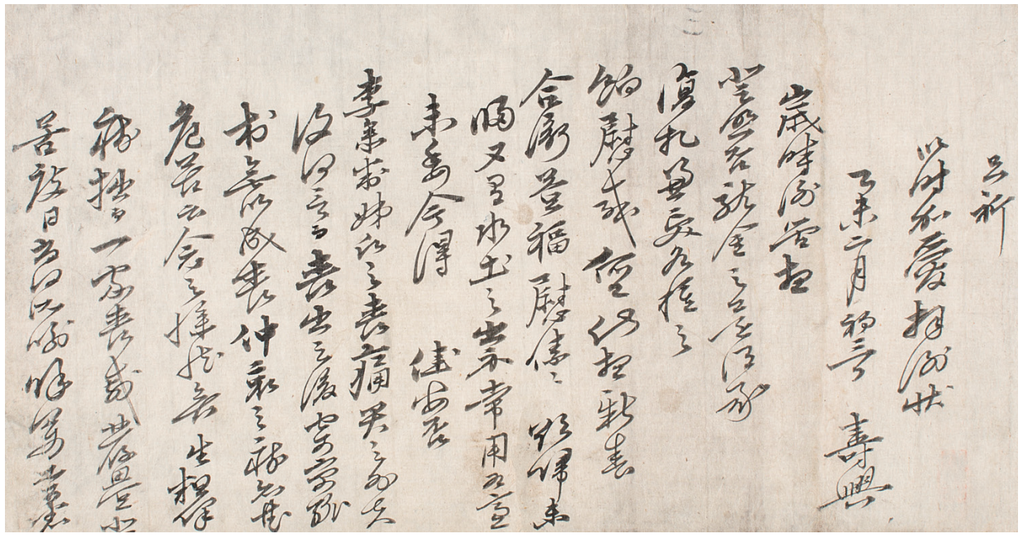
金壽興筆 簡札

Kim Suheung's Letter

13

김수흥
조선, 1655년 2월
간찰, 종이에 먹, 34.4×59.0cm
구7219

Kim Suheung
Joseon Dynasty February 1655
Ink on paper, 34.4×59.0cm
koo 7219



원 문

歲時謝簡, 想登照否. 龍金之還, 得承復札, 兼受各種之餉, 慰感何已. 仍想新春, 合衙益福, 慰傃慰傃. 欲歸未歸, 又有水土之祟, 常用爲慮, 未委今得佳安否. 李叅判姊氏之喪, 痛哭之外, 夫復何言. 喪出之後, 寄寓孤村, 無以成喪, 仲哀之病, 亦甚危苦云, 念之慘然矣. 生粗保病拙, 而一家喪戚荐疊, 悲苦度日, 尙何所喩. 餘萬不可悉.只祈以時加愛. 拜謝狀.

己未二月初三日, 壽興.

번역문

세시에 보낸 답장은 받아보셨는지요? 용금龍金이가 돌아오는 편에 보내 주신 답장을 받고 겸하여 각종의 음식을 받았으니 위로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이어 새 봄에 합아閤衙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실 줄로 생각되니 매우 위로되고 그립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고 또 풍토병까지 있다 하여 늘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해졌는지요?

이참판李叅判의 누님 상喪은 통곡하는 것 외에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상사喪事 발생한 후에 아직까지 외딴 마을에 붙어 있어 상을 치루지 못하고 있고, 중애仲哀[1]의 병도 매우 위독하다고 하니, 이를 생각하면 참담하기만 합니다.

저는 병들고 졸렬한 몸을 그럭저럭 보존하고 있는데 집안의 상사喪事가 연이어져 비통함과 괴로움으로 날을 보내고 있으니, 외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머지는 할 말이 많지만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시절에 맞게 더욱 자애自愛하시기 바랍니다. 절하고 답장을 올립니다.

기미년(1679, 숙종 5) 2월 3일, 수흥.

해 설

김수흥의 문집인 『퇴우당집』에는 총 32통의 편지가 있다. 정치적 동반자인 송시열宋時烈, 이단상李端相, 박세채朴世采, 이희조李喜朝 등에게 보낸 편지와 아들 김창열金昌說과 며느리에게 준 글이 인물별, 연도별로 편차되어 있다. 그 중 22편이 송시열에게 보낸 편지로, 정책과 정치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송시열의 문집에는 송시열이 김수흥에게 보낸 편지가 120여 편이나 수록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저자의 문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많은 편지가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수흥의 일상 감정을 보여주는 이 편지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

Collected Works of Kim Suheung (退憂堂集) includes a total of thirty-two letters by Kim Suheung, organized by the recipient and date. The recipients include his political colleagues (e.g., Song Siyeo, Yi Dansang, Bak Sechae, and Yi Huijo), as well as his son Kim Changyeol and his daughter-in-law. Twenty-two of the letters were sent to Song Siyeol, most of which discuss politics and government policies. Notably, about 120 letters that Song Siyeol wrote to Kim Suheung have been published in various compilations of Song's writings. This would seem to suggest that many of Kim Suheung's letters were lost and thus not included in this publication. As such, this letter, in which Kim describes some of his own emotions, is an invaluable resou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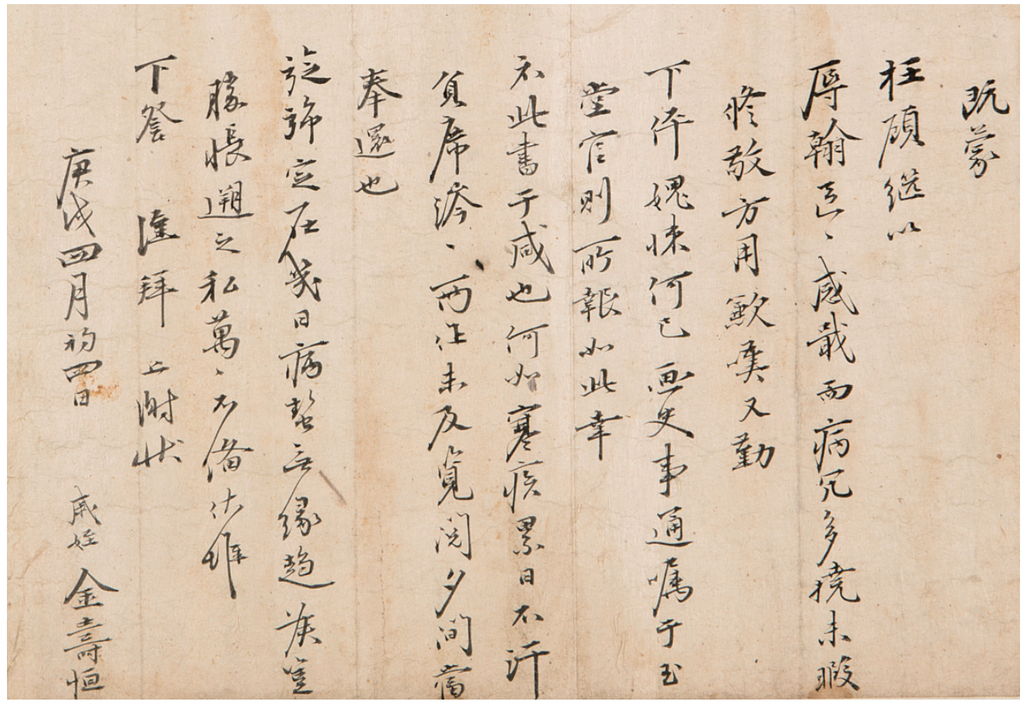
1 중애仲哀: 맏상주의 동생을 말한다.

김수항이 쓴 편지
金壽恒筆 簡札
Kim Suhang's Letter

14

김수항
조선, 1670년
간찰, 종이에 먹, 34.7×37.3cm
구7256

Kim Suhang
Joseon Dynasty 1670
Ink on paper, 34.7×37.3cm
koo 7256



원 문

旣蒙枉顧, 繼以辱翰, 區區感戢, 而病冗多撓, 未暇修敬, 方用歉嘆, 又勤下伻, 媿悚何已. 畫史事, 通囑于玉堂官, 則所報如此, 幸示此書于咸也, 何如. 寒疾累日不汗, 負席涔涔, 兩作未及覽閱, 夕間當奉還也. 旋旆定在幾日. 病蟄無緣趨侯, 豈勝悵遡之私. 萬萬不備. 伏惟下察. 謹拜上謝狀.
庚戌四月初四日, 戚姪 金壽恒.

번역문

이미 왕림하시고 이어서 편지까지 보내주시니 구구한 저의 마음에 매우 감사합니다만, 병과 잡무로 매우 어수선하여 답장을 쓸 겨를이 없어 한창 탄식하고 있었는데, 또 심부름꾼을 보내시니 부끄럽고 죄송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화사畫史에 관한 일은 옥당[홍문관]의 관원을 통해 부탁하였는데 답한 것이 이와 같았으니, 부디 함咸[1]에 이 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기는 며칠 동안 땀을 흘리지 못해 자리에 누워 골골하고 있느라 두 작품[2]을 아직 보지 못했으니 저녁 무렵에 응당 돌려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는 날은 며칠로 정했는지요? 병으로 칩복하고 있어 달려가 뵐 수 없으니, 슬프고 그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많은 말은 이만 줄이고 격식을 갖추지 않습니다. 삼가 굽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절하고 답장을 올립니다.
경술년(1670, 현종 11) 4월 4일, 척질戚姪 김수항.

해 설

김수항이 1670년에 쓴 편지이다. 이 당시 김수항은 부친상을 마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던 시기이다. 누군가가 그림 작품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몸이 아파서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저녁에는 돌려주겠다는 내용이다.

—

This letter was written by Kim Suhang in 1670, while he was on hiatus from government work after his father's funeral. The letter is a response to an unknown recipient, who had apparently written earlier to ask Kim to appraise a painting. After stating that he has not yet been able to examine the painting due to his poor health, Kim assures the recipient that he will set to the task and return the painting that evening.

1 함咸: 미상이나 지명에 '함' 자가 들어있는 곳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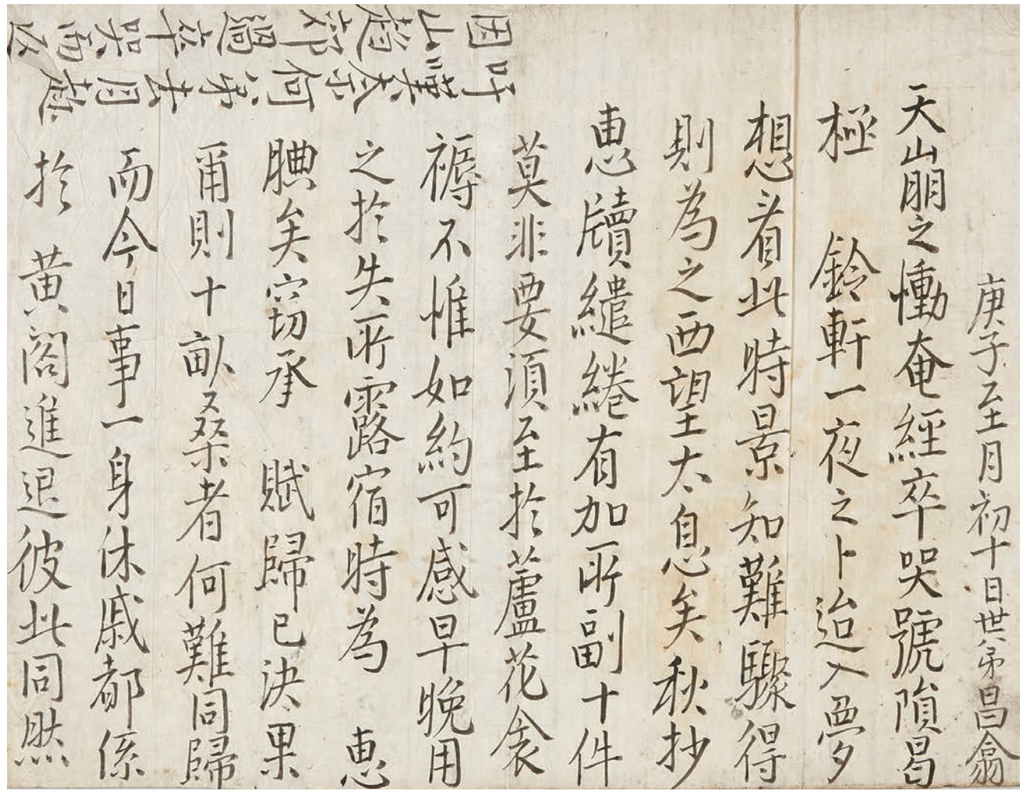
2 두 작품: 앞부분에 화사畫史와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고려할 때 그림 2점으로 판단된다.

김창흡이 쓴 편지
金昌翕筆 簡札
Kim Changheup's Letter

15

김창흡
조선, 1720년
간찰, 종이에 먹, 36.1×47.5cm
구9602

Kim Changheup
Joseon Dynasty 1720
Ink on paper, 36.1×47.5cm
koo 9602



원 문

天崩之慟, 奄經卒哭, 號隕曷極. 鈴軒一夜之卜, 迨入夢想. 看此時景, 知難驟得, 則爲之西望, 太息矣. 秋抄惠牘, 繾綣有加, 所副十件, 莫非要須. 至於蘆花衾褥, 不惟如約, 可感. 早晚用之於失所露宿時, 爲惠腆矣. 窃承賦歸已決. 果爾, 則十畝桑者, 何難同歸, 而今日事, 一身休戚, 都係於黃閣. 進退彼此同然, 吁嘆奈何. 弟去月, 趍因山趨郊, 過卒哭而返. 庚子至月初十日, 世弟 昌翕.

번역문

국상國喪[숙종 승하]의 애통함이 벌써 졸곡卒哭을 지나니 이 통곡을 어찌 다할까요? 그대와의 하루 이야기는 지금까지 그리운 마음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경치는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서쪽을 바라보며 크게 탄식합니다. 늦가을에 보내 주신 편지가 곡진함을 더한데다 보내 주신 10건은 매우 요긴한 것입니다. 갈대꽃 이불과 요 같은 경우 약속한 것보다 더하기에 매우 감사합니다. 조만간 정처 없고 노숙할 때 사용한다면 은혜의 두터움을 느낄 것입니다. 귀향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십묘의 뽕나무를 그리워하는 자가 함께 귀향하는 것이 어찌 어려운 것이겠습니까마는 지금의 일은 제 한 몸이 모두 황각黃閣[의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진퇴가 피차 마찬가지이니 탄식한들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지난달 인산因山에 갔다가 교외로 나가 졸곡을 마치고 되돌아왔습니다.
경자년(1720, 숙종 46) 11월 10일, 세제世弟 창흡.

해 설

김창흡이 68세에 쓴 편지이다. 집안 간에 교유하던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상대방 보다 나이가 어리면 세제世弟, 많으면 세형世兄이라 불렀다. 국왕이 돌아가셔서 매우 슬프지만, 그대의 편지를 받아 그리움이 해소되어 고맙다고 하며 편지 받는 이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 이때 김창협은 중부仲父 김수증이 머물렀던 강원도 화악산의 곡운谷雲 계곡에 은거하고 있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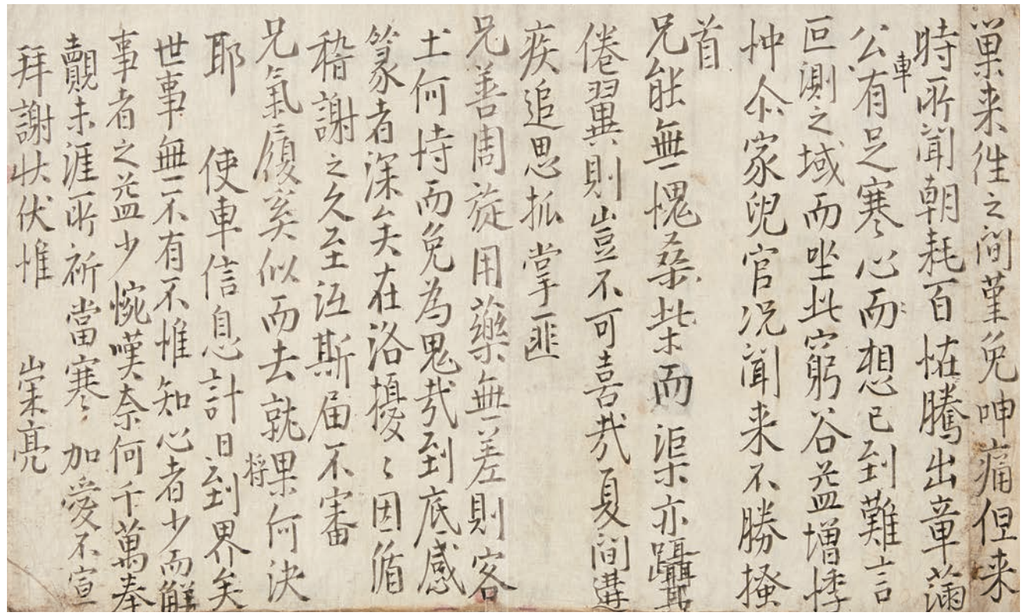
This letter was written by Kim Changheup (then age sixty-seven) in 1720, the year that King Sukjong died. Although the recipient is unknown, the letter seems to be part of a heartfelt correspondence with a friend or family member. Kim writes that his grief over the king's death was temporarily relieved when he received the previous letter from the unknown recipient, and also expresses his concern for the recipient's health.

김창흡이 쓴 편지
金昌翕筆 簡札
Kim Changheup's Letter

16

김창흡
조선, 18세기
간찰, 종이에 먹, 33.8×56.0cm
구9603

Kim Changheup
Joseon Dynasty 18th century
Ink on paper, 33.8×56.0cm
koo 9603



원 문

巢來往之間, 僅免呻痛, 但來時, 所聞朝耗, 百怪騰出, 章滿公車, 有足寒心, 想已到難言叵測之域而, 坐此窮谷, 益增悸忡尒, 家兒官況, 聞來不勝搔首, 兄能無愧柴桑, 而渠亦躡其倦翼, 則豈不可喜哉. 夏間遘疾, 追思孤掌, 匪兄善周旋, 用藥無差, 則客土何恃, 而免爲鬼哉. 到底感篆者深矣. 在洛擾擾因循稽謝之久, 至迂斯屆, 不審兄氣履奚似, 而去就果何決耶. 使車信息, 計日將到界矣. 世事無不有, 不惟知心者少, 而解事者之益少, 惋嘆奈何. 千萬奉覿未涯, 所祈當寒加愛, 不宣. 拜謝狀, 伏惟崇亮.

번역문

(앞부분이 잘렸음) 소巢를 왕래하는 사이 겨우 병의 고통은 면하였습니다. 다만 올 때에 조정 소식을 들으니 온갖 해괴한 것들이 다 나와 소장疏章이 공거公車[승정원]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하다고 할 만 하지만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러한 궁벽한 골짜기에 앉아있으니 더욱 답답함만 더할 뿐입니다. 우리 집 아이의 벼슬살이[아들 김양겸金養謙, 문화현령文化縣令]를 듣자하니 걱정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형이 시골 사람들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그 아이 또한 벼슬을 관두는 길을 간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여름 사이 병에 걸렸을 때 형이 주선을 잘해서 오차 없이 약을 쓴 것이 아니었다면 객지에서 누굴 믿으며 귀신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밑바닥까지 감사한 마음 깊습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보내며 타성에 젖어 지냄에 오래도록 답장을 미루다 보니 한겨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형의 건강은 어떠하신지, 거취는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신의 소식은 날을 헤아려 보니 막 경계에 도착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사 온갖 일 중 오직 마음을 알아줄 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일을 풀 수 있는 자는 더욱 적으니 탄식한들 어찌하겠습니까? 천만 번 편지 읽는 것이 다함이 없습니다. 추위에 건강에 더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답장의 격식을 다 갖추지 못합니다. 삼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해 설

뒷부분만 남은 편지이다. 김창흡은 산수 유람을 좋아하고 과거와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명문가인 가문의 특성상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지 못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아버지가 진도에서 사사되자, 경기도 영평에 은거하였다. 평생 처사로 살았던 김창흡은 이 편지에서도 아들 양겸의 벼슬살이에 대해 걱정하며 그만두었으면 하는 바람을 보이고 있다. 『경종실록景宗實錄』의 김창흡 졸기를 함께 소개한다.

> 처사處士 김창흡金昌翕이 졸卒하였다. 김창흡의 자字는 자익子益으로,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이다. 젊어서부터 지기志氣가 탁월하였고, 고체시古體詩를 즐겨 지었는데, 『시경詩經』 3백 편에서부터 아래로 성당盛唐의 이백李白·두보杜甫와 송宋·명明의 제가諸家에 이르기까지 모두 섭렵하여 시가의 으뜸[宗匠]이 되었다. …(중간 생략)… 성리학性理學을 즐겨 읽어서 만년晩年에 다시 깊고도 높은 경지를 이룩했다. 설악산雪嶽山 아래에 집을 짓고 살았다.

—

Although Kim Changheup had little interest in a political career, he took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t his father's insistence. He passed the literary licentiate examination in 1673, but never took any of the higher exams. While both his father (Kim Suhang) and elder brother (Kim Changjip) were major political figures of the time, Kim Changheup had no such ambitions, and thus tried to keep his distance from their political activities. In 1689, after his father was executed by poison, Kim Changheup went into seclusion in Yeongpyeong.

III

사대부 문화를 선도하다

Leaders of Literati Culture

개요

3장에서는 17세기 서울 사대부 문화를 이끈 장동 김문의 예술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김상용은 외할아버지 정유길鄭惟吉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이어받아 전서篆書와 문장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였지만, 병자호란 때의 충절에 가려져 비교적 주목받지 못하였다. 김상헌은 인장印章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미수眉叟 허목許穆(1595-1682)과 함께 조선 후기 인장 문화를 이끌었다. 김상헌의 아들 김수증은 선대先代의 가풍家風을 이어 서예에 힘써 예서隸書의 일가一家를 이루었으며, 그가 제작한 『곡운구곡도첩谷雲九曲圖帖』은 장동 김문의 사상적 지향과 예술적 역량을 보여준다. 유배지에서 사사賜死당한 아버지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본 김수항의 아들들은 "청요직淸要職에 나가지 말고 학문에 힘쓰라."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학문에 힘썼고 17세기 사대부 문화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 바탕에는 절의節義, 도학道學, 문장文章을 대표하는 가문이라는 정신적 자부심이 있었으며, 이는 구성원을 묶어주는 내면의 힘이 되었다.

During a time of political turmoil, the Jangdong Kim clan shifted its focus to studying and writing as the source of long-term political power. Beginning with Kim Sujeung (1624-1701), they dedicated themselves to scholarly and literary pursuits, emerging as leaders of the art field. For example, the six sons of Kim Suhang (i.e., Changjip, Changhyeop, Changheup, Changeop, Changjeup, and Changrip) became esteemed writers and calligraphers, who also realized some of the most important philosophical achievements of the time.
Through various artworks by members of the Jangdong Kim clan, this chapter traces the clan's profound influence on the culture of Seoul in the late Joseon period.

김상용이 전서를 쓴 행주대첩비 탑본

幸州大捷碑搨本

Album of Rubbings from the Stele of the Battle of Haengju

17

글씨(전서) 김상용
조선, 1602년
첩, 탑본, 각 면 35.1×24.4cm
구2294

Kim Sangyong (calligraphy)
Joseon Dynasty 1602
Rubbings on paper, 35.1×24.4cm (each page)
koo 2294

행주대첩비 세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4호

행주대첩비각

해 설

1593년(선조 26)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물리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1602년(선조 35)에 설립한 비석이다. 최립崔岦이 글을 짓고 한호韓濩가 글씨를 썼으며, 김상용이 '元帥權公幸州大捷碑(원수권공행주대첩비)' 9자를 비석 상단에 전서로 썼다. 비석의 뒷면은 사위인 이항복李恒福이 짓고, 김현성金玄成이 썼다. 아쉽게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임진왜란 승전비勝戰碑인 이 비문碑文을 훼손시켜 글씨를 알아보기 어렵지만, 탑본첩이 남아 있어 글씨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 김상용의 서예와 문장을 보여주는 글을 이어 소개한다.참고17-1,2

This album contains rubbings of the inscriptions from a stele to commemorate the victory of the Battle of Haengju in 1593 (twenty-sixth year of King Seonjo), led by General Gwon Yul. To create this stele, Yi Hangbok (李恒福, 1556-1618), the son-in-law of Gwon Yul, gathered some of the most renowned figures in literature and calligraphy. Thus, the stele's inscription was composed by Choe Rip (崔岦, 1539-1612) and written in calligraphy by Han Ho (韓濩, 1543-1605). In addition, the main title on the top of the stele — "元帥權公幸州大捷碑" ("Stele of the Battle of Haengju Led by General Gwon Yul") — was written in seal-script calligraphy by Kim Sangyong.

厚之教之所敎歟。崇禎紀元己卯臘月日。弟尙憲謹跋。

題伯氏書跡帖

伯氏歿後。平生翰墨。並逸於兵火。不可復覩。人琴俱亡之痛。於是益甚。適從孫壽弘。得全其巾箱中所貯遺札如干紙。裝爲一卷。屬余題識。伯氏始游藝以書名。中更內外。以政術顯。未乃棄身殉國。以節義著。自是而亡。以藝術稱。豈非以重者爲之掩也。古人云右軍書掩其人。伯氏可謂人掩其書矣。雖然。重其人。宜無所不重。以此眡於後曰。此某公之書。則其有不寶於拱璧者乎。開卷摩挲一玩。一潸。書此以與之。崇禎庚辰季秋日。西磵老人識。

題尹洗馬敬之飲中八仙圖

丹青家與詞翰家相通。自古詩人雅流多嗜之。每遇四時開日。焚香靜坐。掀几展對。往往神融意會。有境外之趣。令人可以養氣。可以蠲煩。謂之秘苑清寶者非耶。雖然。察人前難。說夢此。可與知者道也。

題李上舍擇芳園春讌圖

癸未夏。余寓潛陽之質館。病暑卧久。東道偶携此

참고 17-1
큰 형이 남긴 서첩에 쓰다
題伯氏書跡帖

김상헌
『청음선생집』 권39
조선, 1640년경
책, 목판본, 30.5×20.2cm
구9569

번역문

(앞부분 생략)

백씨가 처음에 예원藝苑에서 노닐 적에는 글씨로 이름이 났고, 중간에는 여러 관직을 역임하며 정치로 이름이 드러났으며, 말년에는 목숨을 버려 순국해 절의節義로써 드러났다. 그 이후부터는 글씨와 정치에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절의가 글씨와 정치를 가린 것이 아니겠는가. 옛사람이 말했다. "왕희지[右軍]는 글씨가 그 사람을 가렸다." 백씨의 경우에는 사람이 그 글씨를 가려 버렸다고 할 만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중요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을 후세 사람에게 보이면서 이것은 아무개의 글씨라고 하면, 이것을 옥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서첩을 펼쳐 어루만지면서 한 번 감상할 적마다 눈물을 흘리고는 이 글을 써 주었다.

숭정 경진년(1640, 인조 18) 9월 어느 날에 서간노인西磵老人이 쓰다.

해 설

김상용은 국가 행사에서 전문서사관篆文書寫官으로 여러 차례 활동했다. 송시열, 송준길 등과 함께 비갈명의 두전頭篆을 쓴 것이 수십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2

1

참고 17-2
『선원유고』 서문
『仙源遺稿』序

신익성申翊聖(1588-1644)
『선원유고』 상
조선, 1640년 간행
책, 목판본, 20.0×17.0cm
한국문집총간65

번역문

(앞부분 생략)

아! 세상 사람들은 선생의 덕에 대해서는 이름을 높일 줄 알지만 선생의 시문詩文에 대해서는 이름을 높일 줄 모른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시문으로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선친께서는 선생의 시를 오늘날 사람의 경지를 넘은 것이라 여기셨다. 세상에 종자기鍾子期가 백아伯牙를 만나는 것과 같은 지음知音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음이 어찌 많겠는가. 선생께서 남긴 글은 전쟁을 겪으면서 많이 사라지고 아주 조금만 남아있지만, 그 핵심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직접 쓰신 묘지명은 간결하면서 법도가 있고, 앞뒤로 쓴 봉사封事는 뜻이 군왕을 바로잡는 데 있으니 세상의 도와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고체시古體詩와 근체시近體詩는 맑으면서도 윤기가 흘러 시법詩法에 합치하고, 말이 이치에 부합한다. 이 시들이야말로 바른 마음[性情]에서 나와 온유돈후溫柔敦厚한 데로 돌아간 것이 아니겠는가? 이 문집이 세상에 알려지면 세상 사람들 중 선생의 시문에 대해 이름을 높일 줄 몰랐던 이들도 선생이 시문으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자 했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해 설

신익성은 조선 중기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 중 한 명인 신흠의 아들이자 선조宣祖(재위 1567-1608)의 의빈儀賓이었으며, 김상용과 함께 전서篆書의 대가였다. 신흠과 김상용은 어렸을 적부터 교유하던 사이로, 예술에 뛰어났던 신익성은 자연스럽게 김상용 서예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신익성도 강력한 척화론자로 청나라 심양에 한동안 억류되는 등 평산平山 신문申門과 장동 김문은 정치적 성향도 비슷하였다.

군옥소기
璽玉所記
Culture of Seals

18

김상헌
『청음선생집』 권38
조선, 17세기
책, 목판본, 30.5×20.2cm
구9569

Kim Sangheon
Collected Works of Kim Sangheon (淸陰先生集)
Joseon Dynasty 17th century
Woodblock printing on paper, 30.5×20.2cm
koo 9569

「군옥소기」에 소개된 김상헌의 인장 ©한국고전종합DB

원 문

淸陰居士有章數十枚. 欹劚次玉, 纍纍滿函, 燦然爛然, 巾之襲之, 閣之于金臺之山石室之內, 命曰群玉之所. 居士性樸拙, 平生無玩好; 無藏畜, 獨於此嗜之, 若淫者之好好色, 雖有他好, 不與易也. 每章隨質異形, 隨形異篆, 隨篆異勢, 異有不異, 同有不同. 方以盡矩, 員以盡規. 長者欲其狹而細, 大者欲其莊而儼. 瘦不失之疏, 豐不失之密. 曲而不畔於直, 奇而不害於正, 皆法也. 依形肖貌, 各有題品, 疵美具著瑕瑜不掩. 常遇晴檐暖日, 掃席拂几, 陳列左右, 摩挲手弄, 眞藝苑之淸玩, 文房之祕珍也.

其一曰某印者, 居士姓名也. 厥形方, 厥篆錯, 厥畫陽. 四字之中三字大一字細, 而狀類之玄, 有地道變盈流謙之象.

次曰叔度者, 居士字也. 厥形同上, 厥書大篆, 厥畫陰. 古而不華, 如董江都學問非不純正而少精采.

曰淸陰者, 居士號也. 方形也, 玉筯也, 陽畫也. 其象如二童子綴耦, 間植玉戚, 周庠舞勺, 幼儀可觀.

曰兩朝經筵近臣者, 其形方而袤與上同. 篆也陽也. 資狀端正, 如霍子孟進止有常, 不失尺寸.

曰明哲保身者, 變倒薤法也, 方也陽也. 幽姿帶露, 如鮫女泣別, 點點成珠.

曰萬頃陂水者, 蚪蚪也錯也方也陽也. 首尾相銜, 橫亘不斷, 如河出崑崙, 貫中國而入于海.

曰太白山人者, 形方也篆上方也, 畫陰畫也. 陰體豐而極肥, 陽界微而僅辨. 宛然素質, 如楊子雲閉門草玄, 終歸尙白.

曰住世道人者, 變小篆也, 陽也. 形與上同. 疏爽正直, 如骨鯁之士, 惡圓喜方.

曰閑居有味者, 大篆也, 陽畫也, 形與上同. 體胖色腴, 如道德和順, 充實而有光輝之美.

曰正坐看書者, 陽之極, 細爲碧落者也. 一循古法, 不雜新奇, 如孟子論王道, 世俗謂之迂闊.

曰翠庭者, 鳥跡而陽者也. 綽約姸媚, 而鋒鋩凜然, 如孫夫人帳下, 茜裙雪鐸.

曰松柏堂者, 重陽成畫, 是謂刻符者也. 其外則滿, 其中則空, 如老氏之役, 虛心而實腹者.

曰一釣舟者, 兩儀體也. 陰變欲陽, 陽變欲陰, 若有若無, 如雷音設敎, 似空非空.

曰白鷗沙者, 雜體也, 陽也. 恢奇卓詭, 迥拔常倫, 如曾點氣象, 鳳翔千仞.

曰江山之助者, 陽也, 形小者也. 字字豪爽, 如李供奉長不滿七尺, 而仙風道骨, 有凌霄漢出宇宙之氣.

曰一塵不到處者, 形與上六者同. 方而以大間小, 錯也陽也, 旁四字極細密, 中一字奇崛非常, 如海賈鐵網中, 七尺珊瑚樹.

曰無俗軒竹映琴書者. 形一圜字七陽, 圜爲乾象, 七爲斗數, 如北斗懸空, 斟酌元氣.

曰岳北道人雲壑裏者, 形外天內地. 字陽包陰, 出奇破體, 如謝幼輿縱意適情, 不拘繩檢.

曰淸風滿室左右竹林者, 書同也, 錯同也. 形方而長. 尊陽嫐於卑陰, 如謝太傅雙携婉娩, 淸標雅操, 不嫌風流.

曰再鳴以文, 賜暇東湖者, 一體分形, 上陽下陰, 長之類也. 天先於地, 柔承乎剛, 如子都, 少君共一鹿車, 淸苦之節, 溫和之容, 見者悅慕.

曰有恒齋, 曰風雅遺音, 曰自是一王法, 曰隔千里共明月, 如此者凡八九枚, 字皆瘦, 形皆長, 如錢樞密廷諍獨立不去. 又有一古器, 不知何名. 上安博山, 山下有臺, 臺有雙股垂而人立. 竄識曰焚香默坐. 蓋比之盤孟之有銘, 而書愈密畫愈細, 如衛武公之自脩, 如切如磋, 治之已精而益求其精者也.

茲其表表可述者, 此外若干枚, 箇箇精好, 如入王, 謝家, 階庭所見, 無非芝蘭玉樹, 不可殫狀. 嗚呼, 非盡圖書之妙者, 其孰能與論於此乎. 聊記之, 與同好者共之.

1 청완淸玩: 청아한 아취를 가진 노리개란 뜻으로, 서화書畫나 금석金石, 고기古器 등 완상할 만한 사물을 가리킨다.

2 김상헌인金尙憲印이라고……있다: 착錯은 전각을 새기는 장법章法 가운데 하나로, 반착盤錯이라고 한다. 착은 교차한다는 의미로서 인문印文이 한 덩어리로 뒤섞여 나타나도록 필획을 구부리거나 서로 교차시켜 생동감을 불어넣는 기법을 말한다. 양각陽刻은 글자가 도드라지게 새긴 것이다. 지도地道는 땅의 도로서, 『주역周易』 「겸괘謙卦 단彖」에. "하늘의 도는 가득 찬 것을 이지러지게 하고 겸손謙巽한 것을 더해 주며, 땅의 도는 가득 찬 것을 변하게 하고 겸손한 데로 흐르며, 귀신은 가득 찬 것을 해치고 겸손한 것에 복을 준다.[天道 虧盈而益謙 地道 變盈而流謙 鬼神 害盈而福謙.]" 하였다.

번역문

청음거사淸陰居士에게는 인장印章이 수십 개가 있다. 옥에 아로새긴 것이 차곡차곡 함 속에 가득하여 찬란한데, 그것들을 여러 겹으로 잘 싸서 금대산金臺山에 있는 석실 안에 보관한 다음, 옥들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뜻인 '군옥지소羣玉之所'라고 이름 붙였다. 거사는 천성이 질박하고 솔직하여 평소 취미를 가지고 수집하는 것이 없지만, 유독 이것만은 아주 좋아하여 바람둥이가 미녀를 좋아하듯 아무리 다른 좋은 것이 있더라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각 인장마다 재질에 따라 형태가 다르고, 형태에 따라 새긴 전서篆書의 서체가 다르며, 전서의 서체에 따라 필세筆勢가 다르지만, 다른 가운데 다르지 않은 것이 있고, 같은 가운데도 같지 않은 점이 있었다. 방형으로 된 것은 곱자의 제도를 다하였고 원형으로 된 것은 걸음쇠의 제도를 다하였다. 긴 것은 날렵하고 가늘게 하고자 하였고, 큰 것은 장중하고 근엄하게 하고자 하였다. 마르면서도 엉성한 잘못이 없게 하고자 하였고, 풍만하면서도 밀집된 잘못이 없게 하고자 하였다. 굽어 있으면서도 곧음과 어긋나지 않게 하고자 하였고, 기이하면서도 바름을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모두 법도에 맞게 하였다.

형태와 모양에 따라 각자 등급을 나누었는데, 흠과 아름다움을 모두 드러내고, 잡티와 색채를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는 항상 맑은 날 처마에 따스한 햇빛이 비추면 자리를 쓸고 책상의 먼지를 턴 다음 그것들을 좌우에 진열하여 놓고 요리조리 손으로 어루만져 보았는데, 참으로 예원藝苑의 청완淸玩[1]이요 문방文房의 비보秘寶들이었다.

'김상헌인金尙憲印'이라고 새긴 것은 거사의 성명을 새긴 것이다. 그 형태는 방형이고 그 전서는 착錯이며 그 획은 양각이다. 네 글자 가운데 세 글자는 크고 한 글자는 작다. 그러나 형상의 미묘함은 지도地道가 변화해 가득 차서 겸謙으로 흐르는 상이 있다.[2]

'숙도叔度'라고 새긴 것은 거사의 자字를 새긴 것이다. 그 형태는 위와 같이 방형이고 그 서체는 대전大篆이며, 그 획은 음각이다. 고풍스러우면서 화려하지 않아 마치 동강도董江都의 학문이 순정純正하면서도 정채精彩로움이 적은 것과 비슷하다.[3]

'청음淸陰'이라고 새긴 것은 거사의 호를 새긴 것이다. 방형이며, 옥저玉箸이며, 양획陽劃이다. 그 형상은 마치 두 어린아이가 짝을 지어 옥척玉戚을 세워 두고 주상周庠에서 작勺에 맞추어 춤을 추는데 그 앳된 모습이 볼만한 것과 비슷하다.[4]

'양조경연근신兩朝經筵近臣'이라고 새긴 것은 그 형태는 방형이며, 길이는 위의 것과 같다. 전서篆書이며 양각이다. 바탕과 모양이 단정하여 마치 곽자맹郭子孟이 나아가고 물러남에 있어서 일정함이 있어 한 치의 실수도 없는 것과 비슷하다.[5]

'명철보신明哲保身'이라고 새긴 것은 변형된 도해법倒薤法이며, 방형이고 양각이다. 은은한 자태에 이슬을 머금고 있는 것이 마치 교녀鮫女가 이별의 눈물을 흘릴 때 눈물방울이 알알이 진주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6]

'만경피수萬頃陂水'라고 새긴 것은 과두체蝌蚪體이며, 착이며, 방형이며, 양각이다. 시작과 끝이 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뻗어 나가는 것이 마치 황하黃河가 곤륜산崑崙山에서 나와 중원中原을 관통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7]

'태백산인太白山人'이라고 새긴 것은 형태는 방형이고 전서는 상방上方이며, 획은 음각이다. 음각한 글자의 모양이 풍만하여 아주 살지고, 양각의 계선界線은 희미하여서 겨우 분간할 수가 있다. 부드러우면서 꾸밈이 없는 것이 마치 양자운楊子雲이 문을 닫아걸고 『태현경太玄經』을 쓰다가 마침내 그대로 백색으로 돌아간 것과 비슷하다.[8]

3 숙도叔度라고……비슷하다: 숙도는 청음의 자이다. 대전大篆은 서체의 하나로, 주周나라 선왕宣王 때 사주史籀가 만들었다고 한다.
동강도董江都는 동중서董仲舒이다. 동중서는 하늘과 사람은 서로 감응한다는 요지로 대책을 올리면서 육예六藝의 과科와 공자孔子의 학술을 배우지 않은 자는 등용하지 말라고 건의하자, 무제가 동중서를 강도상江都相으로 임명하였다.

4 청음淸陰이라고……비슷하다: 옥저玉箸는 소전체小篆體의 하나로, 옥저玉箸라고도 한다. 글자의 형태가 대칭성이 강하며, 양쪽으로 내리는 필획을 길게 하기 때문에 마치 나란히 놓인 젓가락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옥척玉戚은 옥으로 만든 도끼를 말한다. 작勺은 주공周公이 만들었다고 하는 악곡樂曲의 이름이다.

5 양조경연근신兩朝經筵近臣이라고……비슷하다: 양조경연근신은 두 조정의 경연에서 모신 근신이라는 뜻이다. 곽자맹霍子孟은 한漢나라 때 곽광霍光으로, 자맹은 그의 자字이다. 곽광은 정권을 쥐고서 금위禁闈에 20여 년 동안 출입하였는데, 한 번도 법도를 어긴 적이 없었다고 한다.

6 명철보신明哲保身이라고……비슷하다: 명철보신은 지혜가 뛰어나고 이치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 몸을 온전하게 보전한다는 뜻이다. 도해법倒薤法은 전서체篆書體 가운데 하나이다. 교녀鮫女는 바다에 사는 여인을 말하는데, 이별하면서 울면 그 눈물이 구슬이 된다고 한다.

7 만경피수萬頃陂水라고……비슷하다: 만경피수는 만 이랑의 드넓은 물이란 뜻이며, 과두문蝌蚪文은 황제黃帝 때 창힐倉頡이 지었다고 하는 고대 문자로, 글자의 모양이 마치 올챙이와 같이 생겨 획의 머리 부분은 굵고 끝 부분은 가는 글씨를 말한다.

8 태백산인太白山人이라고……비슷하다: 계界는 글자와 글자 사이를 가르는 선으로, 계격界格이라고도 한다. 양자운은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 사람인 양웅揚雄으로, 자운子雲은 그의 자이며, 성도成都에 살았다. 사람됨이 소탈하였고, 젊어서부터 문장을 잘하여 이름을 떨쳤으며, 학문을 좋아하여 『양자법언揚子法言』, 『태현경太玄經』 등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글 뜻이 아주 심오하였다. 양웅이 애제哀帝 때 승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태현경』을 지으면서 담박한 생활을 즐기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고관이 되었는데 당신은 겨우 급사황문給事黃門으로 있다. 그리고는 흑색을 물들이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루지 못해 백색 그대로이다." 하면서 조롱하였다.

9 정좌간서靜坐看書라고……비슷하다: 정좌간서는 조용히 앉아서 서책을 본다는 뜻이다. 벽락전碧落篆은 전서체의 일종이다.

10 취정翠庭이라고……비슷하다: 조적체鳥跡體는 중국 고대에 창힐倉頡이 새의 발자국을 보고 만든 문자나 또는 서체이다. 손부인孫夫人은 손권孫權의 누이동생으로, 유비劉備가 형주荊州에 있을 때 아내로 삼은 사람인데, 사람됨이 재주가 있고 사내다워 시비들까지도 모두 칼을 차고 시립하게 하여 불시의 변에 대비하였다.

11 송백당松栢堂이라고……비슷하다: 각부刻符는 진서秦書의 팔체八體 가운데 하나로, 부절符節 위에다 새기는 글자체이다. 노씨老氏는 노자老子이다. 노자가 말하기를, "성인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게 하고 배를 채우게 한다." 하였다. 『도덕경道德經』

12 일조주一釣舟라고……비슷하다: 양의체兩儀體는 음각과 양각이 함께 있는 것이며, 뇌음雷音은 불교에서 쓰는 말로, 부처가 설법하는 소리가 마치 뇌성이 치는 소리와 같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13 백구사白鷗沙라고……비슷하다: 잡체는 두 가지 이상의 서체를 섞어서 새긴 것이다. 증점曾點의 기상은, 공자孔子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각자의 뜻을 묻자, 증점이 타던 비파를 놓고 일어서 "늦봄에 봄옷이 다 지어지면 대여섯 명의 어른과 예닐곱 명의 아이들과 함께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을 쐬고 노래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 하니, 공자가 감탄한 것을 말한다. 『논어論語』

14 강산지조江山之助라고……비슷하다: 강산지조는 강산의 경치를 돕는다는 뜻이다. 이 공봉李供奉은 당나라의 시인인 이백李白을 가리킨다. 이백이 일찍이 하지장賀知章 등의 추천을 받아 한림 공봉翰林供奉에 임명된 적이 있다.

15 사유여謝幼輿가……것과 같다: 사유여는 진晉나라 죽림 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사곤謝鯤으로, 유여는 그의 자이다.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과 『주역』을 특히 좋아하였으며, 노래에 능하고 금슬을 잘 탔다. 일찍이 이웃집 여인을 꾀어내려고 하다가 여인이 베틀의 북을 던지는 바람에 앞니가 부러졌는데, 당시 사람들이 "제멋대로 놀다가 유여의 앞니가 부러졌다." 하였다. 벼슬길에 나오라고 하자, 병들었다고 핑계 대고는 나가지 않은 채 탁필卓畢이나 완방阮放 등과 어울려 술에 취해 노닐었다. 『진서晉書·사곤열전謝鯤列傳』

'주세도인住世道人'이라고 새긴 것은 변형된 소전체小篆體이며, 양각이다. 형태는 위의 것과 같다. 시원스럽고 상쾌하며 바르고 곧은 것이 마치 꼿꼿하고 굳센 선비가 애매모호하여 둥글둥글한 것을 싫어하고 반듯하여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거유미閑居有味'라고 새긴 것은 대전이고, 양각이며, 형태는 위의 것과 같다. 글자의 체는 풍만하고 색깔은 윤이 나 아름다운 것이 마치 도덕과 화순함이 가득 차서 아름다운 빛이 나는 것과 비슷하다.

'정좌간서正坐看書'라고 새긴 것은 양각의 극치이며, 가늘어서 벽락전碧落篆을 새겨 놓은 것이다. 한결같이 옛 법도를 따르고 새롭거나 기이한 것을 뒤섞지 않아 마치 맹자孟子가 왕도王道를 논함에 세속에서 오활하여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9]

'취정翠庭'이라고 새긴 것은 조적체鳥跡體이며 양각이다. 가냘프고 맵시가 있어 아름다우면서도 획의 끝이 날카로워 서늘한 것이 마치 손 부인孫婦人이 장막 아래에서 진홍색 치마를 입고서 눈처럼 하얀 칼날을 드러내 놓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10]

'송백당松栢堂'이라고 새긴 것은 중양重陽으로 획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각부刻符라고 하는 것이다. 그 바깥쪽은 가득 차 있고 그 중앙 부분은 비어 있어, 마치 노씨老氏가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11]

'일조주一釣舟'라고 새긴 것은 양의체兩儀體로 새긴 것이다. 음이 변하여 양이 되려 하고, 양이 변하여 음이 되려 하여 있는 듯 없는 듯함이 마치 뇌음雷音이 공空한 듯하나 공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12]

'백구사白鷗沙'라고 새긴 것은 잡체雜體로 새겼으며, 양각이다. 기괴하고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어, 마치 증점曾點의 기상이 천길 허공 위에서 봉황이 날개 짓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13]

'강산지조江山之助'라고 새긴 것은 양각으로 새겼으며, 크기가 작은 것이다. 글자 하나하나가 호방하고 시원스러워, 마치 이 공봉李供奉이 키는 일곱 자도 안 되지만 선풍도골仙風道骨은 은하수를 건너 우주를 벗어나는 기상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14]

'일진부도처一塵不到處'라고 새긴 것은 형태가 위의 여섯 개 인장과 같다. 방형이면서 대자大字가 소자少字 사이에 끼어 있으며, 착이고 양각이다. 바깥쪽의 네 글자는 아주 세밀하며, 가운데 있는 한 글자는 기굴奇崛함이 유별나다. 이에 마치 '바다 상인[海賈]'의 철망 안에 담겨 있는 일곱 자 크기의 산호수珊瑚樹와 비슷하다.

'무속헌죽영금서無俗軒竹映琴書'라고 새긴 것은 형태는 하나의 원형이고 글자는 일곱 개의 양각이다. 원형은 하늘의 상이며, 일곱 글자는 북두칠성北斗七星의 숫자이다. 이에 마치 북두칠성이 허공에 매달려 있으면서 원기를 따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악북도인운학리岳北道人雲壑裡'라고 새긴 것은 형태는 바깥쪽은 하늘처럼 둥글고 안쪽은 땅처럼 모가 났다. 글자의 체는 양이 음을 감싸고 있는 특이한 파체破體이다. 이에 마치 사유여謝幼輿가 뜻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서 일반적인 법도에 구애받지 않는 것과 같다.[15]

'청풍만실좌우죽림淸風滿室左右竹林'이라고 새긴 것은 글자가 모두 동일한 서체이며, 모두 착이다. 형태는 방형이면서 길다. 존귀한 양陽이 비천한 음陰을 희롱하고 있다. 이에 마치 사 태부謝太傅가 양쪽에 아름다운 기녀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청아한 풍도와 아취 있는 지조를 지니고 있어 풍류를 꺼리고 미워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16]

'재명이문사가동호再鳴以文賜暇東湖'라고 새긴 것은 하나의 인장을 형태를 나누어서 위는 양이

고 아래는 음으로 만든 것으로, 긴 쪽에 속한다. 하늘이 땅보다 앞서고 부드러움이 강함을 받드는 것이 마치 자도子都와 소군少君이 함께 한 대의 녹거鹿車를 타고 다닐 때 맑고 매서운 절개와 따뜻하고 부드러운 용모를 가지고 있어 바라보는 이들이 기뻐하고 부러워하는 것과 비슷하다.[17]

이 이외에 '유항재有恒齋'니 '풍아유음風雅遺音'이니, '자시일왕법自是一王法'이니, '격천리공명월隔千里共明月'이니 하는 등의 글자를 새긴 것이 모두 여덟아홉 개인데, 글자가 모두 수척하고 형태가 모두 길쭉하여 마치 전추밀錢樞密이 조정에서 간쟁하면서 홀로 서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18]

또 하나의 고기古器가 있는데, 무어라고 이름해야 할지 모르겠다. 위는 박산博山을 안치하였으며, 산 아래에는 떠받치고 있는 대臺가 있으며, 대에는 두 개의 기둥이 드리워 있고 사람이 서 있다. 관지款識에는 '분향묵좌焚香默坐'라고 새겨져 있다. 반우盤盂에 있는 명銘에 비해 글씨가 더 촘촘하고 획이 더 세밀한 것이 마치 위 무공衛武公이 자신의 몸을 수양하기를 옥이나 뿔을 자르고 쪼아 잘 다듬듯이 하여 이미 정밀한데도 더욱 그 정밀함을 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19]

이상에서 말한 것들은 보관되어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언급해도 좋을 만큼 뛰어난 것들이며, 이 밖에 몇몇 것들도 하나하나 정밀하고 좋아, 마치 왕씨王氏와 사씨謝氏의 집에 들어가면 정원에 보이는 것이 모두 지란芝蘭과 옥수玉樹가 아닌 것이 없는 것과 비슷하여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아, 도서圖書의 오묘함을 남김없이 아는 자가 아니면, 그 누가 이에 대해서 더불어 함께 논할 수가 있겠는가. 애오라지 이를 기록하여 동호인들과 함께 하는 바이다.

해 설[20]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인장印章 문화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문인 전각가篆刻家가 등장했다. 김상헌은 대표적인 문인 전각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인장을 새기는 방법을 탐구하기보다는 인장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다. 그에게 인장은 단순히 감상하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고인古人을 만나는 곳이자, 고인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형상화하는 수단이었다. 김상헌의 영향으로 조선의 문인들은 인장 문화를 깊이 수용하게 되었다.

—

The practice of making and using personal seals was transmitted to Korea from China's Ming Dynasty during the Imjin War (series of Japanese invasions, 1592-1598). As a result, some literati scholars became highly skilled in carving seals. One of the leaders of this new field was Kim Sangheon, for whom seals were not merely objects for appreciation, but visual embodiments of the noble scholarly tradition. Thus, rather than highlighting carving techniques, Kim focused on conveying philosophical significance and personal sentiment by creating seals as an homage to preceding scholars. Due in large part to the influence of Kim Sangheon, the culture of seals was strongly embraced by the literati of the mid-to late Joseon period.

16 청풍만실좌우죽림淸風滿室左右竹林이라고……비슷하다: 청풍만실좌우죽림은 맑은 바람은 방 안에 가득하고 좌우에는 대나무 숲이 있다는 뜻이다. 사 태부謝太傅는 진晉나라 때 태부 벼슬을 지낸 사안謝安을 가리킨다. 사안은 여러 차례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은 채 절강성浙江省 상우현上虞縣 서남西南에 있는 동산東山에 거주하면서 기녀를 데리고 놀았다고 한다.

17 재명이문사가동호再鳴以文賜暇東湖라고……비슷하다: 재명이문사가동호는 재차 문으로써 이름을 드날려서 동호에서 사가독서하였다는 뜻이다. 자도子都는 한漢나라의 명사였던 포선鮑宣의 자이고, 소군少君은 그의 아내인 환씨桓氏의 자이다. 녹거鹿車는 좁고 작은 수레이다. 포선이 스승의 딸인 소군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소군의 집은 본디 부유하여 가지고 오는 물품이 아주 성대하였다. 이에 포선이 자신의 집은 본디 부유하지 못해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자, 소군이 종과 물품을 모두 버려두고 짧은 베로 만든 치마 하나만을 입은 채 함께 녹거를 끌고 포선의 집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뵙고 난 뒤 곧바로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으러 갔으며, 그 뒤에 부덕을 잘 닦으니, 향당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다고 한다. 『후한서後漢書』

18 이 이외에……비슷하다: 자시일왕법自是一王法은 저절로 이는 똑같은 왕법이라는 뜻이고, 격천리공명월隔千里共明月은 천리를 격해 있으면서도 밝은 달을 같이 본다는 뜻이다. 전 추밀錢樞密은 송宋나라 때 사람으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를 지낸 전약수錢若水를 말한다.

19 또 하나의……비슷하다: 박산博山은 옛날의 향로인 박산로博山爐로, 화로의 덮개 위에 전설상의 산인 박산의 모양을 조형造形한 것을 말한다. 관지款識는 종정鍾鼎이나 금석金石에 새긴 명문銘文을 말하는데, 음각陰刻으로 새긴 것을 관款이라 하고, 양각陽刻으로 새긴 것을 지識라고 한다. 분향묵좌焚香默坐는 향을 피우고 묵묵히 앉아 있다는 뜻이다. 반우盤盂는 둥글거나 네모진 그릇으로, 옛날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공을 기록하거나 좌우명座右銘을 새겨 두고서 항시 이를 보면서 자신을 가다듬었다. 위 무공衛武公은 95세의 나이가 되어서도 스스로를 경계하였을 정도로 자신의 몸을 잘 수양하였다.

20 박철상의 「조선후기 문인들의 인장에 대한 인식의 일면」(『한문교육연구』 35, 2010)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김수증이 쓴 「고산구곡담기」

金壽增筆高山九曲潭記

Nine Bends at Gosan

(高山九曲潭記)

19

글 최립崔岦(1539-1612), 글씨 김수증
『육일첩六一帖』
조선, 17세기
첩, 종이에 먹, 각 면 31.5×20.0cm
덕수2932

Choe Rip (Writing), Kim Sujeung (calligraphy)
from Yugil Album (六一帖)
Joseon Dynasty 17th century
Ink on paper, 31.5×20.0cm (each page)
duk 2932

1 2 3 4 5 6 7 8

원 문

高山九曲潭, 世人未曾知, 誅茅來卜居, 朋友皆會之, 武夷仍想像, 所願學朱子.[1] 尤庵

五百天鍾地炳靈, 栗翁資稟秀而淸, 高山九曲幽深處, 汩瀜寒流點瑟聲.[2] 尤庵

高山九曲潭記[3]

栗谷先生於余, 弱冠師友也.[4] 公旣爲世大儒, 尊用於朝, 不幸未究卒. 今二十五年矣, 顧余一無用物耳, 老而不死. 適與公子景臨生, 遇於西京, 俯仰世故, 談不足而涕有餘. 生乃請余記公故居海之高山九曲潭者. 余自公卜地之初, 佩銅鄰縣, 還往實熟, 所謂九曲潭者, 未嘗不在夢想之中. 復据生揭列其次而述曰. 第一曲爲冠巖. 離州城而洞四十五里, 其距海門二十里. 山頭有立石若冠焉者而卓然故以名, 意亦取夫冠始之義乎. 自此而往, 山勢逶迤, [溪][5]水竝之, 而其陡絶處, 下必澄潭. 足爲隱者之所盤旋. 蓋有山村數家始見焉. 第二曲爲花巖, 自冠巖五里許. 巖縫石罅皆花, 如山榴者叢生故以名. 後面山村可十餘家. 第三曲爲翠屛, 自花巖三四里許. 巖逾多奇而翠圍如屛狀故名屛. 前小野, 洞中人農焉, 野中有盤松一蓋, 下可坐數百人. 屛北, 士人安氏家焉. 第四曲爲松崖, 自翠屛三四里許. 石壁千尺, 其上松林翳日故名. 潭心有石如半露船形者, 曰船巖,[6] 上可坐八人. 士人朴氏對而家焉, 蓋從公入洞也. 第五曲爲隱屛, 自松崖二三里許. 石峯高圓, 明麗特異, 潭邊底皆石若砌, 而貯之水者. 屛之義視前而隱, 又近取諸身, 以託退休之義乎. 公始卽石潭屋之, 略爲棲息之所, 而從學旣衆, 則相與謀爲可以容處. 規設益備, 則尊先惠後, 不可一少. 是有隱屛精舍, 而附麗精舍次第以成者, 如干具焉. 宜各爲小記, 而邂逅之頃, 有所不暇也. 若釣溪者, 自隱屛三四里許. 枕溪之巖, 多是自在釣魚磯故名, 而曲之第六者也, 若楓巖者, 自釣溪二三里許. 巖皆楓林被之, 霜後絢如霞蔚故名, 而曲之第七者也. 下有數家村, 桑柘柴荊, 隱然一畫圖中. 若琴灘者, 灘聲泠然, 象琴之響節故名, 而曲之第八者也. 若文山者, 因舊名而已, 爲第九曲終焉. 公存也, 人爲地之靈, 文不在玆乎.[7] 且九者, 龍德之數也. 余少也知公, 少字實應九二, 而小山舊名, 偶符斯文. 于是而不曰造物者未始不與於其間則未信也. 朱子居閩之武夷山, 則有九曲洞天, 公居海之高山, 則有九曲巖川. 豈東南萬里, 吾道一氣脈, 自相貫通而然歟. 若夫壬辰兵戈而來, 公家受禍實慘, 而山林水石, 且不免焉, 則關於國運爾, 奈何乎. 余之知公, 非故聞風而興者也. 然旣九原不可復作, 得觴詠於九曲之淸流.[8] 而獨有同學文字爲公發之, 可以招徠精爽於九曲之陳迹, 然且遠焉, 不能卷而畀之景臨生. 歸書于簷楣之間, 愴哉.

簡易 崔岦 著

1 이이의 『율곡전서』 권2에 「高山九曲歌」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2 송시열의 『송자대전』 권2에 「詠高山九曲歌 寄示權致道」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3 최립의 『간이집』 권9에 「高山九曲潭記」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4 栗谷先生於余, 弱冠師友也: 『간이집』에는 "余於栗谷公, 弱冠友也"로 되어 있다.

5 [溪]: 김수증이 쓴 「高山九曲潭記」에는 이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최립의 『간이집』을 참고하여 추가하였다.

6 曰船巖: 『간이집』에는 "名曰船巖"로 되어 있다.

7 公存也, 人爲地之靈, 文不在玆乎: 『간이집』에는 "公存也, 人爲地之靈, 文不在玆乎. 公亡也, 天有不與之喪者, 文不在玆乎."로 되어 있다.

8 然旣九原不可作, 得觴詠於九曲之淸流: 『간이집』에는 "然旣九原不可復作, 得同觴詠於九曲之淸流"로 되어 있다.

번역문

高山九曲潭	고산의 아홉 굽이 계곡
世人未曾知	세상 사람들이 모르더니,
誅茅來卜居	내가 와 터를 닦고 집을 짓고 사니
朋友皆會之	벗들이 모두 모여드네.
武夷仍想像	무이산을 여기서 상상하고
所願學朱子	소원은 주자를 배우는 것이네.[우암][9]

五百天鍾地炳靈	오백 년 만에 하늘과 땅 영기를 모아
栗翁資稟秀而淸	율곡의 자품 빼어나고 청아하도다.
高山九曲幽深處	고산의 아홉 굽이 그윽한 곳에
汩瀜寒流點瑟聲	잔잔히 흐르는 증점의 비파 소리인 듯[우암]

나는 율곡공栗谷公 이이李珥와 약관弱冠의 나이 때부터 벗으로 지냈다. 공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미 대유大儒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조정에 높이 등용되었는데, 불행하게도 대업大業을 완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금 벌써 2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나는 공과는 정반대로 세상에 쓸모없는 하나의 물건이 되어서 늙도록 죽지 않고 살아 있다. 그럴 즈음에 마침 공의 자제인 경림생景臨生을 서경西京에서 만나, 그동안의 세상 일을 뒤돌아 보노라니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눈물이 앞서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가 나에게 공이 예전에 살던 해주海州 고산高山의 구곡담九曲潭에 대해서 기문記文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공이 그 곳에 터를 처음 잡을 때부터 이웃 고을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왕래하다 보니 그곳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구곡담이라고 하는 곳이 미상불 나의 꿈속에 나타나기까지 하던 터였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가 보여 주는 자료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차례로 술회하게 되었다.

제1곡曲은 관암冠巖이다. 해주성海州城을 벗어나 골짜기로 들어가서 45리 지점에 있는데, 바다의 입구와는 20리 정도 떨어져 있다. 산 정상에 관冠처럼 생긴 바위가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인데, 관시冠始의 뜻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여기에서부터 산의 형세가 구불구불 휘돌아 계곡물과 함께 나란히 뻗어 내려오는데, 갑자기 끊어져 벼랑을 이룬 곳마다 그 아래에는 반드시 맑은 못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은자隱者가 머물러 살기에 충분한 장소이다. 이쯤에서부터 산촌山村의 몇 가호가 눈에 띄기 시작한다.

제2곡은 화암花巖이니, 관암에서 5리쯤 떨어진 거리에 있다. 암벽이 벌어진 곳이나 바위 틈새마다 진달래와 같은 꽃들이 무더기로 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그 뒤쪽으로 가면 산촌 10여 가호가 있다.

제3곡은 취병翠屛이니, 화암에서 3, 4리 정도의 거리이다. 기이한 바윗돌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마치 푸른 병풍처럼 둥글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 앞에 자그마한 들판이 펼쳐져서 산골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들판 가운데에 일산日傘처럼 서 있는 반송盤松 한 그루 밑에는 수백 인이 앉을 만한 자리가 있다. 취병 북쪽에는 사인士人 안씨安氏의 집이 있다.

제4곡은 송애松崖이니, 취병에서 3, 4리쯤 떨어져 있다. 1천 척尺 높이의 석벽石壁 위에 송림松林이 해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못 중앙에 배가 반쯤 드러난 모양의 바위가 솟

9 이 첩에는 '우암'이라고 적혀있지만, 이이의 시이다.

아 있어서 선암船巖이라고 이름지었는데, 그 위에 여덟 명 정도는 앉을 수가 있다. 사인士人 박씨朴氏네 집이 이 선암을 마주 대하고 있는데, 그는 율곡 공을 따라서 이 골짜기로 들어온 사람이다.
제5곡은 은병隱屛이니, 송애에서 2, 3리 정도의 거리에 있다. 높고도 둥근 석봉石峯의 모양이 조촐하고 산뜻하여 특이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못 주위를 마치 계단처럼 돌로 모두 쌓아올려 내려오는 물을 담아 두고 있다. 병屛의 뜻이 앞서의 것보다도 은隱하기 때문에 은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인데, 이와 함께 공이 자신의 가까이에서 취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쉬려는 뜻을 여기에다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공이 처음에 석담石潭에 와서 집을 지을 때에는 간략하게 혼자서 서식棲息할 공간만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공을 따라와서 배우는 이들이 많아지자 서로 더불어 머물 곳을 상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계하면서 선현先賢을 존숭하고 후학後學을 인도하는 일에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게끔 하였다. 이렇게 해서 은병정사隱屛精舍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뒤로 이 정사의 부속 건물들도 차례로 낙성되면서 어지간히 면모를 갖추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각기 소기小記를 적어 두어야 마땅하겠지만, 지금 잠깐 해후邂逅한 사이에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생략하기로 한다.
조계釣溪라고 하는 곳은 은병에서 3, 4리 정도의 거리에 있다. 침계枕溪의 바위 가운데 낚시터로 삼을 만한 곳이 원래 많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여기가 바로 제6곡이다.
풍암楓巖이라고 하는 곳은 조계에서 2, 3리쯤 떨어져 있다. 바위산 전체가 온통 단풍나무 숲으로 뒤덮여서 서리가 내리면 마치 노을처럼 현란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여기가 바로 제7곡이다.
그 아래쪽에 몇 가호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데, 뽕나무와 사립문의 정경 등이 그야말로 은연중에 하나의 화폭을 이루고 있다. 금탄琴灘이라고 하는 곳은 여울물 소리가 그지없이 청랑淸朗하여 거문고 소리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여기가 바로 제8곡이다.
문산文山이라고 하는 곳은 옛 이름 그대로 부른 것인데, 여기가 바로 제9곡으로서 구곡九曲의 끝이다.

공이 살아서는 산천의 빼어난 기운을 타고나서 사문斯文의 기대를 한 몸에 지녔고, 죽어서는 육신과 함께 죽지 않는 정신을 하늘이 있게 하여 여전히 사문의 영광을 공에게 부여하고 있다. 9는 바로 용덕龍德을 표상하는 숫자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공을 알았는데, 공의 아명兒名이 구이九二에 응하였고, 또 소산小山의 옛 이름도 우연히 사문에 부합된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조물자가 처음부터 그 사이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말을 누가 부정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주자朱子가 민중閩中 복건福建 땅의 무이산武夷山에 거처할 때에는 구곡의 동천洞天이 있었고, 공이 해주海州의 고산高山에 거처할 때에는 구곡의 암천巖川이 있었다. 지역적으로 각각 동쪽과 남쪽으로 만리나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오도吾道의 하나의 기맥氣脈이 자연히 관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임진년의 병란 이후로 공의 집안이 화를 당한 것이 참혹하였고, 이에 따라 산림山林과 수석水石도 화를 면치 못하였는데, 이것은 국운國運과 관계된 일이니 또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예전부터 공을 알고서 함께 어울렸으니, 공의 풍도風度를 듣고서 자기도 모르게 감동하여 분발하는 그런 사람이 원래 아니다. 그러나 공이 이미 지하 세계에 들어가서 다시 일으킬 수가 없으니, 어떻게 구곡의 맑은 물가에서 술잔을 나누며 노래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만 함께 공부하며 문자의 교분을 나눈 이들이 있으니, 이들이 공을 위해 글을 지어 읊는다면, 추억어린 구곡으로 공의 혼백魂魄을 다시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권詩卷으로 엮어서 경림생에게 줄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리하여 그가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현판懸板에 걸어 두게 할 수가 없으니, 아, 생각하면 슬픈 마음만 든다.

해 설

김수증은 1675년 김수항과 송시열이 유배되자 강원도 화천 화악산의 계곡인 곡운에 은거하였고, 기사환국己巳換局 후 김수항이 사사賜死되자 더 깊은 계곡인 화음동으로 들어가 더 이상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예서隸書에 뛰어났으며 아들 김창숙金昌肅(1651-1673)과 함께 신라, 고려의 금석 탁본을 널리 수집하였다고 한다.
이 「고산구곡담기」는 조선의 대표적 문장가인 최립崔立(1539-1612)의 글로, 최립이 율곡 이이를 추억하며, 그가 머물렀던 황해도 고산구곡담의 모습을 주자朱子의 무이구곡武夷九曲과 같이 묘사한 것이다. 고산구곡이라는 자연 속에서 진정한 이상향인 무이구곡을 상상하며, 자연을 사랑했던 이이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 김수증 역시 주자와 이이의 구곡九曲을 떠올리며 이 글씨를 썼을 것이다. 이 「고산구곡담기」가 실려 있는 『육일첩六一帖』은 김생金生, 안평대군安平大君(1418-1453), 한호韓濩(1543-1605) 등 77명을 글과 서예 작품을 모아 첩으로 엮은 것이다. 조선시대 명필名筆로 알려진 대부분의 서예가들의 글씨를 수록하고 있고, 중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첩으로 모아 둔 것으로 보아 안목 높았던 수장가가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

Nine Bends at Gosan is an homage to the famous scholar Yi I (李珥, 1536-1584), written by Choe Rip (崔岦, 1539-1612), a literatus of the mid-Joseon period. According to the text, about twenty-five years after Yi I's death, Choe Rip met Yi's son, who asked Choe to compose a piece of writing for his late father. Demonstrating his skills in calligraphy and epigraphy, Kim Sujeung transcribed the Nine Bends at Gosan in superb clerical script.

書漢隸帖後

余購求古隸於燕肆而得此此乃漢靈帝中平二年
郃陽令曹全紀德碑也我東僻陋人不得見古隸不
得見故不能知不能知故間有為之者而多昧於體
法其體法原委書家論辨多矣而莫能相一蓋篆籀
於古初隸分於秦漢真楷於魏晉以後楷即今隸分
即古隸或云分隸有別或云漢謂之隸唐謂之分其
為書或以為八篆八分存隸二分或有五分之篆或
有四分之篆或以為隸分之間謂之八分或以為用
篆筆作漢篆為得或以為存隸八分乾篆二分此論

一洗千古之疑蓋漢之碑刻無非古隸而此本施之
徒隸者故學士大夫不留意而無點畫俯仰之勢亦
不著姓名以傳於後至買蔡鍾梁其法始大成三倉
隸書鴻都石經受禪諸刻為歷代古隸之冠逮于李
唐隸法始變於古明皇善此書而不免肉勝如史惟
則韓擇木輩有能名而如出一轍蓋一時習尚然也
故後人論之曰漢法方而瘦勁而整寡情而多骨唐
法廣而肥媚而緩少骨而多態又有唐無隸法之語
自茲以降蓋無稱焉由此論之古今隸法高下可推
而知也今此碑似是漢時舊刻不知何人所書書法

谷雲集 卷六 雜文 十九

雖不甚工而筆意天然不無蕭散古雅之趣其中亦
頗有取法慶帝州所謂雖非至者不失東京本色者
得非此類也耶鍾蔡隸法既不可得見而即此碑亦
可謂得漢隸之一斑聊為存之以佐嗜古之癖噫眺
生逈裔不能博觀於古今名家盡其規模只得其一
二近似便以為足者豈獨此一事亦可慨也漫書此
以自警癸丑仲秋上浣陶山漫人書

書先世墨蹟帖後

庶第壽徵收聚先曾王考都正府君以下三世墨蹟
作為一帖又以不肖兄弟之詩附見於下昔晦翁以

참고 19-1
한나라 예서를 모은 첩 뒤에 쓰다
書漢隸帖後

김수증
『곡운집谷雲集』
조선, 1711년 간행
책, 목판본, 21.3×16.0cm
한국문집총간125

번역문

내가 연경燕京의 서점에서 고예古隸 필적을 사고자 하여 이를 얻게 되었다. 이것은 한漢 영제靈帝 중평中平 2년에 합양령郃陽令 조전曹全의 덕을 기념한 비이다. 우리나라는 동쪽 구석에 있어 사람들이 고예 필적을 보지 못한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간혹 그것을 쓰는 사람이 있어도 대부분 서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 서체의 근본과 말단에 대해 논한 것은 많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대개 전주篆籀는 고대의 시초이고 팔분八分은 진眞·한漢 때이며 진해眞楷는 위魏·진晉 때이니, 후해後楷는 바로 금예今隸이고 분分은 바로 고예古隸이다. 어떤 사람은 분예分隸가 다른 것이라 하고, 어떤 이는 한나라 때에는 예隸라 불렀고 당나라 때에는 분分이라 불렀다고 한다. 글씨를 쓸 때 전서가 8분 들어가고 예서가 2분 남아있다고 하고, 혹은 전서가 5분 남아있다고 하며, 혹은 전서가 4분 있다고 한다. 혹은 예분隸分 사이의 것을 8분이라 한다고 하고, 혹은 전서의 법으로 한전漢篆을 만들어 얻게 되었다고 하며, 혹은 예서의 8분을 남기고 전서의 2분을 따른 것이라고 여긴다.

이 논의는 오랜 세월의 의문을 단번에 씻어버릴 것이다. 대개 한나라의 비각으로 고예가 아닌 것이 없는데 이것은 본래 하급 관리[徒隸]들이 사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학사나 대부들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점획에 굽히고 높이는[俯仰] 형세가 없으며 성명도 밝히지 않은 채 후세에 전해졌다. 가방賈魴(89-105), 채옹蔡邕(132-192), 종요鍾繇(151-230), 양곡梁鵠(2세기 활동)에 이르러 그 필법이 비로소 크게 이루어졌다. 삼창三倉의 예서와 홍도鴻都의 석경石經과 수선비修禪碑 등의 여러 비각은 역대의 고예로 뛰어난 것들이다. 당에 이르러 예법隸法이 마침내 옛날로부터 변했는데, 명황明皇[玄宗]이 이를 잘 썼으나 육법肉法이 지나침을 면하지 못했다. 사유칙史惟則, 한택목韓擇木 등이 글씨를 잘 쓴다고 이름이 있었으나 같은 틀에서 나왔으니, 대개 당시의 습속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한법漢法은 네모지고 수척하며 굳세고 가지런하며 정취가 적고 골법骨法이 많다. 당법唐法은 넓고 살쪘으며 예쁘고 늘어졌으며, 골법이 적고 자태가 많다." 또 당에는 이렇다 할 예법이 없다는 말도 있으니 그 이후로는 뛰어나다고 말할만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살펴보면 고금의 예법의 높고 낮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지금 이 비는 한대漢代의 구각舊刻인 듯하나 어떤 사람이 쓴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서법이 비록 매우 공교롭지는 않으나 필의가 천연스럽고 소산蕭散하며 고아한 맛이 있으니 그중에서 취할 만한 점도 있다. 엄주弇州[王世貞]가 "비록 지극한 것은 아니지만 동경東京[동한의 수도 낙양]이 본색을 잃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이런 류가 아니었겠는가? 종요, 채옹의 예법은 이미 얻어 볼 수 없으니 바로 이 비 또한 한예漢隸의 일단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어쨌든 내 옆에 존재하게 되었으니 옛 것을 좋아하는 벽癖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 늦게 태어난 먼 후예들이 고금 명가의 필적을 널리 살피지도 못하고 그 규모를 다 해내지도 못하면서 그저 하나 둘 근사하게 되면 문득 만족스럽게 생각하니, 어찌 유독 이 뿐이겠는가. 이 또한 개탄스럽다. 이 글을 써서 스스로의 경계로 삼는다.

계축년(1673, 현종 14) 8월 상순, 도산만인陶山漫人이 쓰다

해 설[1]

이 글의 내용은 고예古隸와 팔분八分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과 한나라의 예서와 당나라 예서의 비교, 〈조전비〉에 대한 평으로 구성된다. 고예와 팔분이란 명칭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은 김수증이 들은 설들을 종합한 것인데, 『서단書斷』(당唐), 『선화화보宣和畫譜』(북송北宋) 등을 참고한 듯하지만, 전서가 5분 있다거나 4분 있다는 등의 설은 어디서 근거했는지 알 수 없으며 신빙성도 떨어진다.

반면 한나라 예서에 대한 기술은 상당히 정확한 인식에 바탕했다. 전서의 필의가 많이 남아있는 서한의 예서와 파세波勢와 부앙俯仰의 필세가 변화로운 동한의 예서를 정확히 가렸고, 삼국시대 위의 〈수선비〉를 한나라 예서의 연정선에서 인식했고 당나라 예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조전비〉에 대한 평도 어느 정도 그 풍격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 글로 보면 김수증이 예서의 역사와 한나라 예서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1 이완우의 「곡운 김수증의 예서」(『미술사학보』 12, 1999)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곡운구곡도첩
谷雲九曲圖帖
Album of Nine Bends at Gogun

20

김수증 외
조선 후기
첩, 종이에 채색,
각 면 42.5×32.0cm
본관10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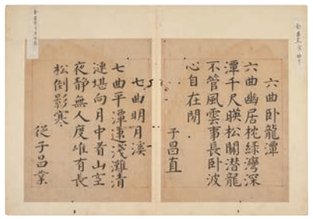
Kim Sujeung et al
Late Joseon Dynasty
Ink and light colors on paper
42.5×32.0 cm (each page)
bon 10681

8 7

20 19

18 17

16 15



六曲卧龍潭
六曲幽居枕綠灣深
潭千尺暎松闌潛龍
不管風雲事長卧波
心自在閒.
子昌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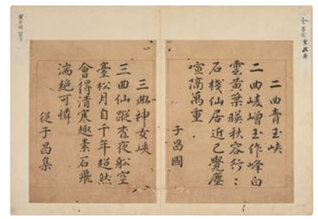
七曲明月溪
七曲平潭遠淺灘清
連塢向月中首山空
夜靜無人度唯有衣
松倒影寒
從子昌寀

32 31

四曲白雲潭
四曲川觀倚翠巖近
人松影落珍禽激
濺沫時散雲氣寺
常滌一潭.
從子昌鎬

五曲鳴玉瀨
五曲湲聲宜夜深鏘
然玉珮響遠林松門
步出霜崖靜圓月孤
琴世外心
從子昌翕

30 29



二曲青玉峽
二曲峻壇玉作峰白
雲黃葉暎秋容行.
石棧仙居近已覺塵
壺滿萬重.
子昌國

三曲仙踞玄夜船空
三曲仙踞玄夜船空
臺松月自千年超然
會得清寒趣素石飛
湍絕可憐
從子昌集

28 27

43

42 41

40 39

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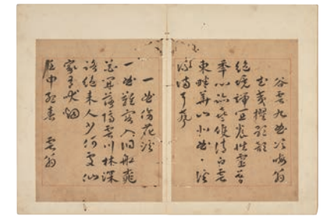
4 3

2 1

14 13

12 11

10 9



26 25

24 23

22 21

38 37

36 35

34 33

2 1

4 3

6 5 1곡 방화계傍花溪

8 7 2곡 청옥협青玉峽

10 9 3곡 신녀협神女峽 혹은 정녀협貞女峽

12 11 4곡 백운담白雲潭

14 13 5곡 명옥뢰鳴玉瀨

16 15 6곡 와룡담臥龍潭

18 17 농수정籠水亭

20 19 7곡 명월계明月溪

22 21 8곡 융의연隆義淵

24 23 9곡 첩석대疊石臺

원 문·번역문

谷雲九曲之圖 崇禎壬戌復月 籠水亭主人書
곡운구곡 그림 농수정 주인이 쓰다

一曲, 傍花溪. 自春川府北行, 渡母津, 踰馬峴. 過鋤五芝村. 西轉而過梧里谷, 渡一溪, 此是谷雲下流而爲洞口也. 踰蒜峴, 此山回谷轉, 水石淸壯, 余創名爲傍花溪云. 吾家十里.
1곡은 방화계傍花溪이다. 춘천부에서 북쪽으로 가서 무진강母津江을 건너고 마현馬峴을 넘는다. 서오지촌鋤五芝村을 지나 서쪽으로 돌아 오리곡梧里谷을 지나서 시내 하나를 건너면, 여기가 곡운동 하류의 입구이다. 달래고개[蒜峴]를 넘으면 산과 계곡이 둘러 있고 수석이 맑고 장엄하여 내가 '방화계傍花溪'라고 이름을 지었다. 우리 집에서 십리 거리이다.

二曲, 靑玉峽. 自傍花溪, 過五里許, 轉一山, 石棧斜側, 左臨危灣, 右擁層峰. 此爲靑玉峽.
2곡은 청옥협靑玉峽이다. 방화계傍花溪에서 5리 쯤 지나 하나의 산을 돌면 돌다리[石棧]이 옆으로 비껴 있어 왼쪽으로 위험한 계곡을 내려다보게 되고 오른쪽으로 층층이 높이 솟은 봉우리를 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청옥협이다.

三曲, 神女峽, 一名貞女峽. 過靑玉峽, 稍似開張, 緣溪而至此, 舊名妓亭. 余改爲神女峽, 又名貞女峽, 上有梅月堂舊跡, 亦名之曰淸隱臺.
3곡은 신녀협神女峽으로 또 다른 이름은 정녀협貞女峽이다. 청옥협을 지나 조금 열리는 듯한 시냇물을 따라가면 여기에 이르게 되는데, 옛날 이름은 기정妓亭이다. 내가 신녀협 또는 정녀협으로 이름을 고쳤다. 위에 매월당의 유적이 있는데 청은대淸隱臺라 부른다.

四曲, 白雲潭. 自貞女峽渡小溪, 轉一厓, 循溪而至此. 鄕人多來遊取魚, 余改雪雲溪. 問其舊名, 即白雲潭也.
4곡은 백운담白雲潭이다. 정녀협에서 작은 시내를 건너 한 언덕을 돌아서 시내를 따라가면 여기에 이르게 된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노닐며 고기를 잡곤 한다. 내가 설운계雪雲溪로 이름을 바꾸었다. 옛 지명을 물어보니 백운담이라 하였다.

五曲, 鳴玉瀨. 自白雲潭, 轉數百武, 位鳴玉瀨. 此近吾廛, 山下數家, 家僕所居也. 臥龍潭, 亦在其前.
5곡은 명옥뢰鳴玉瀨이다. 백운담白雲潭에서 돌아 수백 걸음을 가면 명옥뢰가 있다. 이 근처에 나의 밭이 있고, 산 아래에 집 몇 채가 있는데 우리 하인이 사는 곳이다. 와룡담이 그 앞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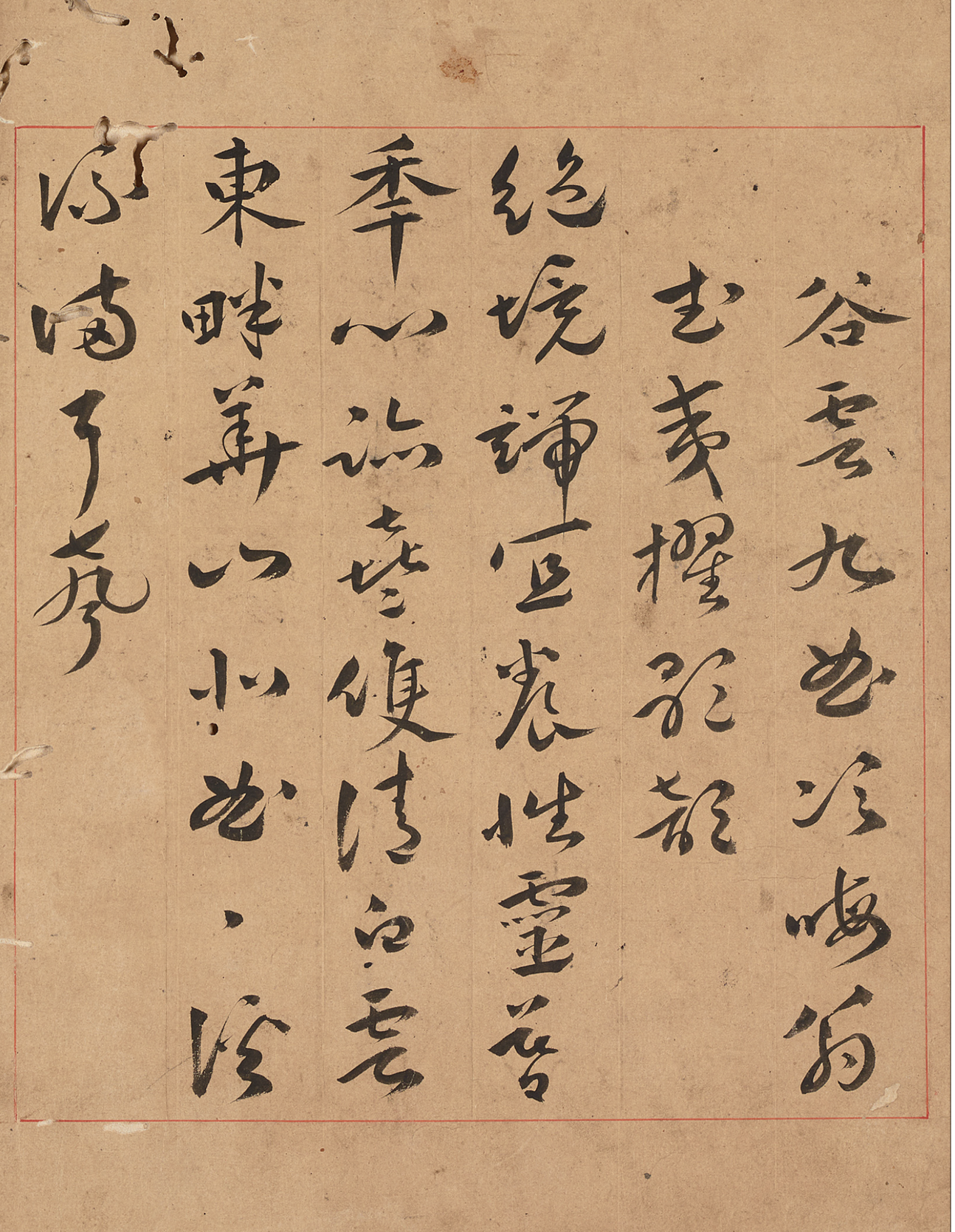
六曲, 臥龍潭, 鳴玉瀨與臥龍潭相接, 柳邊積水澄泓. 西望籠水亭, 隱映松林間.
6곡은 와룡담臥龍潭이다. 명옥뢰鳴玉瀨 와룡담이 서로 가까이 있고 버들숲가에 고여 있는 물이 맑고도 깊다. 서쪽으로 농수정籠水亭을 바라보니 솔숲 사이로 은은하게 비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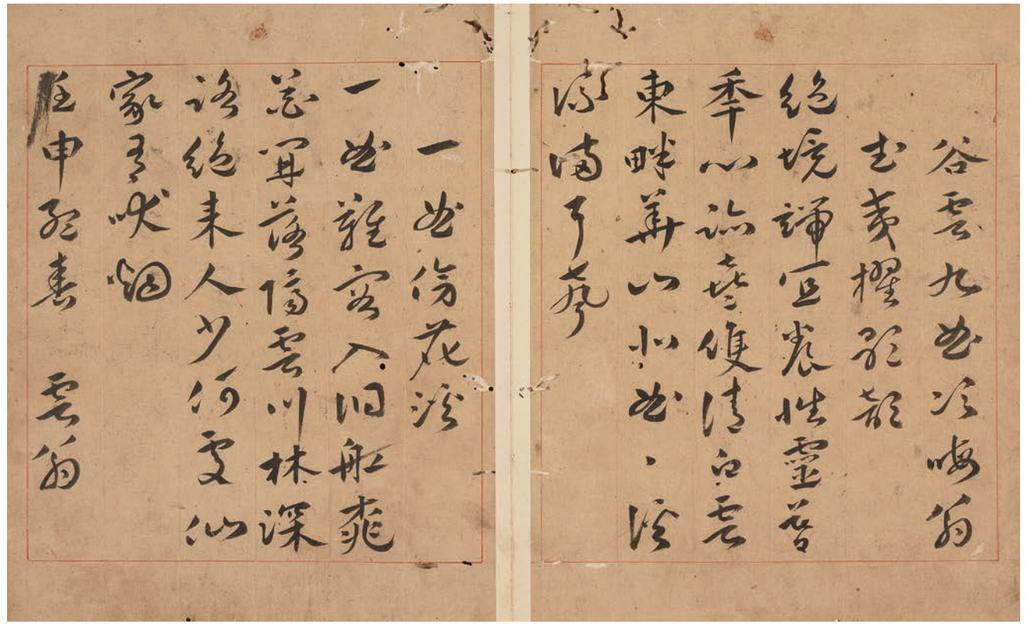
籠水亭. 靑嵐山一支, 逶迤而來, 地勢平曠, 水如彎弓形, 吾家據其間, 正對華嶽山. 臨溪而爲籠水亭, 東望臥龍潭.
농수정籠水亭이다. 청람산靑嵐山 한 가닥이 구불구불하게 뻗어내려 지세가 평탄하고 물은 굽은 활등처럼[彎弓形] 돌아 흐르는데, 우리 집이 그 사이에 있어 화악산華嶽山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시냇가에 농수정籠水亭을 지었는데 동쪽으로 와룡담臥龍潭을 바라보게 된다.

七曲, 明月溪. 自吾家西北, 爲明月溪.
7곡은 명월계明月溪이다. 우리 집에서 서북쪽으로 가면 명월계가 나온다.

八曲, 隆義淵. 自明月溪, 轉一山屋, 爲隆義淵, 稍卒緩
8곡은 융의연隆義淵이다. 명월계에서 산를 돌면 융의연隆義淵이 있는데 물길이 조금 완만하다.

九曲, 疊石臺. 又西轉而行, 左右巖石奇怪, 水瀉其間, 稍上有小塔, 其邊有路, 由此向白雲嶺.
9곡은 첩석대疊石臺이다. 또 서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좌우에 암석이 기괴하고 물이 그 사이로 쏟아져 내린다. 조금 올라가면 조그마한 탑이 있고, 그 가에 길이 있으니 백운령白雲嶺으로 향하게 된다.





2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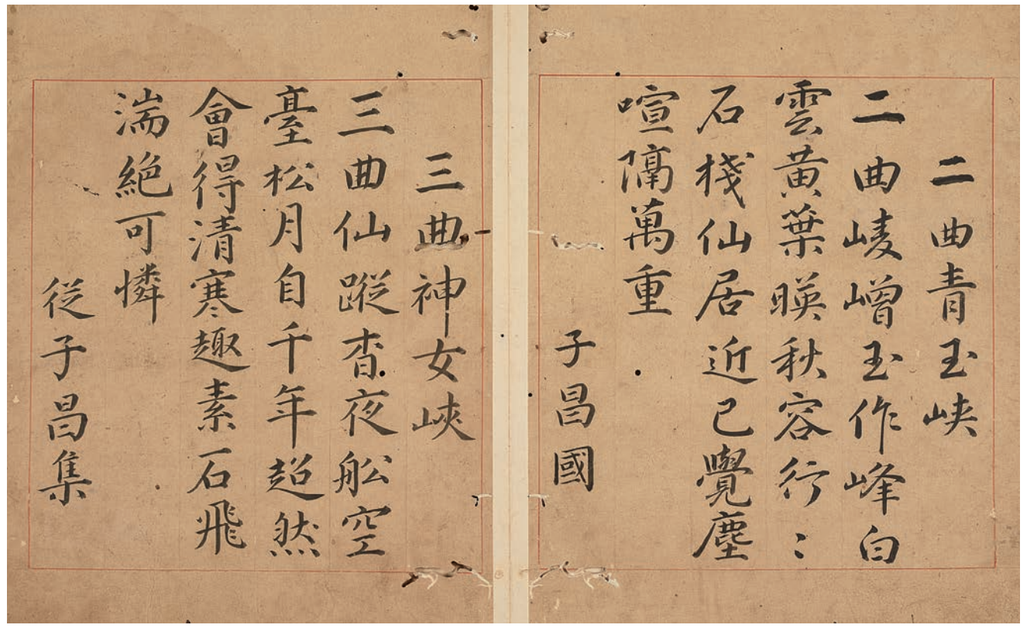
원 문·번역문

谷雲九曲次晦翁武夷櫂歌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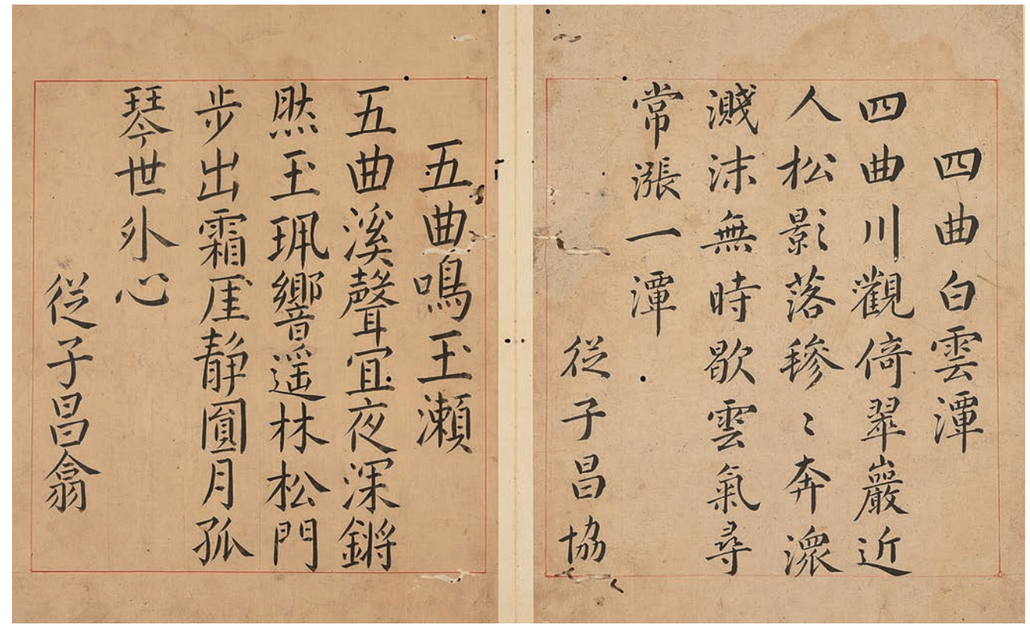
회옹晦翁[주희]의 「무이도가武夷櫂歌」의 운을 차운해서 「곡운구곡가」를 짓다

絶境端宜養性靈	뛰어난 경치 마음 수양하기 알맞으니,
暮年心跡喜雙淸	만년의 마음은 맑고 맑음을 즐거워하네.
白雲東畔華山北	백운산 동쪽 화산 북쪽,
曲曲溪流滿耳聲	굽이굽이 시내소리 귀에 가득하네.

一曲難容入洞船	일곡이라, 작은 배도 들어가기 어려운 곳,
桃花開落隔雲川	구름 가득한 시내 너머로 복사꽃 피고 지네.
林深路絶來人少	숲 깊고 길 끊겨 찾아오는 이 적으니
何處仙家有吠煙	어디 신선의 거처에서 개 짖고 연기 이는 것인가.
壬申 暮春 雲翁	임신년(1692, 숙종 18) 3월 운옹雲翁


二曲青玉峽
二曲峻嶒玉作峰白
雲黃葉暎秋容行行
石棧仙居近已覺塵
喧隔萬重
子昌國
三曲神女峽
三曲仙蹤杳夜船空
臺松月自千年超然
會得清寒趣素石飛
湍絶可憐
從子昌集

28 27


四曲白雲潭
四曲川觀倚翠巖近
人松影落參毛
濺沫無時歇雲氣尋
常漲一潭
從子昌協
五曲鳴玉瀨
五曲溪聲宜夜深鏘
然玉珮響遥林松門
步出霜厓靜圓月孤
琴世外心
從子昌翕

30 29

원 문·번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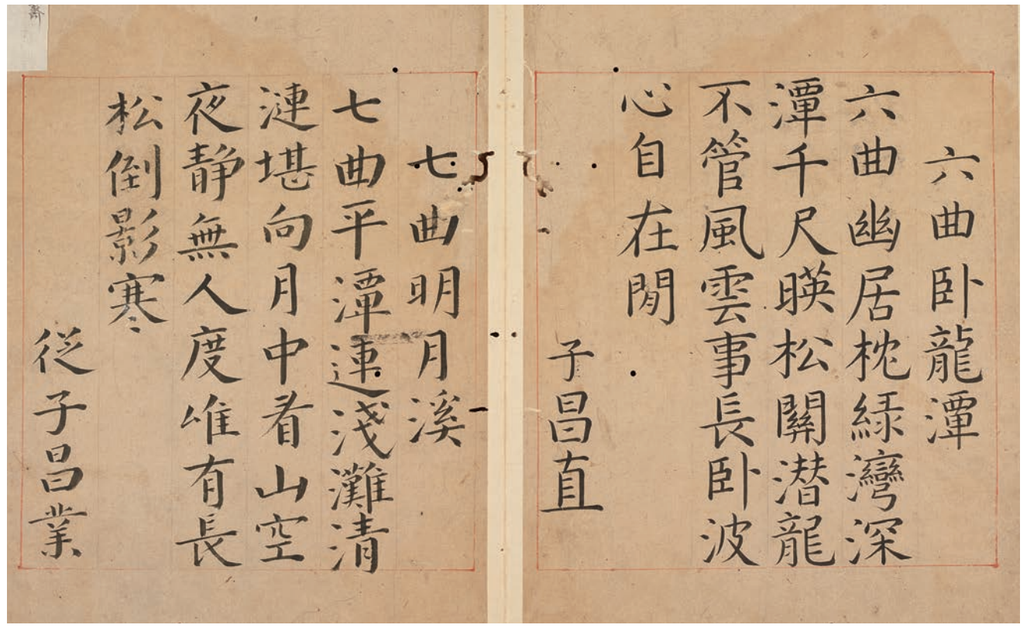
二曲峻嶒玉作峰　이곡이라, 우뚝한 옥이 봉우리를 만들고
白雲黃葉映秋容　백운산 노란 단풍 가을빛 띠는구나.
行行石棧仙居近　돌다리 걷다보니 신선 거처와 가까워져
已覺塵喧隔萬重　이제야 깨달았네, 시끄러운 세상 천만겹 떨어져 있음을.
子昌國　아들 창국

三曲仙蹤杳夜船　삼곡이라, 신선 자취는 밤배에 아득한데
空臺松月自千年　빈 누대 소나무에 걸린 달만이 스스로 천년일레.
超然會得清寒趣　청한한 정취 초연히 깨쳤나니
素石飛湍絶可憐　흰 돌 나는 여울 너무도 아름답네.
從子昌集　조카 창집

원 문·번역문

四曲川觀倚翠巖　사곡이라, 푸른 바위 의지해 내를 내려볼 제,
近人松影落參毛　가까이 소나무 그림자 가지를 길게 드리웠네.
奔濺濺沫無時歇　빠르게 흐르는 물살에 쉼 없이 거품을 내뿜으니
雲氣尋常漲一潭　구름 기운이 언제나 못 위에 넘실대네.
從子昌協　조카 창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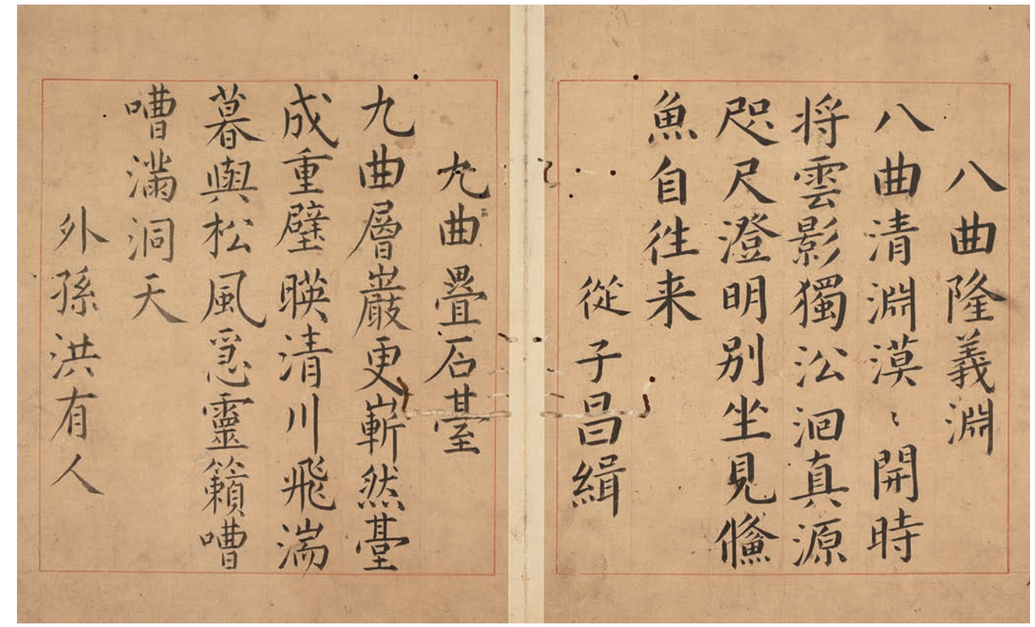
五曲溪聲宜夜深　오곡이라, 시냇물 소리 깊은 밤에 더 좋으니
鏘然玉佩響遙林　패옥처럼 쟁쟁하며 아득한 숲에 울리네.
松門步出霜厓靜　소나무 대문 벗어나니 서리 내린 언덕이 고요하고
圓月孤琴世外心　둥근달 외로이 울리는 거문고, 세속을 벗어난 마음이네.
從子昌翕　조카 창흡


六曲卧龍潭
六曲幽居枕綠灣深
潭千尺暎松關潛龍
不管風雲事長卧波
心自在閒
子昌直
七曲明月溪
七曲平潭連淺灘清
漣堪向月中看山空
夜静無人度唯有長
松倒影寒
從子昌業

32 31

원 문·번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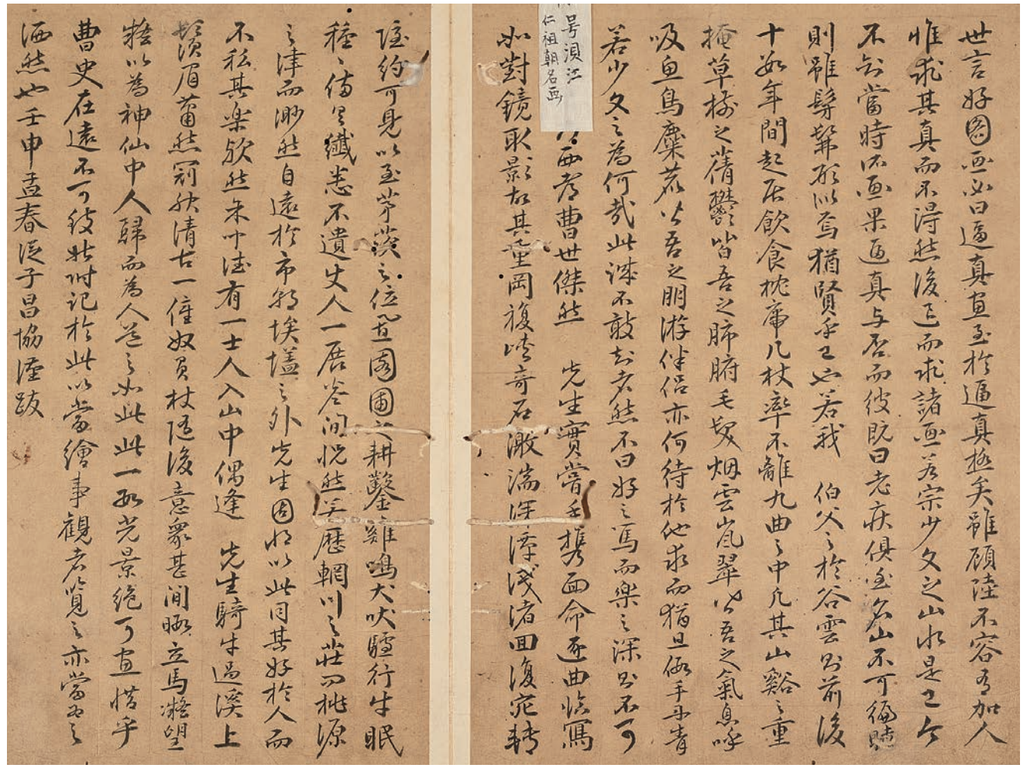
六曲幽居枕綠灣	육곡이라, 한가로이 지내며 푸른 물굽이 베개 삼아,
深潭千尺映松關	일천 자 깊은 못에 소나무 문 그림자 비치네.
潛龍不管風雲事	잠룡은 풍운 같은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고,
長臥波心自在閒	깊은 물속에 오랫동안 잠겨 스스로 한가롭게 있구나.
子昌直	아들 창직
七曲平潭連淺灘	칠곡이라, 평평한 못 얕은 여울 이어져,
清漣堪向月中看	맑게 이는 잔물결 달을 향하니 볼만하구나.
山空夜静無人度	텅빈 산 고요한 밤, 지나가는 이 없는데
唯有長松倒影寒	큰 소나무 거꾸러진 그림자만 물속에 차갑게 드리웠구나.
從子昌業	조카 창업


八曲隆義淵
八曲清淵漠漠開
將雲影獨沿洄
咫尺澄明別坐見儵
魚自往来
從子昌緝
九曲疊石臺
九曲層巖更嶄然
成重壁暎清川飛湍
暮與松風急靈籟嘈
嘈滿洞天
外孫洪有人

34 33

원 문·번역문

八曲清淵漠漠開	팔곡이라, 맑은 연못 아득히 펼쳐지니,
時將雲影獨沿洄	이따금 구름 그림자만 홀로 돌아 흐르네.
眞源咫尺澄明別	참된 근원이 지척에 있어 맑고 명백하니
坐見儵魚自往來	오가는 피라미떼 앉아서도 보이는구나.
從子昌緝	조카 창집
九曲層巖更嶄然	구곡이라, 층층이 선 바위 더욱 우뚝하고
臺成重壁映清川	겹겹의 벽 누대를 이우러 맑은 내에 비치네.
飛湍暮與松風急	여울물 솔바람과 함께 빠르게 흘러
靈籟嘈嘈滿洞天	그 울림소리 동천에 가득하구나.
外孫洪有人	외손자 홍유인



36 35

원 문

世言好圖畫, 必曰逼眞, 畫至於逼眞, 極矣, 雖顧, 陸, 不容有加, 人惟求其眞而不得, 然後退而求之於畫, 若宗少文之於山水, 是也, 今不知當時所畫, 果逼眞與否, 而彼旣曰老病俱至, 名山不可徧覩, 則雖髣髴形似焉, 猶賢乎已也, 若吾伯父之於谷雲, 則前後十數年間, 飮食起居, 枕席几杖, 率不離九曲之中, 凡其山谿之重掩, 草樹之蓊鬱, 皆吾之肺腑毛髮, 煙雲嵐翠, 皆吾之氣息呼吸, 魚鳥麋鹿, 皆吾之朋游伴侶, 亦何求不得, 而猶且假手丹靑, 若少文之爲, 何哉, 此誠不敢知者, 然不曰好之篤而樂之深, 則不可也, 畫者, 乃西都曹世傑, 先生實手携而面命, 逐曲臨寫, 如對鏡取影, 故其重岡複峽, 奇石激湍, 茅茨之位置, 園圃之耕鑿, 雞鳴犬吠, 驢行牛眠, 種種備具, 纖悉無遺, 使人一展卷間, 怳然若歷輞川之莊, 問桃源之津, 而渺然自遠於市朝埃壒之外, 先生殆將以此, 同其好於人而不私其樂歟, 然余聞往有一士人入山中, 偶逢先生騎牛過溪上, 鬚眉蕭然, 冠服淸古, 一僮奴負杖隨後, 意象甚閒暇, 立馬凝望, 疑以爲神仙中人, 歸而爲人道之如此, 此一段光景, 絶可畫, 惜乎, 曹史在遠不可致, 略記於此, 以當繪事, 覽者觀之, 亦當爲之灑然也. 壬申孟春從子昌協謹跋.

번역문

세상에서는 좋은 그림을 말할 때에 반드시 '실제를 그대로 표현했다[逼眞]'고 한다. 그림이 핍진逼眞하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것이니, 고개지顧愷之[동진東晉의 화가]와 육탐미陸探微[남조南朝 송宋나라의 화가]도 그보다 더한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였다. 사람들은 실물을 구하다가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한발 물러나 그것을 그림에서 찾곤 하는데, 종소문宗少文[1]이 산수에 대하여 취한 태도가 그러했다. 지금 그 당시에 그린 그림이 과연 핍진했는지 여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는 "이제는 늙고 병들어 명산을 두루 구경할 수가 없으니, 그 모습을 비슷하게 그린 그림이라도 볼 수 있으면 아예 보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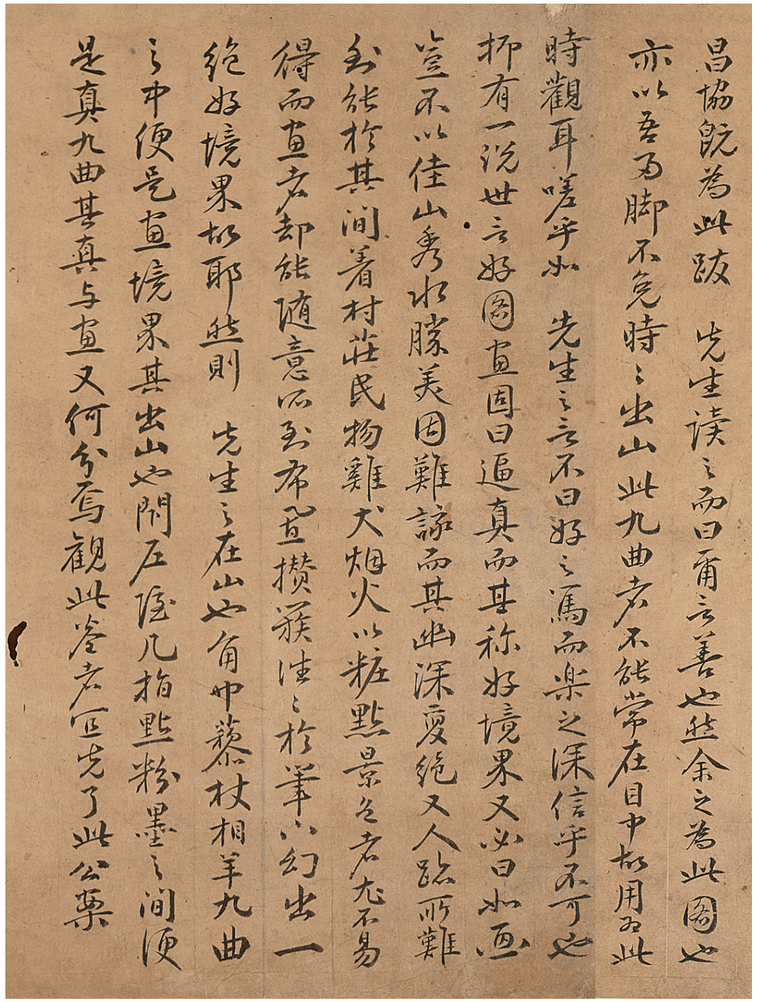
우리 백부와 곡운의 관계를 보면 십수 년 동안 음식과 거주, 이부자리와 지팡이 등의 생필품이 구곡 안을 떠난 적이 거의 없다. 이곳의 중첩된 산과 시내, 울창한 초목은 모두 자신의 신체의 일부이자 모발이요, 이곳의 안개와 이내는 모두 자신이 들이키고 내쉬는 공기요, 이곳의 물고기와 새, 고라니와 사슴들은 모두 자신이 벗 삼아 노는 반려자였다. 이곳에서 구하여 얻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종소문처럼 화가의 손을 빌린 것은 어째서인가? 나는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지만 "이곳을 정말 좋아하여 즐거움이 깊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화가는 바로 서도西都[평양]의 조세걸曹世傑이다. 선생이 직접 데리고 와서 분부하여 거울에 비친 모습을 가져오듯 계곡마다 직접 찾아가서 그림을 그렸다. 겹쌓인 언덕과 골짜기, 진기한 바위와 물살이 빠른 여울, 집의 위치, 채소밭의 경작 상황, 닭이 울고 개가 짖는 모습, 나귀가 걸어가고 소가 잠자는 모습 등 갖가지 풍경이 빠짐없이 다 갖추어졌다. 이 그림을 한번 펼쳐 보면 마치 망천輞川 당나라 왕유王維의 별장의 농장을 지나가고 무릉도원으로 가는 나루를 찾아가는 것처럼 황홀하여 저절로 시장거리와 조정의 번잡한 속세를 멀리 벗어나게 된다. 선생은 아마도 이 그림으로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즐기며 그 즐거움을 혼자만 느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날 어떤 선비가 산 속에 들어갔다가 소를 타고 시냇가를 지나가는 선생을 만났는데, 선생은 수염과 눈썹이 말끔하고 의관이 예스럽고 단정했으며 아이종 하나가 지팡이를 지고 뒤따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 분위기가 매우 한가로워 그 선비는 말을 세우고 가만히 바라보며 신선 세계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고는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그가 본 대로 말했다고 한다. 이 광경은 참으로 그림으로 그릴 만한데, 안타깝게도 화가 조씨가 멀리 있어 불러올 수가 없다. 그 일을 여기에 기록하여 그림을 대신하는 바이니,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이 대목을 보면 마음이 상큼해질 것이다.

1692년 정월 조카 창협이 발문을 쓰다.

1 종소문宗少文: 소문은 남조 송나라 종병宗炳의 자이다.



37 36

원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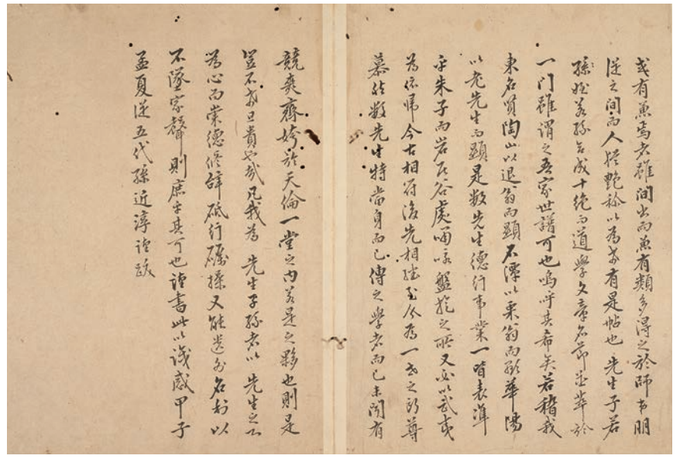
昌協旣爲此跋, 先生讀之而曰, 爾言善也, 然余之爲此圖也, 亦以吾兩脚不免時時出山, 此九曲者, 不能常在目中, 故用爲爾時觀耳, 嗟乎, 如先生之言, 不曰好之篤而樂之深, 信乎其不可也, 抑有一說, 世言好圖畫, 固曰逼眞, 而其稱好境界, 又必曰如畫, 豈不以佳山秀水勝美難該, 而其幽深夐絶, 又人跡所難到, 能於其間, 著村莊民物雞犬煙火, 以粧點物色, 尤不易得, 而畫者却能隨意所到, 布置攢簇, 往往於筆下, 幻出一絶好境界故耶, 然則先生之在山也, 角巾藜杖, 相羊九曲之中, 便是畫境界, 其出山也, 閉戶隱几, 指點粉墨之間, 便是眞九曲, 其眞與畫, 又何分焉, 觀此卷者, 宜先了此公案.

번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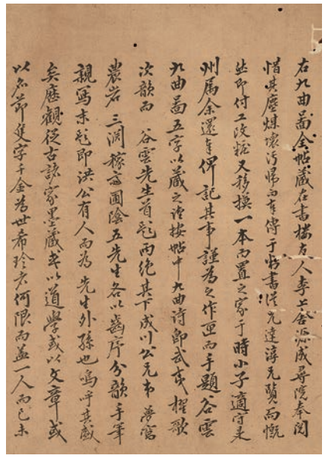
내가[창협] 이 발문을 쓴 뒤에 선생이 읽어 보시고는, "네 말이 좋기는 하다. 그러나 내가 이 그림을 그린 것은, 내 이 두 다리가 때때로 산을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이 구곡九曲이 눈 안에 늘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보려고 한 것뿐이다." 하였다. 아, 선생의 이 말씀으로 볼 때 "이곳을 독실히 좋아하여 즐거움이 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서는 정말로 안 될 것이다.

한편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세상에서는 좋은 그림을 "실물과 똑같다[逼眞]."고 하지만 좋은 경치를 이를 때에도 반드시 "그림 같다."고 한다. 그 이유는 좋은 산과 빼어난 물 등 아름다운 풍경은 한곳에 모두 갖추어지기가 어렵고, 혹시 그런 곳이 있다 하더라도 깊은 산중에 있어 인적이 미치기가 어려워 그러한 곳에 촌락이 형성되고 백성이 정착하여 닭과 개가 짖어 대고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라 정감 있는 물색이 어우러지게 되는 것은 더욱 쉽지가 않은 법인데, 화가는 마음 가는 대로 경물을 배치하고 모아 놓을 수 있는 까닭에 이따금 붓끝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해 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선생이 산속에서 각건角巾을 쓰고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구곡 안에서 배회하는 그곳은 곧 그림 속의 광경이요, 선생이 산을 나가 문을 닫고 자리에 기대어 그림을 감상하는 그곳은 곧 현실의 구곡이 아닐까? 현실과 그림을 또 어떻게 구분한단 말인가. 이 그림첩을 보는 사람은 먼저 이 문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40 39



38

원 문

右九曲圖全帖, 藏在書樓, 友人李上舍源成, 尋院奉閱, 惜其塵煤壞汚, 歸而奉傳于判書從兄達淳. 兄覽而慨然, 即付工改粧, 又移模一本而置之家. 于時小子適守是州, 屬余還奉, 俾記其事. 謹爲之作匣, 而手題谷雲九曲圖五字以藏之. 謹按帖中九曲詩卽武夷棹歌次韻, 而谷雲先生首題兩絶, 其下成川公兄弟·夢窩·農岩·三淵·稼齋·圃陰五先生, 各以齒序分韻, 手筆親寫. 末題卽洪公有人, 而爲先生外孫也. 嗚呼, 其盛矣. 歷觀從古諸家墨藏, 或以道學, 或以文章, 或以名節, 隻字千金, 爲世希珍者何限, 而盖一人而已, 未或有兼焉者. 雖間出而兼有, 類多得之於師弟朋從之間, 而人猶艶稱以爲希有. 是帖也, 先生子若姪爲孫, 合成十絶, 而道學文章名節, 並萃於一門, 雖爲之吾家世譜, 可也. 嗚呼, 其希矣. 若稽我東名賢, 陶山以退翁而顯, 石潭以栗翁而彰, 華陽以老先生而顯. 是數先生, 德行事業, 一皆標準乎朱子, 爲岩居谷處, 誦詠盤旋之所, 又必以武夷爲依歸, 今古相符, 後先相繼, 至今爲一世之所尊慕. 然數先生, 特當身而已, 傳之學者而已, 未聞有競爽齊姱於天倫一堂之內. 若是之夥也, 則是豈不希且貴也哉. 凡我爲先生子孫者, 以先生之心爲心, 而崇德修辭, 砥行礪操, 又能遺外名利. 以不墜家聲, 則庶乎其可也. 謹書此以識感. 甲子孟夏, 從五代孫近淳謹跋.

번역문

오른쪽의 구곡도첩은 서루書樓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다. 벗 진사進士 이원성李源成이 서원書院[사당祠堂]을 찾았다가 열람하고 먼지와 그을음에 더럽혀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종경 달순達淳에게 전달하였다. 종형 달순이 이를 보고는 탄식하고 바로 장인匠人에게 보내 개장改粧하게 하고, 또 한 본을 이모移模하여 집에 보관하였다. 이 때 내[근순近淳]가 마침 이 고을[춘천]의 수령이었다. 나에게 다시 받들어 안치하고 그 일을 기록하게 했다. 내가 직접 갑匣을 만들고 '곡운구곡도谷雲九曲圖' 다섯 자를 써서 붙여서 보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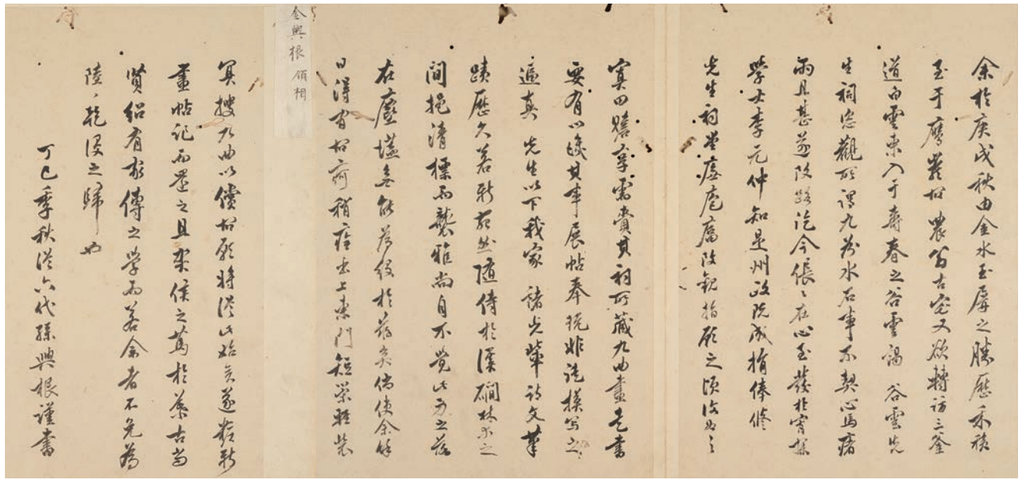
살펴보니 첩 안의 구곡시는 주자의 「무이도가武夷棹歌」를 차운하여 곡운 선생[김수증]께서 먼저 두 수를 짓고 그 아래에 성천공[1]의 형제, 몽와[김창집], 농암[김창협], 삼연[김창흡], 가재[김창업], 포음[김창즙] 다섯 선생께서 나이 순서대로 운을 나눠 친필로 썼다. 마지막 제題는 홍유인洪有人공이 하였으니 선생의 외손이다. 아, 성대하도다.

예전 여러 사람들의 글씨를 모아놓은 것을 보면, 어떤 것은 도학道學으로, 어떤 것은 문장文章으로, 어떤 것은 명절名節로 이름난 분이 쓰신 글자가 천금의 가치가 있어 세상의 드문 보배가 된 것이 어찌 적지 않겠는가. 이는 대개 각 분야의 한 사람일뿐 겸한 자는 없다. 간간이 겸한 자가 있더라도 대부분 스승과 제자, 친구 사이인데,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도 드문 일이라고 부러워하며 칭찬한다. 이첩은 선생과 그 아들, 조카 그리고 손자의 것으로 모두 시 열편을 이루었는데 도학·문학·명절이 한 가문[一門]에 다 모였으니 '우리 집안의 세보世譜'라 해도 좋을 것이다. 아, 드물구나.

우리나라의 명현名賢을 상고해보면, 도산陶山은 퇴옹退翁[이황]으로 드러났고, 석담石潭은 율옹栗翁[이이]으로 드러났으며, 화양華陽은 노선생老先生[송시열]으로 드러났다. 이 선생들은 덕행이 한결같이 주자를 표준으로 삼아 바위에 살고 골짝에 처하여 시를 읊조리고 거니는 곳 또한 무이武夷를 귀의로 삼았다. 지금과 옛날이 서로 맞고, 뒤와 앞이 서로 쫓아 지금에까지 세상이 존경하고 사모하는 바가 되었다. 이 몇 선생은 다만 자신의 대에 그쳤을 뿐이고 학자에게 전하였을 뿐이지, 한 집안 안에서 상쾌함을 다투고 아름다움을 나란히 하였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이처럼 사례가 적은 것은 어찌 희소하고도 귀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선생의 자손들은 선생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아 덕을 높이고 문사를 닦으며, 행실과 조행을 부지런히 힘쓰며 또 명예와 이익을 멀리하여 집안의 명성을 실추시키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이다. 이를 써서 마음을 기록한다.

갑자년(1804, 순조 4) 초여름에 종5대손 근순近淳이 발문을 짓다.

1 성천공: 성천부사를 지낸 김수증을 말한다.



43 42 41

원 문

余於庚戌秋由金水玉屛之勝, 歷禾積至于鷹巖, 宿農翁古宅. 又欲轉訪三釜, 道而白雲東, 入于壽春之谷雲, 謁谷雲先生祠, 恣觀所謂九谷水石, 事不契心, 馬瘏, 雨且甚, 遂改路. 迄今悵悵在心, 至發於宵寐. 學士李元仲知是州, 政旣成, 損俸, 修先生祠, 堂廡庖廩, 改觀, 指顧之傾, 實田瞻享需賚. 其祠所藏九曲畫, 走書, 要有以識其事. 展帖奉玩, 非特模寫之逼眞, 先生以下我家諸先輩詩文筆跡, 歷久若新, 宛然隨侍於澤磵林木之間, 挹淸標而襲雅尙, 自不覺此身之落在塵壒, 無能爲役於玆矣. 倘使余餘日得間, 宿痾稍痊, 出上東門, 短策輕裝, 冥搜九曲, 以償宿願, 將從此始矣. 遂粧新畫帖記以還之. 且賀侯之篤於慕古尙賢, 紹有家傳之學, 而若余者, 不免爲陸陸乾沒之歸也.

丁巳季秋從六代孫興根謹書.

번역문

나는 경술년(1850, 철종 즉위년) 가을 금수金水[금수정], 옥병玉屛[창옥병]으로부터 화적禾積[화적연]을 거쳐 응암鷹巖에 이르러 농옹農翁[김창협]의 고택에서 잤다. 삼부三釜[삼부연]를 방문하고자 백운白雲[영평 백운산] 동쪽으로 길을 가서 수춘壽春[춘천]의 곡운에 들어가 곡운선생 사당을 알현하고 이른바 '구곡九曲'의 수석水石을 맘껏 보려했는데 일정이 마음과 맞지 않고 말이 병이 난데다가 비 또한 심해서 길을 바꾸고 말았다. 지금까지 서운하여 꿈에 자주 나타났다.

학사學士 이원중李元仲[1]이 이 고을의 수령이 되어 정사政事를 잘 다스리고 녹봉을 덜어 선생의 사당祠堂을 수리하니, 처마며 부엌이며 잠깐 사이에 볼거리가 확 바뀌었다. 밭도 넉넉히 마련해 두어 제사에 사용할 비용을 충당하게 했다. 사당에 보관되어 있던 「구곡화九曲畫」를 나에게 편지와 함께 보내며 그간의 일에 대해 기록해달라고 했다. 첩을 펼쳐 감상하니 풍경을 사실대로 묘사했을 뿐 아니라 선생을 비롯한 우리 집안 여러 선배들이 시문가 글씨가 오래되었는데도 마치 새 것과 같았다. 마치 시냇가 수풀 속에 지내면서 맑은 몸가짐을 하고 고상하고 우아한 풍모가 스며드는 듯하여 이 몸이 먼지로 가득 찬 세상과 떨어져 속세의 영향에서 벗어났음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만약 내가 오랜 병이 좀 나아지면 동문東門으로 나와 짧은 지팡이를 들고 가벼운 옷을 입고 구곡九曲을 찾아 오랜 바람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이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마침내 화첩을 새로 꾸민 것에 대해 글을 써서 보낸다. 그대[侯, 이용은]가 옛 것을 사모하고 현인賢人을 존경하며 가문의 학문을 이음을 경하慶賀한다. 나 같은 자는 무미건조함으로 귀결됨을 면치 못하겠지만.

정사년(1857, 철종 8) 늦가을에 종6대손 홍근興根이 글을 짓다.

1 이원중李元仲: 원중은 이용은李容殷의 자로, 이용은은 당시 춘주부사[현재 춘천]였다.

해 설[2]

《곡운구곡도첩》은 김수증이 자신이 은거했던 강원도 화천군 곡운구곡을 그린 그림과 시로 꾸민 시화첩이다. 그는 1670년 강원도 화악산의 계곡에 들어와 땅을 마련하고 농수정사를 지었다. 1675년 동생 김수항이 송시열과 함께 유배되자 가족을 이끌고 은거하기 위해 농수정사로 들어왔다. 이때 원래 명칭인 사탄史呑을 주희가 머물렀던 무이산武夷山의 운곡雲谷을 따라서 곡운谷雲으로 바꾸고, 이곳에서 주자학적 이상향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는 주변의 경치와 구조물에 주자학적 세계관이 담긴 이름을 짓거나 그 뜻을 새겨두었다. 또, 절의를 지킨 은자의 표상으로 김시습을 형상화하여 스스로 유교적인 은일隱逸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1680년 서인이 재집권을 하게 되자, 김수증은 1681년 지병을 치료하고 출사 하기 위해 서울로 갔다. 이때 이곳을 마음속에 담아두기 위해 1682년 화원畫員 조세걸曺世傑을 초빙하여 사실적으로 그리도록 하였다. 산수풍경, 띠집과 농사짓는 풍경, 닭, 개, 나귀, 소의 생생한 행동까지 빠짐없이 그렸다. 또한 김수증은 자신의 조카들에게 시문을 짓게 하여 하나의 첩으로 만들고 김창협이 발문을 썼다. 여기에서 김창협은 "좋은 그림은 진짜 같다."와 "좋은 경치는 그림 같다."의 의미를 풀어내었다. 이처럼 김수증의 예술 활동은 그의 조카인 김창집 형제의 예술 세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 첩은 조선시대에 자연 속에 있는 개인의 거주지를 산수화로 제작한 사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

Containing a total of thirty-two leaves, Album of Nine Bends at Gogun features writings, poems, and ten paintings describing the "Nine Bends at Gogun" in Hwacheon-gun, Gangwon Province, where Kim Sujeung lived. After moving to Gogun in March 1670, Kim Sujeong identified the "Nine Bends" from nearby scenic spots. His family also moved to Gogun in 1675, but in 1681, Kim was forced to return to Seoul due to illness. Lamenting his departure, in 1682, Kim asked the court painter Jo Segeol to travel to Gogun and paint some realistic landscapes for him as a remembrance. This collection of works is an important example of how Joseon artists produced landscape paintings of private residences surrounded by nature.

2 『(그림과 책으로 만나는)충북의 산수』(국립청주박물관, 2014)의 도판 설명을 참조하였다.

김수항시 김창협필 서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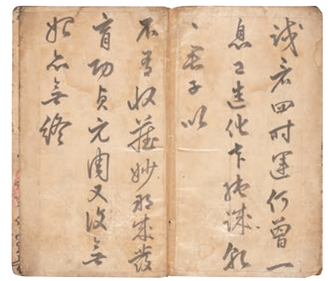
金壽恒詩金昌協筆書帖

Album of Poe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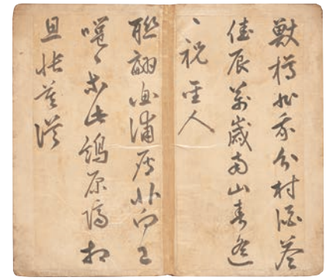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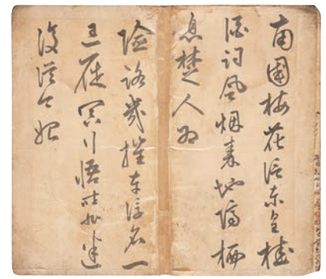
글 김수항, 글씨 김창협
조선, 1702년
첩, 종이에 먹, 각 면 52.3×30.5cm
구8720

Kim Suhang (writing), Kim Changhyeop (calligraphy)
Joseon Dynasty 1702
Ink on paper, 52.3×30.5cm (each page)
koo 8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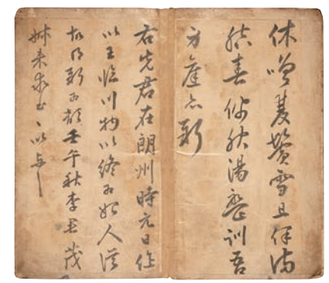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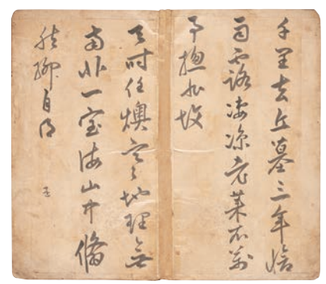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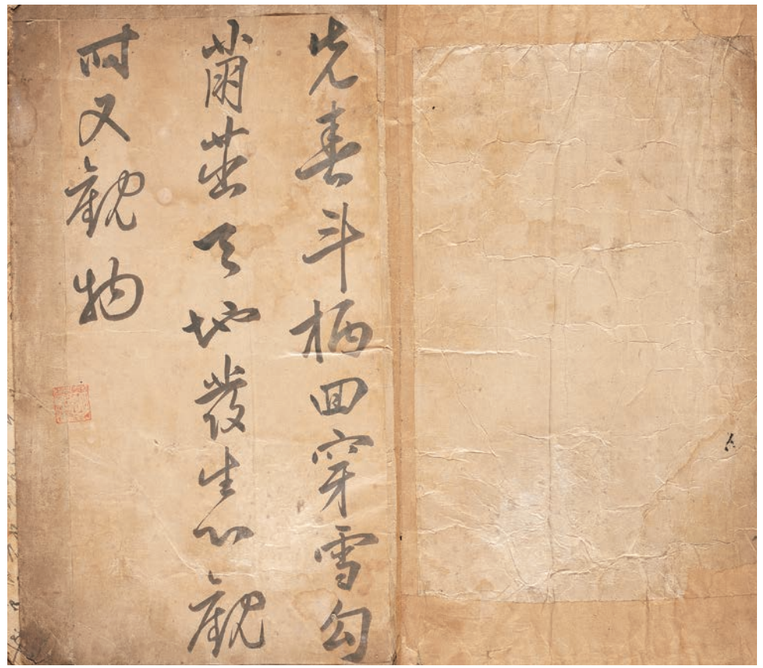

7 6


5 4

12


1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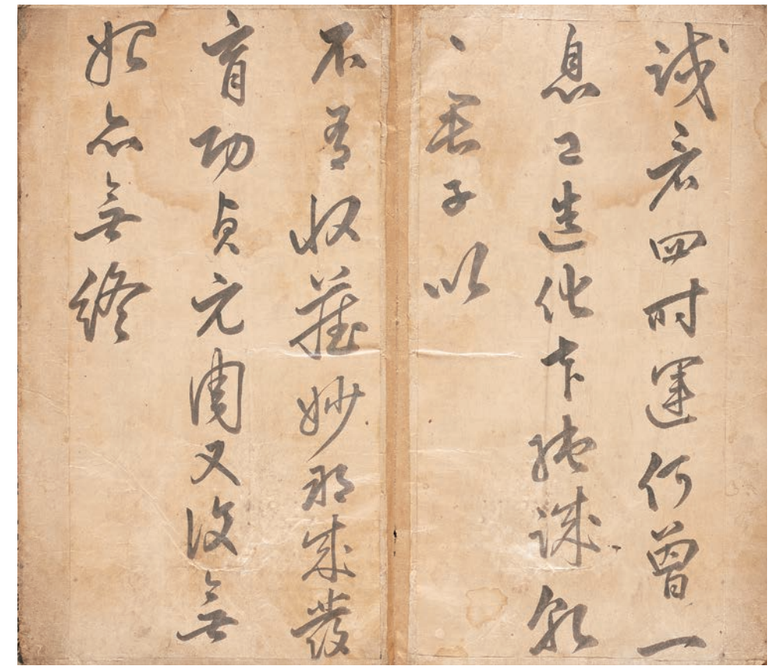

9 8



1

원 문·번역문

先春斗柄回	봄에 앞서 북두칠성 자루 돌아오니
穿雪句萌茁	눈을 뚫고 굽은 싹 돋아나는구려.
天地發生心	하늘과 땅의 낳고 기르는 마음을
觀時又觀物	시절에서 보고 또 경물에서 보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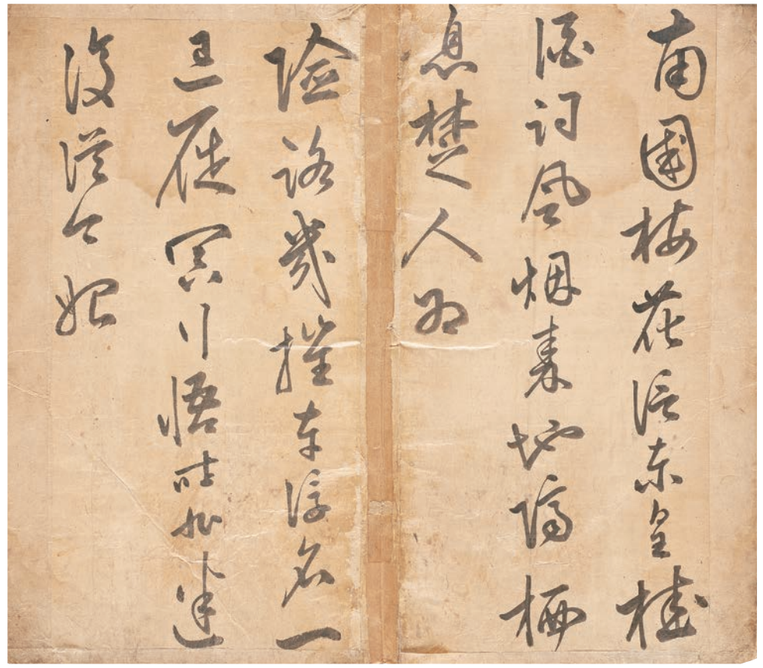
3 2

원 문·번역문

試看四時運	한 번 사계절 운행을 보라
何曾一息已	언제 잠시라도 멈춘 적 있던가.
造化本純誠	그 조화 본래 순일한 정성이니
乾乾君子以	군자도 늘 이것에 힘쓰노라.[1]
不有收藏妙	거두어 간직하는 묘리가 없다면
那成發育功	어떻게 발육의 공 이루랴.
貞元周又復	겨울 잇는 봄 돌아서 다시 오니[2]
無始亦無終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라.

1 군자도 …… 힘쓰노라: 하늘이 쉬지 않고 운행하는 것처럼 군자도 근신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 「건괘乾卦 · 구삼九三」에 "군자가 종일토록 건실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저녁까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면 비록 위태로운 지경을 당할지라도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君子, 終日乾乾, 夕惕若, 厲無咎.]"라고 하였고, 또 상사象辭에 "하늘의 건실한 운행을 본받아서 군자는 스스로 힘쓰면서 쉬지 않는다.[天行健, 君子以自彊不息.]"라고 하였다.

2 겨울 …… 오니: 원문의 '정원貞元'은 『주역』에 나오는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사덕四德 가운데 원元과 정貞이다. 이들은 각각 만물의 발생과 완성을 가리키며 봄과 겨울을 뜻한다.



5 4

3 동황東皇은 …… 읊노라: 동황은 봄의 신인 태일太一을 말한다. 이 신사神祠가 초楚나라 동쪽에 있다 하여 동황東皇이라 하였다. 계주桂酒는 계피가루를 넣어 담은 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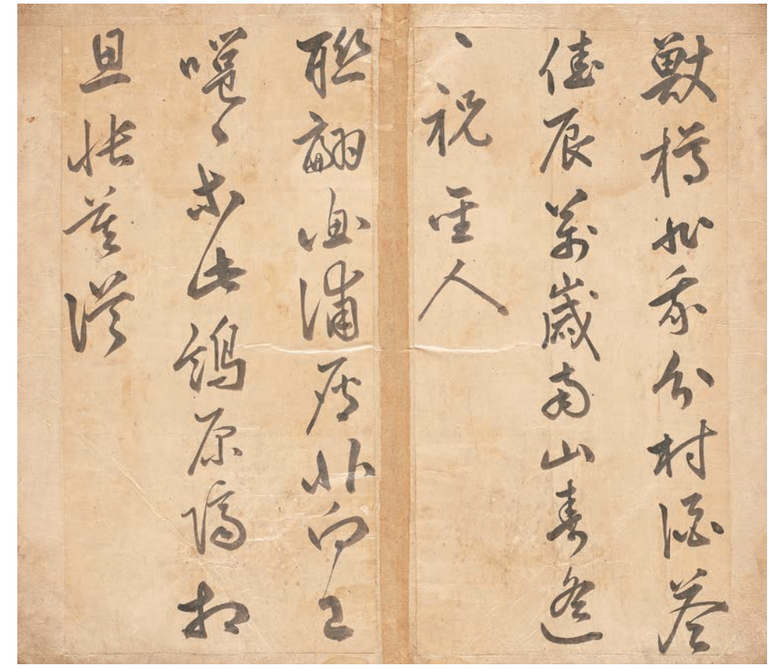
4 초나라 사람 되었네: 초나라 조정에서 삼려대부三閭大夫로 있다가 참소를 받아 물가에서 시를 읊고 거닐었던 굴원屈原을 가리킨다. 이 시를 지을 당시 김수항은 영암에 유배되어 있었다.

5 캄캄하게……알지만: 원문의 '명행冥行'은 명행적식冥行擿埴의 준말이다. 캄캄한 길을 가거나, 장님이 지팡이로 더듬더듬 나아가듯 한다는 뜻이다. 어제까지 잘못됐음을 알았다는 것은 춘추시대 위衛 영공靈公 때의 대부大夫 거백옥蘧伯玉과 관련된 일화로, "나이 50세가 되어 49세까지 잘못한 일을 알았다.[行年五十, 而知四十九年非.]"라고 한 고사에서 온 말이다.

6 헤매는 일: 원문의 '미복迷復'은 끝까지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면 흉凶하다는 말이다. 『주역』 「복괘復卦」에 "상육上六은 미복이니 흉하다.[上六, 迷復, 凶.]"라고 하였다.

원 문·번역문

南國梅花信	남국에 매화 피었다는 소식이니
東皇桂酒詞	동황은 계주의 노래를 읊노라.[3]
風煙秦地隔	바람과 안개로 도성은 머나머니
棲息楚人爲	남방에 깃든 초나라 사람 되었네.[4]
險路幾摧車	험로에서 몇 번이나 수레를 망가뜨렸던가
浮名一退屣	헛된 이름이란 하나의 벗어던진 짚신이라.
冥行悟昨非	캄캄하게 살아와 어제까지의 과오를 알지만[5]
迷復從今始	헤매는 일[6] 다시 지금부터 시작이로다.



7 6

7 수준獸樽: 백수준白獸樽으로, 원단元旦의 조회朝會 때 직간直諫하는 신하에게 내려 주던 술잔 이름이다. 원래는 백호준白虎樽인데, 당나라가 건국된 뒤 태조로 추존된 이호李虎의 휘를 피하여 수獸로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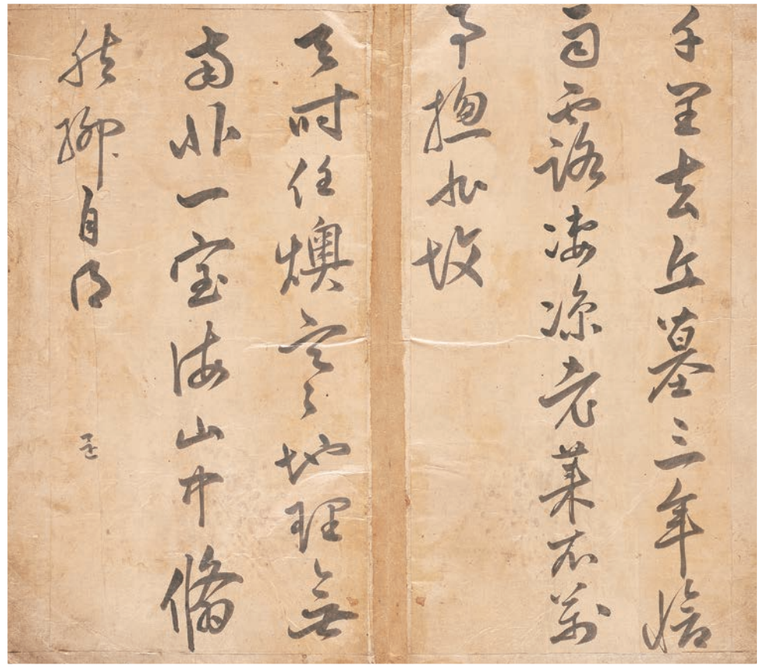
8 만세토록 남산처럼 장수하소서: '남산수南山壽'는 구여지축九如之祝의 하나이다. 구여는 『시경』 「천보天保」에 나오는 아홉 가지의 축복으로, 여산如山, 여부如阜, 여강如岡, 여릉如陵, 여천방지如川方至, 여월항如月恒, 여일승如日升), 여남산수如南山壽, 여송백무如松柏茂를 말한다.

9 형양 포구 기러기여: '형포衡浦'는 형양의 포구이다. 왕발王勃(당唐, 650-676)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기러기 떼 추위에 놀라니, 소리가 형양의 포구에서 끊어진다.[雁陣驚寒, 聲斷衡陽之浦.]"라고 하였다.

10 형제들: '영원鴒原'은 고향에 두고 온 형제 또는 그들의 안부를 걱정한다는 말이다. 『시경』 「당체棠棣」에 "할미새가 언덕에 있으니 형제가 어려울 때 돕누나.[脊令在原, 兄弟急難.]"라고 하였다.

원 문·번역문

獸樽非我分	수준[7]은 내 분수가 아니기에
村酒答佳辰	시골 농주로 봄날에 화답하나니
萬歲南山壽	만세토록 남산처럼 장수하소서.[8]
遙遙祝聖人	멀리서 우리 임금께 축수하노이다.
聯翩衡浦雁	줄 지어 나는 형양 포구 기러기여[9]
北向已嗈嗈	북쪽으로 날아가며 우는구나.
奈此鴒原隔	어찌하나 형제들[10] 멀리 떨어져서
相思悵莫從	그리워도 못 만나니 슬프다오.



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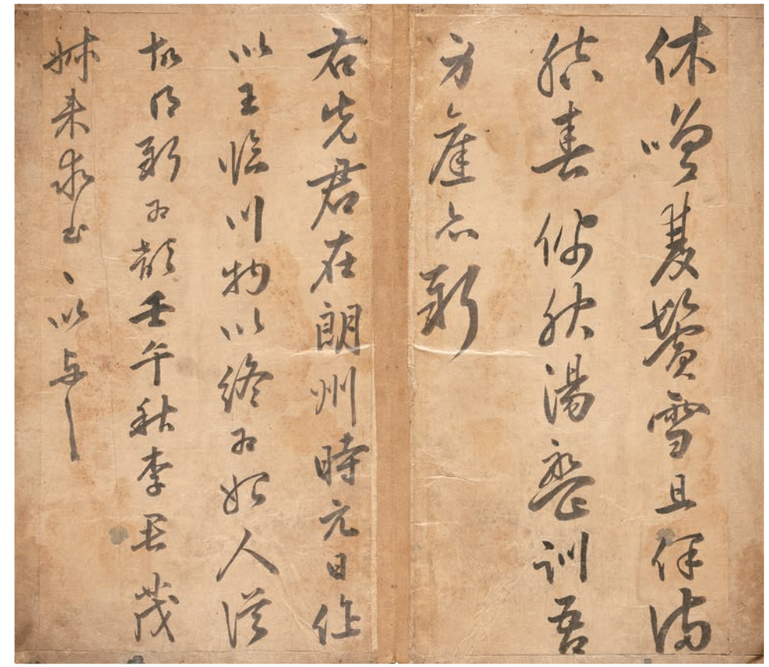
원 문·번역문

千里去丘墓　　선영에서 천리나 떠나왔기에
三年愴雨露　　삼 년 동안 비와 이슬[11] 슬퍼했지.
凄凉老萊衣　　처량하도다 노래자의 옷[12]이여
萬事摠非故　　만사가 모두 옛날 같지 않구려.

天時任燠寒　　천시는 덥기도 춥기도 하고
地理無南北　　지리는 남과 북이 없나니
一室海山中　　바닷가의 한 방 안에서
翛然還自得　　어느새 자득함이 있어라.

11 비와 이슬: 봄가을에 계절의 변화에 따라 서리와 이슬을 밟고 돌아가신 선령先靈을 추모하는 마음을 말한다. 『예기』 「제의祭義」에 "서리가 내리면 군자가 이를 밟고 반드시 서글픈 마음을 가지나니 추워서가 아니고, 봄에 우로가 적셔 줄 때 군자가 이를 밟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나니 마치 돌아가신 분을 뵙듯이 한다.[霜露旣降, 君子履之, 必有悽愴之心, 非其寒之謂也. 春雨露旣濡, 君子履之, 必有怵惕之心, 如將見之.]"라고 하였다.

12 노래자의 옷: '노래의老萊衣'는 노래자老萊子의 옷이라는 뜻이다. 춘추 시대 초나라의 노래자가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일흔의 나이에도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피워 부모를 기쁘게 하였다.



11 10

원 문·번역문

休嗟雙鬢雪　　두 살쩍 희어졌다 한탄을 말고
且保滿腔春　　가슴 가득히 화락함[13] 보전해야지.
佩服湯盤訓　　탕 임금의 가르침[14] 몸에 지니면
吾身舊亦新　　내 몸의 구태 또한 새로워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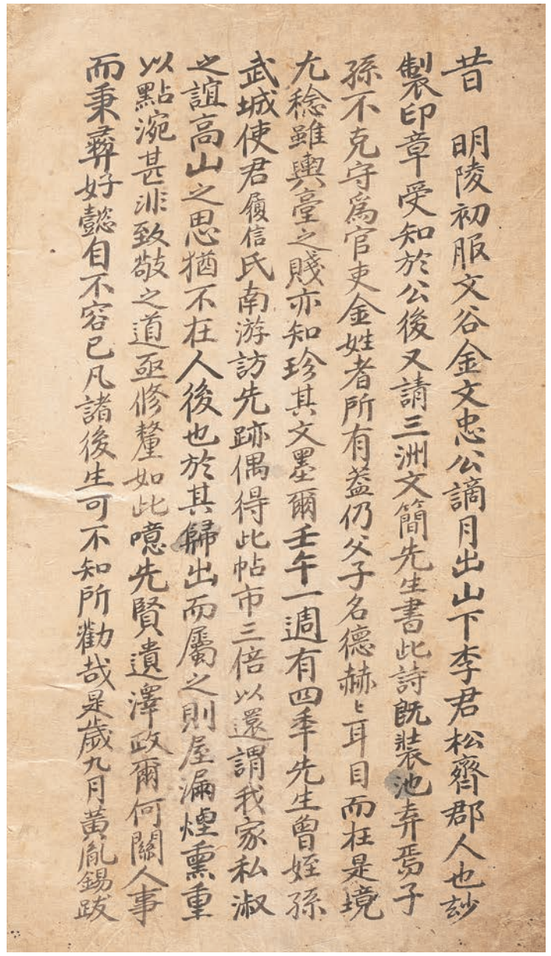
右先君在朗州時, 元日從以王臨川詩"物以終爲始, 人從故得新.", 分韻作.
壬午秋李君茂林來求之以寫.
오른쪽의 시는 아버지께서 낭주朗州[15]에 계실 때 새해 첫날(1677, 숙종 3) 왕임천王臨川[16]의 시 "만물은 끝을 처음으로 삼고, 사람은 옛것에서 새로움을 얻는다."를 운을 나누어 지으셨다. 임오년(1702, 숙종 28) 가을 이무림李茂林 군이 와서 구하여서 쓰다.

13 가슴 가득히 화락함: '만강춘滿腔春'은 옛 시에 "가슴 가득 봄날의 화기애애함이라.[滿腔子都是春意.]"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14 탕 임금의 가르침: '탕반湯盤'은 은殷 나라 탕 임금의 반盤에 있는 명문을 말한다. "날로 새롭고 나날이 새로워지며 또 날마다 새로워지리라.[日新, 日日新, 又日新.]"라고 하였다.

15 낭주朗州: 전라도 영암을 말한다. 김수항은 예송논쟁에서 패하여 1675년부터 전라도 영암에서 유배생활을 하다가, 1678년 강원도 철원으로 유배지를 옮겼다.

16 왕임천王臨川: 중국 북송北宋의 왕안석王安石(1021-1086)을 말한다. 임천은 그의 출생지이다. 자는 개보介甫이며 호號는 반산半山이다. 신종神宗(재위 1067-1085)을 도와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법新法을 만들어 추진했지만 9년 만에 보수파保守派의 반대로 물러났다. 시문에도 뛰어나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 중의 한 사람이다.


昔明陵初服文谷金文忠公謫月出山下李君松齊郡人也妙
製印章受知於公後又請三洲文簡先生書此詩既裝池弆焉子
孫不克守爲官吏金姓者所有葢仍父子名德赫赫耳目而在是境
尤稔雖輿臺之賤亦知珍其文墨爾壬午一週有四年先生曾姪孫
武城使君履信氏南游訪先跡偶得此帖市三倍以還謂我家私淑
之誼高山之思猶不在人後也於其歸出而屬之則屋漏煙熏重
以點涴甚非致敬之道亟修釐如此噫先賢遺澤政爾何關人事
而秉彝好懿自不容已凡諸後生可不知所勸哉是歲九月黃胤錫跋

12

원 문

昔明陵初服, 文谷金文忠公謫月出山下, 李君松齊郡人也, 妙製印章, 受知於公, 後又請三洲文簡, 先生書此詩, 既裝池弆焉, 子孫不克守, 爲官吏金姓者所有, 葢仍父子名德赫赫耳目, 而在是境尤稔, 雖輿臺之賤, 猶知珍其文墨爾. 壬午一週有四年, 先生曾姪孫武城使君履信氏南遊訪先跡, 偶得此帖, 市三倍以還, 謂我家私淑之誼, 高山之思, 猶不在人後也, 於其歸出而屬之, 則屋漏烟熏, 重以點涴, 甚非致敬之道, 亟修釐如此, 噫先賢遺澤, 政爾何關人事, 而秉彝好懿, 自不容已, 凡諸後生, 可不知所勸哉. 是歲九月黃胤錫跋.

번역문

예전 숙종대왕[明陵]께서 즉위하셨을 때 문곡文谷 김문충공金文忠公[김수항]께서 월출산月出山 아래로 유배되셨다. 이군李君 송제松齊[이송제]는 그 지역[郡] 사람이었는데 인장印章을 절묘하게 잘 만들어 문충공과 친하게 지내었다. 뒤에 삼주三洲 문간文簡 선생[김창협]께 이 시를 써주기를 청하여 장황을 해서 간직했는데, 자손들이 지키질 못하여 관아 아전 김씨의 소유가 되었다. 부자[김수항·김창협]의 밝은 덕이 사람들 사이에 찬란하게 빛났는데 이곳에서 더욱 무르익었다. 천한 하인이라도 그 필적[文墨]을 보배롭게 여겼다. 임오년壬午年이 한 갑자가 돌고 4년 뒤, 선생의 증질손曾姪孫인 태인현[武城]의 이신씨履信氏가 남쪽으로 유람을 와서 선조先祖의 자취를 방문했다가, 이 첩을 세 배의 가격을 주고 샀다. 나는 마음속으로 선생을 스승으로 삼아 본받았으며[私淑], 다른 이들보다 특히 우러러 보았다.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왔으니 집 모퉁이의 먼지가 묻어 더러워졌을까 살피며 귀중히 보살피니, 공경을 다하여 보존하는 것이 완전히 고치는 것과 같았다. 아, 선현이 남긴 은택이 세상 일과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마음이니 후배들에게 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9월 황윤석黃胤錫이 발문을 짓다.

해 설

이 시는 1677년 김수항이 유배지 전라도 염암에서 49세 새해를 맞으며 지은 작품이다. 김수항은 1674년 2차 예송논쟁에서 패한 뒤 1675년 전라도 영암으로 유배되었다. 1676년 7월 왕의 특명으로 석방될 뻔 했지만 무산되며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된다. 처음에는 죄인이기에 유람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지만, 이 이후로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해 12월 도갑사道岬寺 승려들의 강한 권유로 월출산을 다녀왔고, 이 유람은 김수항과 아들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김수항은 유배지의 낯선 환경에 적응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았으며, 도갑사 등 크고 작은 암자의 스님들과 만나면서 사상을 초월한 교유를 하였다. 이 시는 월출산 유람 경험 후 새로워진 마음가짐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수항이 월출산을 유람하고 찾은 담담하고 달관적인 태도는 그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김수항 사후 1702년에 이무림李茂林이 김창협에게 이 시를 직접 써달라고 요청하여서 김창협이 아버지의 시를 직접 써서 주었다. 발문을 쓴 황윤석(1729-1791)은 전라도 흥덕현 출신으로 김원행金元行(1702-1772)의 문인이다. 그는 외가가 있던 태인[武城]에도 거주한 인연으로 이 시첩을 보게 되었다.

—

This album includes ten poems composed by Kim Suhang on New Year's Day 1677 (when he was forty-eight years old), written in calligraphy by his son, Kim Changhyeop. The ten poems borrowed the rhyme scheme of the poem "Appropriating the Rhymes of 'The Last Day of the Year to the Beginning of Spring'" (次韻沖卿除日立春) by Wang Anshi, a poet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In 1675, when his faction lost a political struggle, Kim Suhang was exiled to Yeongam, Jeolla Province. While living there in late December 1676, he climbed Mt. Wolchul with his son Kim Changhyeop. Days later, he wrote these poems, in which he expressed his New Year's resolutions and lamented being away from his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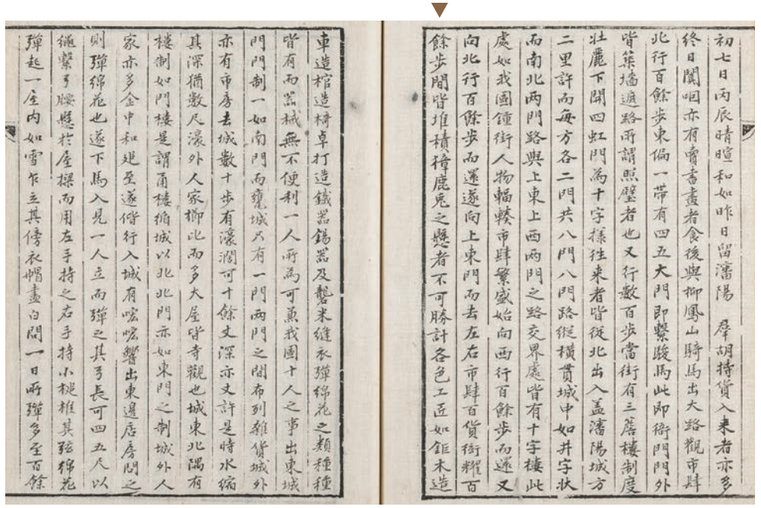
월출산

노가재연행일기
『老稼齋燕行日記』
Nogajae's Travelog to Beijing

22

김창업
조선 후기
책, 필사본, 30.1×19.7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im Changeop
Late Joseon Dynasty
Ink on paper, 30.1×19.7cm
Kyujangk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원 문

各色工匠, 如鋸木造車造棺造椅卓, 打造鐵器錫器及鞾米縫衣彈綿花之類, 種種皆有. 而器械無不便利, 一人所爲, 可兼我國十人之事. …(중간 생략)… 金中和追至, 遂偕行入城, 有吆吆響出東邊店房, 問之則彈綿花也. 遂下馬入見, 一人立而彈之, 其弓長可四五尺, 以繩繫弓腰, 懸於屋樑, 而用左手持之, 右手持小槌椎其弦. 綿花彈起, 一屋內如雪, 乍立其傍, 衣帽盡白. 問一日所彈, 多至百餘斤云. 其弦用羊腸爲之, 取其勒而難斷. 貫以鐵環, 使遊移往來, 是防綿花塵結也.

번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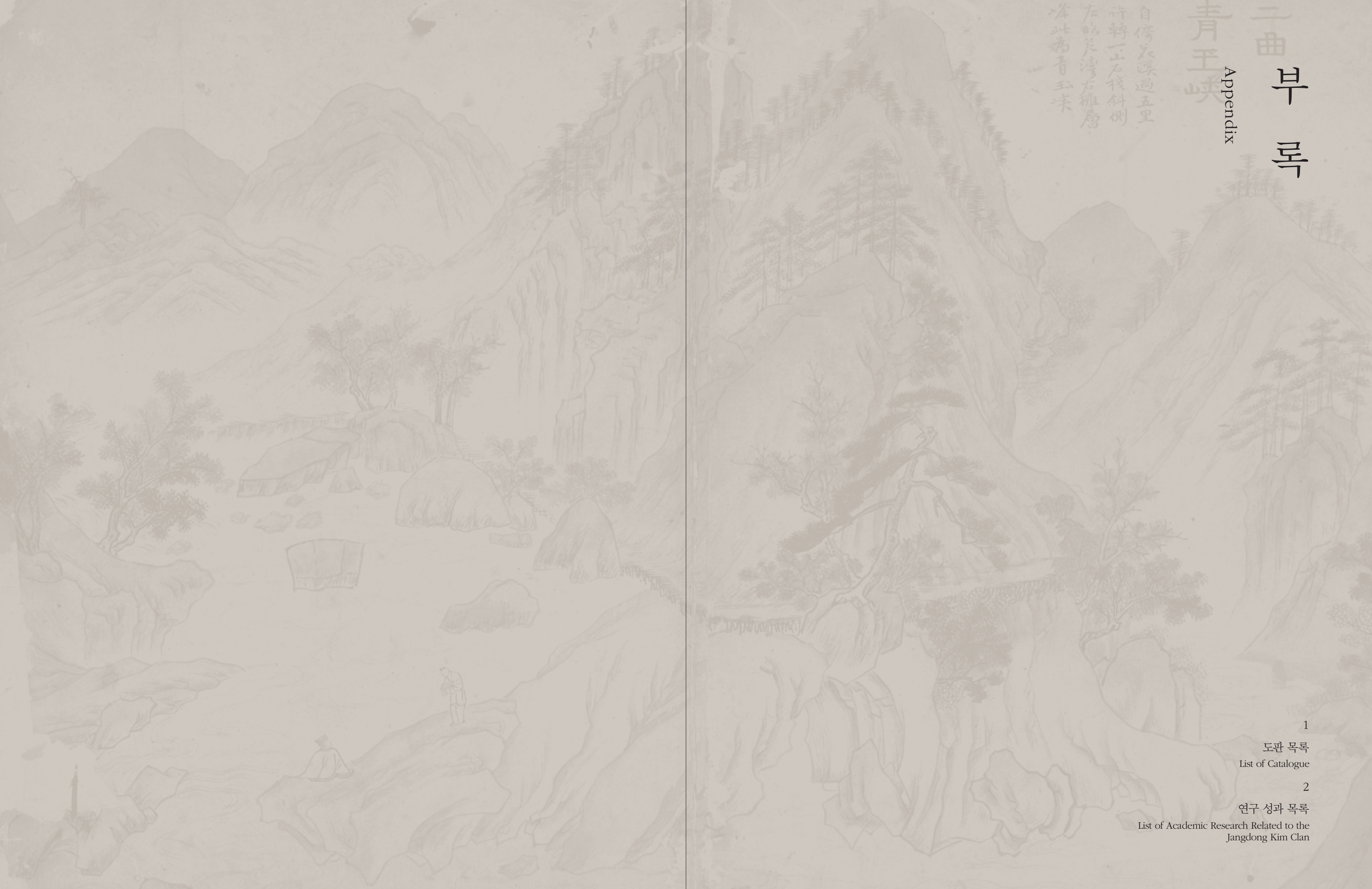
또 각종 공장이 있으니, 나무를 켜는 곳, 수레 만드는 곳, 관을 짜는 곳, 의자·탁자를 만드는 곳, 철기·사기를 만드는 곳, 쌀을 찧는 곳, 옷을 만드는 곳, 목화솜을 타는 곳 등 온갖 것이 있는데, 기계가 어찌나 편리한지 한 사람이 하는 분량이 우리나라의 열 사람 몫은 되었다.…(중간 생략)… 김중화金中和가 뒤쫓아와서 함께 성으로 들어가는데, 탕탕 하는 소리가 동쪽 점방으로부터 메아리쳐 들려오기에 물어보니, 솜 타는 소리라고 한다. 이윽고 말에서 내려 들어가 보았다. 한 사람이 서서 타는데, 활의 길이가 4, 5척이나 되며, 줄을 활 허리에 묶어 들보에 달아 놓고 왼손으로 그것을 잡고 오른손으로 작은 방망이를 들고 활줄을 치니, 목화솜이 타지면서 온 방 안에 눈이 날리듯 하였다. 잠시 옆에 서 있는데도 옷과 모자가 모두 하얗게 되었다. 하루에 타는 양을 물었더니, 많이 타면 100여 근에 이른다고 하였다. 활줄은 양羊 창자로 하여 질겨서 끊어지지 않으며, 거기에다 쇠고리를 꿰어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였다. 이것은 활줄에 솜이 엉켜 붙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해 설

1712년(숙종 38) 김창업이 동지 겸 사은정사冬至兼謝恩正使 김창집金昌集을 따라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1712년(숙종 38) 11월 3일부터 이듬해 3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의 일기를 기록한 것이다. 산천과 풍속에 대한 기록이 가장 풍부하다. 청나라의 진기한 풍속, 한인과 청인의 차이, 청 지배하에서 한인의 제도 변화와 청인의 변모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였으며, 북경北京까지의 성제城制, 가옥家屋·음식·의복 등의 풍물 및 수레·벽돌사용 등 생활상, 한인漢人·청인淸人과의 대담, 명·청교체기의 야사野史 및 사적지와 회고담, 각 지역의 조선 출신 장상將相들의 일화들을 기록하였다. 과거제에 관한 대담, 사관寺觀의 구조 등도 기록되어 있다.

—

In 1712, Kim Changeop traveled to Beijing with a group of Joseon envoys led by his brother Kim Changjip. He wrote about this experience in a detailed travelogue, which includes thorough descriptions of the Chinese landscape, culture, and customs, as well as transcripts of conversations that he had there. The book came to be regarded as one of the best records of travel to China ever published in Korea. From a young age, he showed a talent for painting, which he continued to pursue as an adolescent and young man. However, concerned that painting would distract his son from studying, his father advised him to stop painting. Nevertheless, his artistic talent was handed down to his own son, Kim Yungyeom.



부 록

Appendix

1

도판 목록

List of Catalogue

2

연구 성과 목록

List of Academic Research Related to the Jangdong Kim Clan

도판 목록 List of Catalogue

I 충절의 상징, 사림 명문가가 되다
Representative Family of Loyalty

1
김상용순의비 탑본
金尙容殉義碑搨本
Rubbings of Steles for the Loyalty of Kim Sangyong

글 김창협, 글씨 김수증, 전서 김창집
지識 김이양金履陽, 글씨 김희순金羲淳
탑본 20세기
비석 조선, 1700년(숙종 26), 1817년(순조 17)
탑본, 종이에 먹, 166.0×67.0cm
본관414(탑본)

참고 1-1
김상용의 졸기
金尙容卒記

『인조실록仁祖實錄』 권34
조선, 1637년 1월 22일
책, 금속활자본, 54.9×34.0cm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참고 1-2
김상용에 대한 제문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돌려주다
此祭文還出給

『인조실록』 권35
조선, 1637년 10월 28일
책, 금속활자본, 54.9×34.0cm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참고 1-3
의리를 지키기 위해 순절하다 - 김상헌이 쓴 김상용 행장에서
伯氏右議政仙源先生行狀

김상헌
『청음선생집淸陰先生集』 권37
조선, 1640년경
책, 목판본
19.8×15.0cm
구9569

참고 1-4
김상용이 직접 지은 자신의 묘지명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
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仙源居士
自述墓銘

김상용
『선원유고仙源遺稿』 하下
조선, 1634년경
책, 목판본, 18.7×16.0cm
한국문집총간65

2
외할아버지의 문집인 『임당유고』 발문
『林塘遺稿』跋
Postscript of *Collected Works of Jeong Yugil*

김상헌
『임당유고林塘遺稿』
조선, 1621년 글, 1638년 간행
책, 목판본, 32.0×20.6cm
구4062

3
『종덕신편』 뒤에 쓰다
題種德新編後
Postscript on *New Edition of Cultivation of Morals* (種德新編)

김수항
『종덕신편種德新編』 (김육金堉 저)
조선, 1644년
책, 목판본, 33.0×21.3cm
구4058

참고 1-5
풍계 김공이 직접 지은 자신의 묘지명에 덧붙여 쓰다
故右議政楓溪金公自撰墓銘後敍

장유張維(1587–1638)
『계곡선생집溪谷先生集』 권7
조선, 1640년경
책, 목판본, 31.4×19.2cm
구6300

4
곡운 김수증 선생 묘표 탑본첩
谷雲先生墓表搨本帖
Album of Rubbings of the Epitaph from the Tomb of Kim Sujeung and His Wife

글 김창흡
조선 후기
첩, 탑본, 각 면 40.6×28.5cm
덕수2255

5
김수흥묘지명 탑본첩
金壽興墓誌銘搨本帖
Album of Rubbings of the Epitaph from the Tomb of Kim Suheung and His Wife

글 김창협, 글씨 김창흡
조선, 18세기
첩, 탑본, 각 면 32.0×19.0cm
구5342

II 한 장의 종이에 마음을 담아 전하다
Letters Written from the Heart

6
김수항 김창협 간찰첩
金壽恒金昌協簡札帖
Album of Letters by Kim Suhang and Kim Changhyeop

김수항, 김창협
조선, 17–18세기
첩, 종이에 먹, 각 면 38.5×26.5cm
구8678

6-1
김수항이 유창에게 보낸 편지 (1678.9.20.)
金壽恒筆 簡札
Kim Suhang's Letter to Yu Chang

6-2
김수항이 유창에게 보낸 편지 (1679.2.19.)
金壽恒筆 簡札
Kim Suhang's Letter to Yu Chang

6-3
김수항이 유창에게 보낸 편지 (1679.3.10.)
金壽恒筆 簡札
Kim Suhang's Letter to Yu Chang

6-4
김수항이 유창에게 보낸 편지 (1679.3.22.)
金壽恒筆 簡札
Kim Suhang's Letter to Yu Chang

6-5
김수항이 유창에게 보낸 편지 (1679.6.20.)
金壽恒筆 簡札
Kim Suhang's Letter to Yu Chang

6-6
김수항이 유창에게 보낸 편지 (1679.10.25.)
金壽恒筆 簡札
Kim Suhang's Letter to Yu Chang

6-7
김창협이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미상)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참고 6-1
유참판[유창] 부인에 대한 만사
兪叅判[瑒]夫人挽

김창협
『농암집農巖集』 권2
조선, 1688년경 글, 1769년 간행
책, 목판본, 28.5×17.6cm
구2325

6-8
김창협이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미상)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9
김창협이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694.2.28.)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10
김창협이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694.6.25.)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11
김창협이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미상)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12
김창협이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694.7.13.)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13
김창협이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미상)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14
김창협이 강원감사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697.1.14.)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15
김창협이 호조참의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700.9.3.)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16
김창협이 호조참의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700.10.14.)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17
김창협이 함경감사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701.9.4.)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참고 6-2
먼저 떠난 나의 딸에게
亡女吳氏婦墓誌銘

김창협
『농암집』 권27
조선, 1700년경
책, 목판본, 28.5×17.6cm
구2325

참고 6-3
죽은 아들의 무덤에 쓰다
亡兒墓表

김창협
『농암집』 권28
조선, 1700년경
책, 목판본, 각 면 28.5×17.6cm
구2325

6-18
김창협이 함경감사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701.12.20.)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19
김창협이 함경감사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702.5.19.)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20
김창협이 병조판서 유득일에게
보낸 편지
(1705.7.8.)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to Yu Deukil

6-21
김창협이 쓴 편지
(미상)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참고 6-4
연경 가는 유영숙에게
贈兪寧叔赴燕序

김창협
『농암집』 권22
조선, 1706년
책, 목판본, 각 면 28.5×17.6cm
구2325

7
김상용이 쓴 편지
金尙容筆 簡札
Kim Sangyong's Letters

김상용
조선, 1631년, 1632년
간찰, 종이에 먹, 39.4×61.2cm
구7027

8
김상헌이 쓴 편지
金尙憲筆 簡札
Kim Sangheon's Letter

김상헌
조선, 17세기
첩, 종이에 먹, 39.3×60.8cm
1981년 이홍근 기증, 동원3786

9
김상헌이 손자에게 쓴 편지
寄孫壽增兄弟
Kim Sangheon's Letter to grandsons

김상헌
『청음선생집』 권40
조선, 1861년 간행
책, 목판본, 30.5×20.2cm
구9569

10
김상헌이 쓴 편지
金尙憲筆 簡札
Kim Sangheon's Letter

김상헌
조선, 1642년
간찰, 종이에 먹, 39.3×60.8cm
구7029

11
김씨오선생진적
金氏五先生眞跡
Album of Letters by
Five Members of the Kim Clan

김수증 외
조선 후기
첩, 종이에 먹, 각 면 30.4×17.2cm
구8679

11-1
김수증이 쓴 편지
(1679.7.26.)
金壽增筆 簡札
Kim Sujeung's Letter

11-2
김수항이 쓴 편지
(1677.4.12.)
金壽恒筆 簡札
Kim Suhang's Letter

11-3
김창집이 쓴 편지 (1700.3.13.)
金昌集筆 簡札
Kim Changjip's Letter

12-2
김수항이 쓴 편지 (1669.9.7.)
金壽恒筆 簡札
Kim Suhang's Letter

14
김수항이 쓴 편지
金壽恒筆 簡札
Kim Suhang's Letter

김수항
조선, 1670년
간찰, 종이에 먹, 34.7×37.3cm
구7256

11-4
김창흡이 이덕수에게 보낸 편지(일부) (1703)
與李德壽
Kim Changheup's Letter to Yi Deoksu

12-3
김창집이 쓴 편지 (1703.2.5.)
金昌集筆 簡札
Kim Changjip's Letter

15
김창흡이 쓴 편지
金昌翕筆 簡札
Kim Changheup's Letter

김창흡
조선, 1720년
간찰, 종이에 먹, 36.1×47.5cm
구9602

12
간찰첩
簡札帖
Album of Letters

김수흥 외
조선, 17-19세기
첩, 종이에 먹, 각 면 38.0×27.7cm
구7249

12-4
김창협이 쓴 편지 (1684.10.27.)
金昌協筆 簡札
Kim Changhyeop's Letter

16
김창흡이 쓴 편지
金昌翕筆 簡札
Kim Changheup's Letter

김창흡
조선, 18세기
간찰, 종이에 먹, 33.8×56.0cm
구9603

12-1
김수흥이 쓴 편지 (1673.2.28.)
金壽興筆 簡札
Kim Suheung's Letter

13
김수흥이 쓴 편지
金壽興筆 簡札
Kim Suheung's Letter

김수흥
조선, 1655년 2월
간찰, 종이에 먹, 34.4×59.0cm
구7219

III 사대부 문화를 선도하다
Leaders of Literati Culture

18
군옥소기
羣玉所記
Culture of Seals

김상헌
『청음선생집』 권38
조선, 17세기
책, 목판본, 30.5×20.2cm
구9569

21
김수항시 김창협필 서첩
金壽恒詩金昌協筆書帖
Album of Poetry

글 김수항, 글씨 김창협
조선, 1702년
첩, 종이에 먹, 각 면 52.3×30.5cm
구8720

17
김상용이 전서를 쓴 행주대첩비 탑본
幸州大捷碑搨本
Album of Rubbings from the Stele of the Battle of Haengju

글씨(전서) 김상용
조선, 1602년
첩, 탑본, 각 면 35.1×24.4cm
구2294

19
김수증이 쓴 「고산구곡담기」
金壽增筆高山九曲潭記
Nine Bends at Gosan (高山九曲潭記)

글 최립崔岦(1539-1612), 글씨 김수증
『육일첩六一帖』
조선, 17세기
첩, 종이에 먹, 각 면 31.5×20.0cm
덕수2932

22
노가재연행일기
『老稼齋燕行日記』
Nogajae's Travelog to Beijing

김창업
조선 후기
책, 필사본, 30.1×19.7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참고 17-1
큰 형이 남긴 서첩에 쓰다
題伯氏書跡帖

김상헌
『청음선생집』 권39
조선, 1640년경
책, 목판본, 30.5×20.2cm
구9569

참고 19-1
한나라 예서를 모은 첩 뒤에 쓰다
書漢隸帖後

김수증
『곡운집谷雲集』
조선, 1711년 간행
책, 목판본, 21.3×16.0cm
한국문집총간125

참고 17-2
『선원유고』 서문
『仙源遺稿』序

신익성申翊聖(1588-1644)
『선원유고』 상
조선, 1640년 간행
책, 목판본, 20.0×17.0cm
한국문집총간65

20
곡운구곡도첩
谷雲九曲圖帖
Album of Nine Bends at Gogun

김수증 외
조선 후기
첩, 종이에 채색
각 면 42.5×32.0cm
본관10681

연구 성과 목록 List of Academic Research Related to the Jangdong Kim Clan

단행본

-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7.
- 고동환, 『朝鮮後期 서울 商業發達史研究』, 지식산업사, 1998.
-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일지사, 2001.
- 고영진, 『조선시대 사상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풀빛, 1999.
- 길진숙, 『18세기 조선의 백수 지성 탐사:김창협·이익·이용휴·홍대용의 삶과 글쓰기』, 북드라망, 2016.
- 김도련 편, 『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 태학사, 1998.
- 김명호, 『熱河日記 研究』, 창작과비평사, 1990.
- 김문식, 『조선후기 경학사상 연구』, 일조각, 1997.
- 김성윤, 『朝鮮後期 蕩平政治 研究』, 지식산업사, 1997.
- 김영상, 『서울 六百年』, 태학당, 1996.
- 김원룡, 『韓國 古美術의 理解』, 서울대출판부, 1981.
- 김태준, 『홍대용 평전』, 민음사, 1987.
- 노명호 외 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 上下, 서울대출판부, 2000.
- 민족문화추진회, 『(신편 국역)농암 김창협 문집』, 한국학술정보, 2006.
- 박홍갑, 『朝鮮時代 門蔭制度 研究』, 탐구당, 1994.
- 박희병, 『韓國古典人物傳研究』, 한길사, 1993.
- _____,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게, 1999.
-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
- 송재소 외, 『李朝後期 漢文學의 再照明』, 창작과비평사, 1983.
- 송지원 외, 『새로 쓰는 예술사:한국문화 이천년을 이끈 예술후원자들』, 글항아리, 2014.
- 심경호, 『내면기행:옛사람이 스스로 쓴 58편의 묘비명 읽기』, 민음사, 2018.
- 심경호 외, 『북한강유역의 유학사상』,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 심영환 외, 『韓國簡札資料選集 19, 金昌協의 農巖眞蹟』,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 勞思光 저, 정인재 역, 『中國哲學史』, 탐구당, 1987.
- 오수창, 『朝鮮後期 平安道 社會發展 研究』, 일조각, 2002.
- 유명종, 『朝鮮後期 性理學』, 이문출판사, 1985.
- 유봉학, 『燕巖一派 北學思想 研究』, 일지사, 1995.
- _____,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 유준영 외, 『권력과 은둔:조선의 은둔문화와 김수증의 곡운구곡』, 북코리아, 2010.
- 이광규, 『한국의 家族과 宗法』, 민음사, 1990.
- 이경구, 『조선후기 安東 金門 연구』, 일지사, 2007.
- _____, 『조선, 철학의 왕국:호락논쟁湖洛論爭 이야기』, 푸른역사, 2018.
- 이병도, 『韓國儒學史』, 아세아문화사, 1986.
- 이상익, 『畿湖性理學研究』, 한울, 1998.
- 이성무, 정만조 외,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이성무, 『韓國의 科擧制度』, 집문당, 1994.
- _____, 『조선시대 당쟁사』, 아름다운날, 2007.
- 이승수, 『三淵金昌翕研究』, 안동김씨삼연공파종중, 1998.
- 이우성, 임형택, 『李朝漢文短篇集』, 上中下, 일조각, 1996.
- 이　찬, 『韓國의 古地圖』, 범우사, 1991.
- 이태진 외,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범조사, 1985.
-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 정병삼 외,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 정옥자 외, 『조선시대 문화사』, 일지사, 2007.
- 진영미, 『農巖 金昌協 詩論研究』, 보고사, 1999.
- 차용주, 『農巖 金昌協 研究』, 경인문화사, 2007.
- 차장섭, 『朝鮮後期閥閱研究』, 일조각, 1997.
- 최봉영 외, 『朝鮮時代의 社會와 思想』, 조선사연구회, 1998.
- 최완수, 『謙齋鄭敾 眞景山水畵』, 범우사, 1993.
- 최완수 외, 『진경시대』1·2, 돌베개, 1998.
- 최재석,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일지사, 1991.
- 최진옥, 『朝鮮時代 生員進士研究』, 집문당, 1998.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 한신대학교박물관, 『곡운 김수증의 예서:한국적 예서의 등장』, 한신대학교박물관, 2009.
- 한영우, 『朝鮮後期史學研究』, 일지사, 1989.
- _____, 『다시찾은 우리역사』, 경세원, 2003.
- 현상윤, 『朝鮮儒學史』, 민중서관, 1949.

학위논문

- 강혜선, 『김창협 고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규순, 『조선시대 상경 재지사족의 본원적 공간 형성 연구:안동김문의 김번 가계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김남기, 『三淵 金昌翕의 詩文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김명숙, 『勢道政治期(1880-1863)의 政治行態와 政治運營論-反安東金氏勢力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김세호, 『17-18세기 壯洞金氏 淸陰派의 園林 文化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김아리, 『老稼齊燕行日記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영진, 『金昌協의 文學批評論』,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김영진, 『朝鮮後期의 明淸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인걸, 『朝鮮後期 鄕村社會 변동에 관한 연구-18, 19세기 '鄕權'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준석, 『朝鮮後期 國家再造論의 擡頭와 그 展開』,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학위논문

- 김하윤, 『淸陰 金尙憲의 漢詩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김헌애, 『朝鮮時代 隷書 硏究-金壽增의 八分을 中心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노대환, 『19세기 東道西器論 形成過程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문석윤, 『朝鮮後期 湖洛論爭의 成立史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박광용, 『朝鮮後期 '蕩平'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박두원, 『農巖 金昌協의 文論에 관한 연구 : 古文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박명희, 『朝鮮後期 時論 硏究 : 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昌翕을 中心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박은정, 『17C 말 18C 전기 農巖 계열 문장가들의 古文論 연구 : 金昌協·李宜顯·李德壽·申靖夏·李夏坤의 韓歐正脈論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박지선,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박철상, 『조선시대 금석학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배재홍, 『朝鮮後期 庶孼 許通과 身分地位의 變動』,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서정아, 『稼齋燕行錄을 통해 본 金昌業의 淸 文物에 관한 인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송희경, 『金尙憲의 節義意識과 人文精神에 關한 硏究』,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신동섭, 『조선 후기 명승에 대한 사실적 인식의 발전 : 장동 김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안득용,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山水遊記 硏究 : 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昌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안영길, 『金昌協의 文學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양미경, 『김창협 예술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오승준, 『農巖 金昌協의 記文 硏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오용원, 『農巖 金昌協의 詩文學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우인수, 『17세기 산림의 세력기반과 정치적 기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윤민경, 『세도정치기 安東 金門의 정치적 기반 : 국왕, 유력가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윤은영, 『김창협 문학이론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硏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경구, 『17~18세기 壯洞 金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군선, 『金昌業『燕行日記』의 敍述視角과 手法에 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동영, 『農巖 金昌協의 詩文學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이심권, 『三淵 金昌翕의 樓亭詩 硏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애희, 『朝鮮後期 人性과 物性에 대한 論諍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이종호, 『三淵 金昌翕의 詩論에 關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이천승, 『農巖 金昌協의 心性論에 대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효숙, 『17~18세기 장동 김문壯洞 金門의 산수문학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위 홍, 『《老稼齋燕行日記》 硏究 : 對淸意識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장필기, 『朝鮮後期 武班家門의 閥閱化와 그 性格』,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전은성, 『17-18세기 장동壯洞 김문金門의 차생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정경훈, 『農巖 金昌協의 古文硏究 : 碑誌文을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정 단, 『夢窩金昌集과 老稼齋 金昌業의 燕行壎篪錄 硏究』,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조규희, 『朝鮮時代 別墅圖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조명주, 『雪窖酬唱集을 통해 본 淸陰 金尙憲의 詩硏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조준호, 『朝鮮 肅宗~英祖代 近畿地域 老論學脈 硏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조호현, 『農巖 金昌協과 叔涵 金載海의 사상적 대립 연구 : 知覺論과 未發論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진영미, 『농암 김창협 시론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채환종, 『農巖 金昌協 文學硏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최성환, 『朝鮮後期 寒泉精舍의 門人敎育과 鄕村講會』,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최은혜, 『金壽增의 谷雲九曲 경영과 문학 활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최천식, 『김창협 철학 연구-지각론知覺論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이창규, 『農巖 金昌協의 知覺論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최현태, 『農巖 金昌協 詩論 硏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하진규, 『淸陰 金尙憲의 生涯와 文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허남진, 『朝鮮後期 氣哲學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허윤성, 『농암 김창협의 자연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황만기, 『淸陰 金尙憲 詩文學에 나타난 義理精神』,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황인건, 『谷雲 金壽增의 山水文學 硏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황인천, 『文谷 金壽恒의 祭文 硏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학술논문

- 강민구, 「죽음에서 자아올린 生의 기억-생신제시문生辰祭詩文에 대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70, 한국한문학회, 2018.
- 강전섭, 「'션원강도록'의 意味」, 『한국학보』 47, 일지사, 1987.
- 고동환, 「조선후기 漢城府 행정편제의 변화」, 『서울학연구』 11,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8.
- 구본현,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의 동장東庄에 대하여」, 『退溪學論叢』 14, 퇴계학부산연구원, 2008.
- _____,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 한시漢詩 연구硏究」, 『한국한시작가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9.
- _____, 「옛 문인文人들이 사랑한 서울의 동북 지역」, 『인문과학연구』 15,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 구사회, 김영, 「새로운 한글 유산록 〈금강산졀긔 동유록〉의 작자와 작품 분석」, 『동악어문학』 73, 동악어문학회, 2017.
- 김경숙, 「조선후기 門中通文의 類型과 성격」, 『古文書硏究』 19, 한국고문서학회, 2001.
- 김경옥, 「朝鮮後期 靈巖士族과 書院-全州崔氏家門의 成長과 鹿洞書院의 建立事例」, 『호남문화연구』 20,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91.
- 김근태, 이훈, 「설악산 遊記文 원문 및 해제」, 『강원문화연구』 31,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12.
- 김남기, 「김창흡의 〈送大有隨伯氏赴燕〉에 대하여」, 『규장각』 2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7.
- _____, 「金信謙의 〈百六哀吟〉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22, 한국한문학회, 1998.
- _____, 「김창업과 김창흡을 추도한 조정만의 만시」, 『한국한시연구』 10, 한국한시학회, 2002.

학술논문

- _____, 「김수흥金壽興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1, 한국한시학회, 2007.
- _____, 「김창집金昌集의 삶과 시 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2, 한국한시학회, 2008.
- 김상조, 「김창업金昌業의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 연구」, 『영주어문』 10, 영주어문학회, 2005.
- 김순희, 「澤齋 金昌立의 『澤齋遺唾』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9, 서지학회, 2011.
- _____, 「『文谷集』의 서지학적 고찰」, 『서지학연구』 50, 서지학회, 2011.
- 김세호, 「김수증의 일사정一絲亭」, 『문헌과 해석』 67, 태학사, 2014.
- _____, 「17-18세기 안동김문安東金門이 향유享有한 매화梅花의 문화사文化史」, 『韓國漢文學硏究』 63, 한국한문학회, 2016.
- _____, 「정약용이 고친 곡운구곡에 대한 김수증의 반박」, 『문헌과 해석』 74, 태학사, 2016.
- 김아리,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의 글쓰기 방식 :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25, 한국한문학회, 2000.
- 김영진, 「스승의 뜻이 담긴 책, 『文趣』」, 『문헌과 해석』 24, 태학사, 2004.
- _____, 「조선후기 "와유록臥遊錄" 이본 연구」, 『고전문학연구』 48, 한국고전문학회, 2015.
- _____, 「김조金照의 연행록 『관해록觀海錄』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50, 한국한문학회, 2015.
- 김은정, 「한국한문학의 지역 간 교섭과 문화의 역동적 생성 : 17세기 이수二水일대 가문의 교섭과 문화교류」, 『한국한문학연구』 53, 한국한문학회, 2014.
- _____, 「수북水北 김광현金光炫의 생애와 한시 연구」, 『한국한시연구』 25, 한국한시학회, 2017.
- 김인숙, 「곡운 김수증의 산수관에 관한 연구」, 『동아인문학』 31, 동아인문학회, 2015.
- 김의숙, 「화천의 곡운구곡과 김수증 연구」, 『강원민속학』 20, 강원도민속학회, 2006.
- 김하윤, 「金尙憲 漢詩에 사용된 '惆悵'의 쓰임새 考察」, 『어문연구』 78, 어문연구학회, 2013.
- _____, 「淸陰 金尙憲 上疏文의 특징과 설득전략」, 『한민족어문학』 70, 한민족어문학회, 2015.
- _____,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한시漢詩에 나타난 지식인의 고뇌苦惱와 초탈超脫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78, 한민족어문학회, 2017.
- 김현철, 「19세기 전반기 연행사절의 중국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6,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4.
- 김학수, 「17세기의 名家-壯洞金氏」, 『문헌과 해석』 12, 태학사, 2000.
- 김형찬, 「安東 金門의 지식논쟁과 지식권력의 형성 : 農巖 金昌協의 학문적 입장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 권기석, 「19세기 勢道政治 勢力의 形成 背景(上下)-조선후기 집권세력의 通婚關係網 분석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0, 91, 진단학회, 2000, 2001.
- 노경희, 「『燕彙』의 이본 검토를 통한 조선후기 연행록의 유통과 전승」, 『규장각』 4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2.
- 노관범, 「19세기 후반 湖西山林의 位相과 '正學' 운동-淵齊 宋秉璿(1836-1905)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3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8.
- 문희순, 「『안동세고』와 『연주록』」, 『문헌과해석』 21, 태학사, 2002.
- 박광용, 「正祖년간 時僻黨爭論에 대한 再檢討」, 『한국문화』 10,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0.
- _____, 「19세기 전반의 정치 사상」, 『국사관논총』 40, 국사편찬위원회, 1992.
- 박명희, 「文谷 金壽恒 시문에 投影된 月出山의 이미지」, 『호남문화연구』 29,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2001.
- _____,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의 시문에 구현된 영암靈巖 유배지에서의 생활」, 『호남문화연구』 43,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8.
- 박지선, 「김창업金昌業의 『노가재연행일기老嫁齋燕行日記』 연구硏究-대청인식對淸認識과 문화교류 양상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2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5.
- 박철상, 「조선후기 문인들의 인장印章에 대한 인식의 일면」, 『한문교육연구』 35,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 _____, 「조선시대朝鮮時代 금석문金石文 자료의 정리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10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 부유섭, 「壯洞 金門의 서적 유통과 지식 재생산」, 『민족문화』 41, 한국고전번역원, 2013.
- 서 의, 「김창업과 청조 문사의 교유에 대한 고찰」, 『淵民學志』 13, 연민학회, 2010.
- 손찬식, 「浩然齋 金氏의 詩文學 硏究」, 『온지논총』 4, 온지학회, 1998.
- 송미령,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본 淸朝의 統治」, 『명청사연구』 23, 명청사학회, 2005.
- 신익철, 「18세기 연행록을 통해본 한중 문화교류의 양상」,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2015 10-1, 한중인문학포럼, 2015.
- 신효련, 「노가재 『연행일기』 국문본의 이본 고찰-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49, 열상고전연구회, 2016.
- 안대회, 「조선후기 自撰墓誌銘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1, 한국한문학회, 2003.
- _____, 「조선후기 사대부士大夫의 집과 삶과 기록」,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 _____, 「18세기 시사詩社의 현황과 전개양상」, 『고전문학연구』 44, 한국고전문학회, 2013.
- 안세현, 「일본 동경대 오구라문고 소장 『경람敬覽』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60, 한국한문학회, 2015.
- 양보경, 「서울의 공간확대와 시민의 삶」, 『서울학연구』 창간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4.
- 오수창, 「仁祖代 政治勢力의 動向」, 『한국사론』 1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5.
- _____, 「文谷 金壽恒과 己巳士禍」, 『한국인물사연구』 25, 한국인물사연구회, 2016.
- 우경섭, 「金長生의 經學思想」, 『한국학보』 103, 한국학보, 2001.
- 유봉학, 「정조대 정국 동향과 화성성역의 추이」, 『규장각』 1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6.
- _____, 「楓皐 金祖淳 연구」, 『한국문화』 19,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7.
- 유영봉,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의 시문詩文에 깃든 가족사家族史[1]」, 『한문학보』 29, 우리한문학회, 2013.
- 유영석 외, 「전통 명승名勝의 현재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 화천 곡운구곡谷雲九曲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5,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3.
- 유정열, 「중국 노승에 대한 김창업金昌業의 관심과 그 시대적 의미」, 『국문학연구』 29, 국문학회, 2014.
- 윤경희, 「김창흡金昌翕의 단구일기丹丘日記 연구」, 『민족문화연구』 4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 _____, 「18세기 초 장동 김씨 일문의 연행 체험 : 김창집金昌集의 「연행훈지록」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19,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7.
- _____, 「金昌業의 燕行文學에 나타난 瀋陽」, 『한국언어문학』 67, 한국언어문학회, 2008.
- _____, 「儒人金氏 祭文 硏究」, 『동양고전연구』 40, 동양고전학회, 2010.
- 윤승준, 「청음 김상헌 "「관동별곡」 번사"에 대하여」, 『한문학논집』 12, 근역한문학회, 1994.
- 윤진영, 「조선후기 西村의 명소와 진경산수화의 재조명」, 『서울학연구』 50,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3.
- 이경구, 「金昌翕의 學風과 湖洛論爭」, 『한국사론』 3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6.
- _____, 「영조~순조 연간 湖洛論爭의 전개」, 『한국학보』 93, 한국학보, 1998.

- _____, 「金元行의 實心 강조와 石室書院에서의 교육 활동」,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1999.
- _____, 「조선후기 安東 金門의 의리 실현과 정치 활동」, 『한국문화』 30,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2.
- _____, 「조선 후기 유력 가문 형성의 한 사례 : 壯洞 金門을 중심으로」, 『규장각』 2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3.
- _____, 「곡운 김수증의 은거 생활과 문예 활동」, 『한국학보』 30, 일지사, 2004.
- _____, 「17-18세기 안동 김문이 조성한 공간들」, 『한자한문연구』 7,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11.
- _____, 「조선 후기 안동 김문의 의리관」, 『朝鮮時代史學報』 64, 조선시대사학회, 2013.
- 이경수,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의 은둔시隱遁詩」, 『강원문화연구』 25,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6.
- _____, 「김수증金壽增의 생애生涯와 시세계時世界」, 『한국한시작가연구』 11, 한국한시학회, 2007.
- 이근호, 「蕩平政局下 安東金門의 政治的 位相」, 『한자한문연구』 7,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11.
- 이기현, 「19세기 중, 후반의 척독집 수용과 편찬」, 『한문교육연구』 28,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 이봉규, 「朝鮮性理學의 傳統에서 본 宋時烈의 性理學 思想」, 『한국문화』 1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 이상원, 「『고산구곡시화병高山九曲詩畵屛』의 구성상 특징과 소재所載 시문詩文에 대한 검토」, 『국제어문』 31, 국제어문학회, 2004.
- 이승복, 「《遺敎》의 書誌와 文學的 性格」, 『규장각』 2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7.
- 이완우, 「곡운 김수증의 예서」, 『미술사학보』 12, 미술사학연구, 1999.
- 이종묵, 「18세기 한국한시의 다양성 : 김창업金昌業의 채소류 연작시連作詩와 조선 후기 한시사漢詩史의 한 국면」, 『한국한시연구』 18, 한국한시학회, 2010.
- _____, 「조선후기 燕行과 花卉의 文化史」, 『한국문화』 6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 이종호, 「장동김문壯洞金門의 은둔지外圃 경영과 김창흡金昌翕의 은일의식隱逸意識-매월당梅月堂과 곡운谷雲이 간 자리에 삼연三淵이 둥지를 틀다」, 『동방한문학』 32, 동방한문학회, 2007.
- _____, 「金壽增의 文藝志向과 家學傳受」, 『대동한문학』 31, 대동한문학회, 2009.
- _____, 「한국 한문학의 전통적 사유와 문예미 : 17~18세기 기유문예의 두 양상-농연그룹의 문예활동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이철희, 「연행의 길, 인문의 길 ; 연행 여정에서 형성된 "탈중화"의 두 번째 경로」, 『대동문화연구』 9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 이태진, 「18-19세기 서울의 근대적 도시 발달 양상」, 『서울학연구』 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5.
- 이학당, 「『老稼齋燕行日記』敍述技法의 특징」, 『한중인문학연구』 35, 한중인문학회, 2012.
- _____, 「전쟁戰爭과 한문학漢文學 ; 김창업金昌業의 명말청초明末淸初 전쟁戰爭 기억記憶」, 『동방한문학』 60, 동방한문학회, 2014.
- 이효숙, 「17~18세기 노론계 문인의 소옹의 시문 수용 양상」, 『우리문학연구』 25, 우리문학회, 2008.
- _____, 「장소성 개념을 통해 살펴 본 〈무이도가〉와 〈곡운구곡가〉 비교」, 『동아시아고대학』 24,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
- _____, 「조선후기 서인 노론계 문인들의 구곡시와 장소성」, 『국제어문』 59, 국제어문학회, 2013.
- 임홍선, 「金尙憲의 남사록」, 『논문집』 23, 제주대학교, 1994.

- 장성덕, 「文谷 金壽恒의 處世 양상」, 『한국인물사연구』 25, 한국인물사연구회, 2016.
- 전미자, 「金昌業 《燕行日記》 中的中國形象」, 『중국연구』 29,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2002.
- 전성건, 「선덕先德과 조훈祖訓의 기억 : 안동 김문의 가사家史 계승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 전혜숙, 「〈燕行日記〉의 服飾觀을 통해 본 對淸認識-金昌業의 〈燕行日記〉를 중심으로-」, 『韓服文化』 7, 한복문화학회, 2004.
- 정경희, 「숙종대 탕평론과 탕평의 시도」, 『한국사론』 30,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3.
- _____, 「숙종후반기 탕평정국의 변화」, 『한국학보』 79, 일지사, 1995.
- 정만조, 「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파의 활동」, 『진단학보』 56, 진단학회, 1983.
- _____,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재정립」, 『역사학보』 11, 역사학회, 1986.
- 정우봉, 「朝鮮 後期 散文理論의 展開와 그 性格(1)-16세기 말-17세기 초중반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1, 2001.
- _____, 「이학규 산문의 내면 풍경」, 『문헌과 해석』 38, 태학사, 2007.
- 정혜중, 「조선 선비의 청국 수도 北京見聞」, 『명청사연구』 23, 명청사학회, 2005.
- _____, 「18세기 조선지식인의 청국 여성관-김창업金昌業과 박지원朴趾源의 기록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73, 한국중국학회, 2015.
- 조규희, 「《谷雲九曲圖帖》의 多層的 의미」, 『美術史論壇』 23, 한국미술연구소, 2006.
- 조성산, 「18세기 湖洛論爭과 老論 思想界의 分化」, 『한국사상사학』 8, 한국사상학회, 1997.
- _____, 「17세기 후반 趙聖期의 學問傾向과 經世論」, 『한국사학보』 10, 고려사학회, 2001.
- _____, 「17세기 후반 경기지역 西人 象數學風의 형성과 의미」, 『한국사연구』 115, 한국사연구회, 2001.
- 조성을, 「조선 후기의 주체와 타자 인식 ; 조선후기 한국과 중국의 상호 인식-숙종말肅宗末, 영조초英祖初 양국의 사행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7, 한국사상학회, 2006.
- 조준호, 「朝鮮後期 石室書院의 位相과 學風」, 『조선시대사학보』 11, 조선시대사학회, 1999.
- _____, 「文谷 金壽恒의 家系과 政治的 活動」, 『한국학논총』 32,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 최경환, 「〈谷雲九谷圖〉와〈谷雲九谷歌〉의 비교-화면상의 풍경과 시적 풍경의 관계 양상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48, 동양한문학회, 2017.
- 최소자, 「18세기 金昌業, 洪大容, 朴趾源의 중국인식」, 『명청사연구』 32, 명청사학회, 2009.
- 최영희, 「김창업 『연행일기燕行日記』 문자의 조형성 고찰」, 『서예학연구』 24, 한국서예학회, 2014.
- 한국역사연구회 17세기유학사상사연구반, 「17세기전반 조선사상계의 동향과 그 성격」, 『역사와 현실』 8, 한국역사연구회, 1992.
- _____, 「17세기후반 조선사상계의 분화」, 『역사와 현실』 13, 한국역사연구회, 1994.
- 홍순민, 「숙종 초기의 정치구조와 환국」, 『한국사론』 1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6.
- 홍순석, 「農巖 金昌協과 抱川」, 『국문학논집』 22, 한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3.
- 황만기,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조천록朝天錄》 고찰考察-한시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3, 한국한문학회, 2009.
- _____, 「안동체류기에 있어서 청음 김상헌의 활동과 문학」, 『국학연구』 20, 한국국학진흥원, 2012.

• 표지 전체

김수증, 「주희의 무이도가武夷櫂歌를 차운하여 곡운구곡谷雲九曲을 노래하다」, 《곡운구곡도첩》, 조선 1692년, 첩, 종이에 먹, 각 면 42.5×32.0cm

• 뒷면

정선, 〈백운동〉, 《장동팔경첩》, 조선 18세기, 첩, 종이에 엷은 색, 각 면 33.1×29.5cm